

#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2022.12.



# 제 출 문

貴中 서울특별시

본 보고서를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용역」의 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2월

(주)피엠아이



# CONTENTS

<b>제1장 조사 개요</b>	<b>3</b>
제1절 조사 배경 및 목적	3
1. 조사 배경	3
2. 조사 목적	4
제2절 조사 설계	5
1. 고립·은둔 관련 연구 및 문헌자료 수집·분석	5
2.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설계	8
3.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관련 심층 인터뷰	9
<b>제2장 고립·은둔에 대한 이해</b>	<b>13</b>
제1절 고립·은둔의 개념적 정의 및 실태 파악 현황	13
1.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이론적 논의	13
2.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	17
3.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법적 논의	19
제2절 조작적 정의를 위한 고립·은둔 청년의 특성과 유형 이해	22
1. 고립 청년의 구분기준	22
<b>제3장 서울시 청년의 고립·은둔 규모 추정</b>	<b>27</b>
제1절 조사 개요	27
1. 조사 설계	27
2. 조사 내용	27
제2절 규모 추정	28
1. 고립·은둔의 조작적 정의	28
2. 분석 방법	29
3. 규모 추정 결과	30

# CONTENTS

## 제4장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 33

제1절 조사 개요 .....	33
1. 조사 설계 .....	33
2. 조사 내용 .....	33
3. 분석 방법 .....	34
4. 응답자 특성 .....	35
제2절 서울시 청년 및 고립·은둔 청년 비교 분석 .....	37
1. 고립 정도 및 실태 .....	37
2. 고립·은둔 청년의 생활실태 .....	106
3.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	148

## 제5장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유형화 분석 결과 ..... 171

제1절 분석 목적 및 방법 .....	171
1. 분석 목적 .....	171
2. 분석 방법 .....	171
제2절 분석 결과 .....	173
1. 인구통계학적 특성 .....	173
2. 고립·은둔 성향 및 과거 경험 .....	175
3. 평소 심리상태 및 생활 행태 .....	178
4. 고립·은둔 생활 극복의향 및 지원 방안 .....	180

## 제6장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심층조사 결과 ..... 185

제1절 조사 개요 .....	185
1. 조사 설계 .....	185
2. 조사 내용 .....	185
3. 심층 조사 대상자 특성 .....	187

# CONTENTS

제2절 심층 조사 결과 .....	189
1. 고립·은둔 청년 당사자 .....	189
2. 고립·은둔 청년 가족 .....	194
3. 고립·은둔 지원단체 활동가 .....	198
 <b>제7장 결과 요약 및 제언 .....</b>	<b>205</b>
제1절 결과 요약 .....	205
1.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규모 추정 결과 .....	205
2.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	206
 제2절 제언 .....	218
1. 사업성과 측정 방식의 변화 및 사업 기간 확대 .....	218
2. 고립·은둔 청년 특성별 맞춤형 지원책 마련 및 점진적 확대 적용 .....	218
3. 거점기관 설정 및 포괄적 사회안전망 구축 .....	219
4. 고립·은둔 전문 인력 양성 필요 .....	219
5.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통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 확보 .....	220
 <b>부록 .....</b>	<b>221</b>

# CONTENTS

[표 1-1] 문헌자료 검토 목록 .....	5
[표 3-1] 조사 설계 .....	27
[표 3-2] 조사 내용 - 가구조사 .....	27
[표 3-3] 성별*연령별*25개 자치구별 모집단 현황 .....	29
[표 3-4] 고립·은둔 청년 규모 추정 결과 .....	30
[표 4-1] 조사 설계 .....	33
[표 4-2] 조사 내용 .....	33
[표 4-3] 응답자 특성 - 청년조사(전체 응답자) .....	35
[표 4-4] 응답자 특성 - 청년조사(고립·은둔 청년) .....	36
[표 4-5] 지난 1주일간 경제활동 여부 .....	38
[표 4-6] 지난 4주간 취업 활동 여부 .....	40
[표 4-7] 지난 4주간 취업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	42
[표 4-8] 경제활동 및 학업 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	44
[표 4-9] 생활비 부담 방식 .....	46
[표 4-10] 주관적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수준 .....	48
[표 4-11] 주관적인 개인의 경제적 수준 .....	50
[표 4-12] 평소 외출 정도 .....	52
[표 4-13] 외출하지 않는 생활(은둔)을 한 기간 .....	54
[표 4-14] 과거에 외출하지 않는 생활(은둔)을 한 경험 .....	56
[표 4-15] 외출하지 않는 생활(은둔)이 최초로 시작된 시기 .....	58
[표 4-16] 지난 2주간 교류한 사람 .....	60
[표 4-17] 지난 2주간 타인과 교류한 횟수 .....	62
[표 4-18] 정서적 고립 정도 -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	65
[표 4-19] 정서적 고립 정도 - 급한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	67
[표 4-20] 정서적 고립 정도 -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	69
[표 4-21] 정서적 고립 정도 -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	71
[표 4-22] 물리적 고립 정도 - 가족들과의 대면 교류 빈도 .....	74
[표 4-23] 물리적 고립 정도 - 친인척과의 대면 교류 빈도 .....	76
[표 4-24] 물리적 고립 정도 -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 교류 빈도 .....	78
[표 4-25] 물리적 고립 정도 - 이 외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대면 교류 빈도 .....	80
[표 4-26] 정서적 또는 물리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한 기간 .....	82
[표 4-27] 과거에 정서적 또는 물리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한 경험 .....	84
[표 4-28] 정서적 또는 물리적으로 고립된 생활이 최초로 시작된 시기 .....	86
[표 4-29] 고립·은둔 생활을 하게 된 계기 .....	88



# CONTENTS

[표 4-30] 온라인(비대면) 교류 여부	90
[표 4-31] 온라인(비대면) 교류 종류	92
[표 4-32] 외로움 척도 - 나는 나와 같이 있어 줄 사람이 부족하다	95
[표 4-33] 외로움 척도 - 나는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97
[표 4-34] 외로움 척도 - 나는 혼자 남겨진 것 같다고 느껴진다	99
[표 4-35] 외로움 척도 -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되어 있다고 느껴진다	101
[표 4-36] 성인기 이전 부정적 경험 여부	103
[표 4-37] 성인기 이후 부정적 경험 여부	105
[표 4-38] 평소 생활 패턴 ①	108
[표 4-39] 평소 생활 패턴 - 나는 평소 가족과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이다	110
[표 4-40] 평소 생활 패턴 - 나는 평소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는 편이다	112
[표 4-41] 평소 생활 패턴 - 나는 거의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편이다	114
[표 4-42] 평소 생활 패턴 - 나는 잠을 설치는 것 없이 잘 자는 편이다	116
[표 4-43] 평균 수면 시간	118
[표 4-44] 주 활동 시간대	120
[표 4-45] 주 외출 시간대	122
[표 4-46] 집에서 주로 하는 활동(1순위)	124
[표 4-47] 집에서 주로 하는 활동(1+2+3순위)	124
[표 4-48] PC·모바일로 주로 하는 활동	126
[표 4-49] 평소 식사 횟수	128
[표 4-50] 평소 식사 방식	130
[표 4-51] 청결 및 자기관리 정도 - 옷을 갈아입는다	133
[표 4-52] 청결 및 자기관리 정도 - 목욕·샤워를 한다	135
[표 4-53] 청결 및 자기관리 정도 - 세수·양치를 한다	137
[표 4-54] 청결 및 자기관리 정도 - 내 방의 어질러진 물건들을 정리·정돈한다	139
[표 4-55] 자신의 주관적 건강 상태	141
[표 4-56] 정신건강 관련 약물 복용 여부	143
[표 4-57] 정신건강 관련 약물 복용 기간	145
[표 4-58] 우울 수준	147
[표 4-59] 고립·은둔 생활 극복 의향	149
[표 4-60] 고립·은둔 생활 극복 시도 여부	151
[표 4-61] 고립·은둔 생활에 변화를 주기 위해 한 행동	153
[표 4-62] 고립·은둔 생활 극복에 실패한 이유	155
[표 4-63] 고립·은둔 생활 극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	157

# CONTENTS

[표 4-64] 고립·은둔 지원 사업 제공 장소 - 온라인 채팅 상담 및 지원 연계 .....	159
[표 4-65] 고립·은둔 지원 사업 제공 장소 - 집에서 1시간 거리 이내, 교통 좋은 곳에서 상담 등 지원 제공 .....	160
[표 4-66] 고립·은둔 지원 사업 제공 방식 - 1:1로 혼자서 .....	162
[표 4-67] 고립·은둔 지원 사업 제공 방식 - 비슷한 문제를 겪는 사람들과 함께 .....	163
[표 4-68] 고립·은둔 지원 사업 제공 기간 - 6개월 이상 .....	165
[표 5-1] 군집분석 사용 변수 .....	171
[표 5-2] 유형화 결과 .....	172
[표 5-3] 고립·은둔 청년 유형별 응답자 특성 .....	174
[표 5-4] 고립·은둔 청년 유형별 고립·은둔 성향 및 과거 경험 .....	177
[표 5-5] 고립·은둔 청년 유형별 평소 심리 상태 및 생활 행태 .....	179
[표 5-6] 고립·은둔 청년 유형별 고립·은둔 생활 극복의향 및 지원 방안 .....	181
[표 6-1] 심층조사 조사 개요 .....	185
[표 6-2] 조사 내용 - (1) 고립·은둔 청년 당사자 .....	186
[표 6-3] 조사 내용 - (2) 고립·은둔 청년 가족 .....	186
[표 6-4] 조사 내용 - (3) 고립·은둔 지원단체 활동가 .....	186
[표 6-5] 응답자 특성 - (1) 고립·은둔 청년 당사자 .....	187
[표 6-6] 응답자 특성 - (2) 고립·은둔 청년 가족 .....	188
[표 6-7] 응답자 특성 - (3) 고립·은둔 지원단체 활동가 .....	188
[표 7-1] 고립·은둔의 정의 .....	205
[표 7-2] 고립·은둔 청년 규모 추정 결과 .....	206
[표 7-3] 유형화 결과 .....	209
[표 7-4] 고립·은둔 청년 유형별 응답자 특성 .....	210
[표 7-5] 고립·은둔 청년 유형별 고립·은둔 성향 및 과거 경험 .....	212
[표 7-6] 고립·은둔 청년 유형별 평소 심리상태 및 생활 행태 .....	214
[표 7-7] 고립·은둔 청년 유형별 고립·은둔 생활 극복의향 및 지원방안 .....	215
[그림 1-1] 과업의 설계 .....	8
[그림 4-1] 고립·은둔 청년의 분석 범위 .....	34
[그림 4-2] 지난 1주일간 경제활동 여부 .....	37
[그림 4-3] 지난 4주간 취업 활동 여부 .....	39
[그림 4-4] 지난 4주간 취업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	41
[그림 4-5] 경제활동 및 학업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	43
[그림 4-6] 생활비 부담 방식 .....	45
[그림 4-7] 주관적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수준 .....	47

# CONTENTS

[그림 4-8] 주관적인 개인의 경제적 수준 .....	49
[그림 4-9] 평소 외출 정도 .....	51
[그림 4-10] 외출하지 않는 생활(은둔)을 한 기간 .....	53
[그림 4-11] 과거에 외출하지 않는 생활(은둔)을 한 경험 .....	55
[그림 4-12] 외출하지 않는 생활(은둔)이 최초로 시작된 시기 .....	57
[그림 4-13] 지난 2주간 교류한 사람 .....	59
[그림 4-14] 지난 2주간 타인과 교류한 횟수 .....	61
[그림 4-15] 정서적 고립 정도 - 종합 .....	63
[그림 4-16] 정서적 고립 정도 -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	64
[그림 4-17] 정서적 고립 정도 - 급한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	66
[그림 4-18] 정서적 고립 정도 -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	68
[그림 4-19] 정서적 고립 정도 -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	70
[그림 4-20] 물리적 고립 정도 - 종합 .....	72
[그림 4-21] 물리적 고립 정도 - 가족들과의 대면 교류 빈도 .....	73
[그림 4-22] 물리적 고립 정도 - 친인척과의 대면 교류 빈도 .....	75
[그림 4-23] 물리적 고립 정도 -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 교류 빈도 .....	77
[그림 4-24] 물리적 고립 정도 - 이 외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대면 교류 빈도 .....	79
[그림 4-25] 정서적 또는 물리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한 기간 .....	81
[그림 4-26] 과거에 정서적 또는 물리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한 경험 .....	83
[그림 4-27] 정서적 또는 물리적으로 고립된 생활이 최초로 시작된 시기 .....	85
[그림 4-28] 고립·은둔 생활을 하게 된 계기 - 고립·은둔 청년 유형별 비교 .....	87
[그림 4-29] 온라인(비대면) 교류 여부 .....	89
[그림 4-30] 온라인(비대면) 교류 종류 .....	91
[그림 4-31] 외로움 척도 - 종합 .....	93
[그림 4-32] 외로움 척도 - 나는 나와 같이 있어 줄 사람이 부족하다 .....	94
[그림 4-33] 외로움 척도 - 나는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	96
[그림 4-34] 외로움 척도 - 나는 혼자 남겨진 것 같다고 느껴진다 .....	98
[그림 4-35] 외로움 척도 -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되어 있다고 느껴진다 .....	100
[그림 4-36] 성인기 이전 부정적 경험 여부 .....	102
[그림 4-37] 성인기 이후 부정적 경험 여부 .....	104
[그림 4-38] 평소 생활 패턴 - 종합 .....	106
[그림 4-39] 평소 생활 패턴 - 나는 우리 가족과 친밀한 편이다 .....	107
[그림 4-40] 평소 생활 패턴 - 나는 평소 가족과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이다 .....	109
[그림 4-41] 평소 생활 패턴 - 나는 평소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는 편이다 .....	111

# CONTENTS

[그림 4-42] 평소 생활 패턴 - 나는 거의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편이다 .....	113
[그림 4-43] 평소 생활 패턴 - 나는 잠을 설치는 것 없이 잘 자는 편이다 .....	115
[그림 4-44] 평균 수면 시간 .....	117
[그림 4-45] 주 활동 시간대 .....	119
[그림 4-46] 주 외출 시간대 .....	121
[그림 4-47] 집에서 주로 하는 활동 .....	123
[그림 4-48] PC·모바일로 주로 하는 활동 .....	125
[그림 4-49] 평소 식사 횟수 .....	127
[그림 4-50] 평소 식사 방식 .....	129
[그림 4-51] 청결 및 자기관리 정도 - 종합 .....	131
[그림 4-52] 청결 및 자기관리 정도 - 옷을 갈아입는다 .....	132
[그림 4-53] 청결 및 자기관리 정도 - 목욕·샤워를 한다 .....	134
[그림 4-54] 청결 및 자기관리 정도 - 세수·양치를 한다 .....	136
[그림 4-55] 청결 및 자기관리 정도 - 내 방의 어질러진 물건들을 정리·정돈한다 .....	138
[그림 4-56] 자신의 주관적 건강 상태 .....	140
[그림 4-57] 정신건강 관련 약물 복용 여부 .....	142
[그림 4-58] 정신건강 관련 약물 복용 기간 .....	144
[그림 4-59] 우울 수준 .....	146
[그림 4-60] 고립·은둔 생활 극복 의향 .....	148
[그림 4-61] 고립·은둔 생활 극복 시도 여부 .....	150
[그림 4-62] 고립·은둔 생활에 변화를 주기 위해 한 행동 .....	152
[그림 4-63] 고립·은둔 생활 극복에 실패한 이유 .....	154
[그림 4-64] 고립·은둔 생활 극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 .....	156
[그림 4-65] 고립·은둔 지원 사업 제공 장소 .....	158
[그림 4-66] 고립·은둔 지원 사업 제공 방식 .....	161
[그림 4-67] 고립·은둔 지원 사업 제공 기간 .....	164
[그림 4-68] 고립·은둔 청년의 상황 변화를 위해 가족들이 노력한 부분 .....	166
[그림 4-69] 고립·은둔 청년의 가족이 보기에 청년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 .....	167
[그림 4-70] 고립·은둔 청년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 .....	168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 01

## 조사 개요

제1절 조사 배경 및 목적  
제2절 조사 개요





# 제1장 조사 개요

## 제1절 조사 배경 및 목적

### 1. 조사 배경

-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경제적·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음. 지속되는 청년 취업난과 물가 상승, 임금 정체, 주거 불안 등의 문제는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부담감을 증대시키고 있음. 이러한 환경에서 비롯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낮은 사회 신뢰도는 무기력, 우울, 비관적 시각 등 청년들의 심리적 문제에 높은 영향을 끼침.
- 그러나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나눌 수 있는 상대를 찾지 못한 청년들은 홀로 고립되어가고 있음. 가구 구조의 변화로 저출산 및 외동 비율이 증가한 사회에서 자라난 현 청년세대는 혼자 사회화를 경험한 비율이 높은 세대임.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 이행으로 인해 여러 집단에 대해 사회관계망 단절과 사회성 저하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특히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20-30대 청년들에게 이러한 개인주의화 현상의 경향성과 영향은 더욱 강하게 나타남.
- 스스로 고립·은둔을 택하는 청년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문제의식 또한 증대되고 있음. 청년세대의 자살률과 고독사로 인한 무연고 사망자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언론사에서 은둔형 외톨이, 청년 고독사, 사회적 고립청년을 기사로 다뤘으며<sup>1)2)3)</sup>, 2022년 3월 29일 KBS에서 <시사기획 창: 은둔형 외톨이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방영하였음. KBS는 국내 은둔형 외톨이들의 현황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며, 이러한 은둔이 '원인이 아닌 결과이자 현상'이라고 설명함.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가 잇따라 신설되고 정책적 차원의 대응 방안이 논의되는 등, 담론 형성에 따른 법적, 제도적 변화 또한 커지고 있음.
- 그러나 이전까지 사회적 고립은 주로 노인층의 문제로 여겨졌던 까닭으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소 미비한 편이었으며 객관적인 실태자료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임. 고립과 은둔에 대한 합의된 정의와 객관적인 측정 도구 또한 존재하지 않아 연구 및 정책마다 제각기 다른 기준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거나 정책을 준비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 기관,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이 서로 다른 이해와 시각으로 시행착오를 겪고 있음.
- 또한 고립·은둔은 그 특성상 이해와 접근이 쉽지 않은 문제임. 청년의 고립·은둔에는 개인적 요인과 사회·문화·환경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함.

1) 김규남. (2021년 10월 25일). 청년이 왜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지는가. 한겨레21.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100.html](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100.html)

2) 파이낸셜뉴스. (2021년 11월 10일). 특별기획 프로젝트: 숨어버린 사람들 히키코모리. 파이낸셜뉴스. 2022년 5월 4일 검색, <https://www.fnnews.com/hikikomori>

3) 김민욱, 이수민. (2022년 10월 28일). :“은둔 청년은 설거지도 무섭다”...고독사만큼 무서운 ‘고독생’.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2943>

더욱이, 고립·은둔 청년 당사자는 외부와 물리적·사회적으로 단절되어있는 경우가 절대다수이며, 청년이 속한 가족도 체면 등의 이유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 발굴이 어렵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관련 연구 혹은 정책 수행에 난항이 따르기가 쉬움.

-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현 상황에서 정책 대상자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기초 통계자료의 측정과 관리는 향후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핵심 자료로서 그 중요성이 상당함.
- 또한, 향후 고립·은둔 청년 문제를 객관적으로 정의 내리고,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청년 고립·은둔에 대한 합의된 정의와 측정 도구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고립·은둔 청년과 관련된 실질적·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2. 조사 목적

### 1)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의 실태 확인

-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의 생활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 또한 현재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고립·은둔 청년이 겪은 다양한 심리사회적 경험을 탐색하여 고립·은둔의 발생 원인을 도출해내고자 함.

### 2)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책을 위한 근거 자료 구축

-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명확한 정의, 유형, 구분기준을 설정하고자 함.
- 지원 정책 및 개입 전략 설계와 추진을 위한 근거 자료로서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의 규모 및 실태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함.

### 3) 고립·은둔 청년에 관한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

-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정확한 근거 자료를 기반으로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자 함.
- 고립·은둔 상황에 놓인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신체적·정신적 회복 및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돕기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4) 잠재적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선제 예방

- 청년들의 고립·은둔 경험 이해를 통해 고립·은둔 상황에 처할 위험성이 높은 청년집단을 도출해내고자 함.
-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사후 지원에서 나아가 잠재적 고립·은둔 청년집단에 대한 조기 개입 등 선제적인 예방책을 모색하고자 함.

## 제2절 조사 설계

- 본 조사는 크게 실태조사와 심층 인터뷰로 나뉘며, 실태조사는 목적에 따라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의 규모 추정을 위한 가구 단위 조사와 생활 현황 파악을 위한 개인 단위 조사로 구성하였음.
- 심층 인터뷰는 고립·은둔 청년 당사자, 가족, 관련 지원기관 활동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정책 수요 및 생활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함.

### 1. 고립·은둔 관련 연구 및 문헌자료 수집·분석

- 조사 수행에 앞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관련 주제를 다룬 국내외의 선행 연구와 관련 법령 등 문헌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였음.

[표 1-1] 문헌자료 검토 목록

분류	자료명
국내 논문 및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광희. (2020). 한국의 청년 실업과 히키코모리 문제: 일본의 중장년 히키코모리와 8050 문제를 중심으로. <i>무역연구</i>, 16(3), 467-480.</li> <li>• 김기현, 이윤주, 유선희, 배진우. (2017).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 기초분석 보고서. <i>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i>.</li> <li>•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연구보고 21-R19-1). <i>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i>.</li> <li>• 김도형, 박승규. (2021). 전라남도 은둔형 청·장년층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i>한국지방행정연구원</i>.</li> <li>• 김성아. (2022). 고립의 사회적 비용과 사회정책에의 함의. <i>보건복지포럼</i>, (305), 74-86.</li> <li>• 김성아, 박민진, 김정아. (2022). 서울시 1인가구 외로움·사회적 고립 실태와 대응전략. (서울연 2021-OR-19). <i>서울연구원</i>.</li> <li>• 김영, 황정미. (2013). “요요 이행”과 “DIY 일대기”: 이행기 청년들의 노동경험과 생애 서사에 대한 질적 분석. <i>한국사회</i>, 14(1), 215-260.</li> <li>• 김영주, 곽인경. (2020). 청년 1인가구의 주거환경과 우울감에 관한 탐색적 연구. <i>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i>, 15(4), 241-250.</li> <li>• 김재우. (2018). 한국사회 청년층의 자살 생각 결정요인: 성별 및 거주 지역별 차이를 중심으로. <i>지역과 세계 (구 사회과학연구)</i>, 42(2), 93-126.</li> <li>• 김재희, 박은규. (2016). 청년의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이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 <i>한국청소년연구</i>, 27(3), 257-284.</li> <li>• 김춘남, 박승남, 박승희, 김서인. (2018). 사회적 고립의 유형분석 및 지원 방안. <i>경기복지재단</i>.</li> <li>• 노가빈, 이소민, 김제희. (2021). 청년 은둔형 외톨이의 경험과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 <i>한국사회복지학</i>, 73(2), 57-81.</li> <li>• 모세종. (2020). 광주광역시 의회에 보낸 소견서; 윤철경, 서보람(2020)에서 재인용.</li> <li>• 박대령. (2020). ‘은둔형 외톨이’ 지원 방안 세미나-‘은둔형 외톨이’ 국내외 지원 현황과 쟁점 진단. <i>(가칭)사회적외톨이지원연대준비모임</i>.</li> <li>• 박민선, 정순돌. (2020). 청년세대의 사회적 고립이 노인차별행동 및 인식에 미치는 영향: 세대갈등인식의 매개효과. <i>한국노년학</i>, 40(6), 1383-1401.</li> <li>• 백형태, 김봉년, 신민섭, 안동현, 이영식. (2011). 부모 작성용 은둔형 외톨이 선별 도구</li> </ul>

분류	자료명
	<p>개발. <i>소아청소년정신의학</i>, 22(4), 262-27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2020). 서울 청년실태조사 보고서. <i>서울특별시</i>.</li> <li>• 서왕진. (2019). 외로움은 개인만의 문제 아닌 사회적 질병, 사회적 관계 고려 공동체 지원 다각화 필요. (2019-OR-11). <i>서울연구원</i>.</li> <li>• 송인주. (2017).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 방안 연구. (서울시복지재단-2017-17). <i>서울시복지재단</i>.</li> <li>• 송태민, 진달래. (2015). 일본의 청소년 사이버폭력과 히키코모리 현황. <i>보건복지포럼</i>, 2015(1), 86-100.</li> <li>• 유민상, 신동훈, 이민정. (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i>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i>.</li> <li>• 이경선. (2015). 후기청소년의 사회적 히키코모리와 2 차 분리-개별화. <i>연세상담고청연구</i>, 4, 105-127.</li> <li>• 이상인, 오미애, 김문길, 전진아. (2021). 2020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미취업 청년 고립실태 분석 연구-서울특별시 청년수당 참여자를 중심으로. <i>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i>.</li> <li>• 이상희. (2010). 은둔형 외톨이 개념의 사회적 구성과 효과.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li> <li>• 이소영, 최혜진. (2021). 코로나 19 로 인한 청년의 일상생활 변화 잠재계층유형, 영향요인 및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i>학교사회복지</i>, (53), 401-427.</li> <li>• 이영식. (2020). 코로나 시대의 은둔형 외톨이. <i>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학술대회논문집</i>, 79-100.</li> <li>• 이지민. (2019).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은둔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대학원].</li> <li>• 임형문, 김석웅, 박순영, 이세라, 최상희(2021).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55-6290000-000539-01). <i>광주광역시</i>.</li> <li>• 장진희. (2018). 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i>서울시여성가족재단</i>.</li> <li>• 정근하, 노영희. (2022). 한국사회의 은둔형 외톨이 출현 배경 연구. <i>한국비교정부학보</i>, 26(1), 229-250.</li> <li>• 조대연, 김은비, 김경근, 정홍인. (2018). 우리나라 고학력 청년 니트족의 유형화와 니트 탈출방안. <i>역량개발학습연구</i>, 13(2), 165-190.</li> <li>• 주상희. (2020). 한국은둔형외톨이부모협회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i>(가칭)사회적외톨이지원연대준비모임</i></li> <li>• 주유선. (2020). 청년의 사회적 지지. <i>보건복지포럼</i>, 2020(6), 59-68.</li> <li>• 청년재단. (2020). 고립청년(은둔형외톨이) 실태조사.</li> <li>• 청소년위원회. (2005).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부적응 청소년 지원 방안.</li> <li>• 최석현, 남승연. (2021). 참여형태와 사회집단 유형이 정서적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i>지역발전연구</i>, 30(3), 105-128.</li> <li>• 황수진, 홍진표, 안지현, 김명현, 정서현, 장혜인. (2021).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i>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i>, 60(4), 291-297.</li> </ul>
국외 논문 및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arck, J., Balahur-Dobrescu, A., Cassio, L.G., D'hombres, B., Pasztor, Z. and Tintori, G. (2021). Loneliness in the EU: Insights from surveys and online media data.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li> <li>• Brown, E. (2020). Performance Partnership Pilots for Disconnected Youth (P3): Sustaining Systems Change Efforts and Coordinated Services for Youth. Princeton, NJ: Mathematica, forthcoming.</li> <li>• Burger, J. M. (1995). Individual differences in preference for solitude. <i>Journal of</i></li> </ul>

분류	자료명
	<p><i>Research in Personality</i>, 29(1), 85–1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partment of Education. (2021). Applications for Selection as a Performance Partnership Pilot; Performance Partnership Pilots for Disconnected Youth.</li> <li>• Dzik, K. (2019). Examining clinical homologues of “Hikikomori”: development of a scale assessing social withdrawal in young people in Scotland. And clinical research portfolio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lasgow).</li> <li>• Hu X., Fan D., Shao Y. (2022). Social Withdrawal (Hikikomori) Conditions in China: A Cross-Sectional Online Survey. <i>Front. Psychol.</i> 2022;13:826945. doi: 10.3389/fpsyg.2022.826945. – DOI – PMC – PubMed</li> <li>• Russell, D. W. (1996). UCLA Loneliness Scale (Version 3): Reliability, validity, and factor structure. <i>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i>, 66(1), 20–40.</li> <li>• Snape, D., &amp; Martin, G. (2018). Measuring loneliness: guidance for use of the National indicators on survey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li> <li>• Teo, A. R., Chen, J. I., Kubo, H., Katsuki, R., Sato-Kasai, M., Shimokawa, N., Kato, T. A. (201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25-item Hikikomori Questionnaire (HQ-25). <i>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i>, 72(10), 780–788.</li> <li>• 内閣府. 2010. 若者の意識に関する調査(ひきこもりに関する実態調査).</li> <li>• 内閣府. 2016. 若者の生活に関する調査報告書.</li> <li>• 内閣府. 2019. 生活状況に関する調査報告書.</li> <li>• 厚生労働省. (2010). ひきこもりの評価・支援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li> </ul>
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혜원, 조현주, 김연옥, 김진희, 윤진희, 차예린, 한원건. (2021). 은둔형 외톨이: 가족, 사회, 자신을 위한 희망안내서. 학지사.</li> <li>• 김혜원, 조현주, 김지연, 김연옥, 김지향, 박찬희. (2022). 은둔형 외톨이 상담: 당사자와 부모 상담 가이드북. 학지사.</li> <li>• 노리나 허츠. (2021). 고립의 시대. 웅진지식하우스.</li> <li>• 사이토 다마키. (2012). 은둔형 외톨이: 그 이해와 치유법. 파워북.</li> <li>• 엄태완. (2022). 완벽한 친절함으로부터의 고립. 바른북스.</li> <li>• 여인중. (2005).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 지혜문학. 김혜원 외(2021)에서 재인용.</li> <li>• 오상빈. (2020). 고립 생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은둔형 외톨이 치유와 예방. 솔과학.</li> <li>• 은둔형 외톨이 가족모임. (2021). 은둔형 외톨이의 방구석 표류일기. 행복한책읽기.</li> <li>• 이영식, 최태영. (2022). 은둔형 외톨이 탈출기 우리 모두의 이야기. 학지사.</li> <li>• Townsend, P. (1957). The family life of old peopl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김춘남 외(2018)에서 재인용.</li> </ul>

## 2.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설계



[그림 1-1] 과업의 설계

### 1) 고립·은둔 청년 규모 추정 조사

- 고립·은둔 문제의 이해와 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겪는 청년의 규모 추정이 필수적이나, 고립·은둔 청년은 외출을 거의 하지 않거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당사자 발굴이 쉽지 않음.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개인 단위가 아닌 가구 단위의 온라인 조사를 통해 규모 추정을 하고자 하였음.
- 거주지역(구), 가구주연령,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서울시 가구분포에 맞추어 표집하였으며, 만 19~39세에 해당하는 청년 가구원이 포함된 서울시 거주 가구의 가구주 혹은 가구주 배우자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음.
- 이중 본인의 가정에 고립·은둔 성향을 보이는 청년이 거주하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수를 통하여 전체 서울시 청년 중 고립·은둔 청년의 규모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 2) 고립·은둔 청년 대상 실태조사

- 고립·은둔 청년의 전반적인 생활 현황 파악을 위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개인 단위의 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음. 규모 추정 조사와 같이 고립·은둔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조사 방식을 선택하였음.
- 또한 대상 집단의 희소성을 고려하여, 관련 지원기관의 협조하에 고립·은둔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 링크를 추가적으로 배포하여 유효 분석량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조사 내용은 대상자의 외출 및 고립 정도, 일반적인 생활 실태,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지원에 대한 수요 등으로 구성되었음. 또한, 해당 조사 내용은 고립·은둔 청년들 뿐 아니라 고립·은둔 성향을 보이지 않는 청년들도 모두 포함한 포괄적인 비교 분석을 위하여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음.

### 3.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관련 심층 인터뷰

-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립·은둔 청년의 대체적인 규모와 생활 실태를 드러낼 계획이나, 고립·은둔 청년들의 진의에 대한 보다 심도 있고 실질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당사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표면적인 응답 아래의 맥락과 함의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수적임.
- 더욱이, 고립·은둔은 그 특성상 청년이 속한 가정과 떼어놓고 보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며, 청년 본인뿐 아니라 청년의 가족들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의 입장을 듣는 것은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임.
- 또한, 현장에서 다년간 다양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을 수행해 온 활동가들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는 것은 고립·은둔 청년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이에 고립·은둔 문제를 겪고 있거나 겪었던 경험이 있는 청년 당사자, 고립·은둔 청년의 가족, 또한 관련 지원기관의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IDI(In-Depth Interview) 혹은 FGI(Focus Group Interview) 방식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 조사 내용은 고립·은둔 청년의 유형 및 특성, 생활 실태와 평소의 어려움,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의 정책 수요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음.





## 02

### 고립·은둔에 대한 이해

1. 고립·은둔의 개념적 정의 및 실태 파악 현황
2. 조작적 정의를 위한 고립·은둔 청년의 특성과 유형 이해



## 제2장 고립·은둔에 대한 이해

### 제1절 고립·은둔의 개념적 정의 및 실태 파악 현황

#### 1.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 청년과 사회적 고립, 은둔형 외톨이

-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을 다룬 대표적인 연구자 Townsend(1957)는 “가족과 지역사회에 거의 접촉이 없는 것”으로 사회적 고립을 정의하였음. 사회적 고립의 개념과 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행 연구에서 논의되어 온 바 있으며, 공통적으로 “사회적 관계의 물리적 단절, 혹은 맺고 있는 관계의 수준이 양적, 질적으로 낮은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박찬웅 외, 2020; 최석현, 남승연, 2021).
- 사회적 고립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노인이나 중년의 고독사 문제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음(이상인 외, 2021). 그러나 최근 사회적 고립 문제가 노년기 뿐 아닌 생애전반기로 확대되며 영국과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등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의식 공유와 함께 전 생애에 걸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여기는 인식이 늘어남(유민상 외, 2021).
-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청소년, 노인, 빈곤층 등 다양한 집단에 대한 사회적 고립 연구가 확대되고 있음. 그중에서도 특히 청년기는 노동시장으로 전환 및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일어나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대표적인 전환기로 사회적 고립의 발생과 장기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임(김춘남 외, 2018).
- 청년에 대한 고립 연구들은 주로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김춘남 외, 2018; 유민상 외, 2021), 청년의 성인 초기 생애 경험(김영, 황정미, 2013; 김재희, 박은규, 2016), 자살 생각 등의 정신 건강(김재우, 2018)과 관련하여 진행되어 왔음. 또한, 고립 청년에 대한 연구들은 1인 가구 노인이나 중장년에 초점을 둔 기존의 고립 연구와 달리 물리적 단절보다 사회적 지지의 부재나 사회적 관계에서의 고립에 초점을 두는 경향성을 보임(이상인 외, 2020; 주유선, 2020).
- 특히 극단적인 형태의 사회적 고립 상태를 일컫는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는 일본에서 1970년대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고립 청년의 특정한 유형을 이르는 용어로서, ‘틀어박히다’라는 뜻의 히키코모루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음(이지민, 2019). 2010년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되었으며, 국내에서는 2001년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의 이시형 소장과 여인중 박사 연구팀에 의해 ‘은둔형 외톨이’라는 용어로 처음 연구가 진행되었음(이상희, 2010).
- 이후 청년의 고립과 은둔에 대한 한국의 사회적 인식 증대에 따라 학계에서도 다양한 은둔형 외톨이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음(오상빈, 2019; 모세종, 2020; 청년재단, 2020; 김혜원, 2021).

## 2) 고립 청년 선행 연구에서의 용어 정의

- 김춘남 외(2018)는 사회적 고립을 ‘개인의 선택이 아닌 비자발적인 요인에 의해 개인, 지역사회 및 사회와의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들고, 중국에는 외부와 고립된 상태에 이르러, 고독감, 외로움 등의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경험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로부터 배제되는 것’으로 정의하였음.
  - 객관적 고립의 정도와 주관적 고립감을 동시에 고려하였으며, 사회적 참여와 고립의 자발성 여부, 또한 심리적 어려움의 경험 여부를 중심으로 정의하였음.
  - 구체적인 고립 수준은 ‘갑자기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함.
- 이상인 외(2020)는 사회통합실태조사와 한준(2019)의 연구를 참고하여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없거나 어려울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상태’로 정의하였음.
  - 사회적 고립의 정도는 연락 및 대면 빈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수로 측정하였음.
  - 사회적 고립과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고립을 지난 이틀간의 식사 횟수, 지난 일주일간의 외출 횟수, 휴식 시간과 외로울 때 각각 함께 있는 사람과 행동으로 살펴보았으며, 이중 외출 횟수는 사회적 고립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음.
- 주유선(2020)는 청년의 사회적 관계와 지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여섯 가지 영역에서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의논하는 대상의 분류와 세 가지 영역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살펴보았음.
  - 감정적·심리적 문제, 건강 문제, 가족 구성원 관련 문제, 금전적 문제, 안전 문제, 본인의 취업·학업 문제, 연애·결혼 문제에 대하여 어떤 분류의 대상을 가장 먼저 찾을지 측정하였으며, 대상은 가족, 친척, 친구·선후배, 직장 동료·선후배, 소속 단체 지인, 관련 전문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음으로 구성되었음.
  - 사회적 관계는 물질적, 실제적, 정서적 차원의 지지에 대하여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수로 살펴보았음.
- 유민상 외(2021)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에서 사회적 고립을 ‘한 사람이 사회를 살아가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망이 단절되어 교류할 수 없고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 다시 말해 한 개인이 사회와 다차원적으로 고립된 상태’로 정의하였으며, 고립은 한 개인을 중심으로 외부와의 외적인 단절과 내적인 단절의 형태로 발생한다고 보았음.
  - 외적인 단절, 즉 외부적 고립은 ‘한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망이 없거나 거의 없는 상태’로 정의하였음. 외부적 고립의 하위 영역으로는 연결망(어려울 때 도와줄 가족, 친구, 지인 수/가족, 친구, 그 외 사람들과의 교류 여부 및 빈도), 지원(정서적, 도구적, 정보적 차원의 사회적 지지), 외출(평소 외출 행태, 외출이 거의 없었던 기간,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계기)이 있었음.

- 내적인 단절, 즉 내부적 고립은 ‘한 개인이 사회적 관계망에서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로 정의하였음. 주관적 고립감과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해 UCLA 외로움 척도를 참고하였음.
- 황수진 외(2021)은 외로움과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사회적 고립을 ‘사회적 관계의 부족 자체를 의미하는 객관적인 상태’로 정의하였으며, 사회적 고립의 하위 차원으로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지지를 사용하였음.
  -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아래의 6개 항목을 포함하여 개발되었음.
    - (1) 나는 외롭다고 느낀다
    - (2) 나는 소외되어 있다고 느낀다
    - (3) 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편하게 의지할 수 있다
    - (4) 나의 일상적인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 (5) 월 1회 이상 사적으로 만나거나 주 1회 이상 연락을 할 정도로 친한 사람의 수
    - (6) 하루 중 친구나 가족과 사적인 연락을 하는 데 사용하는 시간

### 3) 은둔 청년 선행 연구에서의 용어 정의

-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라는 용어를 최초로 소개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사이토 다마키(2012)는 ‘(자택에 틀어박혀) 사회참여를 하지 않은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정신장애를 그 원인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로 정의하였음.
  - 이는 가장 널리 인용되는 개념 중 하나로, 사이토 다마키는 특히 히키코모리가 병명이나 진단명이 아니며 등교 거부나 가정 폭력과 같이 하나의 상태임을 강조하였음.
  - 사회적 은둔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자택에 틀어박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괄호를 사용하여 정의함. 가령 혼자 편의점이나 비디오 대여점,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에 가는 등 비교적 활동적인 경우도 나타나며 사이토 다마키는 이들을 사회적 은둔형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음.
  - 취학, 취업, 가족 외 친밀한 대인관계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사회 참여를 하는 것으로 간주함. 예를 들어, ‘나는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누구와도 깊은 관계가 없는 히키코모리다’와 같은 표현은 인정하지 않음.
-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히키코모리 평가·지원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음. ‘여러 요인의 결과로서, 사회참가(의무교육을 포함한 학업, 비상근직을 포함한 취업, 가정 외에서의 교류 등)를 회피하고, 원칙적으로는 6개월 이상 가정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상태(타인과의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외출할 수도 있음)’를 가리키는 현상의 개념임.
  - 또한, 히키코모리는 원칙적으로 조현병의 양성 또는 음성 상태에 의한 현상과는 구별되는 비정신병성 현상으로 간주하지만, 실제로는 확진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조현병 환자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낮지 않음을 유의하여 언급하였음.

- 일본 내각부는 2010년 실시한 ‘젊은이의 생활에 관한 조사’에서 히키코모리를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였으며, 해당 기준을 2015년과 2018년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였음. 또한 외출 범위에 따라 ‘협의의 히키코모리’(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방에서는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오지 않는다, 동네 편의점 등에는 외출한다)와 ‘준 히키코모리’(취미 생활 등을 위해 외출한다)로 분류하였으며, 두 분류를 합하여 ‘광의의 히키코모리’로 지칭하였음.
  - 외출 정도를 묻는 질문에 ‘취미 생활 등을 위해 외출한다’, ‘동네 편의점 등에는 외출한다’, ‘방에서는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오지 않는다’,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로 응답한 자.
  - 현재의 상태가 된 지 6개월 이상이라고 응답한 자.
  - 현재의 상태가 된 계기가 조현병 등의 질병, 재택근무, 임신, 출산·육아, 가사 등이 아닌 자.
- 우리나라에 히키코모리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한 여인중(2005)은 히키코모리를 ‘은둔형 외톨이’로 번역하여 제시하였으며, ‘친구가 하나밖에 없거나 혹은 한 명도 없고, 사회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이며, 가족 이외의 사람과 친밀한 인간관계가 없으면서 3개월 이상 사회참여를 안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음.
- 청소년위원회(2005)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다섯 가지 기준으로 은둔형 외톨이를 정의하였음.
  - (1) 첫째, 사회적 접촉 없이 3개월 이상 집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 (2) 진학·취업 등의 사회 참여 활동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고 있는 사람.
  - (3) 친구가 하나밖에 없거나 혹은 한 명도 없는 사람.
  - (4) 자신의 은둔 상태에 대한 불안감이나 초조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
  - (5) 정신병적 장애 또는 중증도 이상의 정신지체(IQ 50~55)가 있을 경우는 제외함.
- 오상빈(2019)은 은둔형 외톨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음.
  - (1) 3개월 이상 집이나 자신의 방에서 틀어박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사람. 너무 짧은 기간은 잠시 휴식을 취하는 사람까지 포함될 수 있으므로 3개월 이상으로 정의하였음.
  - (2) 학업이나 직업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학업, 사회 참여에 동기나 의지를 보이지 않는 사람.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워하고, 다른 직업교육을 받기 원하지 않으며, 흥미를 보이지 않음.
  - (3) 친구가 한 명이거나 한 명도 없음. 친구를 사귀고 싶고 교류하고 싶지만 개인적인 성향과 대인관계 기술이 낮아 자신을 알아주거나 교류하는 사람이 없음.
  - (4) 집안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안 하고 있음. 집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모두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생산적인 활동 없이 집에서 지내고 있는지가 은둔형 외톨이의 기준이 될 수 있음.
  - (5) 자신의 은둔 상태에 대한 불안감이나 초조감이 있음. 은둔으로 인한 무력감이나 불안, 초조감을 나타내면서 주변에 있는 가족까지 영향을 미침.

- (6) 지적장애나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장애라는 원인으로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제외함. 은둔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정신의학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신의학적 원인으로 은둔 상태에 이른다고 보지 않았음.
- 모세종(2020)은 은둔형 외톨이를 다음 다섯 가지 특징 중 하나에 해당하며, 그 상태가 6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거나 그러한 적이 있던 사람으로 정의하였음.
- (1) 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는 경우
  - (2) 방에서는 나가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 경우
  - (3) 필수적인 필요로 근처 편의점 등 극히 제한적으로만 외출하는 경우
  - (4) 혼자 하는 취미 활동, 최소한의 가족 모임 등을 할 때만 외출하는 경우
  - (5) 은둔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심리치유, 자조모임 등을 할 때만 외출하는 경우
- 청년재단(2020)은 ‘은둔형 외톨이’라는 단어의 부정적 인상을 고려하여 ‘고립 청년’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음.
- 20대 이상이면서 자발적으로 3개월 이상 사회참여를 하지 않고 철수하거나 회피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
  - 생물학적으로 청소년이 아닌 성인의 연령에서 비교적 초반기에 해당하는 20대 이후의 사람이 심리·경제적 독립 측면에서 또는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유지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개인적으로 소통하지 않는 사람

## 2.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

### 1) 국내 실태조사 현황

- 2000년대 초반 이후 국내에서도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 수준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은 다소 미비한 실정임.
- 구체적이고 공통된 기준이 있는 은둔 청년의 경우 일본 내각부에서 진행한 세 차례의 히키코모리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보기도 하며, 그 경우 우리나라의 은둔형 외톨이 인구는 약 10만 명으로 추산됨(여인중, 2005).
- 또한 통계청의 사회조사,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등에 사회적 고립과 관련된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여 고립·은둔 청년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도 함<sup>4)</sup>.
- 윤철경, 서보람(2020)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2017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만 19~39세 청년 중 은둔형 외톨이의 발생률과 추정인구를 계산하였음.
- 은둔형 외톨이를 ‘외출을 하지 않은 상태가 6개월 이상이며 장애나 임신·출산이 고립의 원인이 아닌 사람’으로 정의하였음.
  - 만 19~39세 청년의 0.9%인 약 13만 5천명이 은둔 청년으로 추산됨.

4) 김춘남, 박승남, 박승희, 김서인. (2018). 사회적 고립의 유형분석 및 지원 방안. 경기복지재단.

- 유민상 외(2021)는 2021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 부가조사 형태로 사회적 고립 문항을 추가하여 만 18~34세 청년의 사회적 고립 수준을 측정하였음.
  - 외부적 고립(연결망, 사회적 지지, 외출 정도)과 내부적 고립(주관적 고립감)을 다층적으로 측정하였음.
  - 그 결과 전체 청년 중 2.5%가 9개의 사회적 고립 지표 중 5개 이상의 영역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광주광역시에서 국내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규모와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349명의 유효 표본을 찾아냈음. 전체 광주 인구에 대해 추산하면 0.9%인 1만 2천여 명이 은둔형 외톨이로 추산됨.
- 또한 PIE나다운청년들, 한국은둔형외톨이부모협회 등 관련 지원기관에서 기관 이용자들을 상대로 고립·은둔 청년의 생활과 특성에 대한 소규모의 현황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음.

## 2) 대표적 사례 -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 2019년 광주광역시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2020년 7월부터 시행됨. 이에 근거하여 2020년 광주광역시의 은둔형 외톨이 현황, 형성 과정, 지원 방안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가 실시됨.
- 해당 조사는 2020년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미만의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 및 가족(보호자)을 모집단으로 목적 표집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은둔형 외톨이 대상자 발굴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사 방법을 병행함.
  - 광주시 내 아파트 거주 세대의 20%에 해당하는 10만 세대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여 해당 안내문을 본 조사대상자가 직접 참여
  - 광주시 내 청년, 청소년 상담기관 홈페이지 안내를 통해 조사대상자 참여 유도
  - 광주광역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구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심리건강연구소 등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조사
- 조사는 현재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응답자, 과거 은둔 생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현재와 과거 모두)을 대상으로 진행됨.
- 조사 내용은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 일상생활, 주로 겪는 어려움과 은둔의 원인, 그리고 지원 요구 등으로 구성됨.
- 조사 결과 총 349명의 은둔형 외톨이가 발굴되었으며, 이 중 당사자 237명, 가족 112명이었음.
- 해당 조사는 전국 최초의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아파트 거주 가구에 대해서만 서면 조사로 진행하여 조사 범위 면에서 다소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또한, 조사대상이 만 65세 미만의 은둔 중이거나 은둔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폭넓게 구성되어, 현재 고립·은둔 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실태와 현황을 참고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음.



### 3.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법적 논의

#### 1)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법적 환경 변화

- 국내법 상에서 사회적 고립은 주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과 연관되어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경우 연령대가 특정되지 않거나 노인 인구를 가리키는 경우가 다수였음.
  - 고독사, 1인가구와 관련된 법령에서 '사회적 고립가구'는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로 정의하는 경우가 다수였음.
- 청년의 고립·은둔 문제에 대한 국내의 인식과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2017년 김미경 의원 대표로 「서울특별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나, 당시 회기 만료로 자동부결되어 제정에는 이르지 못함.
- 그러나 이후 계속해서 조례안과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발의된 끝에 2019년 광주광역시에서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음. 이후 타지역에서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이 잇따라, 현재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조례를 시행 중임.
- 2020년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국내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현재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조례를 시행 중임.

#### 2) 법규상의 용어 정의

- 법률상의 용어는 해석과 적용의 혼란 방지를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개념을 정립하므로, 고립 및 은둔청년과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로 판단됨(김도형 외, 2021).
- 고립 혹은 은둔 청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한 법령은 아래와 같음.
-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2019.10.15. 제정)
  -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함.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국내 최초의 지원 조례임.
-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020.10.29. 제정)
  - 사회적 고립 청년을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진출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으로 정의함.
  -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국내 최초의 지원 조례임.
- 「광주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2021.3.24. 제정)

- 광주광역시 조례에서의 정의와 동일함.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2021.5.20. 제정)
  - 사회적 고립 청년을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함.
  - 양천구 조례와 유사하나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 등 공간적·물리적 고립을 정의에 포함하고 있음. 또한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을 정의에 넣지 않고 ‘일정 기간 이상’의 보다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함.
-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2021.7.14. 제정)
  -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함.
  - 은둔 공간을 ‘집 등의 한정된 공간’으로 특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2021.9.30. 제정)
  -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인하여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함.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2021.9.30. 제정)
  -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함.
  - 부산광역시 조례와 거의 유사함.
- 「광주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2021.11.4. 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에서의 정의와 동일함.
-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021.12.30. 제정)
  - 사회적 고립 청년을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등으로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으로 정의함.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와 유사하나 표현 등에서 차이가 있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021.12.31. 제정)
  - 사회적 고립 청년을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으로 정의함.
  - 서울시 양천구 조례와 유사하나 표현 등에서 차이가 있음. 고립의 자발성을 강조함.
- 「원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022.2.11. 제정)
  -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에서의 정의와 동일함.
- 「청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022.5.13. 제정)

-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에서의 정의와 동일함.
-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022.9.22. 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에서의 정의와 동일함.
-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022.10.11. 제정)
  - 사회적 고립 청년을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등으로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 사람'으로 정의함.
  - 서울시 성북구 조례와 유사함.

## 제2절 조작적 정의를 위한 고립·은둔 청년의 특성과 유형 이해

### 1. 고립 청년의 구분기준

- 고립 청년에 대한 합의된 기준은 없으나, 고립 청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청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연결망과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통하여 청년의 사회적 고립 정도를 측정하고 있었음.
- 사회적 연결망은 개인이 교류하고 있는 사람의 수, 혹은 타인과의 교류 횟수(접촉 빈도)를 통하여 측정함.
  - 이때 교류란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정도의 단순한 일회성 접촉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상의 의미 있는 교류를 뜻함.
  - 가족, 친척, 친구·선후배, 직장 동료·선후배, 기타 지인 등 관계의 친밀도와 종류별로 제시하여 해당하는 사람의 수 혹은 교류 빈도를 측정함.
- 사회적 지지는 곤란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문항으로 측정함.
  - 사회적 지지의 세부 항목은 각 연구에 따라 달랐으나, 물질적·금전적 차원(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과 정서적 차원(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공통적이었음.
  - 각 차원의 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수, 혹은 그러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분류(가족, 친척, 친구 등)를 통하여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측정함.
- 그러나, 고립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를 조건으로 두지 않은 학계에서의 정의와 달리 사회적 고립 청년에 관한 대부분의 법령에서는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등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었으며, 법령 다수에서 ‘집 등의 한정된 공간’,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낌’,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 등의 표현을 사용함.
  - 이는 공간적 고립, (경제적 활동을 포함한) 사회 참여 단절 등의 측면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기존 법령상의 정의와 유사한 방향이나, 은둔형 외톨이를 포함하는 광의의 고립 청년 집단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정의로 보여짐.

### 2. 은둔 청년의 구분기준

- 은둔 청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정의와 구분기준에 대해서는 히키코모리 용어의 최초 소개자인 사이토 다마키의 정의와 일본 후생노동성의 기준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았음.
- 다만 은둔형 외톨이의 주 구분 기준인 외출 정도 및 활동 행태, 주 활동 공간, 은둔 기간에 있어 연구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했음.
- 또한, 대부분의 정의에서 지적장애나 정신질환, 임신·출산·육아·가사 등의 사유로 인한

외출 중단은 은둔으로 분류하지 않았음.

- 고립 청년과 달리 은둔 청년은 집이나 자신의 방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출을 거의 하지 않으며 은둔한다는 공간적 고립에 대한 정의가 공통적으로 나타났음.
  - 은둔 청년이 은둔하는 공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경우, 은둔 청년 자신의 방이나 집 안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그러나 ‘자신만의 공간’ 등 보다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음.
- 은둔 청년의 외출 정도는 연구에 따라 다양한 구분점을 보이며, 활동 행태에 대해 ‘친구가 하나도 없거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한 경우’와 같은 기준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 물리적 외출 여부보다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 중요한 구분점임을 알 수 있음.
  - 사이토 다마키(2012)는 은둔형 외톨이가 반드시 자택에 틀어박혀 있는 것은 아니고 편의점이나 영화관 등 외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가족 외 누구와도 관계하지 않는 점에서 사회적 은둔형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일본 후생노동성과 내각부에서도 취미 활동을 하는 경우까지 준 히키코모리로 분류하였음.
  - 모세종(2020) 또한 은둔형 외톨이를 정의하며 혼자 하는 취미 활동, 최소한의 가족 모임, 심리 치유·자조 모임 등을 위해 외출하는 경우도 은둔형 외톨이로 분류하였음.
  - 방이나 집에서만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오상빈, 2020), 사회활동을 거의 하지 않지만 바깥활동을 하는 경우(박대령, 2020),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경우(청소년위원회, 2005), 친구가 없고 가족 이외의 사람과 친밀한 인간관계가 없는 경우(여인중, 2005), 취학, 취업, 가족 외 친밀한 대인관계가 하나도 없는 경우(김혜원 외, 2021) 등 은둔 청년에 대한 다수의 선행 연구들이 대상자의 사회적 관계 단절을 중요하게 인식하였음.
-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은둔의 지속 기간은 3개월 혹은 6개월을 기준으로 제시됨.
  - 사이토 다마키(2012)와 은둔형 외톨이를 다룬 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6개월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기간을 너무 짧게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부모나 전문가들에 의한 과잉 대응을 방지하기 위한 이유도 포함됨(김혜원 외, 2021).
  - 그러나 국내에서 은둔형 외톨이 연구를 최초로 진행한 여인중(2005)과 청소년위원회(2005), 오상빈(2020), 청년재단(2020) 등 3개월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연구도 있음. 오상빈(2020)은 3개월이면 고립 생활이 시작되어 굳어질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고 밝힘.
  - 또한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 이상’ 등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으며, 대부분의 법률안과 조례가 이에 해당함.
  - 연속적인 은둔 지속 기간을 구분 기준으로 보기보다, 생계 유지나 회복 시도 등을 위해 간헐적인 사회 참여를 한 적이 있지만 은둔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해 온 경우 등도 은둔형 외톨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 또한 존재함(김혜원 외, 2021).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 03

## 서울시 청년의 고립·은둔 규모 추정

1. 조사 개요
2. 규모 추정





## 제3장 서울시 청년의 고립·은둔 규모 추정

### 제1절 조사 개요

#### 1. 조사 설계

-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가구조사는 조사 기준시점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이 있는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며,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표 3-1] 조사 설계

항목	가구조사
표본 추출 단위	• 서울시 만 19~39세 청년 거주 가구
조사 대상	• 서울시 만 19~39세 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
표본추출방법 /프레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가구원 규모, 가구주 연령 변수를 이용하여 표본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25개 자치구*가구원 수</li> <li>- 가구주 연령*가구원 수</li> </ul> </li> <li>• 인구총조사의 “가구주의 연령 및 가구원 수별 가구(일반가구)-시군구” 데이터 이용</li> </ul>
목표 표본 규모	• 만 19~39세 청년이 거주하는 가구 5,000개
조사 기간	• 2022.08.22.~2022.09.23.
조사 방법	• 수행사 보유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 2. 조사 내용

- 응답자 선정질문, 청년 가구원 고립·은둔 성향, 생활 실태, 가족의 어려움 및 필요사항, 응답자 일반사항의 전체 5개 부문의 조사 항목으로 구성됨.

[표 3-2] 조사 내용 - 가구조사

조사 항목	세부 항목
응답자 선정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답자 성별, 응답자 연령, 응답자 거주지역,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원 수, 청년 가구원 포함 여부, 가족 형태, 청년 가구원 성별, 청년 가구원 연령</li> </ul>
청년 가구원 고립·은둔 성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근로 상태/취업 의향, 미취업 사유/기간</li> <li>• 평상시 외출 정도, 은둔 기간, 정서적/물리적 고립 정도, 고립 기간, 고립·은둔 계기</li> </ul>
청년 가구원 생활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소 생활 패턴, 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 평소 식생활, 자기관리 및 청결 상태</li> </ul>
고립·은둔 청년 가족의 어려움 및 필요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립·은둔 청년 가족의 어려움, 고립·은둔 청년의 변화를 위해 가족들이 노력한 부분</li> <li>• 고립·은둔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 고립·은둔 청년의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li> </ul>
응답자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답자/청년 가구원 최종학력, 응답자 직업, 응답자 주택 유형, 응답자 주택의 소유 형태, 응답자 월평균 가구소득</li> </ul>

## 제2절 규모 추정

### 1. 고립·은둔의 조작적 정의

- 고립·은둔 청년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추정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고립과 은둔의 정의 및 그 범위를 설정하는 것임. 앞서 문헌조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는 아직 고립과 은둔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으며, 연구자마다 정의와 구분기준이 다름. 이에 실태조사에 앞서 국내외의 다양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고립·은둔 청년 관련 연구자 및 지원기관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고립과 은둔의 구분기준을 마련하였음.

#### 1) 은둔의 정의 및 분류기준

- 본 조사에서는 고립과 은둔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립 내에 은둔이 포함되어 있으며, 은둔을 고립의 유형 중 하나로 전제하였음. 은둔의 정의는 일본의 히키코모리 정의와 같이 물리적 단절을 바탕으로 한 기존의 정의가 존재하며 본 조사에서도 이를 채택하여 수정·활용하였음.
- 은둔 청년은 다음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로 정의함.
  - 현재 외출이 거의 없으며 본인의 방 또는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자로, 다음의 4가지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함.
    - (1)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함.
    - (2)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는 외출함.
    - (3)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음.
    - (4)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음.
  - 위의 외출이 거의 없는 은둔 생활이 최소 6개월 이상 유지되어 왔음.
  - 지난 1주일간 경제활동이 없었고, 1개월 이내에 구직활동 및 학업을 전혀 하지 않았음.

#### 2) 고립의 정의 및 분류 기준

- 고립은 은둔을 포괄하는 더 광범위한 현상으로써, 국내외 고립 관련 선행 연구에서는 고립의 범위 및 기준을 매우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개인이 지닌 사회적 연결망과 지지의 수준을 통해 고립을 측정하고 있음. 본 조사도 동일하게 사회적 연결망과 지지의 2가지 요소를 활용하였고,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분류 기준을 재정립하였음.
- 고립 청년은 다음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로 정의함.
  - 현재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 상태에 놓인 자로, 다음의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함.

(1) 정서적 고립: 아래 4가지의 상황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음.

- ①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 ② 급한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 ③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 ④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2) 물리적 고립: 아래의 가족·친척 외 사람들과 대면교류가 1년에 한 두 번 이하 또는 전혀 없음.

- ①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교류
- ② 이외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의 대면교류(업무 상 교류는 제외)

- 위의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유지되어 왔음.

○ 고립과 은둔의 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에는 은둔 청년으로 분류하였음.

## 2. 규모 추정 과정

○ 고립·은둔 청년의 규모 추정 조사는 표본 대표성을 위해 가구단위 표집으로 설계되었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각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해당 가구에 청년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가구 내 모든 만 19~39세 청년에 대해 고립·은둔 상태를 확인하였음. 가구 내 모든 청년을 조사했기 때문에 이를 개인 데이터로 간주하여 규모 추정 시 청년 개인단위로 전환하여 분석하였음.

○ 총 5,221가구의 6,926명의 청년을 조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음.

○ 조사된 청년 개인단위 기준의 데이터에 2021년 인구총조사 등록 센서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별\*연령\*25개 자치구별 사후가중치 적용하여 규모를 추정하였음.

[표 3-3] 성별\*연령별\*25개 자치구별 모집단 현황

행정구역	19~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합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종로구	5,672	7,065	6,477	6,133	4,878	4,757	4,285	4,313	43,580
중구	3,692	4,896	5,064	5,469	4,880	4,883	4,586	4,486	37,956
용산구	6,172	7,943	8,623	9,809	9,078	9,179	8,414	8,460	67,678
성동구	10,685	11,518	12,683	12,158	10,774	11,567	11,537	11,191	92,113
광진구	13,258	15,726	17,228	18,703	14,082	14,205	12,073	12,201	117,476
동대문구	14,553	18,070	16,185	14,532	12,225	11,429	12,049	11,227	110,270
종량구	12,003	12,106	15,325	15,945	14,303	13,808	13,934	12,820	110,244
성북구	18,239	23,656	17,309	16,984	13,751	13,545	14,408	14,430	132,322
강북구	9,443	10,905	11,172	10,836	9,297	8,520	9,387	8,407	77,967
도봉구	10,471	11,025	10,997	10,645	9,309	8,921	9,877	9,287	80,532
노원구	21,721	22,048	17,414	16,187	14,714	14,471	15,480	15,701	137,736
은평구	14,535	15,571	16,778	18,766	15,334	16,268	16,081	16,121	129,454

행정구역	19~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합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서대문구	12,127	18,208	13,686	14,030	10,559	10,993	10,430	10,498	100,531
마포구	12,654	16,013	16,264	19,088	14,422	16,711	14,390	15,370	124,912
양천구	15,084	14,266	14,248	14,306	12,641	12,419	13,671	14,233	110,868
강서구	16,344	18,479	23,012	27,880	24,232	24,600	23,187	21,975	179,709
구로구	11,973	12,402	14,974	15,602	15,044	14,689	15,037	14,019	113,740
금천구	6,967	7,573	11,565	11,230	10,655	8,596	8,829	7,026	72,441
영등포구	10,279	11,900	16,665	19,160	17,812	17,607	16,246	14,931	124,600
동작구	15,417	17,422	18,833	18,921	15,578	15,166	13,880	13,548	128,765
관악구	19,778	23,524	35,652	34,083	27,120	21,470	18,906	15,501	196,034
서초구	12,229	13,333	12,340	13,897	12,389	14,232	13,223	15,488	107,131
강남구	15,722	16,521	16,729	19,035	16,688	18,746	16,578	19,810	139,829
송파구	20,094	20,690	22,912	26,407	23,773	25,907	24,430	26,525	190,738
강동구	13,773	13,699	16,059	17,367	16,401	16,744	17,600	17,726	129,369
합계	322,885	364,559	388,194	407,173	349,939	349,433	338,518	335,294	2,855,995

### 3. 규모 추정 결과

- 서울시 거주 청년 중 고립·은둔 성향이 있는 청년의 규모를 추정한 결과, 약 4.5%가 고립 또는 은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립은 3.3%, 은둔은 1.2%였음. 조사된 데이터 6,926명 기준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1.18\%$ 였음.
- 이를 서울시 청년 인구에 적용하였을 때, 서울시의 고립·은둔 청년은 12만 6천 명~12만 9천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고립은 9만 3천 명~9만 6천 명, 은둔은 3만 3천 명~3만 3천 7백 명임.

[표 3-4] 고립·은둔 청년 규모 추정 결과

	비율	추산인원
고립·은둔 전체	4.5%	126,829명 ~ 129,852명
고립	3.3%	93,820명 ~ 96,056명
은둔	1.2%	33,009명 ~ 33,796명

# 04

##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2. 서울시 청년 및 고립·은둔 청년  
비교 분석



## 제4장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 제1절 조사 개요

#### 1. 조사 설계

-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는 조사 기준시점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개인을 모집단으로 하며,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표 4-1] 조사 설계

항목	청년조사
표본 추출 단위	• 서울시 만 19~39세 청년 개인
조사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표본 추출 방법 /프레임	• 성*연령 변수를 활용하여 표본 설계 • 행정안전부의 “2022년 연령별 주민등록 인구통계” 데이터 이용
목표 표본 규모	• 만 19~39세 청년 5,000명 • 5,000명 내 고립·은둔 성향 청년+부스터 샘플 포함하여 고립·은둔 청년 최소 500명 확보
조사 기간	• 2022.08.25.~2022.09.21.
조사 방법	• 수행사 보유 패널 및 고립·은둔 청년 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청년 대상 온라인 조사 (* 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 생명의 전화, 한국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 및 연대 내 소속기관 등)

#### 2. 조사 내용

- 응답자 선정 질문, 고립·은둔 성향, 생활 실태, 지원 필요사항, 응답자 일반사항의 전체 5개 부문의 조사 항목으로 구성됨.

[표 4-2] 조사 내용

조사 항목	세부 항목
응답자 선정 질문	• 성별, 연령, 거주지역, 출생지, 가구원 수, 가족 형태
고립·은둔 성향	• 현재 근로 상태/취업 의향, 미취업 사유/기간, 생활비 출처, 주관적 사회경제적 수준 • 평상시 외출 정도, 은둔 기간, 과거 은둔 경험, 최초 은둔 시작 시기, 일상적 교류 빈도, 정서적/물리적 고립 정도, 고립 기간, 과거 고립 경험, 최초 고립 시작 시기, 고립·은둔 계기 • 온라인 대화 여부/방식, 외로움 정도, 아동청소년기 경험, 성인기 후 경험
생활 실태	• 평소 생활 패턴, 수면 및 활동 패턴, 집에서 하는 활동, PC/모바일 활동, 평소 식생활, 자기관리 및 청결 상태,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우울 정도
지원 필요사항	• 벗어나려 했던 경험/방법, 가장 필요한 도움, 지원 제공 장소/방식/기간 • 서울시 지원사업 인지도/인지 경로, 서울시 지원사업 참여 여부, 서울시 지원사업 만족도/불만족이유, 서울시 지원사업 참여 의향/불참 이유
응답자 일반사항	• 최종학력, 직업, 혼인상태, 주택 유형, 주택의 소유 형태, 타인과 방 공유 여부

### 3. 분석 방법

#### 1) 고립·은둔 청년의 분석 범위

- 앞서 고립·은둔 청년의 규모 추정을 위해 고립과 은둔의 기준을 정의했으나, 청년조사에서는 고립·은둔 청년의 범위를 보다 넓게 설정하여 분석하였음. 왜냐하면 고립·은둔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하는 청년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해당 정의에는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으나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경제활동을 했거나, 고립이나 은둔 상태가 6개월 미만으로 짧으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를 반복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서적으로 가족에게 의존하고 있고 친구가 한두 명 있으나 그 관계가 미미한 경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나 그 외의 모든 사회적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경우 등이 있음.
- 이와 같은 사각지대를 포함하기 위해 고립·은둔 청년의 조작적 정의 중 일부 해당하지 않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에 대해 인구통계학적 특성, 우울감, 외로움, 일상생활 패턴, 고립·은둔 수준 등을 확인하여 고립·은둔 여부를 임의 판단하였음.
- 또한, 고립·은둔 청년 분석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표본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온라인 패널조사로 모집된 고립·은둔 청년에 더하여 관련 지원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을 추가로 조사하여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음.



[그림 4-1] 고립·은둔 청년의 분석 범위

#### 2) 자료 처리 방법

- 수집된 데이터는 에디팅 및 클리닝 작업을 거친 후 SPSS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과 같은 자료 분석 절차를 거쳐 기초 통계량 값을 산출하였음.



## 4. 응답자 특성

○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음.

[표 4-3] 응답자 특성 - 청년조사(전체 응답자)

전 체		사례수(명)	비 율(%)
		(5513)	100.0
성별	남성	(2680)	48.6
	여성	(2833)	51.4
연령대	만 19~24세	(676)	12.3
	만 25~29세	(1710)	31.0
	만 30~34세	(1530)	27.8
	만 35~39세	(1597)	29.0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및 거주	(3135)	57.7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2298)	42.3
가구 유형	1인가구	(1165)	21.1
	다인가구	(4348)	78.9
거주 자치구	강남구	(512)	9.3
	강동구	(296)	5.4
	강북구	(128)	2.3
	강서구	(376)	6.8
	관악구	(281)	5.1
	광진구	(253)	4.6
	구로구	(206)	3.7
	금천구	(156)	2.8
	노원구	(257)	4.7
	도봉구	(151)	2.7
	동대문구	(225)	4.1
	동작구	(235)	4.3
	마포구	(235)	4.3
	서대문구	(163)	3.0
	서초구	(177)	3.2
	성동구	(135)	2.4
	성북구	(236)	4.3
	송파구	(369)	6.7
	양천구	(209)	3.8
	영등포구	(258)	4.7
	용산구	(113)	2.0
	은평구	(205)	3.7
	종로구	(92)	1.7
	중구	(66)	1.2
	종랑구	(179)	3.2

\* 고립·은둔 청년 지원기관을 통해 모집된 응답자 중 무응답은 제외한 비율임

[표 4-4] 응답자 특성 - 청년조사(고립·은둔 청년)

전 체		사례수(명)	비 율(%)
		(486)	100.0
성별	남성	(227)	46.7
	여성	(259)	53.3
연령대	만 19~24세	(66)	13.6
	만 25~29세	(157)	32.3
	만 30~34세	(141)	29.0
	만 35~39세	(122)	25.1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및 거주	(245)	54.7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203)	45.3
가구 유형	1인가구	(127)	26.1
	다인가구	(359)	73.9
거주 자치구	강남구	(29)	6.0
	강동구	(26)	5.3
	강북구	(11)	2.3
	강서구	(34)	7.0
	관악구	(22)	4.5
	광진구	(35)	7.2
	구로구	(18)	3.7
	금천구	(14)	2.9
	노원구	(19)	3.9
	도봉구	(13)	2.7
	동대문구	(28)	5.8
	동작구	(18)	3.7
	마포구	(27)	5.6
	서대문구	(8)	1.6
	서초구	(9)	1.9
	성동구	(10)	2.1
	성북구	(29)	6.0
	송파구	(22)	4.5
	양천구	(21)	4.3
	영등포구	(21)	4.3
	용산구	(12)	2.5
	은평구	(28)	5.8
	종로구	(13)	2.7
	중구	(2)	0.4
	중랑구	(17)	3.5

\* 고립·은둔 청년 지원기관을 통해 모집된 응답자 중 무응답은 제외한 비율임

## 제2절 서울시 청년 및 고립·은둔 청년 비교 분석

### 1. 고립 정도 및 실태

#### 1) 지난 1주일간 경제활동 여부

- 지난 1주일간 경제활동 여부에 대해 고립·은둔 청년의 42.0%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일을 하였다’는 50.2%였음.
- 고립·은둔 청년이 서울시 청년 전체 대비 일을 하지 않은 비율이 3배 이상 높았음.

A1. 여러분은 지난주에 돈을 벌기 위해 1시간 이상 일을 하셨나요?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그림 4-2] 지난 1주일간 경제활동 여부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만 35~39세가 다른 연령대 대비 지난주에 ‘일을 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가구유형 및 가족동거 여부에 따라서는 1인가구,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가 ‘일을 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표 4-5] 지난 1주일간 경제활동 여부

[Base: 고립·은둔 청년(n=48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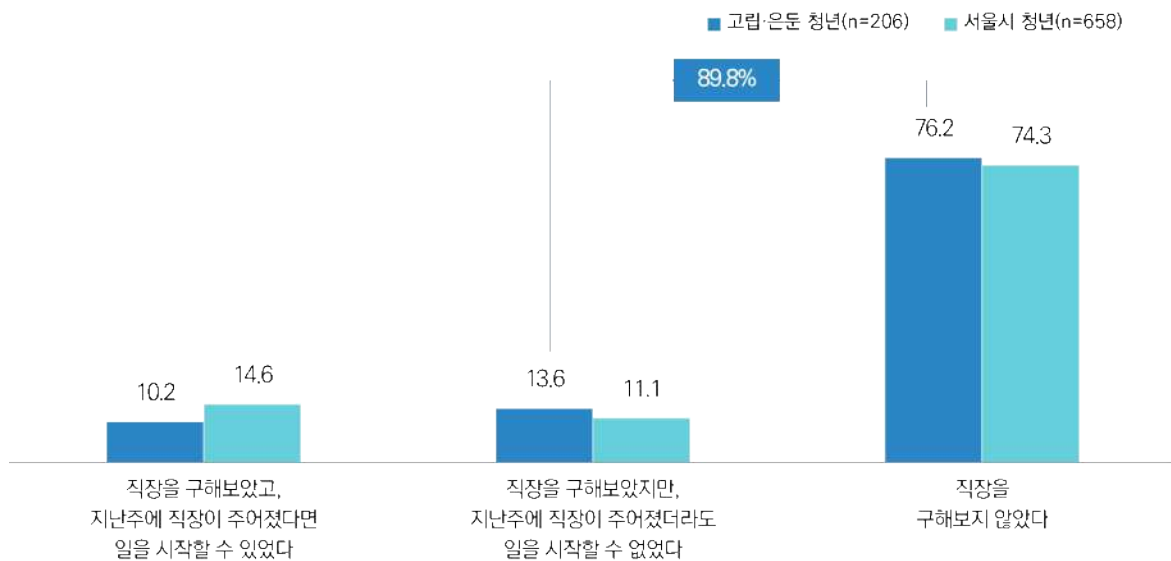
		사례수	일을 하였다	휴가 및 일시 휴직 중이다	일을 하지 않았다
전체		(486)	42.0	7.8	50.2
성별	남성	(227)	41.9	7.5	50.7
	여성	(259)	42.1	8.1	49.8
연령대	만 19~24세	(66)	27.3	6.1	66.7
	만 25~29세	(157)	44.6	7.6	47.8
	만 30~34세	(141)	37.6	9.2	53.2
	만 35~39세	(122)	51.6	7.4	41.0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245)	45.7	9.0	45.3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203)	45.3	7.9	46.8
가구 유형	1인가구	(127)	45.7	5.5	48.8
	다인가구	(359)	40.7	8.6	50.7
가족 동거	가족 동거	(348)	40.2	8.6	51.1
	가족 비동거	(138)	46.4	5.8	47.8

## 2) 지난 4주간 취업 활동 여부

- 지난 1주일간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응답자에게 지난 4주간 직장(일자리)을 구해보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10명 중 9명(89.8%)은 '취업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할 수 없었다'고 응답하였음.
- 이 중 '구직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76.2%였으며, 나머지 13.6%는 '직장을 구해보았으나,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였음.

A2. 여러분은 지난 4주내에 직장(일자리)을 구해 보셨나요? (창업 준비도 포함)

[Base: 지난 1주일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자, 단위: %]



[그림 4-3] 지난 4주간 취업 활동 여부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만 19~24세는 다른 연령대 대비 ‘직장을 구해보지 않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6] 지난 4주간 취업 활동 여부

[Base: 지난 1주일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고립·은둔 청년(n=20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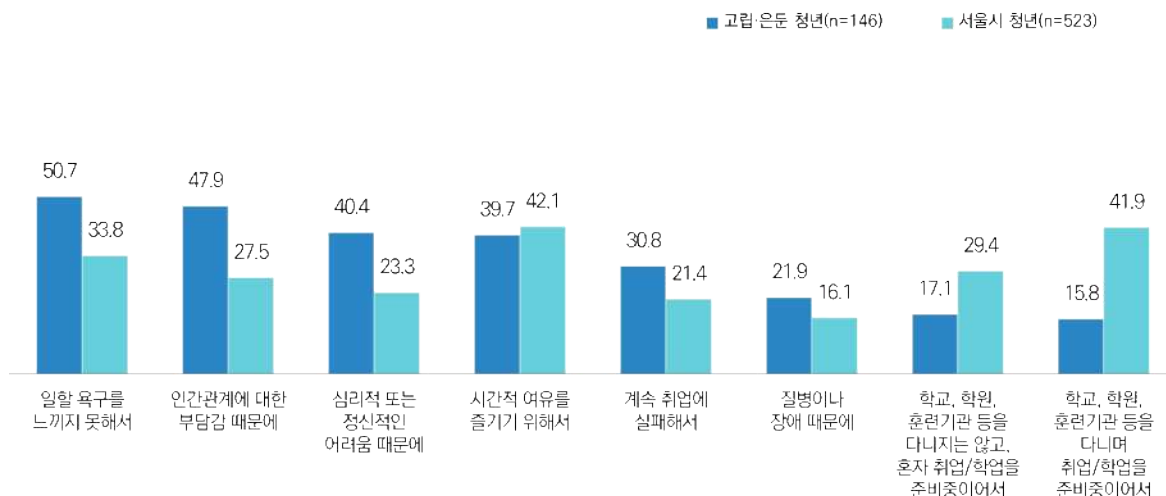
		사례수	직장을 구해보았고,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직장을 구해보았지만,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직장을 구해보지 않았다
전체		(206)	10.2	13.6	76.2
성별	남성	(94)	10.6	16.0	73.4
	여성	(112)	9.8	11.6	78.6
연령대	만 19~24세	(36)	2.8	8.3	88.9
	만 25~29세	(60)	11.7	10.0	78.3
	만 30~34세	(62)	14.5	21.0	64.5
	만 35~39세	(48)	8.3	12.5	79.2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111)	9.0	14.4	76.6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95)	11.6	12.6	75.8
가구 유형	1인가구	(49)	8.2	18.4	73.5
	다인가구	(157)	10.8	12.1	77.1
가족 동거	가족 동거	(153)	11.1	11.8	77.1
	가족 비동거	(53)	7.5	18.9	73.6

### 3) 지난 4주간 취업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 지난 4주간 취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직장이 주어졌어도 일을 할 수 없었던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고립·은둔 청년의 경우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50.7%)’,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47.9%)’, ‘심리적 또는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40.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타인과의 교류에 부담감, 심리적 긴장감이 높아 일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갖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여짐.
- 한편, 서울시 청년의 경우 이미 ‘학교, 학원, 훈련기관 등을 다니며 취업/학업을 준비 중이어서’,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등이 상위로 꼽혀 고립·은둔 청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음.

A2-1. 여러분은 ‘직장을 구해보았지만,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거나’, ‘직장을 구해보지 않았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다음 중 그 이유를 골라 주세요.

[Base: 지난 4주간 취업 활동을 하지 않은 자, 단위: %, 복수응답]



[그림 4-4] 지난 4주간 취업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취업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가 다양했으며, 그 중에서도 ‘심리적 또는 정신적인 어려움’에서 남성과 여성의 응답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음.
- 연령대별로는 만 25~29세는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심리적 또는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가, 만 30~34세는 ‘계속 취업에 실패해서’,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가, 만 35~39세는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즉, 20대의 경우 대인관계 및 심리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부담감이, 30대의 경우 계속된 취업실패와 욕구 상실이 주된 이유라 볼 수 있음.
- 서울 이주 여부에 따라서는 서울에서 출생 및 거주해온 응답자에 비해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해온 응답자가 더 다양한 이유로 취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7] 지난 4주간 취업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Base: 지난 4주간 취업 활동을 하지 않은 고립·은둔 청년(n=146), 단위: %, 복수응답]

		사례수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	인간 관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심리적 또는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계속 취업에 실패해서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학교, 학원, 훈련기관 등을 다니지 않고 혼자 취업/학업 준비 중 이어서	학교, 학원, 훈련기관 등을 다니며 취업/학업 준비 중 이어서
전체		(146)	50.7	47.9	40.4	39.7	30.8	21.9	17.1	15.8
성별	남성	(69)	45.7	43.5	29.0	31.9	31.9	18.8	15.9	15.9
	여성	(77)	55.8	51.9	50.6	46.8	29.9	24.7	18.2	15.6
연령대	만 19~24세	(29)	53.3	41.4	41.4	58.6	10.3	17.2	27.6	31.0
	만 25~29세	(41)	53.7	61.0	48.8	39.0	34.1	14.6	17.1	22.0
	만 30~34세	(37)	40.5	43.2	35.1	29.7	48.6	29.7	24.3	13.5
	만 35~39세	(39)	56.4	43.6	35.9	35.9	25.6	25.6	2.6	0.0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86)	47.7	43.0	40.7	33.7	32.6	20.9	14.0	19.8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60)	55.0	55.0	40.0	48.3	28.3	23.3	21.7	10.0
가구 유형	1인가구	(26)	46.2	46.2	38.5	38.5	30.8	26.9	3.8	0.0
	다인가구	(120)	52.1	48.3	40.8	40.0	30.8	20.8	20.0	19.2
가족 동거	가족 동거	(118)	51.3	47.5	40.7	39.8	30.5	20.3	20.3	19.5
	가족 비동거	(28)	50.0	50.0	39.3	39.3	32.1	28.6	3.6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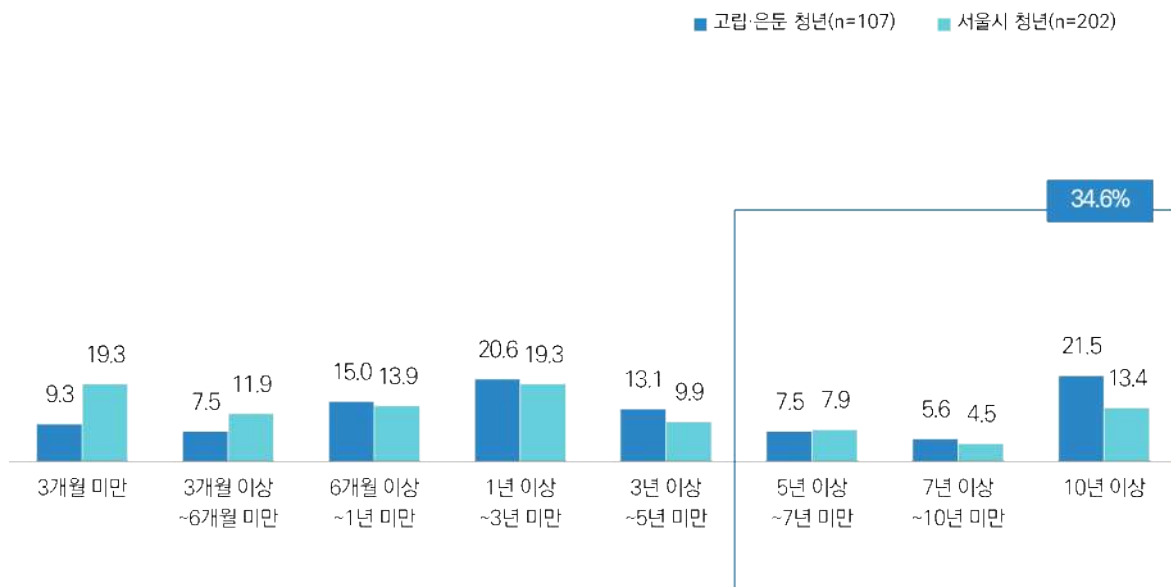


#### 4) 경제활동 및 학업 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 지난 1주일간 취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응답자 중, 학업 활동조차 하지 않은 응답자에게 그 기간에 대해 질문한 결과, 고립·은둔 청년 3명 중 1명(34.6%)이 해당 생활을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해왔으며, 10년 이상인 비율도 21.5%나 되었음.

A3. 여러분은 앞서 지난 1주일간 일이나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활이 얼마나 되었나요?

[Base: 지난 1주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지난 4주간 학업 활동 또한 하지 않은 자, 단위: %]



[그림 4-5] 경제활동 및 학업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은 여성 대비 상대적으로 ‘10년 이상’으로 초장기적인 경우와 ‘1~3년 미만’의 단기적인 경우로 양극화된 경향이 나타났으며, 여성은 ‘6개월~7년 미만’ 구간에 밀집되어 있었음.
- 서울 이주 여부에 따라서는 서울에서 출생하여 거주해온 응답자가 ‘10년 이상’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해온 응답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그 기간이 길었음.

[표 4-8] 경제활동 및 학업 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Base: 지난 1주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지난 4주간 학업 활동 또한 하지 않은 고립·은둔 청년(n=10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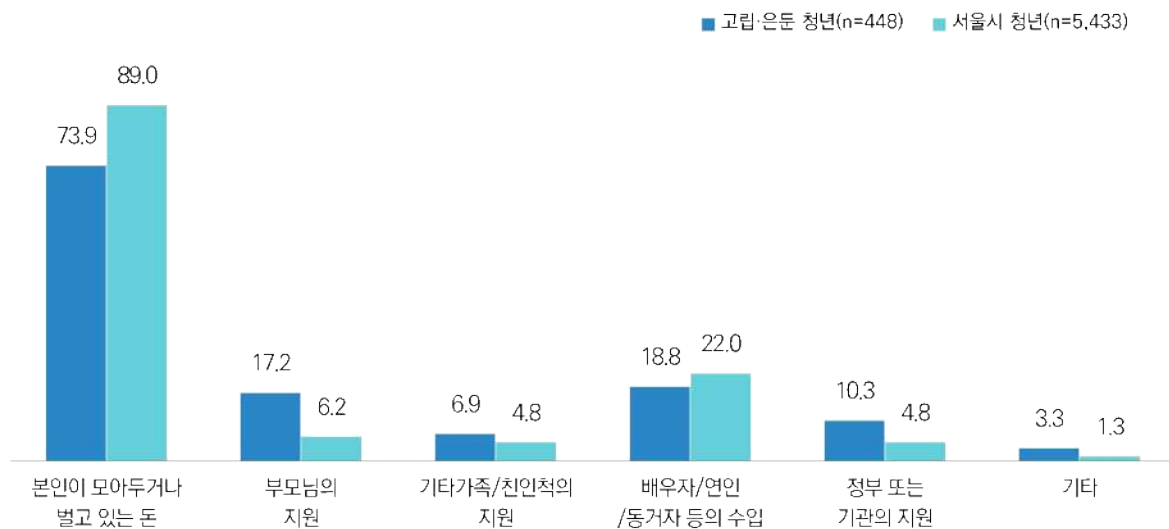
		사례수	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7년 미만	7~10년 미만	10년 이상
전체		(107)	9.3	7.5	15.0	20.6	13.1	7.5	5.6	21.5
성별	남성	(53)	11.3	5.7	11.3	26.4	11.3	3.8	3.8	26.4
	여성	(54)	7.4	9.3	18.5	14.8	14.8	11.1	7.4	16.7
연령대	만 19~24세	(14)	14.3	21.4	28.6	21.4	7.1	7.1	0.0	0.0
	만 25~29세	(27)	11.1	7.4	3.7	33.3	18.5	7.4	14.8	3.7
	만 30~34세	(28)	14.3	3.6	21.4	17.9	21.4	10.7	0.0	10.7
	만 35~39세	(38)	2.6	5.3	13.2	13.2	5.3	5.3	5.3	50.0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62)	6.5	8.1	12.9	19.4	8.1	8.1	6.5	30.6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45)	13.3	6.7	17.8	22.2	20.0	6.7	4.4	8.9
가구 유형	1인가구	(25)	12.0	12.0	24.0	20.0	16.0	8.0	0.0	8.0
	다인가구	(82)	8.5	6.1	12.2	20.7	12.2	7.3	7.3	25.6
가족 동거	가족 동거	(80)	8.8	6.3	12.5	21.3	10.0	7.5	7.5	26.3
	가족 비동거	(27)	11.1	11.1	22.2	18.5	22.2	7.4	0.0	7.4

## 5) 생활비 부담 방식

- 고립·은둔 청년은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주로 ‘본인이 모아두거나 벌고 있는 돈(73.9%)’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그 외에 ‘배우자/연인/동거자 등의 수입(18.8%)’ 또는 ‘부모님의 지원(17.2%)’, ‘정부 또는 기관의 지원(10.3%)’ 등에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서울시 청년에 비해 본인의 자부담 비율은 낮고, ‘부모’나 ‘정부 또는 기관’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A4.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어디서 마련하고 계신가요?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복수응답]<sup>5)</sup>



[그림 4-6] 생활비 부담 방식

5) 고립·은둔 청년 지원기관을 통해 모집된 응답자 중 해당 문항 무응답자는 제외한 비율임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만 19~24세는 부모 외에도 ‘조부모’, ‘형제/자매’, ‘기타 친인척’ 등 다른 가족들에게 의지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만 30~34세는 ‘정부 또는 기관의 지원’, 만 35~39세는 ‘본인이 모아두거나 벌고 있는 돈’ 또는 ‘배우자/연인/동거자 등의 수입’이 높게 나타나 30대는 상대적으로 가족·친인척에게 의지하는 비율이 낮았음.
- 서울 이주 여부에 따라서는 서울에서 출생 및 거주해온 응답자는 ‘배우자/연인/동거자 등의 수입’이,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해온 응답자는 ‘본인 부담’, ‘부모님의 지원’, ‘정부 또는 기관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가구유형 및 가족동거 여부에 따라서는 1인가구와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는 ‘부모님’이나 ‘정부 또는 기관의 지원’이, 다인가구와 가족과 동거하는 응답자는 ‘배우자/연인/동거자 등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4-9] 생활비 부담 방식

[Base: 고립·은둔 청년(n=448), 단위: %, 복수응답]<sup>6)</sup>

		사례수	본인이 모아두거나 벌고 있는 돈	부모님의 지원	조부모님의 지원	형제/ 자매의 지원	기타 친인척의 지원	배우자/ 연인/ 동거자 등의 수입	정부 또는 기관의 지원	기타
전체		(448)	73.9	17.2	3.1	2.2	1.6	18.8	10.3	3.3
성별	남성	(206)	76.2	17.0	2.9	2.4	2.9	17.0	10.2	2.9
	여성	(242)	71.9	17.4	3.3	2.1	0.4	20.2	10.3	3.7
연령대	만 19~24세	(58)	62.1	20.7	13.8	6.9	6.9	19.0	8.6	3.4
	만 25~29세	(142)	74.6	18.3	2.8	1.4	2.1	14.1	8.5	5.6
	만 30~34세	(128)	75.0	21.9	1.6	2.3	0.0	18.8	14.1	3.1
	만 35~39세	(120)	77.5	9.2	0.0	0.8	0.0	24.2	9.2	0.8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245)	71.4	12.2	3.3	3.7	2.0	23.3	6.1	4.1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203)	76.8	23.2	3.0	0.5	1.0	13.3	15.3	2.5
가구 유형	1인가구	(114)	77.2	23.7	0.9	2.6	0.0	1.8	14.0	2.6
	다인가구	(334)	72.8	15.0	3.9	2.1	2.1	24.6	9.0	3.6
가족 동거	가족 동거	(323)	73.1	15.2	4.0	2.2	2.2	24.1	9.0	3.7
	가족 비동거	(125)	76.0	22.4	0.8	2.4	0.0	4.8	13.6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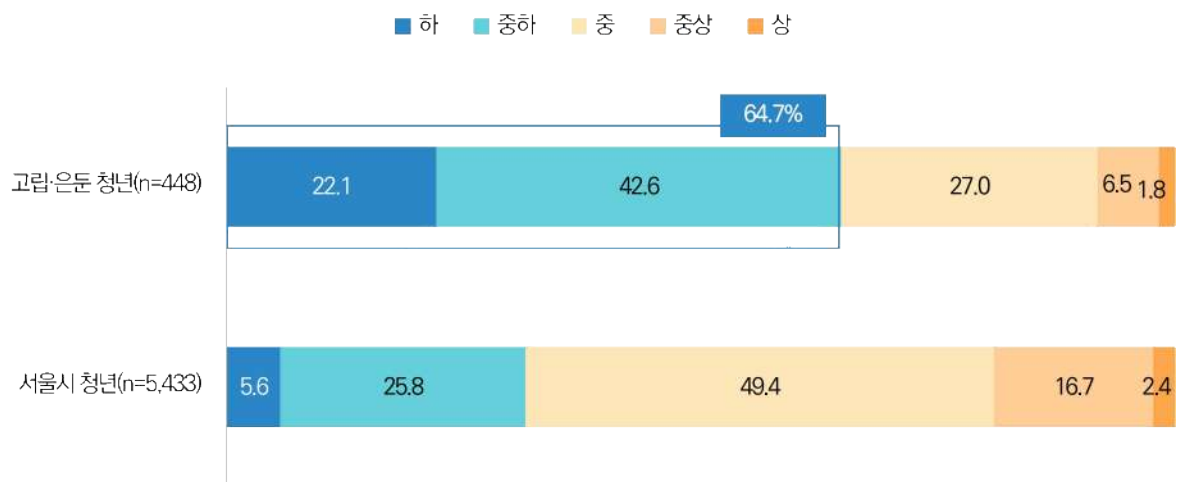
6) 고립·은둔 청년 지원기관을 통해 모집된 응답자 중 해당 문항 무응답자는 제외한 비율임

## 6) 주관적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수준

- 본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고립·은둔 청년 10명 중 6명(64.7%) 이상이 보통 이하라고 응답했으며, ‘중하’는 42.6%, ‘하’는 22.1%로 나타났다.
- 보통 이하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서울시 청년 대비 2배 이상 높았음.

A5.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그림 4-7] 주관적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수준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만 19~29세는 ‘중’ 또는 ‘중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와 반대로 30대는 ‘중하’, ‘하’의 비율이 높아 연령대별로 차이가 나타났음.
- 가구유형 및 가족동거 여부 별로는 1인가구,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는 ‘하’, 다인가구, 가족과 동거하는 응답자는 ‘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4-10] 주관적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수준

[Base: 고립·은둔 청년(n=448), 단위: %]<sup>7)</sup>

		사례수	하	중하	중	중상	상
전체		(448)	22.1	42.6	27.0	6.5	1.8
성별	남성	(206)	22.3	42.2	25.7	5.8	3.9
	여성	(242)	21.9	43.0	28.1	7.0	0.0
연령대	만 19~24세	(58)	12.1	31.0	39.7	13.8	3.4
	만 25~29세	(142)	21.1	42.3	27.5	7.7	1.4
	만 30~34세	(128)	28.9	42.2	21.9	4.7	2.3
	만 35~39세	(120)	20.8	49.2	25.8	3.3	0.8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245)	20.0	41.6	29.0	7.3	2.0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203)	24.6	43.8	24.6	5.4	1.5
가구 유형	1인가구	(114)	30.7	41.2	21.9	2.6	3.5
	다인가구	(334)	19.2	43.1	28.7	7.8	1.2
가족 동거	가족 동거	(323)	19.2	43.3	28.8	7.4	1.2
	가족 비동거	(125)	29.6	40.8	22.4	4.0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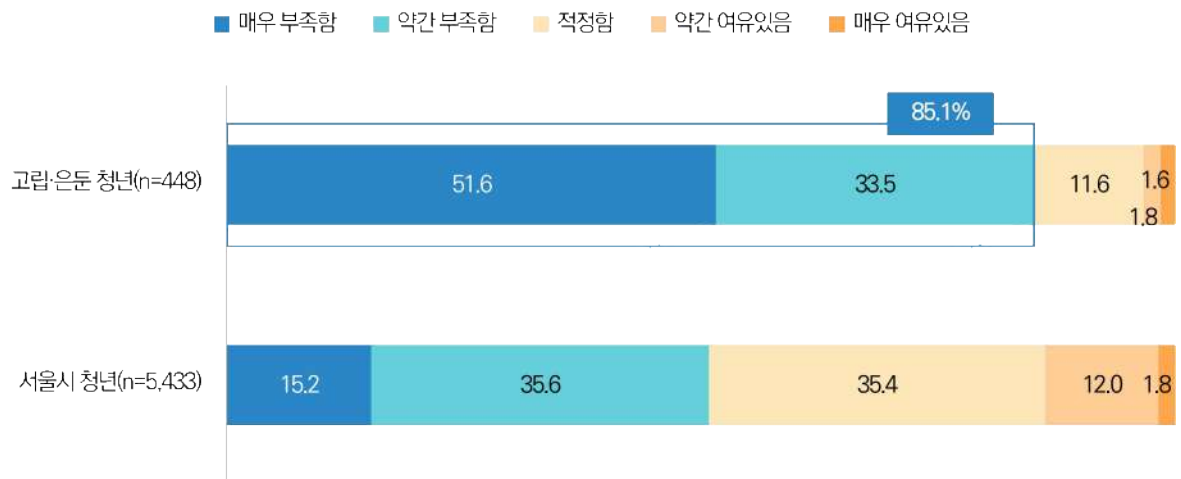
7) 고립·은둔 청년 지원기관을 통해 모집된 응답자 중 해당 문항 무응답자는 제외한 비율임

## 7) 주관적인 개인의 경제적 수준

- 개인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서는 고립·은둔 청년의 85.1%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약간 부족함'은 33.5%, '매우 부족함'은 51.6%였음.
- 서울시 청년 대비 부족하다는 응답이 약 1.7배 높게 나타났음.

A5.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 자신의 경제적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sup>8)</sup>



[그림 4-8] 주관적인 개인의 경제적 수준

8) 고립·은둔 청년 지원기관을 통해 모집된 응답자 중 해당 문항 무응답자는 제외한 비율임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만 19~24세는 ‘적정함’, 만 30~34세는 ‘매우 부족함’이 다른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4-11] 주관적인 개인의 경제적 수준

[Base: 고립·은둔 청년(n=448), 단위: %]<sup>9)</sup>

		사례수	매우 부족함	약간 부족함	적정함	약간 여유있음	매우 여유있음
전체		(448)	51.6	33.5	11.6	1.8	1.6
성별	남성	(206)	52.4	32.0	9.2	2.9	3.4
	여성	(242)	50.8	34.7	13.6	0.8	0.0
연령대	만 19~24세	(58)	36.2	36.2	22.4	3.4	1.7
	만 25~29세	(142)	50.7	33.8	13.4	1.4	0.7
	만 30~34세	(128)	57.8	33.6	3.9	1.6	3.1
	만 35~39세	(120)	53.3	31.7	12.5	1.7	0.8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245)	50.6	33.9	11.4	2.4	1.6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203)	52.7	33.0	11.8	1.0	1.5
가구 유형	1인가구	(114)	52.6	31.6	12.3	1.8	1.8
	다인가구	(334)	51.2	34.1	11.4	1.8	1.5
가족 동거	가족 동거	(323)	51.4	33.7	11.5	1.9	1.5
	가족 비동거	(125)	52.0	32.8	12.0	1.6	1.6

9) 고립·은둔 청년 지원기관을 통해 모집된 응답자 중 해당 문항 무응답자는 제외한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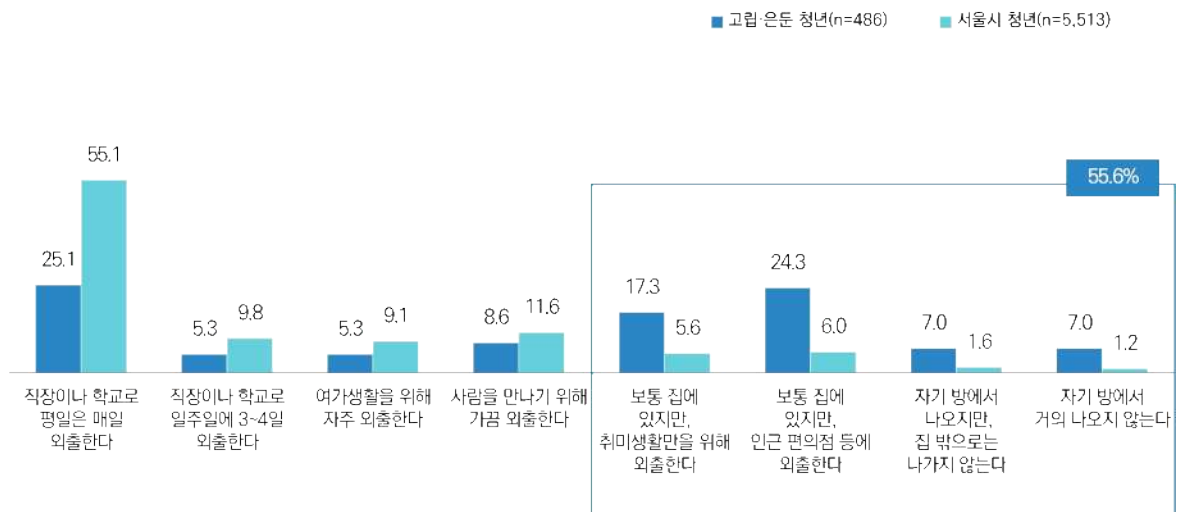


## 8) 평소 외출 정도

- 평소 얼마나 자주 외출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고립·은둔 청년의 55.6%는 거의 외출하지 않으며 주로 집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기 방에서 나오나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거나’, ‘자기 방에서 전혀 나오지 않는’ 비율은 각각 7.0% 수준이었음.

A7. 여러분은 평소에 얼마나 자주 외출하시나요?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그림 4-9] 평소 외출 정도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만 35~39세는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하거나, ‘보통은 집에 있지만, 편의점 등에 외출’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만 19~24세는 ‘사람을 만나거나, 취미 생활을 위해 가끔 외출’하거나 혹은 ‘집안이나 방에서 나오지 않는’ 생활을 하는 비율 모두 다른 연령대 대비 높았음.
- 가구유형 및 가족동거 여부 별로는 1인가구,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는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하거나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은둔 생활을 하는 비율 모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4-12] 평소 외출 정도

[Base: 고립·은둔 청년(n=48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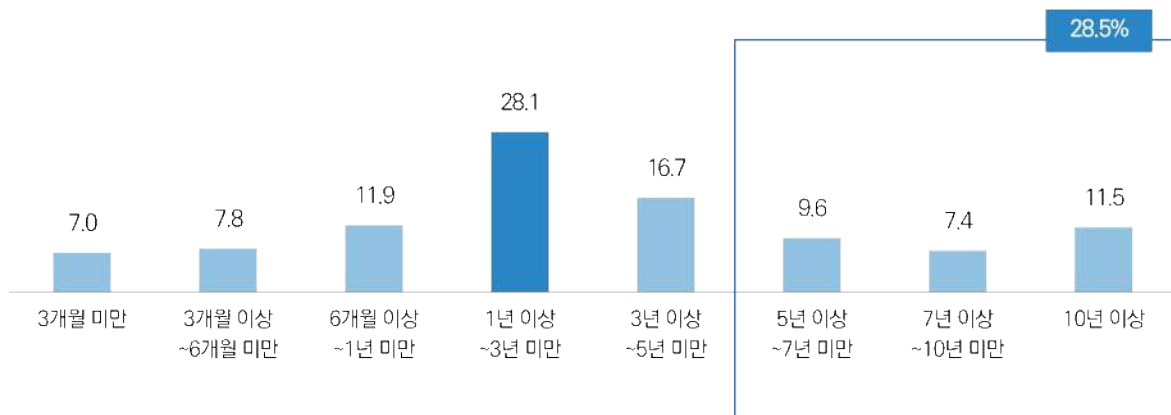
		사례수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 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전체		(486)	25.1	5.3	5.3	8.6	17.3	24.3	7.0	7.0
성별	남성	(227)	24.2	6.2	4.8	8.8	17.2	25.1	3.5	10.1
	여성	(259)	25.9	4.6	5.8	8.5	17.4	23.6	10.0	4.2
연령대	만 19~24세	(66)	13.6	6.1	4.5	13.6	21.2	19.7	10.6	10.6
	만 25~29세	(157)	25.5	6.4	6.4	9.6	21.0	18.5	7.6	5.1
	만 30~34세	(141)	23.4	7.1	3.5	8.5	17.7	26.2	4.3	9.2
	만 35~39세	(122)	32.8	1.6	6.6	4.9	9.8	32.0	7.4	4.9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245)	24.9	6.9	5.7	7.8	17.6	21.6	7.8	7.8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203)	29.6	3.4	4.9	4.9	18.2	24.1	7.4	7.4
가구 유형	1인가구	(127)	28.3	3.9	1.6	10.2	11.8	25.2	7.9	11.0
	다인가구	(359)	24.0	5.8	6.7	8.1	19.2	24.0	6.7	5.6
가족 동거	가족 동거	(348)	23.6	5.7	6.6	8.3	19.0	24.4	6.6	5.7
	가족 비동거	(138)	29.0	4.3	2.2	9.4	13.0	23.9	8.0	10.1

## 9) 외출하지 않는 생활(은둔)을 한 기간

- 외출하지 않는 은둔 생활을 한 기간은 ‘1년 이상~3년 미만’이 28.1%로 가장 많았음.
- 5년 이상 장기 은둔 생활을 한 비율은 28.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A8. 취미 생활 또는 편의점 방문 등 목적 외에 외출하지 않고 자신의 방이나 집에서만 지내는 생활을 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Base: 취미 생활 또는 편의점 방문 외 외출하지 않거나, 전혀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하는 고립·은둔 청년(n=270), 단위: %]



[그림 4-10] 외출하지 않는 생활(은둔)을 한 기간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은 만 19~24세는 ‘6개월~1년 미만’ 또는 ‘3~5년 미만’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10년 이상’이 높게 나타나 연령과 은둔 기간이 어느 정도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이주 여부에 따라서는 서울에서 출생 및 거주해온 응답자가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온 응답자에 비해 은둔 기간이 비교적 더 긴 것으로 보이며, 특히 ‘3~7년 미만’ 구간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
- 가구유형 및 가족동거 여부 별로는 1인가구,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는 ‘3개월~1년 미만’이, 다인가구, 가족과 동거하는 응답자는 ‘5~10년 미만’이 상대적으로 높아, 자신을 돌봐줄 동거인이 있는 경우 은둔 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외출하지 않는 생활(은둔)을 한 기간

[Base: 취미 생활 또는 편의점 방문 외 외출하지 않거나, 전혀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하는 고립·은둔 청년(n=27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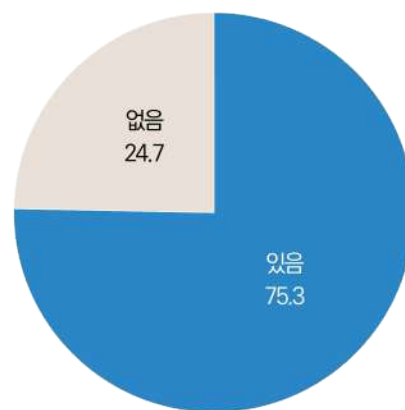
		사례수	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7년 미만	7~10년 미만	10년 이상
전체		(270)	7.0	7.8	11.9	28.1	16.7	9.6	7.4	11.5
성별	남성	(127)	6.3	6.3	9.4	28.3	16.5	9.4	7.9	15.7
	여성	(143)	7.7	9.1	14.0	28.0	16.8	9.8	7.0	7.7
연령대	만 19~24세	(41)	7.3	12.2	22.0	26.8	22.0	4.9	4.9	0.0
	만 25~29세	(82)	8.5	8.5	11.0	36.6	17.1	7.3	7.3	3.7
	만 30~34세	(81)	2.5	9.9	9.9	23.5	18.5	13.6	8.6	13.6
	만 35~39세	(66)	10.6	1.5	9.1	24.2	10.6	10.6	7.6	25.8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134)	6.7	5.2	11.9	26.9	19.4	11.2	7.5	11.2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116)	7.8	10.3	12.9	26.7	14.7	6.9	8.6	12.1
가구 유형	1인가구	(71)	8.5	11.3	16.9	28.2	14.1	5.6	2.8	12.7
	다인가구	(199)	6.5	6.5	10.1	28.1	17.6	11.1	9.0	11.1
가족 동거	가족 동거	(194)	6.2	6.7	9.8	28.9	17.5	11.3	8.8	10.8
	가족 비동거	(76)	9.2	10.5	17.1	26.3	14.5	5.3	3.9	13.2

## 10) 과거에 외출하지 않는 생활(은둔)을 한 경험

- 고립·은둔 청년의 75.3%는 과거에 외출하지 않는 은둔 생활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A9. 과거에 취미 생활 또는 편의점 방문 등 목적 외에 외출하지 않고 자신의 방이나 집에서만 지내는 생활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Base: 고립·은둔 청년(n=486), 단위: %]



[그림 4-11] 과거에 외출하지 않는 생활(은둔)을 한 경험

- 과거에 은둔 생활을 한 경험은 여성, 만 25~29세와 만 35~39세, 그리고 다인가구이거나 가족과 동거하고 있는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4-14] 과거에 외출하지 않는 생활(은둔)을 한 경험

[Base: 고립·은둔 청년(n=48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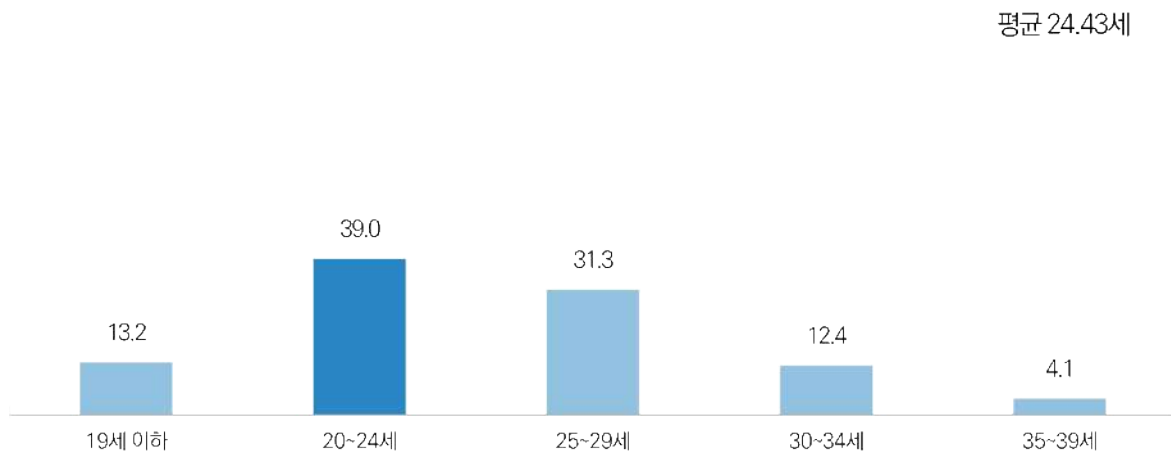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486)	75.3	24.7
성별	남성	(227)	71.4	28.6
	여성	(259)	78.8	21.2
연령대	만 19~24세	(66)	75.8	24.2
	만 25~29세	(157)	79.6	20.4
	만 30~34세	(141)	79.4	20.6
	만 35~39세	(122)	64.8	35.2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245)	73.5	26.5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203)	75.4	24.6
가구 유형	1인가구	(127)	68.5	31.5
	다인가구	(359)	77.7	22.3
가족 동거	가족 동거	(348)	77.9	22.1
	가족 비동거	(138)	68.8	31.2

### 11) 외출하지 않는 생활(은둔)이 최초로 시작된 시기

- 외출하지 않는 은둔 생활이 최초로 시작된 시기는 ‘만 20~24세’가 39.0%, ‘만 25~29세’가 31.3%로, 각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입하는 20대 초반과,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는 20대 중후반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음.
- 평균 시작 시기는 24.43세로 나타났음.

A9. 취미 생활 또는 편의점 방문 등 목적 외에 외출하지 않고 자신의 방이나 집에서만 지내는 생활은 몇 살 때부터 시작되었나요?

[Base: 과거에 취미 생활 또는 편의점 방문 외 외출하지 않거나, 전혀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했던 고립·은둔 청년(n=364), 단위: %]



[그림 4-12] 외출하지 않는 생활(은둔)이 최초로 시작된 시기

- 가구유형 및 가족동거 여부 별로 살펴보면, 1인가구,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가 ‘만 25세~34세’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다인가구,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에 비해 평균 시작 연령이 높게 나타났음.

[표 4-15] 외출하지 않는 생활(은둔)이 최초로 시작된 시기

[Base: 과거에 취미 생활 또는 편의점 방문 외 외출하지 않거나, 전혀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했던 고립·은둔 청년(n=364), 단위: %]

		사례수	19세 이하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평균(세)
전체		(364)	13.2	39.0	31.3	12.4	4.1	24.43
성별	남성	(161)	11.8	41.6	30.4	14.3	1.9	24.27
	여성	(203)	14.3	36.9	32.0	10.8	5.9	24.56
연령대	만 19~24세	(50)	40.0	60.0	0.0	0.0	0.0	19.72
	만 25~29세	(125)	14.4	55.2	30.4	0.0	0.0	22.59
	만 30~34세	(111)	6.3	26.1	45.9	21.6	0.0	25.91
	만 35~39세	(78)	3.8	17.9	32.1	26.9	19.2	28.28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180)	12.2	40.0	29.4	13.3	5.0	24.63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151)	14.6	36.4	32.5	12.6	4.0	24.34
가구 유형	1인가구	(86)	14.0	24.4	38.4	18.6	4.7	25.42
	다인가구	(278)	12.9	43.5	29.1	10.4	4.0	24.12
가족 동거	가족 동거	(270)	13.0	44.1	28.9	10.4	3.7	24.07
	가족 비동거	(94)	13.8	24.5	38.3	18.1	5.3	25.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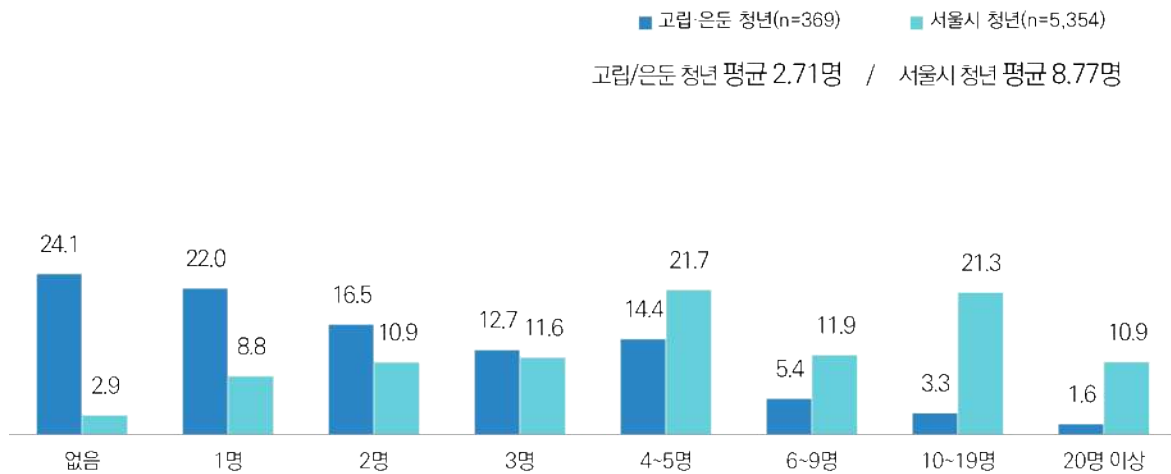
## 12) 지난 2주간 교류한 사람

- 지난 2주간 일상생활에서 만나 교류한 사람에 대해 고립·은둔 청년의 24.1%는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명’은 22.0%, ‘2명’은 16.5%로 과반 이상이 2명 이하로 나타났다.
- 평균 인원수는 고립·은둔 청년이 2.71명으로 서울시 청년의 3분의 1 수준이었음.

A10. 지난 2주 동안 일상생활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은 전부 몇 명인가요?

(같은 사람을 여러 번 만난 경우 1명으로 간주, 물건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주문하는 등의 일시적인 만남은 제외)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sup>10)</sup>



[그림 4-13] 지난 2주간 교류한 사람

10) 고립·은둔 청년 지원기관을 통해 모집된 응답자 중 해당 문항 무응답자는 제외한 비율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없음’의 비율이 높았고, 평균 인원수는 낮아 상대적으로 교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연령대별로는 대체로 20대가 30대에 비해 교류한 사람의 수가 적으며, 특히 만 19~24세는 평균 2명도 채 되지 않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

[표 4-16] 지난 2주간 교류한 사람

[Base: 고립·은둔 청년(n=369), 단위: %]<sup>11)</sup>

		사례수	없음	1명	2명	3명	4~5명	6~9명	10~19명	20명 이상	평균(명)
전체		(369)	24.1	22.0	16.5	12.7	14.4	5.4	3.3	1.6	2.71
성별	남성	(179)	29.1	23.5	13.4	11.2	12.8	5.0	3.4	1.7	2.54
	여성	(190)	19.5	20.5	19.5	14.2	15.8	5.8	3.2	1.6	2.88
연령대	만 19~24세	(47)	38.3	17.0	21.3	10.6	6.4	4.3	2.1	0.0	1.68
	만 25~29세	(106)	16.0	26.4	15.1	16.0	17.9	5.7	2.8	0.0	2.61
	만 30~34세	(102)	21.6	20.6	22.5	11.8	12.7	2.9	4.9	2.9	3.08
	만 35~39세	(114)	28.1	21.1	10.5	11.4	15.8	7.9	2.6	2.6	2.90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212)	25.0	19.3	16.0	13.7	16.5	6.1	1.9	1.4	2.58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157)	22.9	25.5	17.2	11.5	11.5	4.5	5.1	1.9	2.89
가구 유형	1인가구	(84)	22.6	28.6	21.4	4.8	10.7	4.8	4.8	2.4	2.73
	다인가구	(285)	24.6	20.0	15.1	15.1	15.4	5.6	2.8	1.4	2.71
가족 동거	가족 동거	(278)	24.8	19.4	15.5	15.5	15.8	5.4	2.9	0.7	2.56
	가족 비동거	(91)	22.0	29.7	19.8	4.4	9.9	5.5	4.4	4.4	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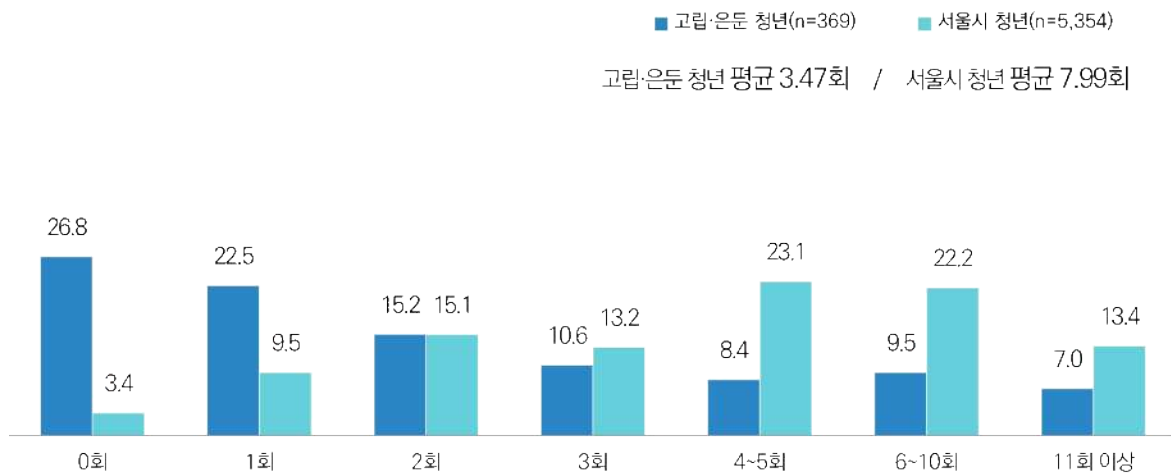
11) 고립·은둔 청년 지원기관을 통해 모집된 응답자 중 해당 문항 무응답자는 제외한 비율임

### 13) 지난 2주간 타인과 교류한 횟수

- 지난 2주간 일상생활에서 누군가를 만나 교류한 횟수에 대해 고립·은둔 청년의 26.8%는 ‘0회’라고 응답하였으며, ‘1회’는 22.5%, ‘2회’는 15.2%로 과반 이상이 2회 미만으로 나타났다.
- 평균 교류 횟수는 고립·은둔 청년이 3.47회로, 서울시 청년의 절반 수준이었음.

A11. 여러분이 지난 2주 동안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와 만나 대화를 나누거나 무언가를 같이 하며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은 전부 몇 번이었나요?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sup>12)</sup>



[그림 4-14] 지난 2주간 타인과 교류한 횟수

12) 고립·은둔 청년 지원기관을 통해 모집된 응답자 중 해당 문항 무응답자는 제외한 비율임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0회’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평균 교류 횟수는 낮게 나타났다.
- 연령대별로는 만 19~24세가 ‘0회’가 높았고 평균 교류 횟수가 다른 연령대 대비 낮게 나타났다.

[표 4-17] 지난 2주간 타인과 교류한 횟수

[Base: 고립·은둔 청년(n=369), 단위: %]<sup>13)</sup>

		사례수	0회	1회	2회	3회	4~5회	6~10회	11회 이상	평균(회)
전체		(369)	26.8	22.5	15.2	10.6	8.4	9.5	7.0	3.47
성별	남성	(179)	32.4	23.5	15.1	7.8	9.5	7.8	3.9	2.52
	여성	(190)	21.6	21.6	15.3	13.2	7.4	11.1	10.0	4.36
연령대	만 19~24세	(47)	42.6	17.0	10.6	4.3	12.8	10.6	2.1	2.30
	만 25~29세	(106)	22.6	21.7	17.9	11.3	6.6	13.2	6.6	3.53
	만 30~34세	(102)	20.6	28.4	14.7	14.7	8.8	6.9	5.9	3.89
	만 35~39세	(114)	29.8	20.2	14.9	8.8	7.9	7.9	10.5	3.51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212)	27.4	20.8	17.5	9.4	8.0	9.9	7.1	3.59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157)	26.1	24.8	12.1	12.1	8.9	8.9	7.0	3.30
가구 유형	1인가구	(84)	26.2	22.6	17.9	6.0	9.5	11.9	6.0	3.31
	다인가구	(285)	27.0	22.5	14.4	11.9	8.1	8.8	7.4	3.51
가족 동거	가족 동거	(278)	27.3	22.7	14.7	12.2	7.6	8.6	6.8	3.44
	가족 비동거	(91)	25.3	22.0	16.5	5.5	11.0	12.1	7.7	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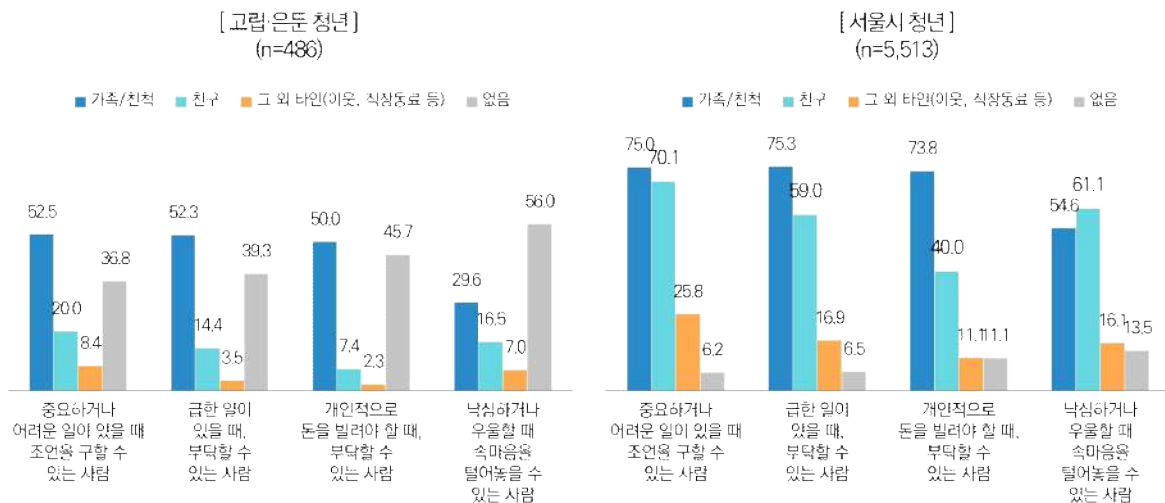
13) 고립·은둔 청년 지원기관을 통해 모집된 응답자 중 해당 문항 무응답자는 제외한 비율임

## 14) 정서적 고립 정도 - 종합

- 정서적 고립 정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고립·은둔 청년 10명 중 4~5명은 모든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거나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 있다고 응답한 청년도 대부분 ‘가족/친척’을 꼽았으며, ‘친구’나 ‘그 외 타인’ 사람을 응답한 비율도 20% 이하로 낮게 나타났음.
- 특히, ‘낙심하거나 우울해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족’을 응답한 비율이 30% 미만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당히 낮았음.

A12.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복수응답]



[그림 4-15] 정서적 고립 정도 -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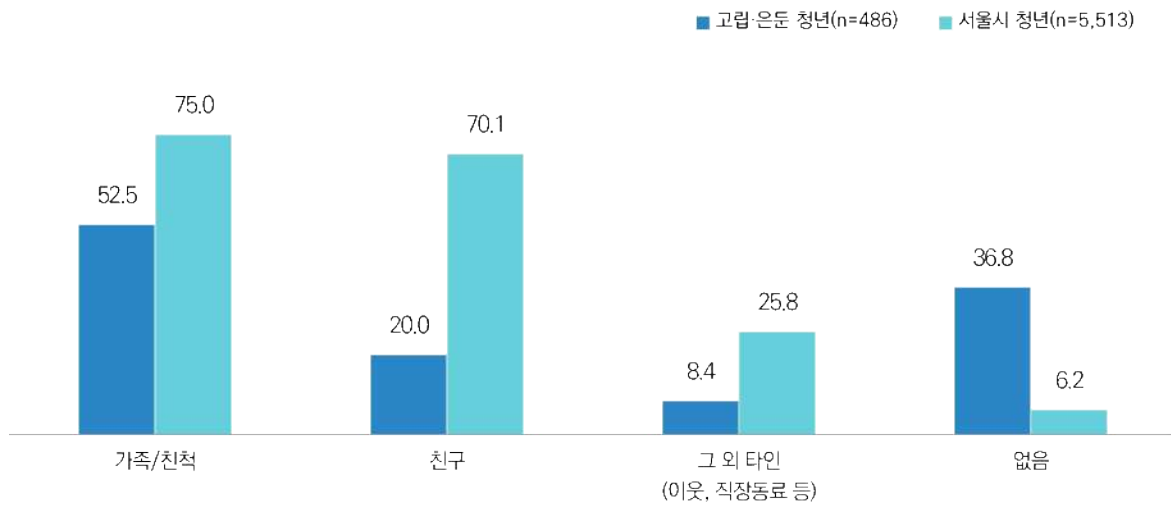
### 15) 정서적 고립 정도 - (1)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고립·은둔 청년의 36.8%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족/친척'이 52.5%이고, '친구'나 '그 외 타인'은 20% 이하였음.

A12.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1)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복수응답]



[그림 4-16] 정서적 고립 정도 -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만 35~39세, 1인가구,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가 ‘없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4-18] 정서적 고립 정도 -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Base: 고립·은둔 청년(n=486),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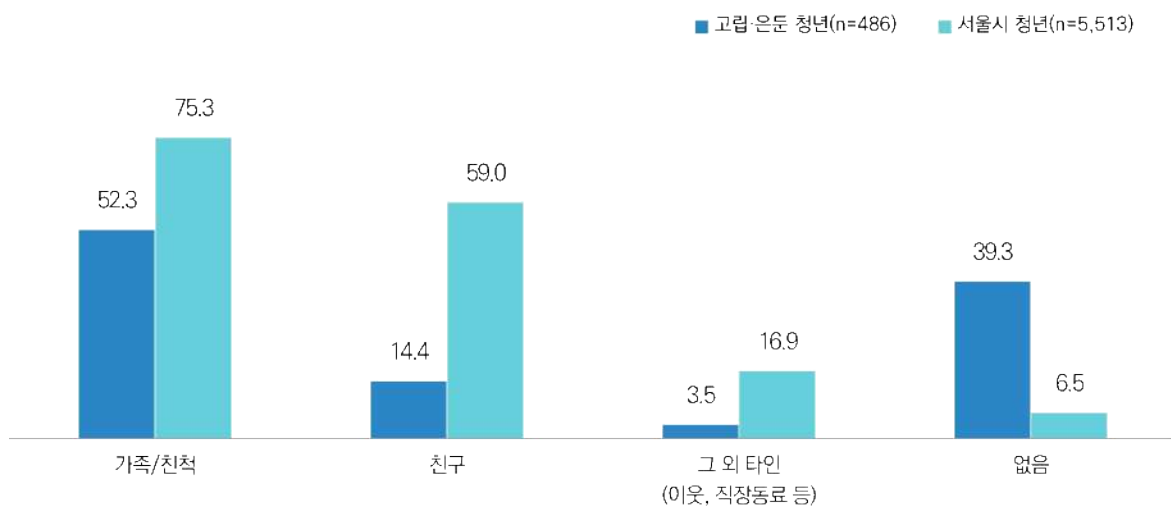
		사례수	가족/친척	친구	그 외 타인 (이웃, 직장동료 등)	없음
전체		(486)	52.5	20.0	8.4	36.8
성별	남성	(227)	48.0	17.2	7.0	42.3
	여성	(259)	56.4	22.4	9.7	32.0
연령대	만 19~24세	(66)	57.6	9.1	9.1	37.9
	만 25~29세	(157)	57.3	27.4	10.2	26.8
	만 30~34세	(141)	54.6	19.9	8.5	36.9
	만 35~39세	(122)	41.0	16.4	5.7	49.2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245)	53.1	14.3	4.9	39.6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203)	51.2	21.7	11.3	36.5
가구 유형	1인가구	(127)	43.3	20.5	9.4	44.1
	다인가구	(359)	55.7	19.8	8.1	34.3
가족 동거	가족 동거	(348)	56.9	18.7	6.6	35.1
	가족 비동거	(138)	41.3	23.2	13.0	41.3

## 16) 정서적 고립 정도 - (2) 급한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 급한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고립·은둔 청년의 39.3%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족/친척'은 52.3%, '친구'나 '그 외 타인'은 15% 미만이었음.

A12.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2) '급한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복수응답]



[그림 4-17] 정서적 고립 정도 - 급한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만 35~39세, 1인가구,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가 ‘없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표 4-19] 정서적 고립 정도 - 급한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Base: 고립·은둔 청년(n=486),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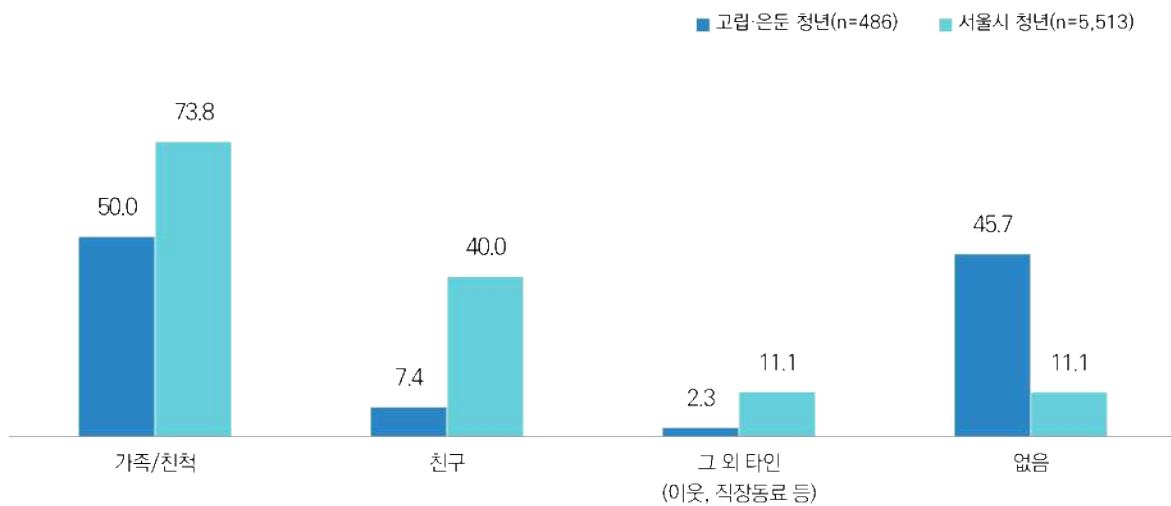
		사례수	가족/친척	친구	그 외 타인 (이웃, 직장동료 등)	없음
전체		(486)	52.3	14.4	3.5	39.3
성별	남성	(227)	46.7	15.4	4.0	42.7
	여성	(259)	57.1	13.5	3.1	36.3
연령대	만 19~24세	(66)	60.6	7.6	4.5	37.9
	만 25~29세	(157)	61.8	19.7	4.5	27.4
	만 30~34세	(141)	51.1	11.3	1.4	42.6
	만 35~39세	(122)	36.9	14.8	4.1	51.6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245)	51.8	10.6	2.9	41.6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203)	50.7	16.7	4.9	38.9
가구 유형	1인가구	(127)	39.4	15.0	3.9	48.8
	다인가구	(359)	56.8	14.2	3.3	35.9
가족 동거	가족 동거	(348)	57.5	12.4	2.6	36.8
	가족 비동거	(138)	39.1	19.6	5.8	45.7

## 17) 정서적 고립 정도 - (3)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고립·은둔 청년의 45.7%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족/친척’은 50.0%, ‘친구’나 ‘그 외 타인’은 10% 미만이었음.

A12.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3)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복수응답]



[그림 4-18] 정서적 고립 정도 -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만 35~39세, 1인가구,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가 ‘없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4-20] 정서적 고립 정도 -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Base: 고립·은둔 청년(n=486),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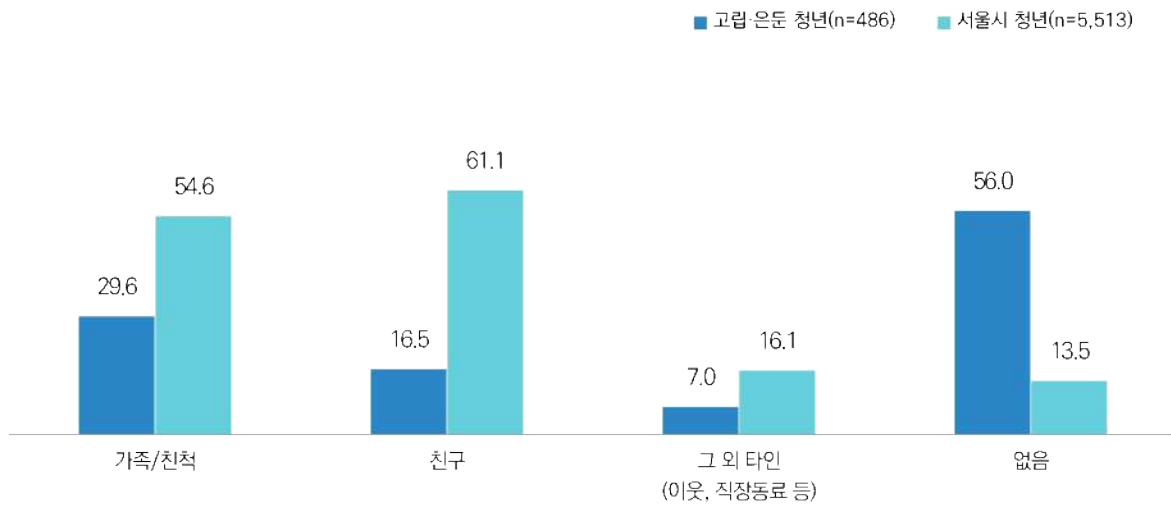
		사례수	가족/친척	친구	그 외 타인 (이웃, 직장동료 등)	없음
전체		(486)	50.0	7.4	2.3	45.7
성별	남성	(227)	43.6	7.9	2.6	50.2
	여성	(259)	55.6	6.9	1.9	41.7
연령대	만 19~24세	(66)	54.5	4.5	1.5	40.9
	만 25~29세	(157)	60.5	12.1	2.5	35.0
	만 30~34세	(141)	48.2	4.3	1.4	49.6
	만 35~39세	(122)	36.1	6.6	3.3	57.4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245)	48.2	6.1	1.6	48.2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203)	50.7	6.9	3.0	44.8
가구 유형	1인가구	(127)	40.9	7.9	2.4	55.1
	다인가구	(359)	53.2	7.2	2.2	42.3
가족 동거	가족 동거	(348)	53.4	6.3	1.7	43.1
	가족 비동거	(138)	41.3	10.1	3.6	52.2

## 18) 정서적 고립 정도 - (4)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 고립·은둔 청년의 절반 이상(56.0%)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조차도 ‘가족/친척’이 29.6% 수준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A12.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4)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복수응답]



[그림 4-19] 정서적 고립 정도 -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30대, 1인가구,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가 ‘없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한편, ‘가족/친척’을 꼽은 비율이 다인가구, 가족과 동거하는 응답자에 비해 1인가구,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가 현저히 낮게 나타났음.

[표 4-21] 정서적 고립 정도 -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Base: 고립·은둔 청년(n=486),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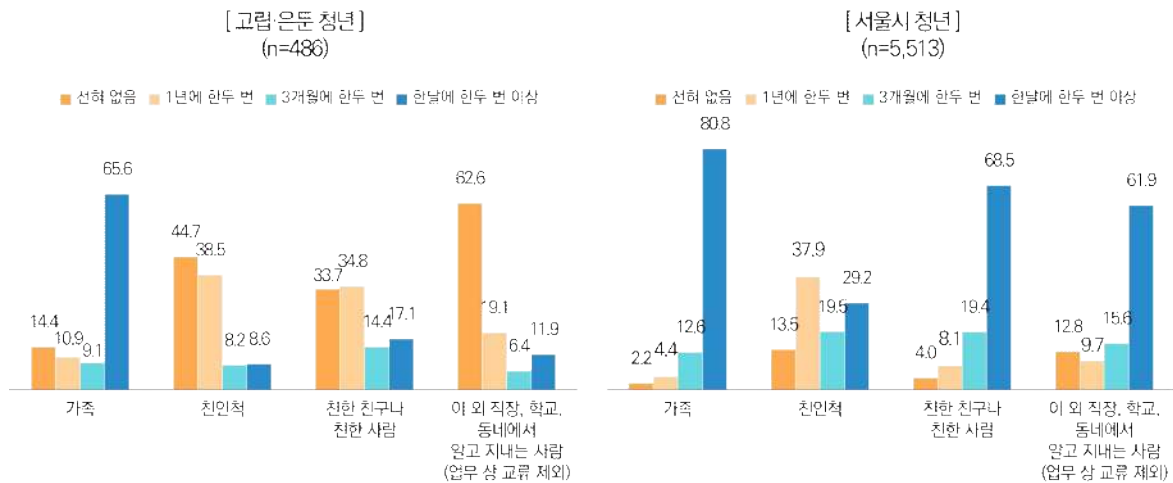
		사례수	가족/친척	친구	그 외 타인 (이웃, 직장동료 등)	없음
전체		(486)	29.6	16.5	7.0	56.0
성별	남성	(227)	23.8	12.8	6.2	63.9
	여성	(259)	34.7	19.7	7.7	49.0
연령대	만 19~24세	(66)	39.4	9.1	6.1	51.5
	만 25~29세	(157)	33.8	21.7	7.6	47.8
	만 30~34세	(141)	28.4	17.0	6.4	60.3
	만 35~39세	(122)	20.5	13.1	7.4	63.9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245)	31.4	11.8	4.1	58.4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203)	25.6	18.7	8.4	56.2
가구 유형	1인가구	(127)	14.2	15.7	6.3	68.5
	다인가구	(359)	35.1	16.7	7.2	51.5
가족 동거	가족 동거	(348)	36.2	15.2	6.6	52.3
	가족 비동거	(138)	13.0	19.6	8.0	65.2

## 19) 물리적 고립 정도 - 종합

- 물리적 고립 정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고립·은둔 청년 10명 중 7~8명은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과의 물리적인 교류가 '전혀 없거나 1년에 한두 번'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가족'과의 교류 또한, '전혀 없거나 1년에 한두 번'인 비율이 약 25%로 상당한 수준이었음.

A13. 평소 다음의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직접 만나 교류를 하시나요?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그림 4-20] 물리적 고립 정도 -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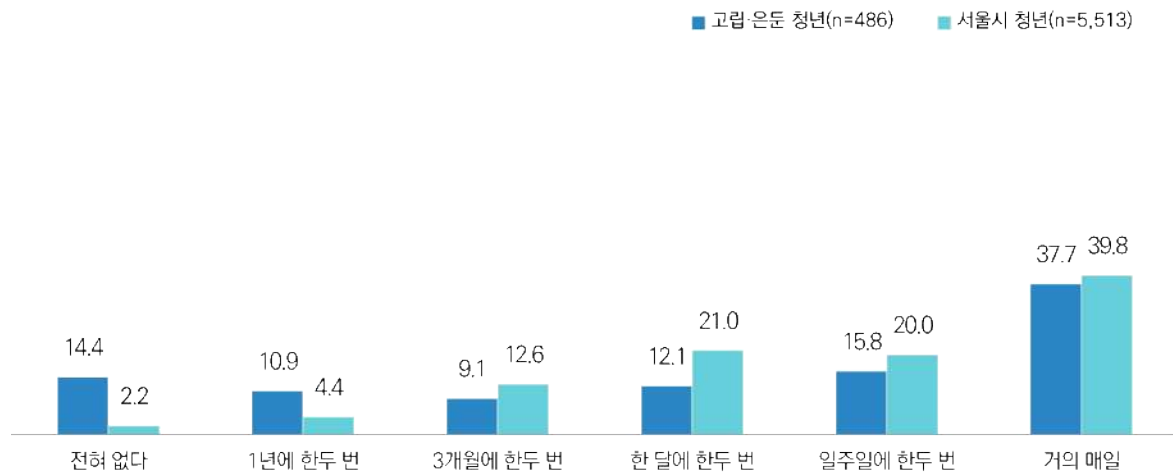
## 20) 물리적 고립 정도 - (1) 가족들과의 대면 교류 빈도

- 가족들과의 대면 교류 빈도에 대해 고립·은둔 청년의 14.4%는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년에 한두 번’은 10.9%로 나타났다.
- ‘거의 매일’ 교류한다는 응답은 서울시 청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A13. 평소 다음의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직접 만나 교류를 하시나요?

(1) ‘가족들과의 대면 교류’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그림 4-21] 물리적 고립 정도 - 가족들과의 대면 교류 빈도

- 가구유형 및 가족동거 여부에 따라 1인가구,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가 ‘3개월에 한두 번’이하로 교류하는 빈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음.

[표 4-22] 물리적 고립 정도 - 가족들과의 대면 교류 빈도

[Base: 고립·은둔 청년(n=486), 단위: %]

		사례수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전체		(486)	14.4	10.9	9.1	12.1	15.8	37.7
성별	남성	(227)	16.7	10.6	10.6	10.6	16.7	34.8
	여성	(259)	12.4	11.2	7.7	13.5	15.1	40.2
연령대	만 19~24세	(66)	15.2	6.1	3.0	15.2	16.7	43.9
	만 25~29세	(157)	9.6	10.2	12.1	12.7	17.8	37.6
	만 30~34세	(141)	15.6	13.5	9.9	12.8	12.8	35.5
	만 35~39세	(122)	18.9	11.5	7.4	9.0	16.4	36.9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245)	12.7	9.4	4.9	11.8	18.8	42.4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203)	15.8	14.3	13.8	12.8	12.3	31.0
가구 유형	1인가구	(127)	28.3	17.3	20.5	14.2	11.0	8.7
	다인가구	(359)	9.5	8.6	5.0	11.4	17.5	47.9
가족 동거	가족 동거	(348)	8.3	8.0	4.9	11.2	18.1	49.4
	가족 비동거	(138)	29.7	18.1	19.6	14.5	10.1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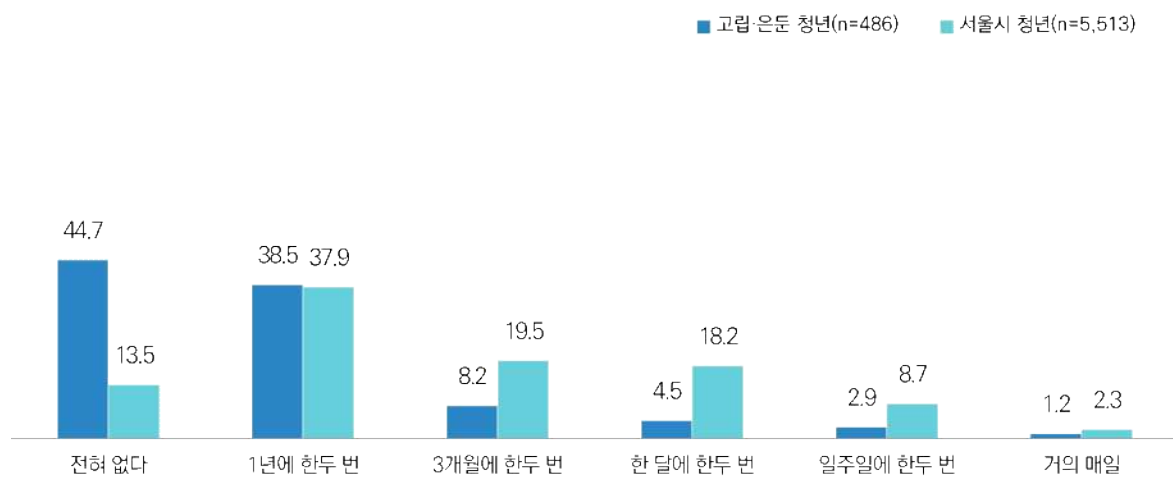


## 21) 물리적 고립 정도 - (2) 친인척과의 대면 교류 빈도

- 친인척과의 대면 교류 빈도에 대해 고립·은둔 청년의 80% 이상이 1년에 한두 번 이하로 매우 적었으며, '전혀 없다'는 44.7%, '1년에 한두 번'은 38.5%로 나타났다.

A13. 평소 다음의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직접 만나 교류를 하시나요?  
(2) '친인척과의 대면 교류'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그림 4-22] 물리적 고립 정도 - 친인척과의 대면 교류 빈도

- 응답자 특성별로는 30대와 1인가구,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가 ‘전혀 없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4-23] 물리적 고립 정도 - 친인척과의 대면 교류 빈도

[Base: 고립·은둔 청년(n=48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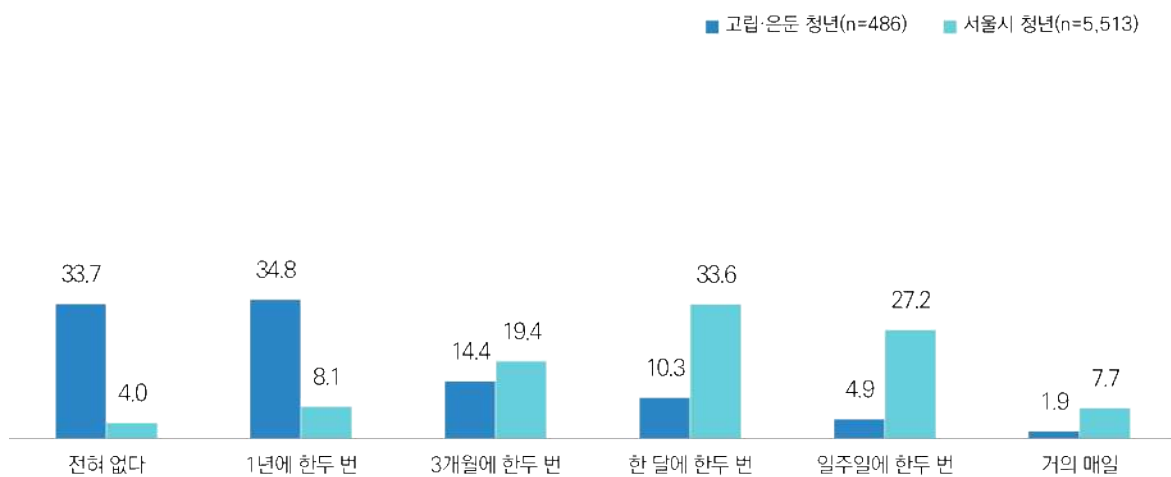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전체		(486)	44.7	38.5	8.2	4.5	2.9	1.2
성별	남성	(227)	43.2	38.3	8.8	5.3	2.6	1.8
	여성	(259)	45.9	38.6	7.7	3.9	3.1	0.8
연령대	만 19~24세	(66)	34.8	36.4	15.2	6.1	7.6	0.0
	만 25~29세	(157)	38.9	45.9	6.4	3.8	3.2	1.9
	만 30~34세	(141)	51.1	33.3	9.9	3.5	1.4	0.7
	만 35~39세	(122)	50.0	36.1	4.9	5.7	1.6	1.6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245)	40.4	40.8	9.0	4.9	3.3	1.6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203)	49.3	37.9	5.4	4.4	2.0	1.0
가구 유형	1인가구	(127)	52.0	29.9	8.7	3.9	3.1	2.4
	다인가구	(359)	42.1	41.5	8.1	4.7	2.8	0.8
가족 동거	가족 동거	(348)	42.0	41.4	8.0	4.9	2.9	0.9
	가족 비동거	(138)	51.4	31.2	8.7	3.6	2.9	2.2

## 22) 물리적 고립 정도 - (3)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 교류 빈도

-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 교류 빈도에 대해 고립·은둔 청년의 33.7%는 '전혀 없다', 34.8%는 '1년에 한두 번'이라고 응답하였음.

A13. 평소 다음의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직접 만나 교류를 하시나요?  
(3)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 교류'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그림 4-23] 물리적 고립 정도 -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 교류 빈도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은 ‘전혀 없다’와 ‘한 달에 한두 번’이 여성 대비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만 19~24세가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난다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 대비 높았음.

[표 4-24] 물리적 고립 정도 -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 교류 빈도

[Base: 고립·은둔 청년(n=486), 단위: %]

		사례수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전체		(486)	33.7	34.8	14.4	10.3	4.9	1.9
성별	남성	(227)	39.2	30.0	11.9	13.2	4.0	1.8
	여성	(259)	29.0	39.0	16.6	7.7	5.8	1.9
연령대	만 19~24세	(66)	37.9	31.8	7.6	9.1	13.6	0.0
	만 25~29세	(157)	31.2	33.1	17.2	9.6	5.7	3.2
	만 30~34세	(141)	33.3	34.0	14.9	12.8	2.8	2.1
	만 35~39세	(122)	35.2	39.3	13.9	9.0	1.6	0.8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245)	34.3	38.0	15.1	8.2	4.1	0.4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203)	36.9	34.0	11.3	11.8	3.4	2.5
가구 유형	1인가구	(127)	31.5	30.7	11.0	14.2	7.9	4.7
	다인가구	(359)	34.5	36.2	15.6	8.9	3.9	0.8
가족 동거	가족 동거	(348)	35.3	36.2	14.7	9.2	3.7	0.9
	가족 비동거	(138)	29.7	31.2	13.8	13.0	8.0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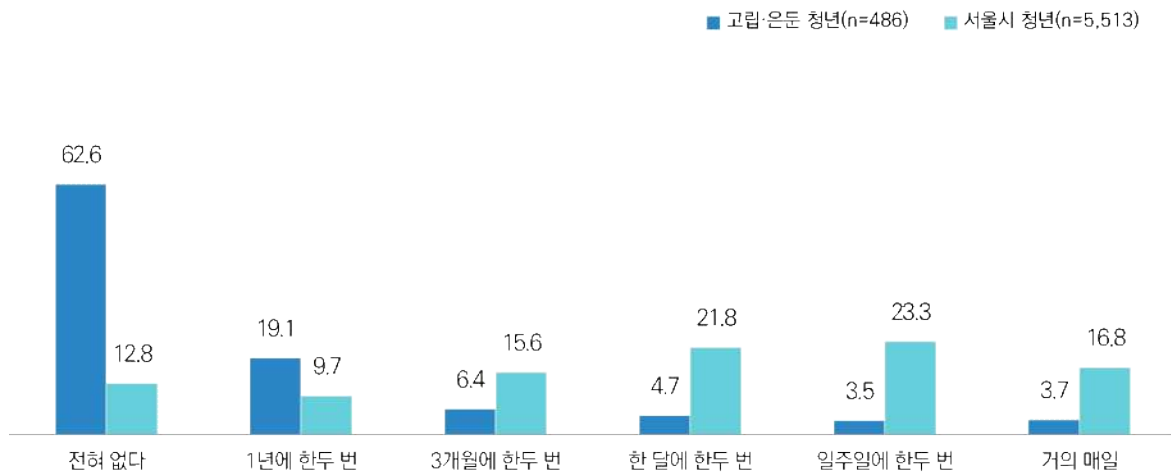
### 23) 물리적 고립 정도 - (4) 이 외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대면 교류 빈도

- 이 외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업무상 교류를 제외한 대면 교류 빈도에 대해 고립·은둔 청년의 62.6%는 '전혀 없다', 19.1%는 '1년에 한두 번'이라고 응답하여 80% 이상이 거의 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A13. 평소 다음의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직접 만나 교류를 하시나요?

(4) '이 외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의 대면 교류(업무상 교류 제외)'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그림 4-24] 물리적 고립 정도 - 이 외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대면 교류 빈도

○ 응답자 특성별로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음.

[표 4-25] 물리적 고립 정도 - 이 외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대면 교류 빈도

[Base: 고립·은둔 청년(n=48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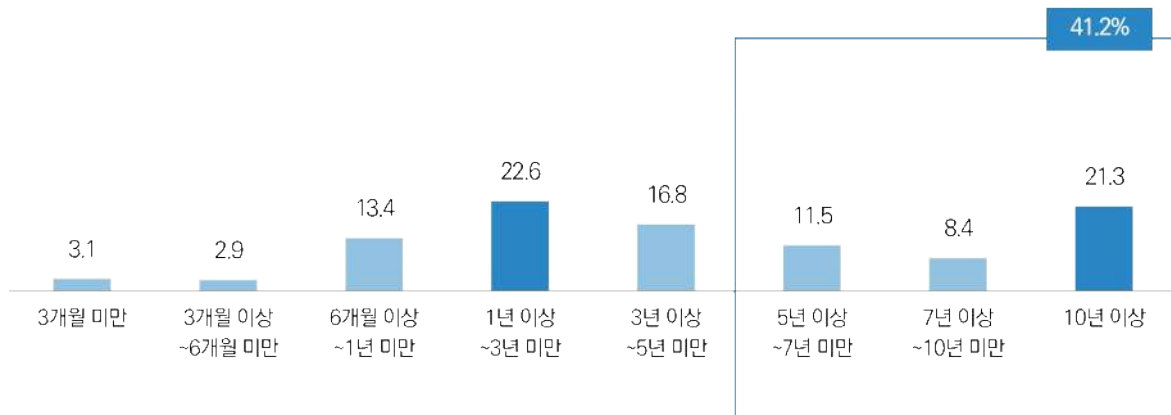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전체		(486)	62.6	19.1	6.4	4.7	3.5	3.7
성별	남성	(227)	61.2	19.8	6.6	3.5	4.0	4.8
	여성	(259)	63.7	18.5	6.2	5.8	3.1	2.7
연령대	만 19~24세	(66)	60.6	16.7	7.6	9.1	4.5	1.5
	만 25~29세	(157)	62.4	21.7	4.5	3.8	2.5	5.1
	만 30~34세	(141)	68.1	14.9	8.5	3.5	3.5	1.4
	만 35~39세	(122)	57.4	22.1	5.7	4.9	4.1	5.7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245)	62.9	19.2	6.5	4.1	3.3	4.1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203)	62.6	20.2	5.4	5.4	3.0	3.4
가구 유형	1인가구	(127)	61.4	18.1	4.7	4.7	4.7	6.3
	다인가구	(359)	63.0	19.5	7.0	4.7	3.1	2.8
가족 동거	가족 동거	(348)	64.4	19.0	6.6	4.3	3.2	2.6
	가족 비동거	(138)	58.0	19.6	5.8	5.8	4.3	6.5

## 24) 정서적 또는 물리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한 기간

- 정서적 또는 물리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한 기간은 ‘1년 이상~3년 미만’이 22.6%, ‘10년 이상’이 21.3%로 높게 나타났다.
- 5년 이상 장기적으로 고립 생활을 한 비율은 41.2%였음.

A14. 도움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거나 가족 및 친인척 외 사람들과 대면 교류를 하지 않는 고립 생활을 한 지 얼마나 되었나요?

[Base: 도움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거나 가족 및 친인척 외 사람들과 대면 교류가 없는 고립·은둔 청년(n=381), 단위: %]



[그림 4-25] 정서적 또는 물리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한 기간

-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만 19~24세는 ‘6개월~1년 미만’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30대는 ‘5~7년 미만’, ‘10년 이상’이 높게 나타나 연령이 많을수록 고립 기간 또한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6] 정서적 또는 물리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한 기간

[Base: 도움·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거나 가족 및 친인척 외 사람들과 대면 교류가 없는 고립·은둔 청년(n=381), 단위: %]

		사례수	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7년 미만	7~10년 미만	10년 이상
전체		(381)	3.1	2.9	13.4	22.6	16.8	11.5	8.4	21.3
성별	남성	(184)	3.8	3.8	12.5	19.6	17.4	10.3	8.7	23.9
	여성	(197)	2.5	2.0	14.2	25.4	16.2	12.7	8.1	18.8
연령대	만 19~24세	(51)	2.0	3.9	29.4	17.6	19.6	7.8	5.9	13.7
	만 25~29세	(115)	6.1	3.5	13.9	24.3	18.3	9.6	10.4	13.9
	만 30~34세	(110)	0.9	3.6	11.8	19.1	18.2	18.2	8.2	20.0
	만 35~39세	(105)	2.9	1.0	6.7	26.7	12.4	8.6	7.6	34.3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207)	3.4	2.9	13.5	20.8	16.9	11.6	11.1	19.8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161)	3.1	3.1	13.0	24.2	16.1	11.8	5.6	23.0
가구 유형	1인가구	(97)	3.1	3.1	14.4	22.7	18.6	11.3	4.1	22.7
	다인가구	(284)	3.2	2.8	13.0	22.5	16.2	11.6	9.9	20.8
가족 동거	가족 동거	(278)	3.2	2.9	13.3	21.9	16.2	11.5	10.1	20.9
	가족 비동거	(103)	2.9	2.9	13.6	24.3	18.4	11.7	3.9	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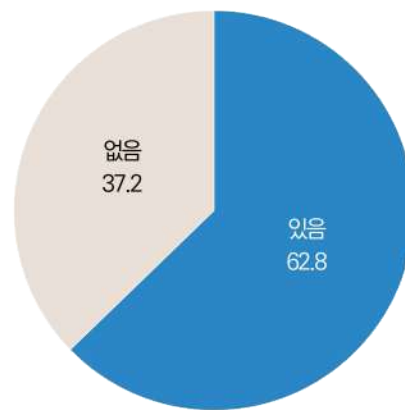


## 25) 과거에 정서적 또는 물리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한 경험

- 과거에 정서적 또는 물리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한 경험에 대해 고립·은둔 청년 10명 중 6명은 '있다(62.8%)'고 응답하였음.

A15. 과거에 도움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거나 가족 및 친인척 외 사람들과 대면 교류를 하지 않는 고립 생활을 한 적이 있나요?

[Base: 고립·은둔 청년(n=486), 단위: %]



[그림 4-26] 과거에 정서적 또는 물리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한 경험

- 응답자 특성별로는 20대 후반~30대 초반과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해온 응답자가 과거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27] 과거에 정서적 또는 물리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한 경험

[Base: 고립·은둔 청년(n=48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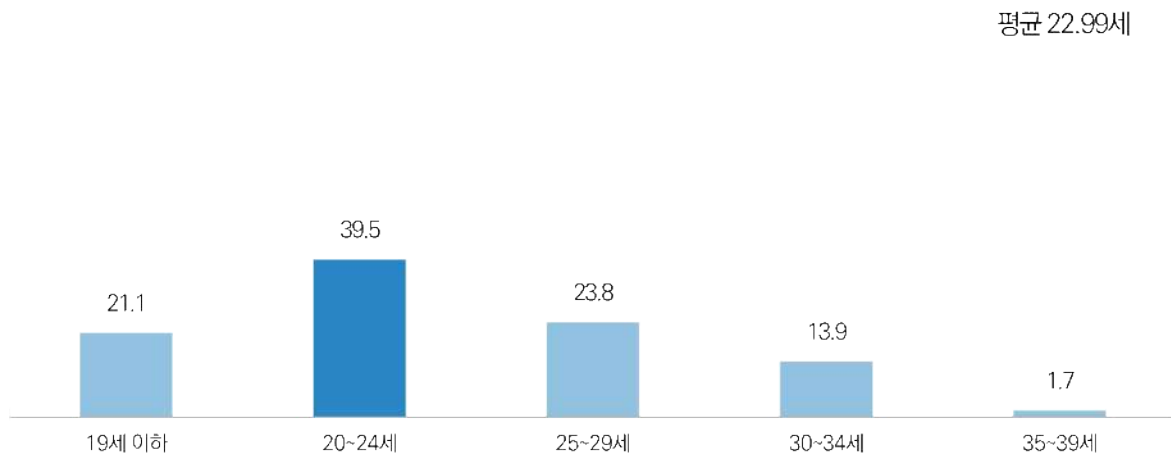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486)	62.8	37.2
성별	남성	(227)	62.1	37.9
	여성	(259)	63.3	36.7
연령대	만 19~24세	(66)	59.1	40.9
	만 25~29세	(157)	65.6	34.4
	만 30~34세	(141)	66.0	34.0
	만 35~39세	(122)	57.4	42.6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245)	57.1	42.9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203)	68.0	32.0
가구 유형	1인가구	(127)	64.6	35.4
	다인가구	(359)	62.1	37.9
가족 동거	가족 동거	(348)	62.4	37.6
	가족 비동거	(138)	63.8	36.2

## 26) 정서적 또는 물리적으로 고립된 생활이 최초로 시작된 시기

- 정서적 또는 물리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최초로 시작한 시기는 ‘만 20~24세’가 39.5%로 가장 많았음.
- 한편, 19세 이하 미성년자 시기부터 시작했다는 응답도 21.1%로 다소 높게 나타났음.

A15-1. 도움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거나 가족 및 친인척 외 사람들과 대면 교류를 하지 않는 고립 생활은 몇 살 때부터 시작되었나요?

[Base: 과거에도 도움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거나 가족 및 친인척 외 사람들과 대면 교류가 없었던 고립·은둔 청년(n=294), 단위: %]



[그림 4-27] 정서적 또는 물리적으로 고립된 생활이 최초로 시작된 시기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비교적 어린 나이부터 고립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음.
- 서울 이주 여부에 따라서는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해온 응답자가 ‘만 30~34세’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평균 시작 연령 또한 서울 출생 및 거주자에 비해 소폭 더 높았음.
- 가구유형 및 가족동거 여부 별로는 다인가구, 가족과 동거하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더 어린 나이에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4-28] 정서적 또는 물리적으로 고립된 생활이 최초로 시작된 시기

[Base: 과거에도 도움·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거나 가족 및 친인척 외 사람들과 대면 교류가 없었던 고립·은둔 청년(n=29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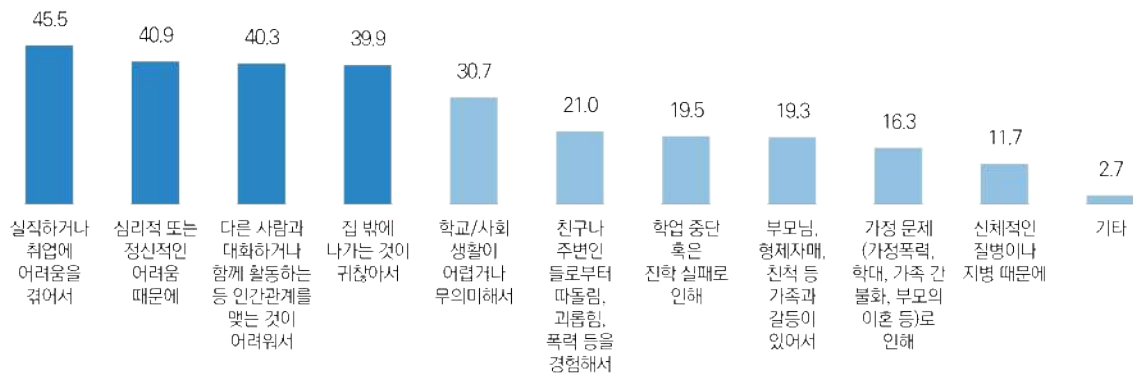
		사례수	19세 이하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평균(세)
전체		(294)	21.1	39.5	23.8	13.9	1.7	22.99
성별	남성	(132)	17.4	42.4	21.2	16.7	2.3	23.33
	여성	(162)	24.1	37.0	25.9	11.7	1.2	22.71
연령대	만 19~24세	(37)	59.5	40.5	0.0	0.0	0.0	17.78
	만 25~29세	(101)	27.7	48.5	23.8	0.0	0.0	20.91
	만 30~34세	(89)	7.9	39.3	30.3	22.5	0.0	24.79
	만 35~39세	(67)	7.5	25.4	28.4	31.3	7.5	26.61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135)	22.2	43.0	22.2	11.1	1.5	22.44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132)	18.9	37.1	23.5	18.2	2.3	23.64
가구 유형	1인가구	(77)	13.0	31.2	33.8	22.1	0.0	24.19
	다인가구	(217)	24.0	42.4	20.3	11.1	2.3	22.56
가족 동거	가족 동거	(211)	24.2	42.7	19.9	10.9	2.4	22.53
	가족 비동거	(83)	13.3	31.3	33.7	21.7	0.0	24.17

## 27) 고립·은둔 생활을 하게 된 계기

- 고립·은둔 생활을 한 계기로 ‘실직하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어서(45.5%)’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그 다음으로 ‘심리적 또는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40.9%)’,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함께 활동하는 등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서(40.3%)’, ‘집 밖에 나가는 것이 귀찮아서(39.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16. 고립·은둔 생활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Base: 고립·은둔 청년(n=486), 단위: %, 복수응답]



[그림 4-28] 고립·은둔 생활을 하게 된 계기 - 고립·은둔 청년 유형별 비교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심리적 또는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연령대별로는 20대는 ‘심리적 또는 정신적인 어려움’ 또는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서’, ‘학교/사회생활이 무의미해서’, ‘학업 중단 혹은 진학 실패’ 등이, 30대는 ‘실직하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어서’가 상대적으로 높아 연령대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음.
- 가구유형 및 가족동거 여부 별로는 다인가구, 가족과 동거하는 응답자는 ‘실직하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어서’, ‘집 밖에 나가는 것이 귀찮아서’, ‘학업 중단 혹은 진학 실패로 인해’가 높았고, 1인가구,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는 ‘부모님, 형제자매, 친척 등 가족과 갈등이 있어서’, ‘가정 문제로 인해’ 등 가족 간 문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4-29] 고립·은둔 생활을 하게 된 계기

[Base: 고립·은둔 청년(n=486),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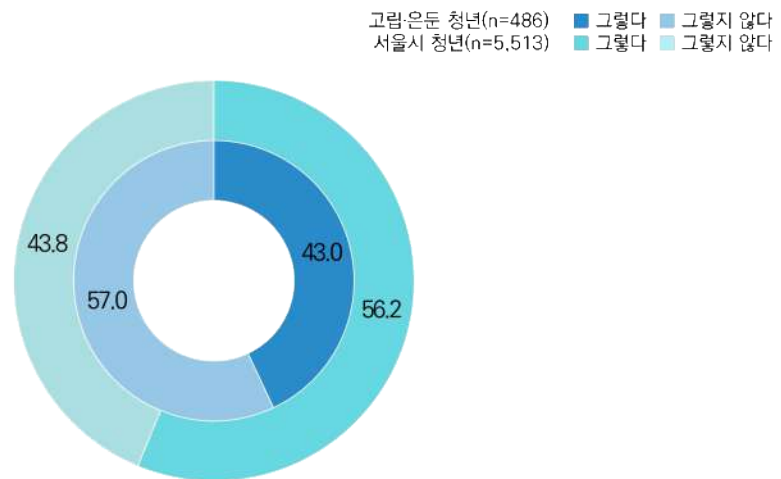
		사례수	실직 하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어서	심리적 또는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과 대화,함께 활동하는 등 인간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서	집 밖에 나가는 것이 귀찮아서	학교/ 사회 생활이 어렵거나 무의미 해서	친구나 주변 사람들로 부터 따돌림, 괴롭힘, 폭력 등을 경험해서	학업 중단 혹은 진학 실패로 인해	부모님, 형제 자매, 친척 등 가족과 갈등이 있어서	가정 문제로 인해	신체적인 질병이나 지병 때문에	기타
전체		(486)	45.5	40.9	40.3	39.9	30.7	21.0	19.5	19.3	16.3	11.7	2.7
성별	남성	(227)	46.7	34.8	41.4	37.4	30.8	20.3	22.5	18.1	13.7	11.5	1.8
	여성	(259)	44.4	46.3	39.4	42.1	30.5	21.6	17.0	20.5	18.5	12.0	3.5
연령대	만 19~24세	(66)	24.2	48.5	47.0	45.5	39.4	27.3	25.8	18.2	15.2	7.6	0.0
	만 25~29세	(157)	42.0	44.6	47.8	43.9	32.5	24.2	20.4	21.7	14.0	10.8	2.5
	만 30~34세	(141)	55.3	32.6	37.6	31.9	25.5	17.7	19.9	15.6	18.4	10.6	3.5
	만 35~39세	(122)	50.0	41.8	30.3	41.0	29.5	17.2	14.8	21.3	17.2	16.4	3.3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245)	44.5	34.7	34.7	38.8	25.7	20.0	22.0	16.7	13.5	11.0	2.4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203)	45.3	41.4	42.4	37.9	32.5	18.7	15.3	20.2	17.2	12.8	2.5
가구 유형	1인가구	(127)	41.7	43.3	34.6	31.5	32.3	26.0	14.2	22.8	22.8	14.2	2.4
	다인가구	(359)	46.8	40.1	42.3	42.9	30.1	19.2	21.4	18.1	13.9	10.9	2.8
가족 동거	가족 동거	(348)	48.0	40.5	42.2	43.1	30.2	19.8	21.6	18.4	14.1	11.2	2.6
	가족 비동거	(138)	39.1	42.0	35.5	31.9	31.9	23.9	14.5	21.7	21.7	13.0	2.9

## 28) 온라인(비대면) 교류 여부

- 고립·은둔 청년의 43.0%는 온라인 커뮤니티, SNS, 메신저 등 온라인(비대면)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고 응답하였음.
- 서울시 청년 대비 온라인 교류 비율이 낮았음.

A17. 여러분은 온라인 커뮤니티, SNS, 메신저 등 온라인(비대면)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시나요?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그림 4-29] 온라인(비대면) 교류 여부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과 연령대가 낮을수록 온라인(비대면) 교류가 비교적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0] 온라인(비대면) 교류 여부

[Base: 고립·은둔 청년(n=486), 단위: %]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486)	43.0	57.0
성별	남성	(227)	37.4	62.6
	여성	(259)	47.9	52.1
연령대	만 19~24세	(66)	50.0	50.0
	만 25~29세	(157)	45.9	54.1
	만 30~34세	(141)	39.7	60.3
	만 35~39세	(122)	39.3	60.7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245)	40.0	60.0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203)	39.9	60.1
가구 유형	1인가구	(127)	40.2	59.8
	다인가구	(359)	44.0	56.0
가족 동거	가족 동거	(348)	42.8	57.2
	가족 비동거	(138)	43.5	5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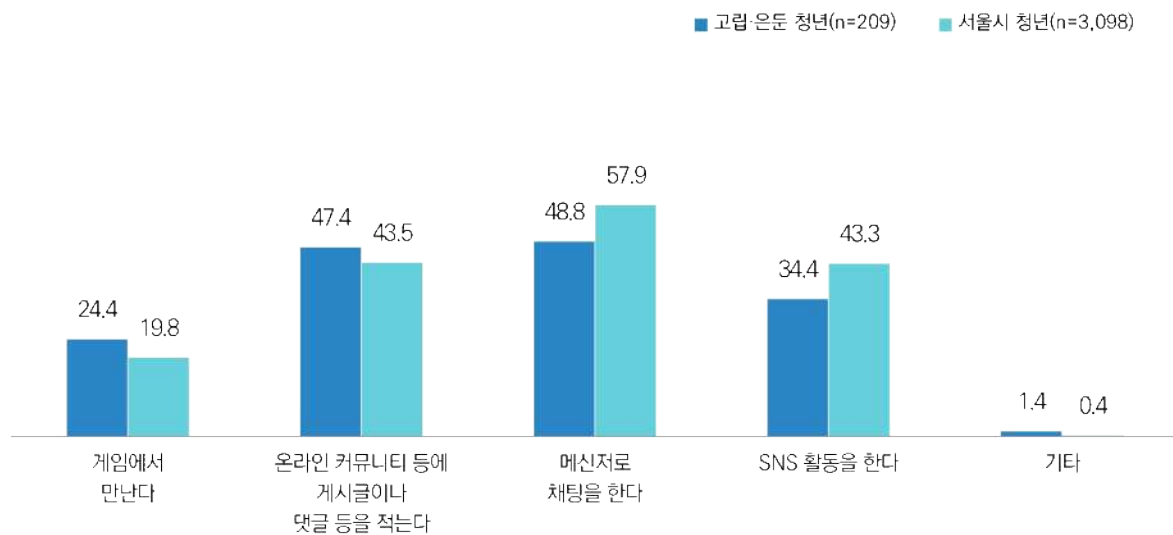


## 29) 온라인(비대면) 교류 종류

- 온라인(비대면)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메신저로 채팅한다’가 48.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적는다(47.4%)’, ‘SNS 활동을 한다(3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17-1. 온라인(비대면)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주로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시나요?

[Base: 온라인(비대면) 교류를 하는 자, 단위: %]



[그림 4-30] 온라인(비대면) 교류 종류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은 ‘게임’이나 ‘메신저 채팅’을, 여성은 ‘SNS’를 보다 활발히 이용하고 있었음.
-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0대보다 ‘게임’이나 ‘SNS’를 더 자주 활용하고 있었음.
- 가구유형 및 가족동거 여부 별로는 다인가구, 가족과 동거하는 응답자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글, 댓글 등을 적거나’, ‘메신저로 채팅’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음.

[표 4-31] 온라인(비대면) 교류 종류

[Base: 온라인(비대면) 교류를 하는 고립·은둔 청년(n=20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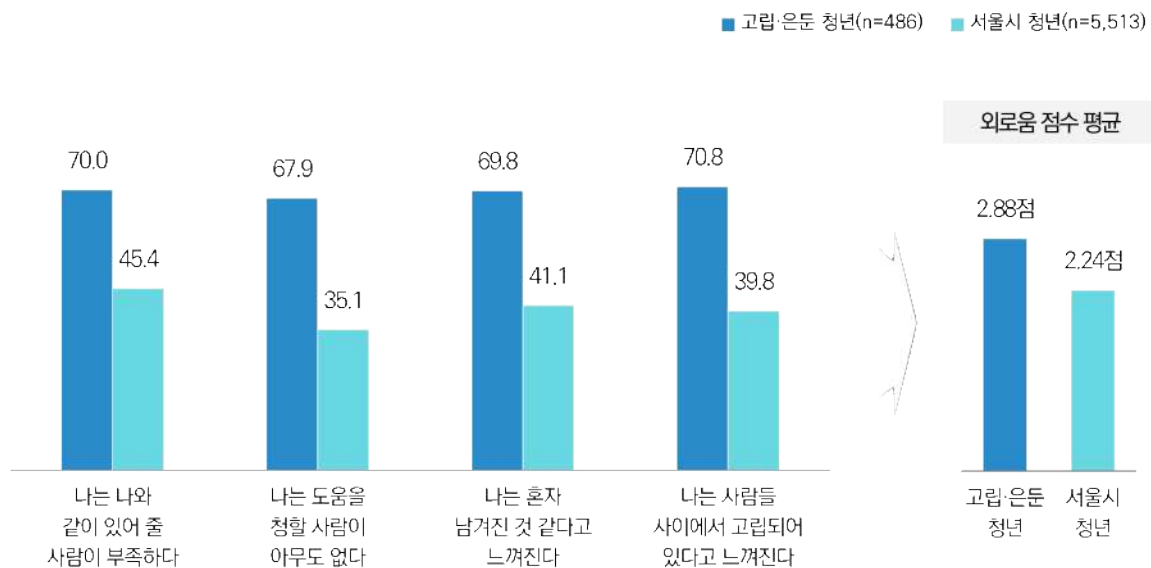
		사례수	게임에서 만난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적는다	메신저로 채팅을 한다	SNS 활동을 한다	기타
전체		(209)	24.4	47.4	48.8	34.4	1.4
성별	남성	(85)	43.5	45.9	55.3	23.5	2.4
	여성	(124)	11.3	48.4	44.4	41.9	0.8
연령대	만 19~24세	(33)	18.2	45.5	54.5	39.4	3.0
	만 25~29세	(72)	37.5	40.3	52.8	33.3	1.4
	만 30~34세	(56)	23.2	55.4	39.3	33.9	1.8
	만 35~39세	(48)	10.4	50.0	50.0	33.3	0.0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98)	25.5	52.0	45.9	30.6	1.0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81)	21.0	46.9	49.4	37.0	2.5
가구 유형	1인가구	(51)	25.5	37.3	39.2	31.4	2.0
	다인가구	(158)	24.1	50.6	51.9	35.4	1.3
가족 동거	가족 동거	(149)	23.5	51.7	51.7	34.9	1.3
	가족 비동거	(60)	26.7	36.7	41.7	33.3	1.7

### 30) 외로움 척도 - 종합

- 고립·은둔 청년의 약 70%는 나와 같이 있어 줄 사람도,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으며, 혼자 남겨진 것 같고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4점 평균 점수로 환산하였을 때, 고립·은둔 청년의 외로움 점수는 2.88점으로 2.24점인 서울시 청년 대비 1.2배 높게 나타났다.

A18. 다음 문항을 읽고 얼마나 자주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지 응답해주세요.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그렇다(가끔 그런 편이다+항상 그렇다)' %, 점]



[그림 4-31] 외로움 척도 -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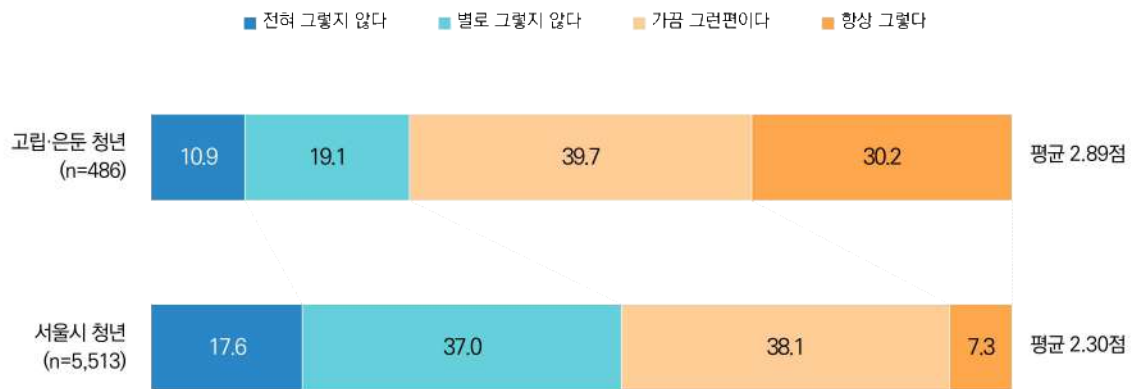
### 31) 외로움 척도 - (1) 나는 나와 같이 있어 줄 사람이 부족하다

- 나는 나와 같이 있어 줄 사람이 부족하다는 항목에 대해 고립·은둔 청년의 약 70%는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가끔 그런 편이다’는 39.7%, ‘항상 그렇다’는 30.2%로 나타났다.
- ‘항상 그렇다’는 응답 비율은 서울시 청년 대비 4배 이상 높았음.

A18. 다음 문항을 읽고 얼마나 자주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지 응답해주세요.

(1) ‘나는 나와 같이 있어 줄 사람이 부족하다’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그림 4-32] 외로움 척도 - 나는 나와 같이 있어 줄 사람이 부족하다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만 35~39세가 '항상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다른 연령대 대비 높게 나타났다.
- 가구유형 및 가족동거 여부 별로는 1인가구,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4-32] 외로움 척도 - 나는 나와 같이 있어 줄 사람이 부족하다

[Base: 고립·은둔 청년(n=48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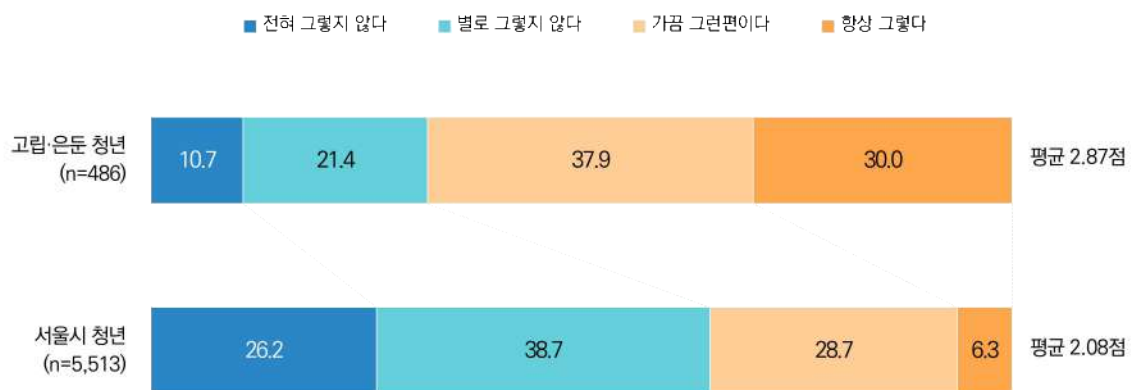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별로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항상 그렇다 ④	평균 (5점)	평균 (100점)	그렇다 (③+④)	그렇지 않다 (①+②)
전체		(486)	10.9	19.1	39.7	30.2	2.89	63.10	70.0	30.0
성별	남성	(227)	14.1	17.2	37.9	30.8	2.85	61.82	68.7	31.3
	여성	(259)	8.1	20.8	41.3	29.7	2.93	64.22	71.0	29.0
연령대	만 19~24세	(66)	18.2	19.7	31.8	30.3	2.74	58.08	62.1	37.9
	만 25~29세	(157)	8.9	17.2	51.0	22.9	2.88	62.63	73.9	26.1
	만 30~34세	(141)	12.1	19.9	36.2	31.9	2.88	62.65	68.1	31.9
	만 35~39세	(122)	8.2	20.5	33.6	37.7	3.01	66.94	71.3	28.7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245)	11.0	19.2	38.0	31.8	2.91	63.54	69.8	30.2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203)	11.8	21.2	39.9	27.1	2.82	60.76	67.0	33.0
가구 유형	1인가구	(127)	10.2	15.0	41.7	33.1	2.98	65.88	74.8	25.2
	다인가구	(359)	11.1	20.6	39.0	29.2	2.86	62.12	68.2	31.8
가족 동거	가족 동거	(348)	11.2	20.7	38.5	29.6	2.86	62.16	68.1	31.9
	가족 비동거	(138)	10.1	15.2	42.8	31.9	2.96	65.46	74.6	25.4

### 32) 외로움 척도 - (2) 나는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 나는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항목에 대해 고립·은둔 청년의 30.0%는 항상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가끔 그런 편이다'는 37.9%로 나타났다.

A18. 다음 문항을 읽고 얼마나 자주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지 응답해주세요.  
(2) '나는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그림 4-33] 외로움 척도 - 나는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가구유형 및 가족동거 여부 별로는 1인가구,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4-33] 외로움 척도 - 나는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Base: 고립·은둔 청년(n=48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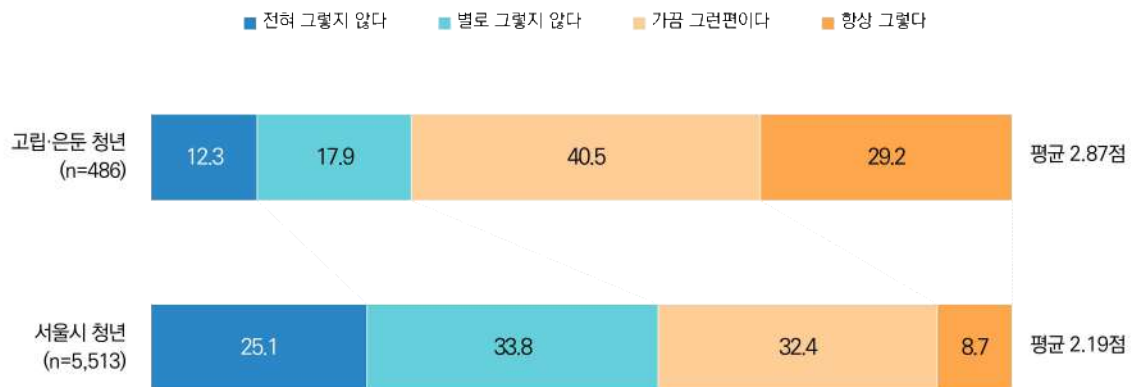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별로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항상 그렇다 ④	평균 (5점)	평균 (100점)	그렇다 (③+④)	그렇지 않다 (①+②)
전체		(486)	10.7	21.4	37.9	30.0	2.87	62.41	67.9	32.1
성별	남성	(227)	12.8	19.4	37.4	30.4	2.85	61.82	67.8	32.2
	여성	(259)	8.9	23.2	38.2	29.7	2.89	62.93	68.0	32.0
연령대	만 19~24세	(66)	13.6	27.3	39.4	19.7	2.65	55.05	59.1	40.9
	만 25~29세	(157)	11.5	22.9	40.8	24.8	2.79	59.66	65.6	34.4
	만 30~34세	(141)	12.1	19.1	36.2	32.6	2.89	63.12	68.8	31.2
	만 35~39세	(122)	6.6	18.9	35.2	39.3	3.07	69.13	74.6	25.4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245)	10.6	20.0	35.9	33.5	2.92	64.08	69.4	30.6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203)	10.8	20.2	39.4	29.6	2.88	62.56	69.0	31.0
가구 유형	1인가구	(127)	7.9	15.0	44.1	33.1	3.02	67.45	77.2	22.8
	다인가구	(359)	11.7	23.7	35.7	29.0	2.82	60.63	64.6	35.4
가족 동거	가족 동거	(348)	11.8	23.9	35.3	29.0	2.82	60.54	64.4	35.6
	가족 비동거	(138)	8.0	15.2	44.2	32.6	3.01	67.15	76.8	23.2

### 33) 외로움 척도 - (3) 나는 혼자 남겨진 것 같다고 느껴진다

- 나는 혼자 남겨진 것 같다고 느껴진다는 항목에 대해 고립·은둔 청년의 29.2%는 항상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가끔 그런 편이다'는 40.5%로 나타났다.

A18. 다음 문항을 읽고 얼마나 자주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지 응답해주세요.  
(3) '나는 혼자 남겨진 것 같다고 느껴진다'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그림 4-34] 외로움 척도 - 나는 혼자 남겨진 것 같다고 느껴진다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항상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가구유형 및 가족동거 여부 별로는 1인가구,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가 ‘그렇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표 4-34] 외로움 척도 - 나는 혼자 남겨진 것 같다고 느껴진다

[Base: 고립·은둔 청년(n=48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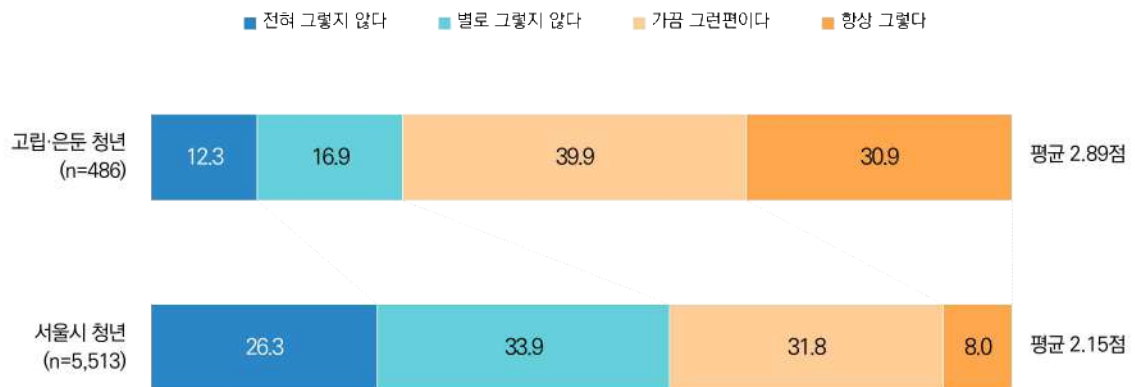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별로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항상 그렇다 ④	평균 (5점)	평균 (100점)	그렇다 (③+④)	그렇지 않다 (①+②)
전체		(486)	12.3	17.9	40.5	29.2	2.87	62.21	69.8	30.2
성별	남성	(227)	15.9	16.7	38.3	29.1	2.81	60.21	67.4	32.6
	여성	(259)	9.3	18.9	42.5	29.3	2.92	63.96	71.8	28.2
연령대	만 19~24세	(66)	15.2	21.2	40.9	22.7	2.71	57.07	63.6	36.4
	만 25~29세	(157)	12.1	17.8	43.9	26.1	2.84	61.36	70.1	29.9
	만 30~34세	(141)	12.8	15.6	45.4	26.2	2.85	61.70	71.6	28.4
	만 35~39세	(122)	10.7	18.9	30.3	40.2	3.00	66.67	70.5	29.5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245)	12.7	21.6	35.5	30.2	2.83	61.09	65.7	34.3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203)	13.3	13.3	45.3	28.1	2.88	62.73	73.4	26.6
가구 유형	1인가구	(127)	10.2	12.6	40.9	36.2	3.03	67.72	77.2	22.8
	다인가구	(359)	13.1	19.8	40.4	26.7	2.81	60.26	67.1	32.9
가족 동거	가족 동거	(348)	13.2	19.5	40.8	26.4	2.80	60.15	67.2	32.8
	가족 비동거	(138)	10.1	13.8	39.9	36.2	3.02	67.39	76.1	23.9

### 34) 외로움 척도 - (4)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되어 있다고 느껴진다

-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되어 있다고 느껴진다는 항목에 대해 고립·은둔 청년의 30.9%는 항상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가끔 그런 편이다'는 39.9%로 나타났다.

A18. 다음 문항을 읽고 얼마나 자주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지 응답해주세요.  
(4)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되어 있다고 느껴진다'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그림 4-35] 외로움 척도 -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되어 있다고 느껴진다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만 35~39세, 1인가구,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가 ‘항상 그렇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4-35] 외로움 척도 -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되어 있다고 느껴진다

[Base: 고립·은둔 청년(n=48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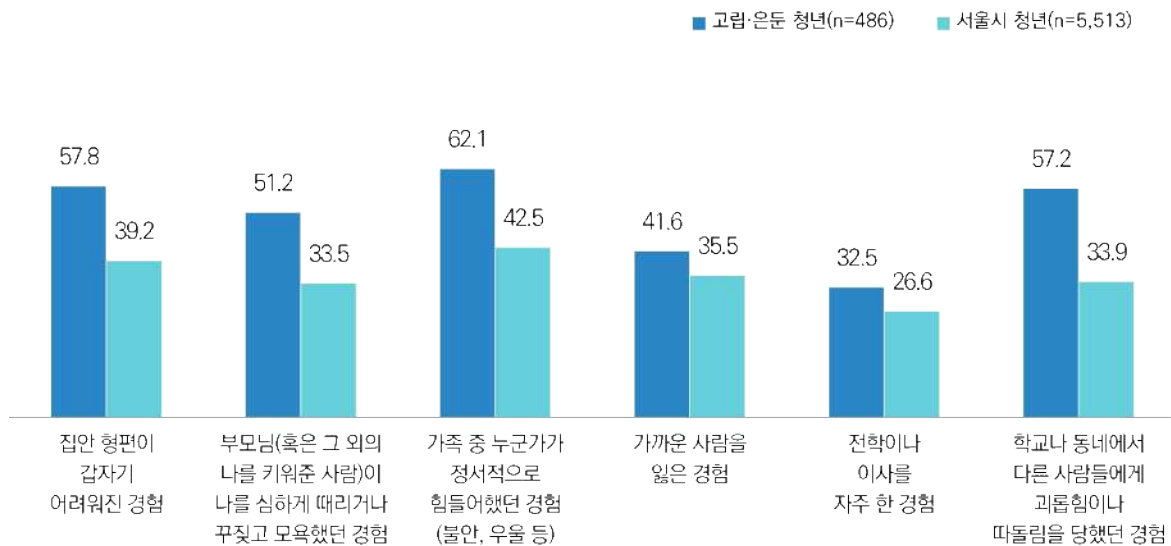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별로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항상 그렇다 ④	평균 (5점)	평균 (100점)	그렇다 (③+④)	그렇지 않다 (①+②)
전체		(486)	12.3	16.9	39.9	30.9	2.89	63.10	70.8	29.2
성별	남성	(227)	13.7	14.5	40.1	31.7	2.90	63.29	71.8	28.2
	여성	(259)	11.2	18.9	39.8	30.1	2.89	62.93	69.9	30.1
연령대	만 19~24세	(66)	18.2	16.7	36.4	28.8	2.76	58.59	65.2	34.8
	만 25~29세	(157)	14.0	12.7	45.2	28.0	2.87	62.42	73.2	26.8
	만 30~34세	(141)	12.8	17.0	41.8	28.4	2.86	61.94	70.2	29.8
	만 35~39세	(122)	6.6	22.1	32.8	38.5	3.03	67.76	71.3	28.7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245)	11.8	20.4	37.1	30.6	2.87	62.18	67.8	32.2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203)	14.3	15.3	40.9	29.6	2.86	61.90	70.4	29.6
가구 유형	1인가구	(127)	11.8	17.3	36.2	34.6	2.94	64.57	70.9	29.1
	다인가구	(359)	12.5	16.7	41.2	29.5	2.88	62.58	70.8	29.2
가족 동거	가족 동거	(348)	12.4	16.7	41.4	29.6	2.88	62.74	71.0	29.0
	가족 비동거	(138)	12.3	17.4	36.2	34.1	2.92	64.01	70.3	29.7

### 35) 성인기 이전 부정적 경험 여부

- 성인기 이전의 부정적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던 경험(62.1%)’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험(57.8%)’, ‘학교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57.2%)’, ‘부모님이 나를 심하게 때리거나 꾸짖고 모욕했던 경험(51.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A19. 여러분은 성인이 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그림 4-36] 성인기 이전 부정적 경험 여부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부정적 경험이 더 다양했고, 특히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던 경험’이 높게 나타났음.
- 서울 이주 여부에 따라서는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해온 응답자가 다양한 부정적 경험이 있었으며, ‘가정 문제’, ‘찾은 전학 및 이사’, ‘괴롭힘이나 따돌림’ 등이 특히 높았음.
- 가구유형 및 가족동거 여부 별로는 1인가구와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가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 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는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던 경험’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4-36] 성인기 이전 부정적 경험 여부

[Base: 고립·은둔 청년(n=48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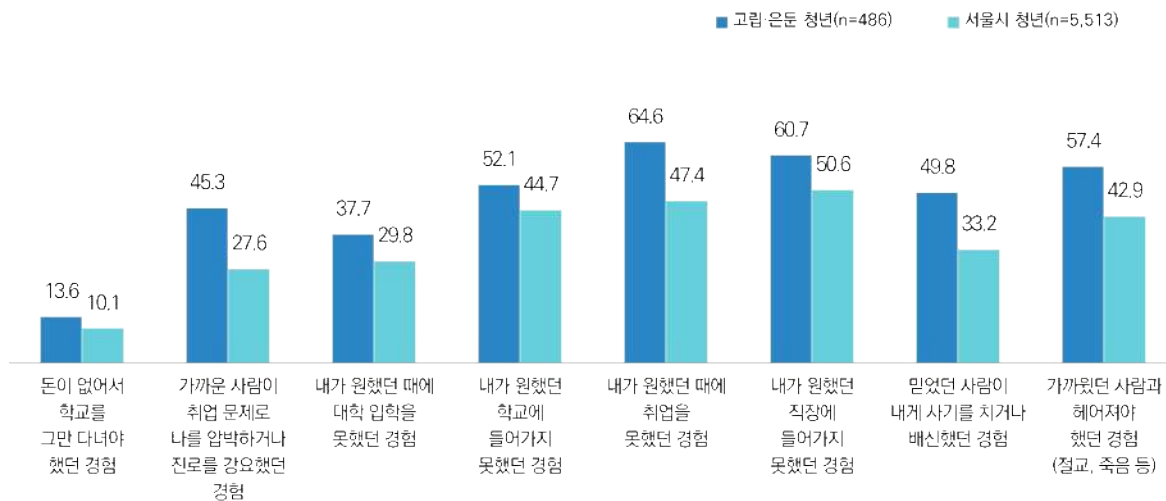
		사례수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험	부모님(혹은 그 외 나를 키워준 사람)이 나를 심하게 때리거나 꾸짖고 모욕했던 경험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던 경험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 한 경험	학교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전체		(486)	57.8	51.2	62.1	41.6	32.5	57.2
성별	남성	(227)	55.1	52.0	55.9	39.6	35.7	58.1
	여성	(259)	60.2	50.6	67.6	43.2	29.7	56.4
연령대	만 19~24세	(66)	34.8	43.9	56.1	39.4	33.3	51.5
	만 25~29세	(157)	65.0	49.7	67.5	38.2	33.1	63.1
	만 30~34세	(141)	59.6	53.2	64.5	42.6	34.8	62.4
	만 35~39세	(122)	59.0	54.9	55.7	45.9	28.7	46.7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245)	56.3	49.0	57.1	41.6	22.9	52.2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203)	60.1	55.2	68.0	40.4	42.9	61.1
가구 유형	1인가구	(127)	58.3	50.4	63.8	50.4	38.6	58.3
	다인가구	(359)	57.7	51.5	61.6	38.4	30.4	56.8
가족 동거	가족 동거	(348)	56.6	50.6	60.6	37.6	29.3	56.6
	가족 비동거	(138)	60.9	52.9	65.9	51.4	40.6	58.7

### 36) 성인기 이후 부정적 경험 여부

- 성인기 이후의 부정적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내가 원했던 때에 취업을 못했던 경험(64.6%)’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내가 원했던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던 경험(60.7%)’, ‘가까웠던 사람과 헤어져야 했던 경험(57.4%)’, ‘내가 원했던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던 경험(52.1%)’ 등이 높게 나타나 주로 취업, 학업 실패나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단절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A20. 여러분은 성인이 되신 이후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그림 4-37] 성인기 이후 부정적 경험 여부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성인기 이후 다양한 부정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대별로는 20대 초반은 '취업 문제로 압박하거나 진로를 강요'당했던 경험이, 30대는 '원했던 때에 취업을 못했거나', '원했던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던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각 연령대별 이행기에 주요한 문제인 학업, 취업 등에서 실패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해왔거나 1인가구,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부정적 경험이 많았음.

[표 4-37] 성인기 이후 부정적 경험 여부

[Base: 고립·은둔 청년(n=486), 단위: %]

		사례수	돈이 없어서 학교를 그만 다녀야 했던 경험	가까운 사람이 취업문제로 압박하거나 진로를 강요했던 경험	내가 원했던 때에 대학 입학 못했던 경험	내가 원했던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던 경험	내가 원했던 때에 취업을 못했던 경험	내가 원했던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던 경험	믿었던 사람이 내게 사기를 치거나 배신했던 경험	가까웠던 사람과 헤어져야 했던 경험(절교, 죽음 등)
전체		(486)	13.6	45.3	37.7	52.1	64.6	60.7	49.8	57.4
성별	남성	(227)	15.4	45.8	39.2	46.7	60.8	58.6	44.5	50.7
	여성	(259)	12.0	44.8	36.3	56.8	68.0	62.5	54.4	63.3
연령대	만 19~24세	(66)	10.6	34.8	30.3	42.4	36.4	37.9	42.4	54.5
	만 25~29세	(157)	12.7	52.2	33.1	53.5	64.3	57.3	49.0	58.0
	만 30~34세	(141)	15.6	46.1	45.4	52.5	72.3	69.5	50.4	58.2
	만 35~39세	(122)	13.9	41.0	38.5	54.9	71.3	67.2	54.1	57.4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245)	12.7	42.0	36.3	49.4	61.6	59.2	44.9	51.8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203)	15.3	47.8	41.9	56.7	68.5	65.5	55.2	61.1
가구 유형	1인가구	(127)	18.1	45.7	44.1	57.5	70.1	66.1	61.4	70.9
	다인가구	(359)	12.0	45.1	35.4	50.1	62.7	58.8	45.7	52.6
가족 동거	가족 동거	(348)	11.2	44.5	35.3	50.0	62.1	58.6	44.8	52.3
	가족 비동거	(138)	19.6	47.1	43.5	57.2	71.0	65.9	62.3	7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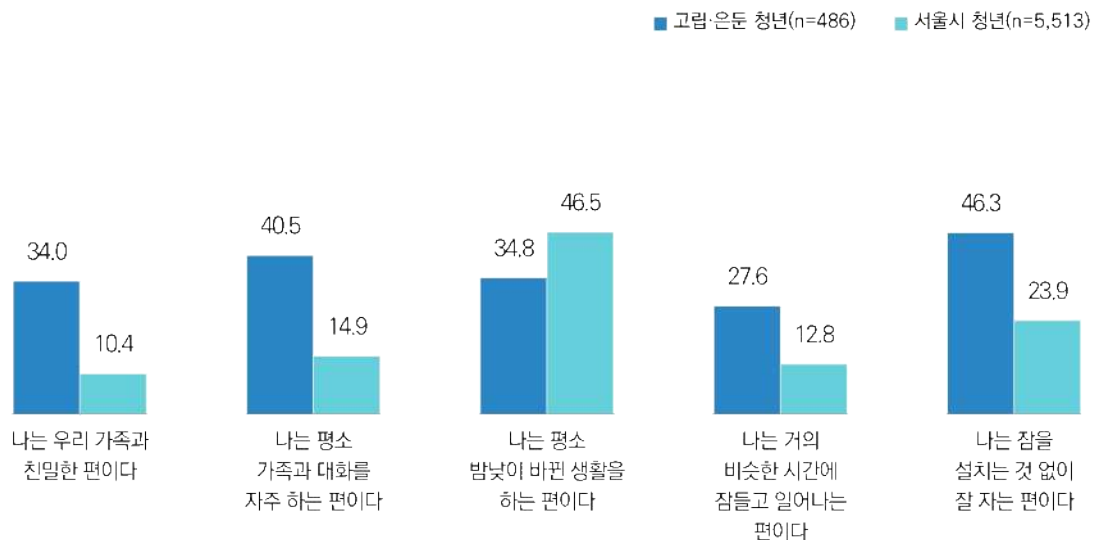
## 2. 고립·은둔 청년의 생활실태

### 1) 평소 생활 패턴 - 종합

- 고립·은둔 청년의 평소 생활 패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10명 중 3~4명이 가족과의 친밀감이나 교류 빈도가 낮고,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가족과의 관계와 관련된 ‘나는 우리 가족과 친밀한 편이다’, ‘나는 평소 가족과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이다’ 항목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서울시 청년 대비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음.

B1. 다음은 여러분의 평소 생활 패턴에 대한 문항입니다. 아래 문항을 읽고 얼마나 해당하는지 선택해 주세요.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Bot2(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



[그림 4-38] 평소 생활 패턴 -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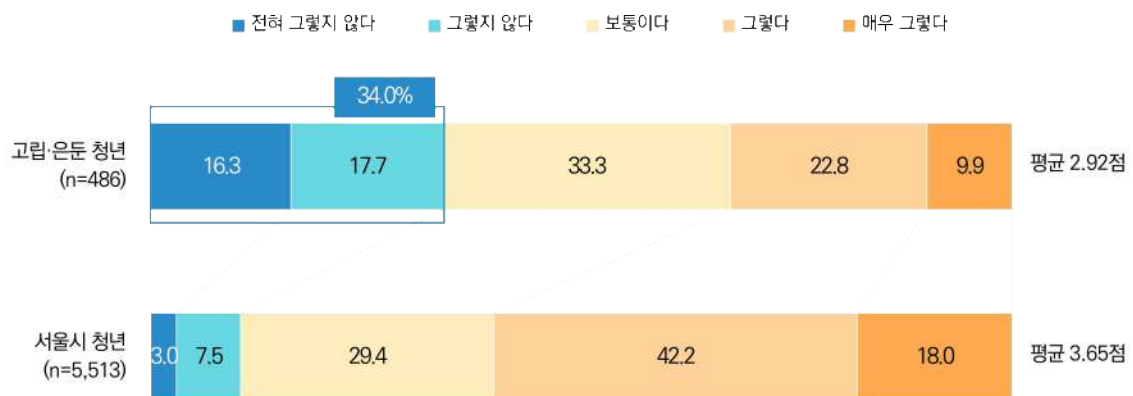
## 2) 평소 생활 패턴 - (1) 나는 우리 가족과 친밀한 편이다

- ‘나는 우리 가족과 친밀한 편이다’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은 고립·은둔 청년이 34.0%(그렇지 않다 17.7%+전혀 그렇지 않다 16.3%)였으며, 서울시 청년의 3배였음.

B1. 다음은 여러분의 평소 생활 패턴에 대한 문항입니다. 아래 문항을 읽고 얼마나 해당하는지 선택해 주세요.

(1) ‘나는 우리 가족과 친밀한 편이다’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그림 4-39] 평소 생활 패턴 - 나는 우리 가족과 친밀한 편이다

-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과 친밀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서울 이주 여부에 따라서는 서울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해온 응답자보다,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해온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가구유형 및 가족동거 여부에 따라서는 1인가구 또는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음.

[표 4-38] 평소 생활 패턴 ①

[Base: 고립·은둔 청년(n=48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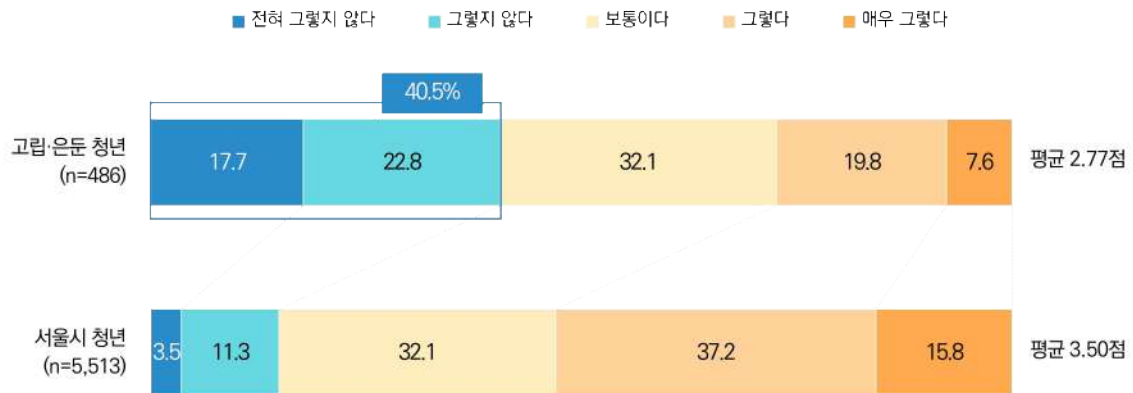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평균 (5점)	평균 (100점)	그렇다 (④+⑤)	보통 이다 (③)	그렇지 않다 (①+②)
전체		(486)	16.3	17.7	33.3	22.8	9.9	2.92	48.10	32.7	33.3	34.0
성별	남성	(227)	15.9	18.5	30.0	26.4	9.3	2.95	48.68	35.7	30.0	34.4
	여성	(259)	16.6	17.0	36.3	19.7	10.4	2.90	47.59	30.1	36.3	33.6
연령대	만 19~24세	(66)	12.1	10.6	34.8	31.8	10.6	3.18	54.55	42.4	34.8	22.7
	만 25~29세	(157)	14.6	17.2	34.4	24.2	9.6	2.97	49.20	33.8	34.4	31.8
	만 30~34세	(141)	17.0	17.0	33.3	21.3	11.3	2.93	48.23	32.6	33.3	34.0
	만 35~39세	(122)	19.7	23.0	31.1	18.0	8.2	2.72	43.03	26.2	31.1	42.6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245)	13.9	19.2	33.5	24.5	9.0	2.96	48.88	33.5	33.5	33.1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203)	20.2	17.2	32.0	19.7	10.8	2.84	45.94	30.5	32.0	37.4
가구 유형	1인가구	(127)	27.6	18.1	30.7	17.3	6.3	2.57	39.17	23.6	30.7	45.7
	다인가구	(359)	12.3	17.5	34.3	24.8	11.1	3.05	51.25	35.9	34.3	29.8
가족 동거	가족 동거	(348)	11.2	17.2	34.5	25.6	11.5	3.09	52.23	37.1	34.5	28.4
	가족 비동거	(138)	29.0	18.8	30.4	15.9	5.8	2.51	37.68	21.7	30.4	47.8

### 3) 평소 생활 패턴 - (2) 나는 평소 가족과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이다

- ‘나는 평소 가족과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이다’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고립·은둔 청년이 40.5%(그렇지 않다 22.8%+전혀 그렇지 않다 17.7%)로, 서울시 청년 대비 약 3배 정도 높은 수준이었음.

B1. 다음은 여러분의 평소 생활 패턴에 대한 문항입니다. 아래 문항을 읽고 얼마나 해당하는지 선택해 주세요.  
(2) ‘나는 평소 가족과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이다’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그림 4-40] 평소 생활 패턴 - 나는 평소 가족과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이다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 이상 응답자들에게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서울 이주 여부에 따라서는 서울에서 출생 및 거주해온 응답자보다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해온 응답자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가구유형 및 가족동거 여부에 따라서는 1인가구 또는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가 부정적 응답이 높았으며 특히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표 4-39] 평소 생활 패턴 - 나는 평소 가족과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이다

[Base: 고립·은둔 청년(n=48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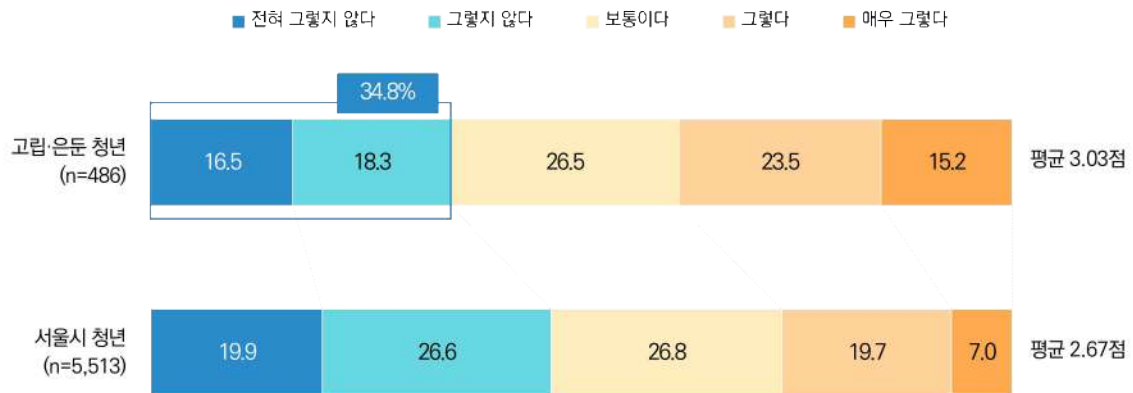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평균 (5점)	평균 (100점)	그렇다 (④+⑤)	보통 이다 (③)	그렇지 않다 (①+②)
전체		(486)	17.7	22.8	32.1	19.8	7.6	2.77	44.19	27.4	32.1	40.5
성별	남성	(227)	19.8	20.3	32.2	22.0	5.7	2.74	43.39	27.8	32.2	40.1
	여성	(259)	15.8	25.1	32.0	17.8	9.3	2.80	44.88	27.0	32.0	40.9
연령대	만 19~24세	(66)	10.6	13.6	42.4	25.8	7.6	3.06	51.52	33.3	42.4	24.2
	만 25~29세	(157)	15.3	27.4	31.2	16.6	9.6	2.78	44.43	26.1	31.2	42.7
	만 30~34세	(141)	20.6	23.4	25.5	23.4	7.1	2.73	43.26	30.5	25.5	44.0
	만 35~39세	(122)	21.3	21.3	35.2	16.4	5.7	2.64	40.98	22.1	35.2	42.6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245)	13.9	24.5	32.2	22.4	6.9	2.84	46.02	29.4	32.2	38.4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203)	21.7	18.7	34.5	16.3	8.9	2.72	42.98	25.1	34.5	40.4
가구 유형	1인가구	(127)	29.9	23.6	26.0	16.5	3.9	2.41	35.24	20.5	26.0	53.5
	다인가구	(359)	13.4	22.6	34.3	20.9	8.9	2.89	47.35	29.8	34.3	35.9
가족 동거	가족 동거	(348)	12.4	22.1	34.8	21.6	9.2	2.93	48.28	30.7	34.8	34.5
	가족 비동거	(138)	31.2	24.6	25.4	15.2	3.6	2.36	33.88	18.8	25.4	55.8

#### 4) 평소 생활 패턴 - (3) 나는 평소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는 편이다

- ‘나는 평소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는 편이다’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고립·은둔 청년이 34.8%(그렇지 않다 18.3%+전혀 그렇지 않다 16.5%)로, 서울시 청년 대비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B1. 다음은 여러분의 평소 생활 패턴에 대한 문항입니다. 아래 문항을 읽고 얼마나 해당하는지 선택해 주세요.  
(3) ‘나는 평소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는 편이다’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그림 4-41] 평소 생활 패턴 - 나는 평소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는 편이다

○ 응답자 특성별로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표 4-40] 평소 생활 패턴 - 나는 평소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는 편이다

[Base: 고립·은둔 청년(n=486), 단위: %]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평균 (5점)	평균 (100점)	그렇다 (④+⑤)	보통 이다 (③)	그렇지 않다 (①+②)
전체		(486)	16.5	18.3	26.5	23.5	15.2	3.03	50.67	38.7	26.5	34.8
성별	남성	(227)	14.5	19.4	28.6	24.7	12.8	3.02	50.44	37.4	28.6	33.9
	여성	(259)	18.1	17.4	24.7	22.4	17.4	3.03	50.87	39.8	24.7	35.5
연령대	만 19~24세	(66)	9.1	12.1	33.3	34.8	10.6	3.26	56.44	45.5	33.3	21.2
	만 25~29세	(157)	21.0	16.6	23.6	23.6	15.3	2.96	48.89	38.9	23.6	37.6
	만 30~34세	(141)	14.9	21.3	24.1	21.3	18.4	3.07	51.77	39.7	24.1	36.2
	만 35~39세	(122)	16.4	20.5	29.5	19.7	13.9	2.94	48.57	33.6	29.5	36.9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245)	16.3	19.2	28.6	22.4	13.5	2.98	49.39	35.9	28.6	35.5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203)	19.2	16.7	24.6	22.2	17.2	3.01	50.37	39.4	24.6	36.0
가구 유형	1인가구	(127)	16.5	18.1	23.6	24.4	17.3	3.08	51.97	41.7	23.6	34.6
	다인가구	(359)	16.4	18.4	27.6	23.1	14.5	3.01	50.21	37.6	27.6	34.8
가족 동거	가족 동거	(348)	16.1	18.7	27.9	23.3	14.1	3.01	50.14	37.4	27.9	34.8
	가족 비동거	(138)	17.4	17.4	23.2	23.9	18.1	3.08	51.99	42.0	23.2	34.8

### 5) 평소 생활 패턴 - (4) 나는 거의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편이다

- ‘나는 거의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편이다’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고립·은둔 청년이 27.6%(그렇지 않다 18.9%+전혀 그렇지 않다 8.6%)로, 서울시 청년 대비 2배 이상 높았음.

B1. 다음은 여러분의 평소 생활 패턴에 대한 문항입니다. 아래 문항을 읽고 얼마나 해당하는지 선택해 주세요.  
(4) ‘나는 거의 비슷한 시간이 잠들고 일어나는 편이다’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그림 4-42] 평소 생활 패턴 - 나는 거의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편이다

- 서울 이주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서울에서 출생 및 거주해온 응답자보다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해온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음.
- 가구유형 및 가족동거 여부 별로 살펴보면, 1인가구 또는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4-41] 평소 생활 패턴 - 나는 거의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편이다

[Base: 고립·은둔 청년(n=486), 단위: %]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평균 (5점)	평균 (100점)	그렇다 (④+⑤)	보통 이다 (③)	그렇지 않다 (①+②)
전체		(486)	8.6	18.9	30.2	31.7	10.5	3.16	54.12	42.2	30.2	27.6
성별	남성	(227)	8.8	17.6	28.6	34.4	10.6	3.20	55.07	44.9	28.6	26.4
	여성	(259)	8.5	20.1	31.7	29.3	10.4	3.13	53.28	39.8	31.7	28.6
연령대	만 19~24세	(66)	7.6	22.7	31.8	31.8	6.1	3.06	51.52	37.9	31.8	30.3
	만 25~29세	(157)	8.9	21.0	26.1	31.8	12.1	3.17	54.30	43.9	26.1	29.9
	만 30~34세	(141)	8.5	14.2	32.6	32.6	12.1	3.26	56.38	44.7	32.6	22.7
	만 35~39세	(122)	9.0	19.7	32.0	30.3	9.0	3.11	52.66	39.3	32.0	28.7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245)	5.3	17.1	32.7	33.9	11.0	3.28	57.04	44.9	32.7	22.4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203)	10.8	20.7	29.1	29.6	9.9	3.07	51.72	39.4	29.1	31.5
가구 유형	1인가구	(127)	17.3	24.4	18.9	32.3	7.1	2.87	46.85	39.4	18.9	41.7
	다인가구	(359)	5.6	17.0	34.3	31.5	11.7	3.27	56.69	43.2	34.3	22.6
가족 동거	가족 동거	(348)	5.7	17.0	33.9	32.2	11.2	3.26	56.54	43.4	33.9	22.7
	가족 비동거	(138)	15.9	23.9	21.0	30.4	8.7	2.92	48.01	39.1	21.0	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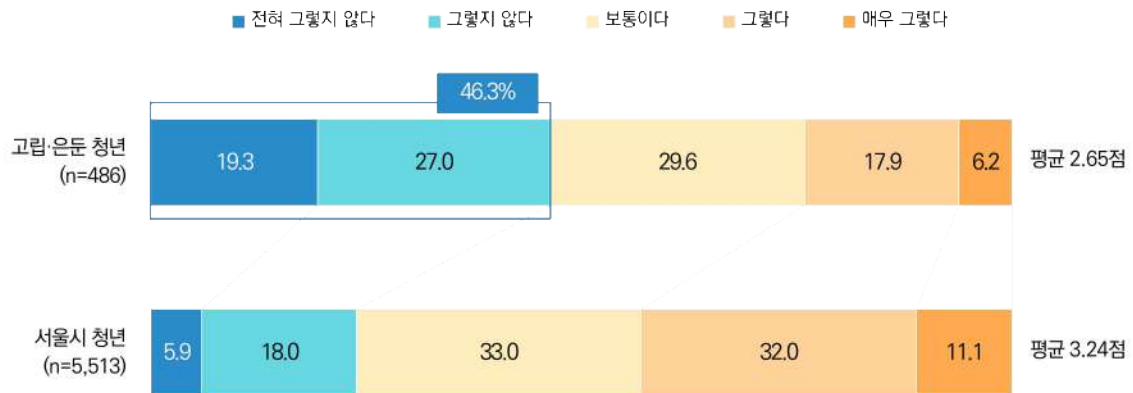


## 6) 평소 생활 패턴 - (5) 나는 잠을 설치는 것 없이 잘 자는 편이다

- ‘나는 잠을 설치는 것 없이 잘 자는 편이다’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고립·은둔 청년이 46.3%(그렇지 않다 27.0%+전혀 그렇지 않다 19.3%)로, 서울시 청년과 약 2배의 차이를 보였음.

B1. 다음은 여러분의 평소 생활 패턴에 대한 문항입니다. 아래 문항을 읽고 얼마나 해당하는지 선택해 주세요.  
(5) ‘나는 잠을 설치는 것 없이 잘 자는 편이다’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그림 4-43] 평소 생활 패턴 - 나는 잠을 설치는 것 없이 잘 자는 편이다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 서울 이주 여부에 따라서는 서울에서 출생 및 거주해온 응답자보다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해온 응답자에게서 부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 가구유형 및 가족동거 여부 별로는 1인가구 또는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에게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4-42] 평소 생활 패턴 - 나는 잠을 설치는 것 없이 잘 자는 편이다

[Base: 고립·은둔 청년(n=48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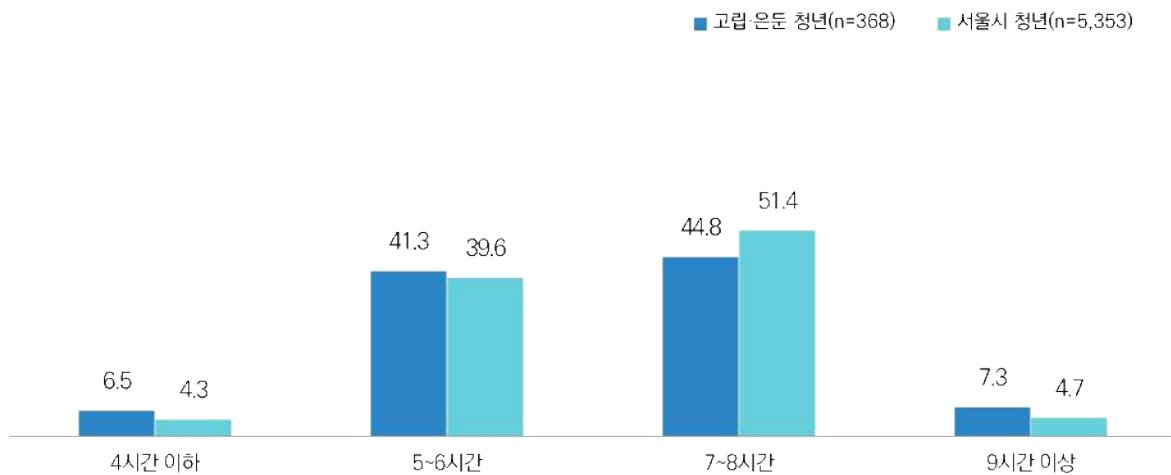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평균 (5점)	평균 (100점)	그렇다 (④+⑤)	보통 이다 (③)	그렇지 않다 (①+②)
전체		(486)	19.3	27.0	29.6	17.9	6.2	2.65	41.15	24.1	29.6	46.3
성별	남성	(227)	18.1	24.7	32.2	18.1	7.0	2.71	42.84	25.1	32.2	42.7
	여성	(259)	20.5	29.0	27.4	17.8	5.4	2.59	39.67	23.2	27.4	49.4
연령대	만 19~24세	(66)	13.6	25.8	36.4	18.2	6.1	2.77	44.32	24.2	36.4	39.4
	만 25~29세	(157)	21.0	26.8	26.1	19.7	6.4	2.64	40.92	26.1	26.1	47.8
	만 30~34세	(141)	22.0	26.2	25.5	17.7	8.5	2.65	41.13	26.2	25.5	48.2
	만 35~39세	(122)	17.2	28.7	35.2	15.6	3.3	2.59	39.75	18.9	35.2	45.9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245)	15.1	26.9	30.6	21.2	6.1	2.76	44.08	27.3	30.6	42.0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203)	23.6	25.1	29.1	15.8	6.4	2.56	39.04	22.2	29.1	48.8
가구 유형	1인가구	(127)	28.3	26.8	26.0	11.0	7.9	2.43	35.83	18.9	26.0	55.1
	다인가구	(359)	16.2	27.0	30.9	20.3	5.6	2.72	43.04	25.9	30.9	43.2
가족 동거	가족 동거	(348)	16.1	27.0	31.3	20.1	5.5	2.72	42.96	25.6	31.3	43.1
	가족 비동거	(138)	27.5	26.8	25.4	12.3	8.0	2.46	36.59	20.3	25.4	54.3

## 7) 평균 수면 시간

- 고립·은둔 청년의 평균 수면시간은 '7~8시간'이 44.8%로 가장 많았음.
- 전반적으로 서울시 청년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4시간 이하', '9시간 이상' 구간에서 고립·은둔 청년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수면시간의 편차가 컸음.

B2. 여러분은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주무시나요?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sup>14)</sup>



[그림 4-44] 평균 수면 시간

14) 고립·은둔 청년 지원기관을 통해 모집된 응답자 중 해당 문항 무응답자는 제외한 비율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5~6시간', 여성은 '7~8시간'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만 35~39세가 '6시간 이하'를 응답한 비율이 다른 연령대 대비 높게 나타나 수면시간이 비교적 짧았음.
- 가족동거 여부에 따라서는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수면시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4-43] 평균 수면 시간

[Base: 고립·은둔 청년(n=368), 단위: %]<sup>15)</sup>

		사례수	4시간 이하	5~6시간	7~8시간	9시간 이상
전체		(368)	6.5	41.3	44.8	7.3
성별	남성	(179)	8.4	44.1	42.5	5.0
	여성	(189)	4.8	38.6	47.1	9.5
연령대	만 19~24세	(47)	4.3	40.4	46.8	8.5
	만 25~29세	(105)	4.8	33.3	54.3	7.6
	만 30~34세	(102)	6.9	40.2	46.1	6.9
	만 35~39세	(114)	8.8	50.0	34.2	7.0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212)	5.2	41.5	47.2	6.1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156)	8.3	41.0	41.7	9.0
가구 유형	1인가구	(83)	9.6	42.2	44.6	3.6
	다인가구	(285)	5.6	41.1	44.9	8.4
가족 동거	가족 동거	(278)	5.4	40.3	45.7	8.6
	가족 비동거	(90)	10.0	44.4	42.2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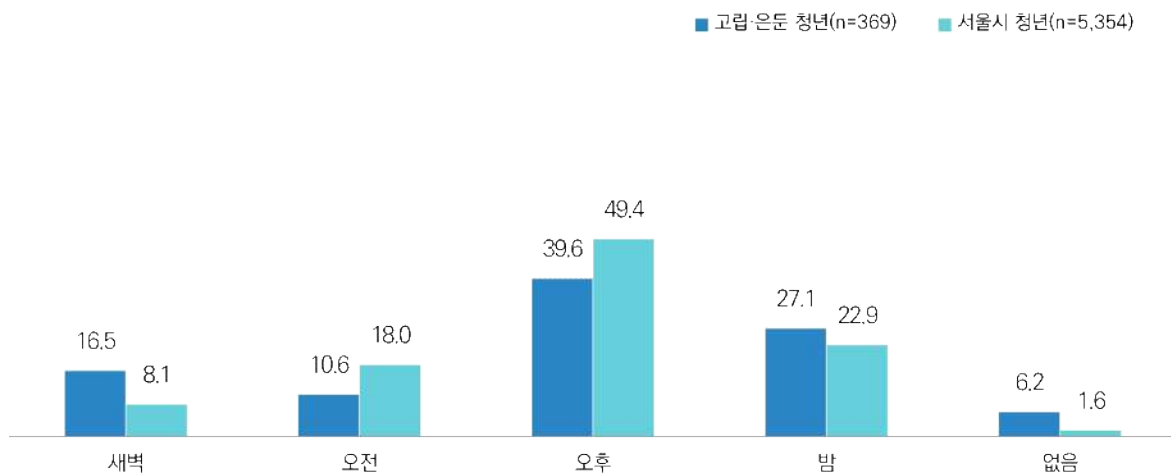
15) 고립·은둔 청년 지원기관을 통해 모집된 응답자 중 해당 문항 무응답자는 제외한 비율임

## 8) 주 활동 시간대

- 고립·은둔 청년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대는 ‘오후(39.6%)’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밤(27.1%)’, ‘새벽(16.5%)’ 등의 순이었으며, 서울시 청년 대비 저녁시간에 활발히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3. 여러분이 평소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sup>16)</sup>



[그림 4-45] 주 활동 시간대

16) 고립·은둔 청년 지원기관을 통해 모집된 응답자 중 해당 문항 무응답자는 제외한 비율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오후’, 여성은 ‘새벽’에 활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오후’에 활동하는 비율이 높은 가운데, 만 35~39세는 ‘밤’에 활동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다른 연령대와 차이를 보였음.
- 가구유형 및 가족동거 여부에 따라서는 1인가구와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가 ‘밤’에 활동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표 4-44] 주 활동 시간대

[Base: 고립·은둔 청년(n=369), 단위: %]<sup>17)</sup>

		사례수	새벽	오전	오후	밤	없음
전체		(369)	16.5	10.6	39.6	27.1	6.2
성별	남성	(179)	14.0	10.1	42.5	25.1	8.4
	여성	(190)	18.9	11.1	36.8	28.9	4.2
연령대	만 19~24세	(47)	17.0	8.5	46.8	21.3	6.4
	만 25~29세	(106)	14.2	10.4	45.3	22.6	7.5
	만 30~34세	(102)	18.6	9.8	41.2	23.5	6.9
	만 35~39세	(114)	16.7	12.3	29.8	36.8	4.4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212)	17.5	12.3	37.3	27.8	5.2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157)	15.3	8.3	42.7	26.1	7.6
가구 유형	1인가구	(84)	11.9	10.7	38.1	31.0	8.3
	다인가구	(285)	17.9	10.5	40.0	26.0	5.6
가족 동거	가족 동거	(278)	17.6	10.8	39.9	25.9	5.8
	가족 비동거	(91)	13.2	9.9	38.5	30.8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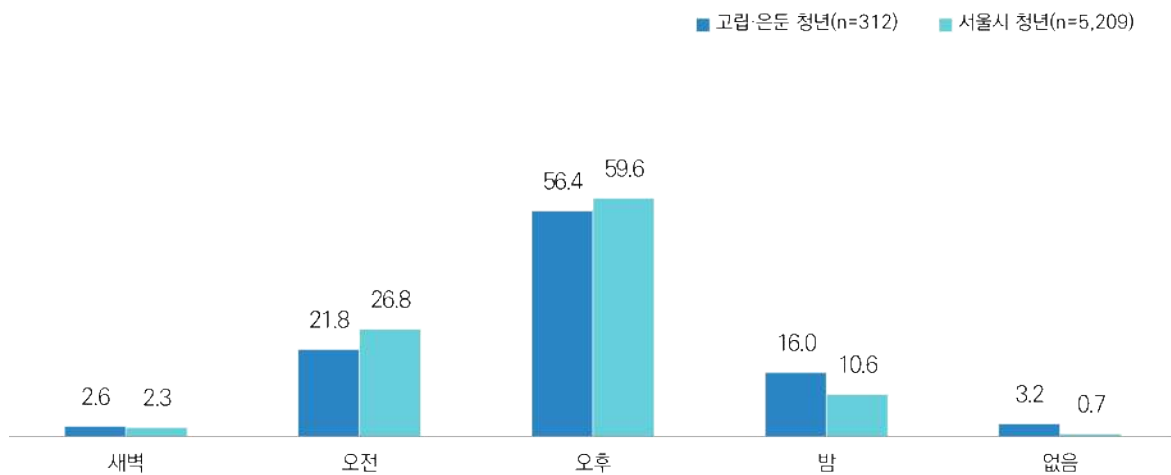
17) 고립·은둔 청년 지원기관을 통해 모집된 응답자 중 해당 문항 무응답자는 제외한 비율임

## 9) 주 외출 시간대

- 고립·은둔 청년이 주로 외출하는 시간대는 ‘오후(56.4%)’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오전(21.8%)’, ‘밤(16.0%)’ 등의 순이었으며, 서울시 청년 대비 ‘밤’에 외출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B4. 여러분은 밖에 나가야 할 일이 있다면 주로 어느 시간대에 나가시나요?

[Base: 외출을 하는 자, 단위: %]



[그림 4-46] 주 외출 시간대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밤’, 여성은 ‘오후’ 시간대에 외출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만 19~24세는 ‘오전’이나 ‘오후’가, 그 외 연령대는 ‘밤’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음.
- 가구유형 및 가족동거 여부 별로는 가족과 동거하지 않으며 1인가구인 응답자는 ‘새벽’, 가족과 동거하며 다인가구인 응답자는 ‘오전’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4-45] 주 외출 시간대

[Base: 외출을 하는 고립·은둔 청년(n=312), 단위: %]

		사례수	새벽	오전	오후	밤	없음
전체		(312)	2.6	21.8	56.4	16.0	3.2
성별	남성	(152)	3.3	23.0	50.7	19.1	3.9
	여성	(160)	1.9	20.6	61.9	13.1	2.5
연령대	만 19~24세	(35)	0.0	28.6	60.0	8.6	2.9
	만 25~29세	(90)	1.1	22.2	57.8	15.6	3.3
	만 30~34세	(87)	4.6	19.5	54.0	18.4	3.4
	만 35~39세	(100)	3.0	21.0	56.0	17.0	3.0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176)	0.6	27.8	53.4	15.9	2.3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136)	5.1	14.0	60.3	16.2	4.4
가구 유형	1인가구	(68)	5.9	17.6	57.4	16.2	2.9
	다인가구	(244)	1.6	23.0	56.1	16.0	3.3
가족 동거	가족 동거	(237)	1.7	23.2	56.1	15.6	3.4
	가족 비동거	(75)	5.3	17.3	57.3	17.3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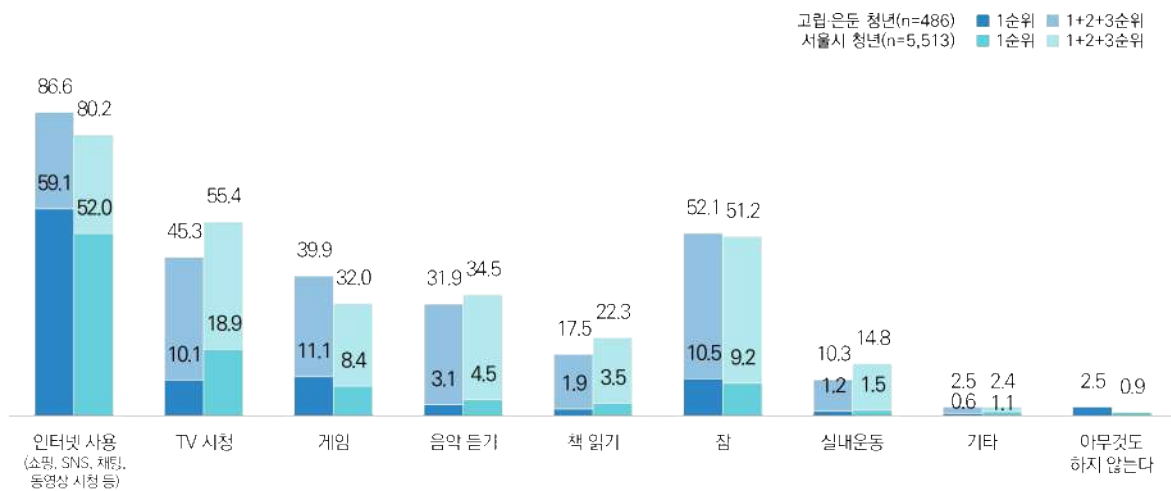


## 10) 집에서 주로 하는 활동

- 고립·은둔 청년이 집에서 가장 주로 하는 활동은 '인터넷 사용(59.1%)'이었으며, 다음으로 '게임(11.1%)', '잠(10.5%)', 'TV시청(10.1%)' 등의 순이었음. (1순위 기준)
- 서울시 청년의 경우 고립·은둔 청년 대비 'TV시청', '음악 듣기', '책 읽기', '실내운동' 등 비교적 다양한 활동을 고루 하고 있었음.

B5. 여러분은 평소 집에 있을 때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하루 중 가장 많이 하는 순서대로 최대 3순위까지 선택해주세요.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복수응답]



[그림 4-47] 집에서 주로 하는 활동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게임’, 여성은 ‘잠’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만 19~24세는 ‘음악듣기’, 만 25~29세는 ‘잠’, 만 35~39세는 ‘인터넷 사용’이나 ‘TV 시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가구유형 및 가족동거 여부 별로는 가족과 동거하지 않으며 1인가구인 응답자가 ‘TV 시청’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표 4-46] 집에서 주로 하는 활동(1순위)

[Base: 고립·은둔 청년(n=486), 단위: %]

		사례수	인터넷 사용	TV 시청	게임	음악 듣기	책 읽기	잠	실내 운동	기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전체		(486)	59.1	10.1	11.1	3.1	1.9	10.5	1.2	0.6	2.5
성별	남성	(227)	57.3	8.4	17.6	1.8	2.6	7.5	1.8	0.4	2.6
	여성	(259)	60.6	11.6	5.4	4.2	1.2	13.1	0.8	0.8	2.3
연령대	만 19~24세	(66)	56.1	6.1	13.6	9.1	1.5	7.6	1.5	1.5	3.0
	만 25~29세	(157)	57.3	6.4	12.7	1.9	1.3	16.6	1.9	0.0	1.9
	만 30~34세	(141)	55.3	11.3	13.5	2.8	3.5	8.5	1.4	0.7	2.8
	만 35~39세	(122)	67.2	15.6	4.9	1.6	0.8	6.6	0.0	0.8	2.5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245)	60.0	9.4	11.0	3.7	1.2	10.2	1.6	0.4	2.4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203)	59.1	11.8	8.4	3.0	2.5	11.3	1.0	1.0	2.0
가구 유형	1인가구	(127)	55.9	12.6	11.0	2.4	2.4	10.2	1.6	0.0	3.9
	다인가구	(359)	60.2	9.2	11.1	3.3	1.7	10.6	1.1	0.8	1.9
가족 동거	가족 동거	(348)	60.1	8.9	10.9	3.4	1.7	10.9	1.1	0.9	2.0
	가족 비동거	(138)	56.5	13.0	11.6	2.2	2.2	9.4	1.4	0.0	3.6

[표 4-47] 집에서 주로 하는 활동(1+2+3순위)

[Base: 고립·은둔 청년(n=486),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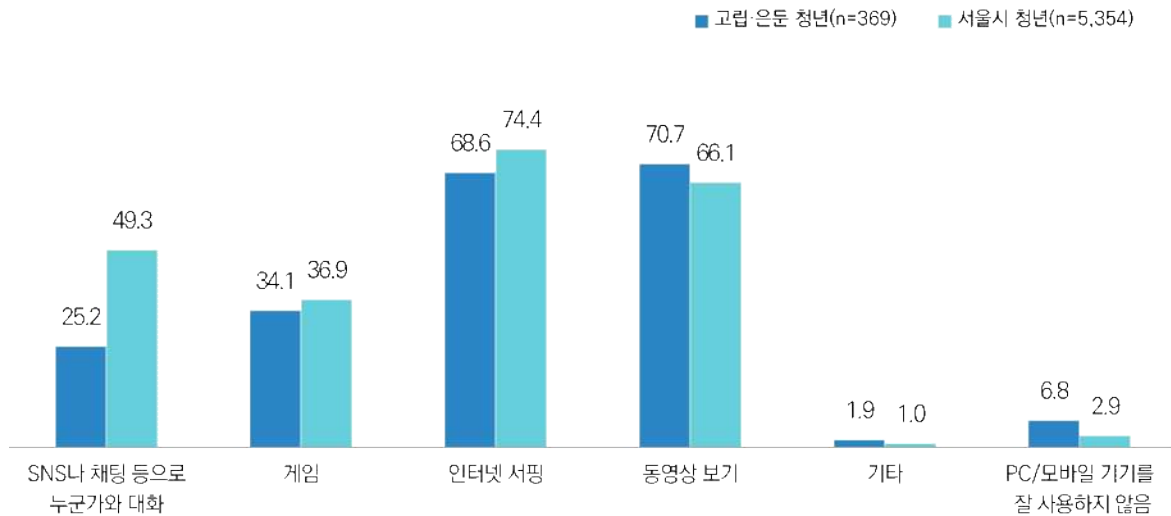
		사례수	인터넷 사용	TV 시청	게임	음악 듣기	책 읽기	잠	실내 운동	기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전체		(486)	86.6	45.3	39.9	31.9	17.5	52.1	10.3	2.5	2.5
성별	남성	(227)	83.3	38.3	53.7	30.0	16.3	50.7	11.5	1.3	2.6
	여성	(259)	89.6	51.4	27.8	33.6	18.5	53.3	9.3	3.5	2.3
연령대	만 19~24세	(66)	78.8	34.8	51.5	43.9	16.7	50.0	7.6	3.0	3.0
	만 25~29세	(157)	89.8	33.8	39.5	37.6	17.8	54.8	10.2	4.5	1.9
	만 30~34세	(141)	82.3	45.4	44.7	27.0	19.1	51.8	13.5	0.7	2.8
	만 35~39세	(122)	91.8	65.6	28.7	23.8	15.6	50.0	8.2	1.6	2.5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245)	86.5	51.0	41.2	31.8	15.5	47.3	12.7	1.6	2.4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203)	86.2	42.9	34.0	33.5	19.7	57.1	8.4	3.0	2.0
가구 유형	1인가구	(127)	84.3	43.3	38.6	29.1	18.9	54.3	8.7	3.1	3.9
	다인가구	(359)	87.5	46.0	40.4	32.9	17.0	51.3	10.9	2.2	1.9
가족 동거	가족 동거	(348)	87.4	45.7	40.8	32.8	17.2	51.4	10.3	2.0	2.0
	가족 비동거	(138)	84.8	44.2	37.7	29.7	18.1	53.6	10.1	3.6	3.6

### 11) PC·모바일로 주로 하는 활동

- 고립·은둔 청년은 PC·모바일을 통해 주로 '동영상 보기(70.7%)'나 '인터넷 서핑(68.6%)'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청년과 비교하였을 때, 'SNS나 채팅 등으로 누군가와 대화'하는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낮았고, 'PC·모바일 기기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음.

B6. 다음 중 여러분이 PC나 모바일 기기로 주로 하는 일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복수응답]<sup>18)</sup>



[그림 4-48] PC·모바일로 주로 하는 활동

18) 고립·은둔 청년 지원기관을 통해 모집된 응답자 중 해당 문항 무응답자는 제외한 비율임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은 ‘게임’, 여성은 ‘동영상 보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연령대별로는 대체로 20대가 비교적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만 19~24세는 ‘SNS나 채팅 등으로 누군가와 대화’ 또는 ‘게임’이, 만 25~29세는 ‘동영상 보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편, 만 35~39세는 ‘인터넷 서핑’이 높게 나타나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음.
- 가구유형 및 가족동거 여부 별로는 가족과 동거하거나 다인가구인 응답자가 그렇지 않는 응답자에 비해 모든 활동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고, 가족과 동거하지 않거나 1인가구인 응답자는 ‘PC·모바일 기기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4-48] PC·모바일로 주로 하는 활동

[Base: 고립·은둔 청년(n=369), 단위: %]<sup>19)</sup>

		사례수	SNS나 채팅 등으로 누군가와 대화	게임	인터넷 서핑	동영상 보기	기타	PC/모바일 기기를 잘 사용하지 않음
전체		(369)	25.2	34.1	68.6	70.7	1.9	6.8
성별	남성	(179)	23.5	45.8	67.0	67.0	2.2	6.7
	여성	(190)	26.8	23.2	70.0	74.2	1.6	6.8
연령대	만 19~24세	(47)	38.3	48.9	61.7	70.2	4.3	12.8
	만 25~29세	(106)	27.4	32.1	60.4	80.2	1.9	3.8
	만 30~34세	(102)	17.6	38.2	69.6	67.6	1.0	7.8
	만 35~39세	(114)	24.6	26.3	78.1	64.9	1.8	6.1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212)	26.9	31.6	67.5	67.5	0.9	8.5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157)	22.9	37.6	70.1	75.2	3.2	4.5
가구 유형	1인가구	(84)	15.5	27.4	59.5	60.7	3.6	10.7
	다인가구	(285)	28.1	36.1	71.2	73.7	1.4	5.6
가족 동거	가족 동거	(278)	27.7	36.7	71.6	74.5	1.4	5.0
	가족 비동거	(91)	17.6	26.4	59.3	59.3	3.3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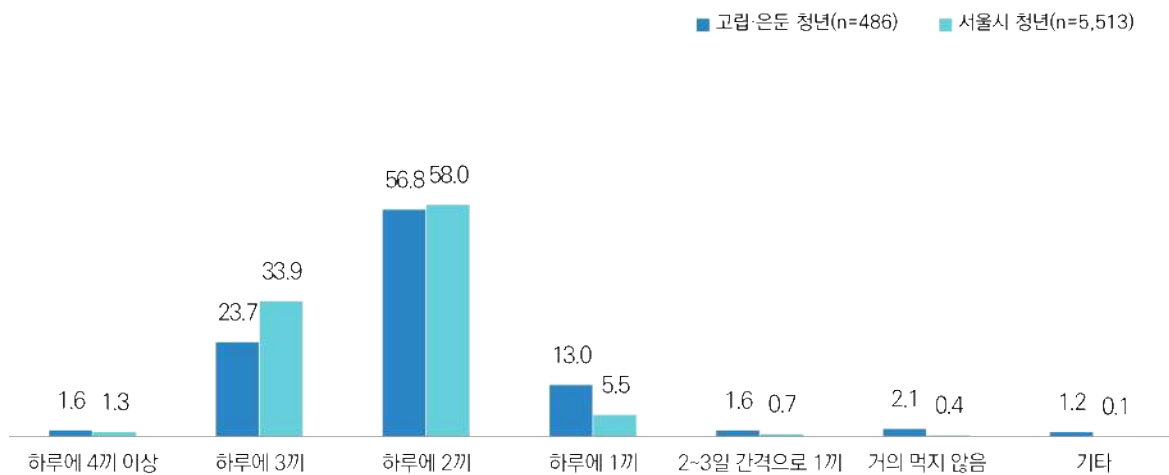
19) 고립·은둔 청년 지원기관을 통해 모집된 응답자 중 해당 문항 무응답자는 제외한 비율임

## 12) 평소 식사 횟수

- 평소 식사 횟수는 ‘하루에 2끼(56.8%)’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하루에 3끼(23.7%)’, ‘하루에 1끼(13.0%)’ 등의 순이었으며, 서울시 청년 대비 하루에 챙겨 먹는 끼니의 수가 더 적었음.

B7. 여러분은 평소 하루에 몇 끼 정도 드시나요?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그림 4-49] 평소 식사 횟수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가족과 동거하지 않거나 1인가구인 응답자는 ‘하루에 1끼’, 가족과 동거하거나 다인가구인 응답자는 ‘하루에 2끼 또는 3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49] 평소 식사 횟수

[Base: 고립·은둔 청년(n=48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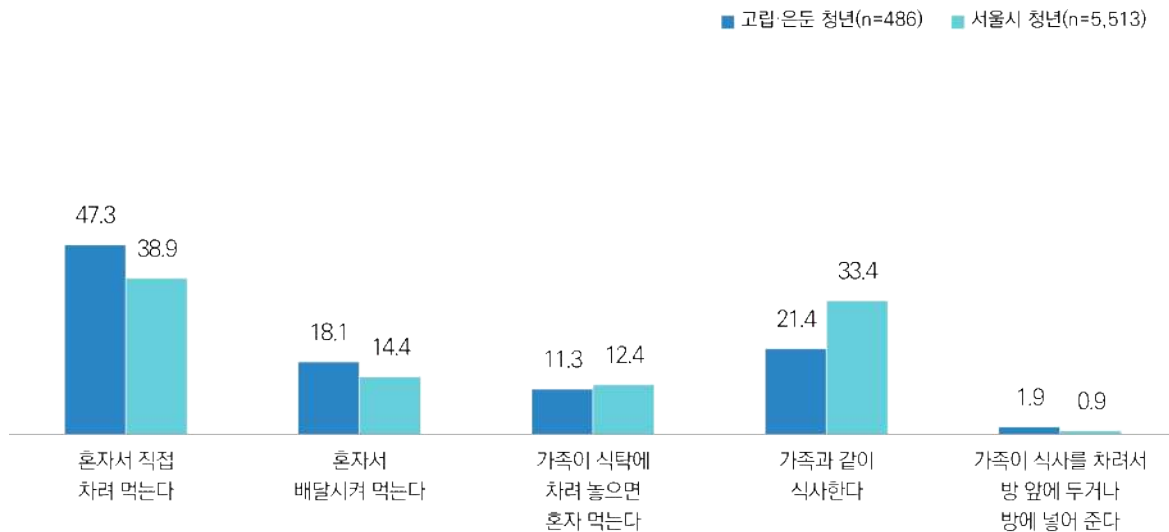
		사례수	하루에 4끼 이상	하루에 3끼	하루에 2끼	하루에 1끼	2~3일 간격으로 1끼	거의 먹지 않음	기타
전체		(486)	1.6	23.7	56.8	13.0	1.6	2.1	1.2
성별	남성	(227)	1.8	22.5	57.3	13.2	1.8	3.5	0.0
	여성	(259)	1.5	24.7	56.4	12.7	1.5	0.8	2.3
연령대	만 19~24세	(66)	0.0	31.8	51.5	15.2	0.0	1.5	0.0
	만 25~29세	(157)	1.3	22.3	58.6	10.2	3.8	0.6	3.2
	만 30~34세	(141)	3.5	18.4	60.3	12.8	1.4	2.8	0.7
	만 35~39세	(122)	0.8	27.0	53.3	15.6	0.0	3.3	0.0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245)	0.4	27.8	55.9	11.4	2.0	1.6	0.8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203)	3.0	20.7	56.7	14.3	1.5	3.0	1.0
가구 유형	1인가구	(127)	3.9	12.6	52.8	21.3	2.4	4.7	2.4
	다인가구	(359)	0.8	27.6	58.2	10.0	1.4	1.1	0.8
가족 동거	가족 동거	(348)	0.9	27.9	59.2	9.2	1.1	1.1	0.6
	가족 비동거	(138)	3.6	13.0	50.7	22.5	2.9	4.3	2.9

### 13) 평소 식사 방식

- 식사를 차려 먹는 방식에 대해 고립·은둔 청년의 47.3%가 ‘혼자서 직접 차려 먹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가족과 같이 식사한다(21.4%)’, ‘혼자서 배달시켜 먹는다(18.1%)’, ‘가족이 식탁에 차려 놓으면 혼자 먹는다(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청년과 비교하였을 때,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보다는 혼자서 먹는 비율이 높았음.

B8. 여러분은 평소 식사를 어떻게 드시나요?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그림 4-50] 평소 식사 방식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가족과 같이 식사한다’, 여성은 ‘혼자서 직접 차려 먹는다’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혼자서 직접 차려 먹는다’는 응답이 많았고, 연령이 낮은 20대는 ‘가족과 같이 식사’하는 응답이 많았으며 특히 만 19~24세에서 높게 나타났음.
- 가구유형 및 가족동거 여부 별로는 가족과 동거하지 않거나 1인가구인 응답자가 동거인이 있는 응답자 대비 ‘혼자서 배달시켜 먹는’ 경우가 월등히 높았음. 한편, 동거인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혼자서 차려 먹는 비율이 가족이 차려주는 경우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표 4-50] 평소 식사 방식

[Base: 고립·은둔 청년(n=486), 단위: %]

		사례수	혼자서 직접 차려 먹는다	혼자서 배달시켜 먹는다	가족이 식탁에 차려 놓으면 혼자 먹는다	가족과 같이 식사한다	가족이 식사를 차려서 방 앞에 두거나 방에 넣어준다
전체		(486)	47.3	18.1	11.3	21.4	1.9
성별	남성	(227)	41.4	19.8	12.8	23.3	2.6
	여성	(259)	52.5	16.6	10.0	19.7	1.2
연령대	만 19~24세	(66)	39.4	18.2	13.6	27.3	1.5
	만 25~29세	(157)	42.0	20.4	12.1	24.8	0.6
	만 30~34세	(141)	48.2	21.3	9.2	17.7	3.5
	만 35~39세	(122)	57.4	11.5	11.5	18.0	1.6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245)	45.7	12.7	14.7	24.5	2.4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203)	53.7	21.7	6.9	16.7	1.0
가구 유형	1인가구	(127)	55.9	44.1	0.0	0.0	0.0
	다인가구	(359)	44.3	8.9	15.3	29.0	2.5
가족 동거	가족 동거	(348)	43.7	8.3	15.8	29.6	2.6
	가족 비동거	(138)	56.5	42.8	0.0	0.7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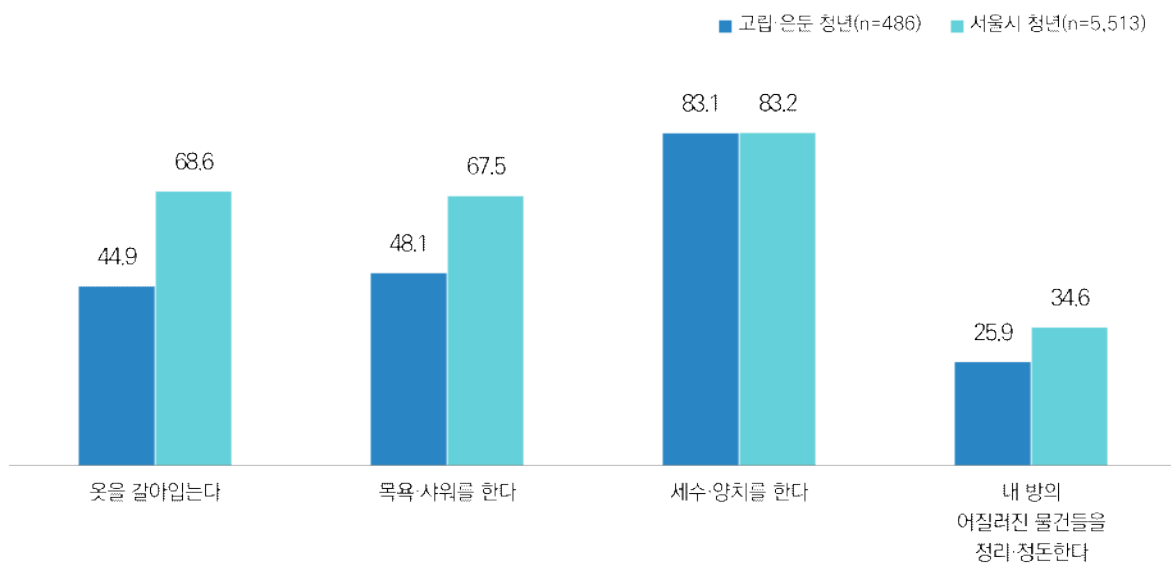


#### 14) 청결 및 자기관리 정도 - 종합

- 고립·은둔 청년의 청결 및 자기관리 정도에 대해 4가지 항목을 질문한 결과, '세수·양치를 한다' 외에 다른 모든 항목에서 매일 관리하는 비율이 서울시 청년 대비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 특히, '옷을 갈아입는다', '목욕·샤워를 한다'의 경우 매일 관리한다는 응답이 서울시 청년 대비 약 20%p 내외로 낮게 나타나 차이가 컸음.

B9. 다음은 자기관리 및 청결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아래 문항을 읽고 여러분이 얼마나 해당하는지 선택해 주세요.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매일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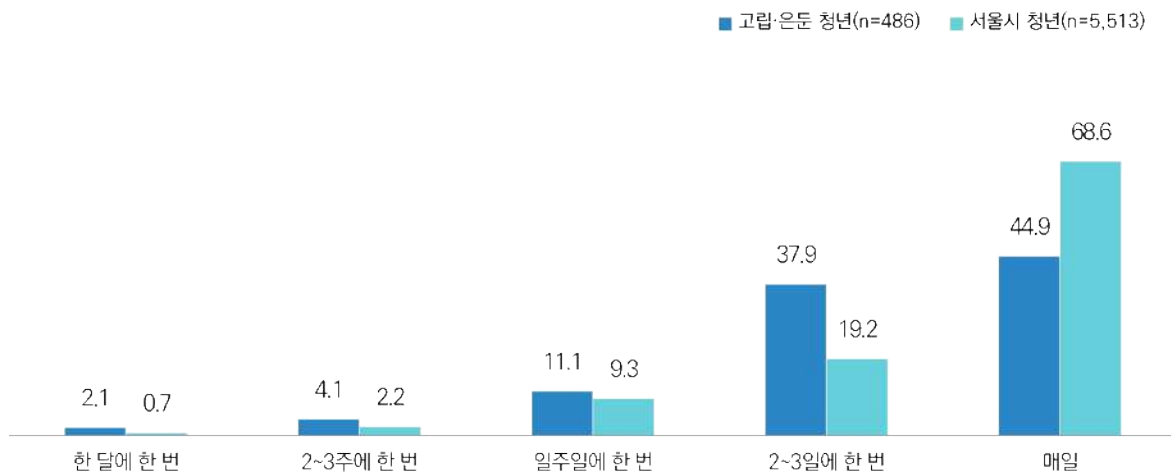
[그림 4-51] 청결 및 자기관리 정도 - 종합

## 15) 청결 및 자기관리 정도 - (1) 옷을 갈아입는다

- 고립·은둔 청년의 44.9%는 ‘매일’ 옷을 갈아입으며, ‘2~3일에 한 번’ 갈아입는 비율은 37.9%였음.
- 고립·은둔 청년 및 서울시 청년 대다수가 최소 일주일에 두 번 이상 갈아입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울시 청년이 ‘매일’ 갈아입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음.

B9. 다음은 자기관리 및 청결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아래 문항을 읽고 여러분이 얼마나 해당하는지 선택해 주세요.  
(1) ‘옷을 갈아입는다’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그림 4-52] 청결 및 자기관리 정도 - 옷을 갈아입는다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매일’ 관리한다는 응답이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만 19~24세가 다른 연령대 대비 ‘2~3일’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옷을 갈아입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가구유형 및 가족동거 여부 별로는 1인가구 또는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들이 ‘매일’ 관리한다는 응답이 소폭 더 높게 나타났음.

[표 4-51] 청결 및 자기관리 정도 - 옷을 갈아입는다

[Base: 고립·은둔 청년(n=48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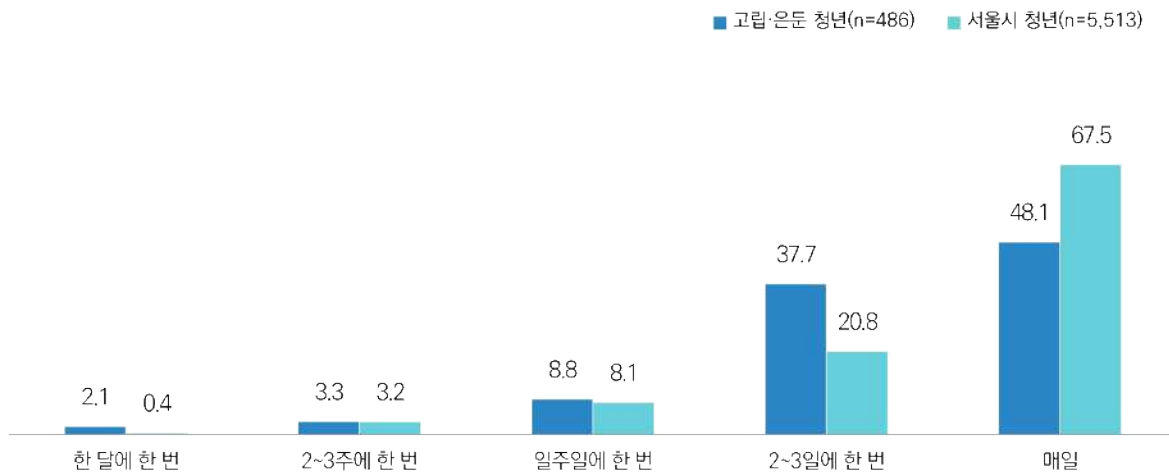
		사례수	한 달에 한 번	2~3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2~3일에 한 번	매일
전체		(486)	2.1	4.1	11.1	37.9	44.9
성별	남성	(227)	4.0	4.0	10.1	39.6	42.3
	여성	(259)	0.4	4.2	12.0	36.3	47.1
연령대	만 19~24세	(66)	1.5	4.5	15.2	47.0	31.8
	만 25~29세	(157)	0.6	3.8	10.2	35.0	50.3
	만 30~34세	(141)	3.5	5.7	10.6	35.5	44.7
	만 35~39세	(122)	2.5	2.5	10.7	39.3	45.1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245)	2.9	3.3	10.6	40.0	43.3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203)	1.0	5.4	10.3	34.5	48.8
가구 유형	1인가구	(127)	4.7	5.5	9.4	31.5	48.8
	다인가구	(359)	1.1	3.6	11.7	40.1	43.5
가족 동거	가족 동거	(348)	1.1	3.7	11.5	40.8	42.8
	가족 비동거	(138)	4.3	5.1	10.1	30.4	50.0

## 16) 청결 및 자기관리 정도 - (2) 목욕·샤워를 한다

- 고립·은둔 청년의 48.1%는 '매일' 목욕·샤워를 하며, '2~3일에 한 번'은 37.7%였음.
- 고립·은둔 청년 및 서울시 청년 모두 최소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목욕·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립·은둔 청년이 서울시 청년 대비 빈도가 훨씬 낮았음.

B9. 다음은 자기관리 및 청결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아래 문항을 읽고 여러분이 얼마나 해당하는지 선택해 주세요.  
(2) '목욕·샤워를 한다'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그림 4-53] 청결 및 자기관리 정도 - 목욕·샤워를 한다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은 ‘매일’, 여성은 ‘2~3일에 한 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빈도가 낮은 구간에서는 소폭이지만 남성의 비율이 더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만 35~39세가 ‘매일’ 관리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던 한편, 만 19~24세는 ‘일주일에 한 번’이 다른 연령대 대비 높게 나타났음.

[표 4-52] 청결 및 자기관리 정도 - 목욕·샤워를 한다

[Base: 고립·은둔 청년(n=48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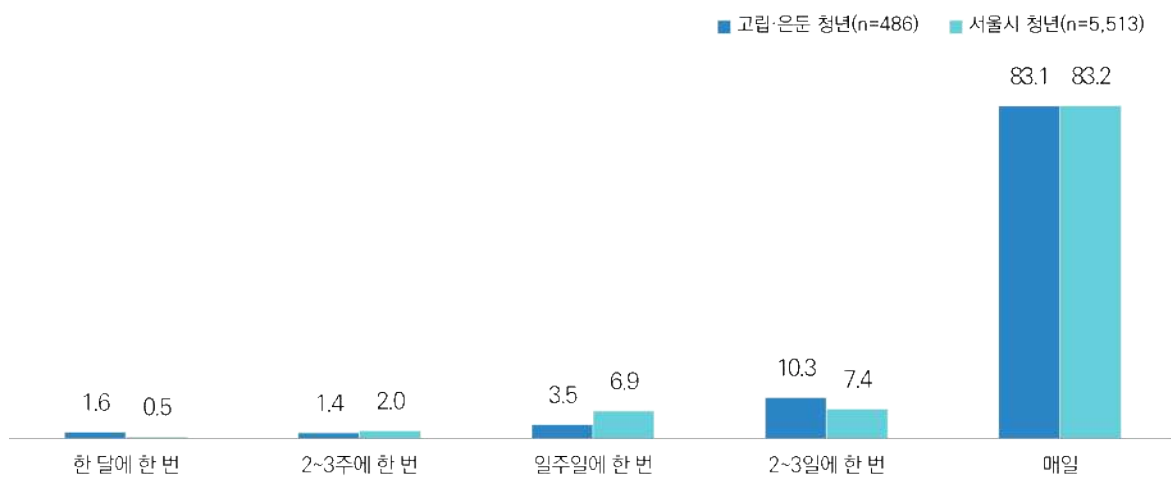
		사례수	한 달에 한 번	2~3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2~3일에 한 번	매일
전체		(486)	2.1	3.3	8.8	37.7	48.1
성별	남성	(227)	3.1	4.0	10.1	26.4	56.4
	여성	(259)	1.2	2.7	7.7	47.5	40.9
연령대	만 19~24세	(66)	1.5	6.1	16.7	37.9	37.9
	만 25~29세	(157)	1.9	1.9	8.3	39.5	48.4
	만 30~34세	(141)	2.8	5.0	9.2	34.8	48.2
	만 35~39세	(122)	1.6	1.6	4.9	38.5	53.3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245)	2.0	3.7	7.3	38.8	48.2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203)	2.0	3.0	10.8	33.5	50.7
가구 유형	1인가구	(127)	2.4	3.1	13.4	33.9	47.2
	다인가구	(359)	1.9	3.3	7.2	39.0	48.5
가족 동거	가족 동거	(348)	2.0	3.4	7.2	38.8	48.6
	가족 비동거	(138)	2.2	2.9	13.0	34.8	47.1

## 17) 청결 및 자기관리 정도 - (3) 세수·양치를 한다

- 고립·은둔 청년의 83.1%는 '매일' 세수·양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청년과 큰 차이는 없었음.

B9. 다음은 자기관리 및 청결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아래 문항을 읽고 여러분이 얼마나 해당하는지 선택해 주세요.  
(3) '세수·양치를 한다'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그림 4-54] 청결 및 자기관리 정도 - 세수·양치를 한다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매일’ 세수·양치한다는 응답이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만 19~24세는 ‘2~3일에 한 번’, 만 35~39세는 ‘매일’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가구유형 및 가족동거 여부 별로는 다인가구 또는 가족과 동거하는 응답자가 ‘매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

[표 4-53] 청결 및 자기관리 정도 - 세수·양치를 한다

[Base: 고립·은둔 청년(n=48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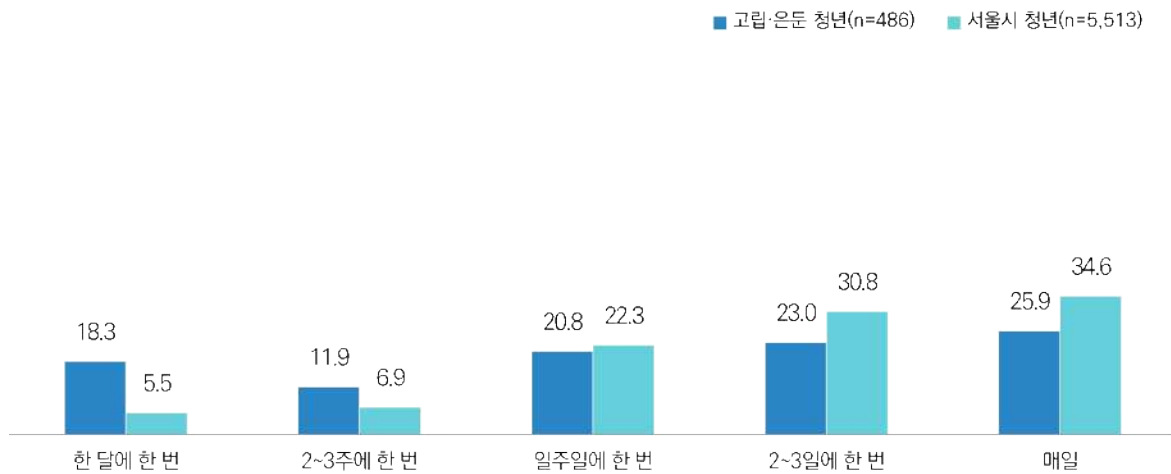
		사례수	한 달에 한 번	2~3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2~3일에 한 번	매일
전체		(486)	1.6	1.4	3.5	10.3	83.1
성별	남성	(227)	3.5	1.8	4.4	11.9	78.4
	여성	(259)	0.0	1.2	2.7	8.9	87.3
연령대	만 19~24세	(66)	3.0	0.0	6.1	19.7	71.2
	만 25~29세	(157)	0.6	1.3	3.2	9.6	85.4
	만 30~34세	(141)	1.4	3.5	5.7	10.6	78.7
	만 35~39세	(122)	2.5	0.0	0.0	5.7	91.8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245)	2.0	1.6	3.3	8.2	84.9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203)	1.5	1.5	3.4	11.8	81.8
가구 유형	1인가구	(127)	1.6	2.4	3.9	18.9	73.2
	다인가구	(359)	1.7	1.1	3.3	7.2	86.6
가족 동거	가족 동거	(348)	1.7	1.1	3.4	7.2	86.5
	가족 비동거	(138)	1.4	2.2	3.6	18.1	74.6

## 18) 청결 및 자기관리 정도 - (4) 내 방의 어질러진 물건들을 정리·정돈한다

- 고립·은둔 청년의 25.9%는 '매일' 방을 정리하며, '2~3일에 한 번'은 23.0%, '일주일에 한 번'은 20.8%였음. '한달에 한 번'도 18.3%로 높은 편이었음.
- 서울시 청년이 고립·은둔 청년 대비 방을 정리하는 빈도가 더 높았음.

B9. 다음은 자기관리 및 청결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아래 문항을 읽고 여러분이 얼마나 해당하는지 선택해 주세요.  
(4) '내 방의 어질러진 물건들을 정리·정돈한다'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그림 4-55] 청결 및 자기관리 정도 - 내 방의 어질러진 물건들을 정리·정돈한다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과 만 35~39세가 ‘매일’ 정리정돈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가구 유형 및 가족동거 여부 별로는 1인가구 또는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는 ‘한 달에 한 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다인가구 및 가족 동거 가구 대비 관리 빈도는 적었음.

[표 4-54] 청결 및 자기관리 정도 - 내 방의 어질러진 물건들을 정리·정돈한다

[Base: 고립·은둔 청년(n=48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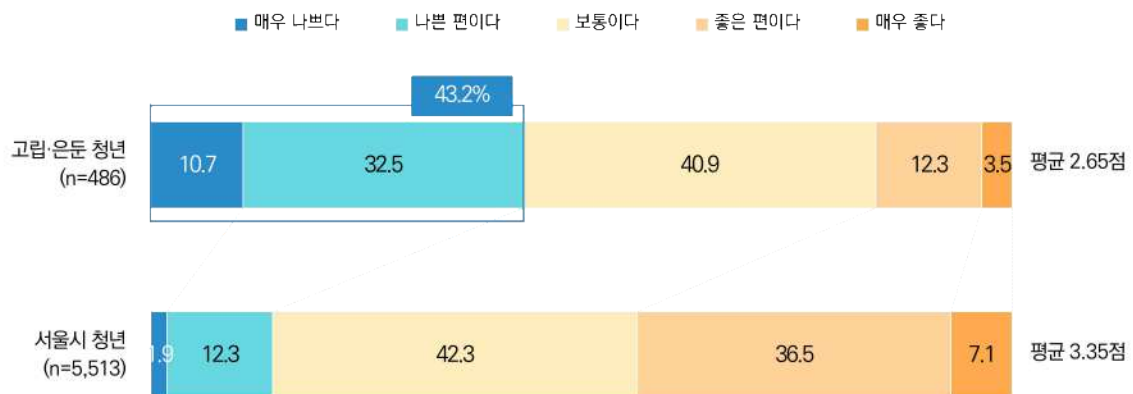
		사례수	한 달에 한 번	2~3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2~3일에 한 번	매일
전체		(486)	18.3	11.9	20.8	23.0	25.9
성별	남성	(227)	18.5	13.2	22.0	24.2	22.0
	여성	(259)	18.1	10.8	19.7	22.0	29.3
연령대	만 19~24세	(66)	16.7	16.7	19.7	25.8	21.2
	만 25~29세	(157)	19.7	10.8	26.1	21.0	22.3
	만 30~34세	(141)	18.4	11.3	19.1	27.7	23.4
	만 35~39세	(122)	17.2	11.5	16.4	18.9	36.1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245)	17.6	11.0	21.6	23.7	26.1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203)	18.2	11.3	19.2	23.6	27.6
가구 유형	1인가구	(127)	22.0	12.6	20.5	22.0	22.8
	다인가구	(359)	17.0	11.7	20.9	23.4	27.0
가족 동거	가족 동거	(348)	17.2	11.8	20.7	23.3	27.0
	가족 비동거	(138)	21.0	12.3	21.0	22.5	23.2

## 19) 자신의 주관적 건강 상태

- 자신의 주관적 건강 상태에 대해 고립·은둔 청년의 43.2%가 '나쁘다(나쁜 편이다 32.5%+매우 나쁘다 10.7%)'고 응답하였으며, 서울시 청년보다 3배 정도 더 높았음.

B10.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자신의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요?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그림 4-56] 자신의 주관적 건강 상태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해온 응답자와 1인가구 또는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에게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55] 자신의 주관적 건강 상태

[Base: 고립·은둔 청년(n=48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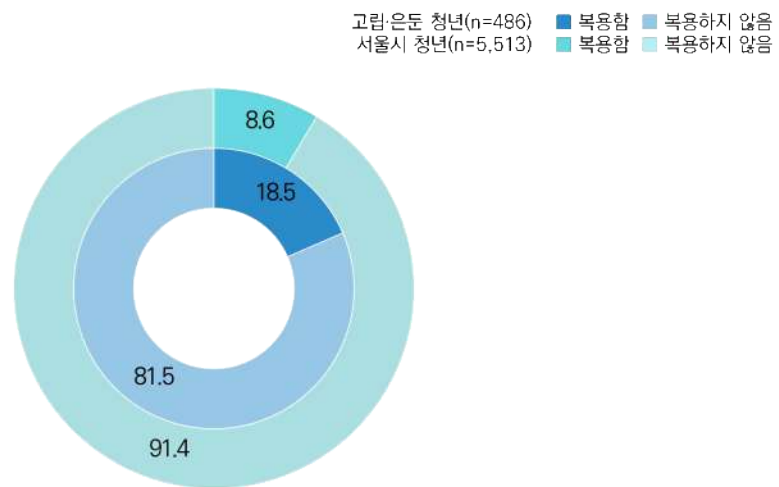
		사례수	매우 나쁘다 ①	나쁜 편이다 ②	보통 이다 ③	좋은 편이다 ④	매우 좋다 ⑤	평균 (5점)	평균 (100점)	좋다 (④+⑤)	보통 이다 (③)	나쁘다 (①+②)
전체		(486)	10.7	32.5	40.9	12.3	3.5	2.65	41.36	15.8	40.9	43.2
성별	남성	(227)	10.6	30.8	39.6	15.0	4.0	2.71	42.73	18.9	39.6	41.4
	여성	(259)	10.8	34.0	42.1	10.0	3.1	2.61	40.15	13.1	42.1	44.8
연령대	만 19~24세	(66)	9.1	28.8	34.8	21.2	6.1	2.86	46.59	27.3	34.8	37.9
	만 25~29세	(157)	8.3	36.9	39.5	11.5	3.8	2.66	41.40	15.3	39.5	45.2
	만 30~34세	(141)	11.3	30.5	43.3	11.3	3.5	2.65	41.31	14.9	43.3	41.8
	만 35~39세	(122)	13.9	31.1	43.4	9.8	1.6	2.54	38.52	11.5	43.4	45.1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245)	9.4	29.8	41.6	14.7	4.5	2.75	43.78	19.2	41.6	39.2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203)	11.8	34.0	41.9	9.4	3.0	2.58	39.41	12.3	41.9	45.8
가구 유형	1인가구	(127)	13.4	34.6	37.8	12.6	1.6	2.54	38.58	14.2	37.8	48.0
	다인가구	(359)	9.7	31.8	42.1	12.3	4.2	2.69	42.34	16.4	42.1	41.5
가족 동거	가족 동거	(348)	10.1	31.6	42.2	12.1	4.0	2.68	42.10	16.1	42.2	41.7
	가족 비동거	(138)	12.3	34.8	37.7	13.0	2.2	2.58	39.49	15.2	37.7	47.1

## 20) 정신건강 관련 약물 복용 여부

- 정신건강 관련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립·은둔 청년의 18.5%가 ‘복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서울시 청년 전체 중 정신건강 약물 복용 비율은 8.6%로, 고립·은둔 청년이 2배 이상 높았음.

B11. 여러분은 지금 정신건강 상의 문제로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가요?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그림 4-57] 정신건강 관련 약물 복용 여부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복용 비율이 더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복용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가구유형 및 가족동거 여부 별로는 1인가구 또는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에게서 복용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표 4-56] 정신건강 관련 약물 복용 여부

[Base: 고립·은둔 청년(n=48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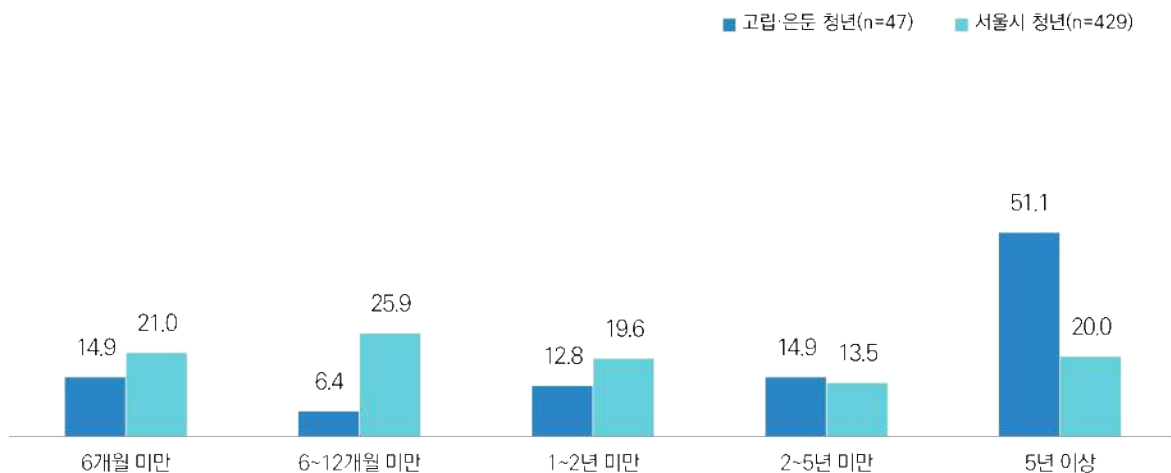
		사례수	복용함	복용하지 않음
전체		(486)	18.5	81.5
성별	남성	(227)	15.4	84.6
	여성	(259)	21.2	78.8
연령대	만 19~24세	(66)	33.3	66.7
	만 25~29세	(157)	22.9	77.1
	만 30~34세	(141)	14.2	85.8
	만 35~39세	(122)	9.8	90.2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245)	15.1	84.9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203)	17.2	82.8
가구 유형	1인가구	(127)	24.4	75.6
	다인가구	(359)	16.4	83.6
가족 동거	가족 동거	(348)	16.1	83.9
	가족 비동거	(138)	24.6	75.4

## 21) 정신건강 관련 약물 복용 기간

- 정신건강 관련 약물 복용 기간을 살펴보면, 고립·은둔 청년의 절반 정도가 '5년 이상(51.1%)' 복용하였으며, 다음으로 '2~5년 미만', '6개월 미만'이 14.9%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 서울시 청년의 경우 복용 기간이 상대적으로 고르게 나타났으며, '6~12개월 미만', '6개월 미만', '5년 이상' 등의 순으로 높았음.
- 5년 이상 장기복용 비율은 서울시 청년 대비 고립·은둔 청년이 약 2.5배 높았음.

B11-1. 약물을 복용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Base: 정신건강 관련 약물을 복용하는 자, 단위: %]



[그림 4-58] 정신건강 관련 약물 복용 기간

○ 응답자 특성별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57] 정신건강 관련 약물 복용 기간

[Base: 정신건강 관련 약물을 복용하는 고립·은둔 청년(n=4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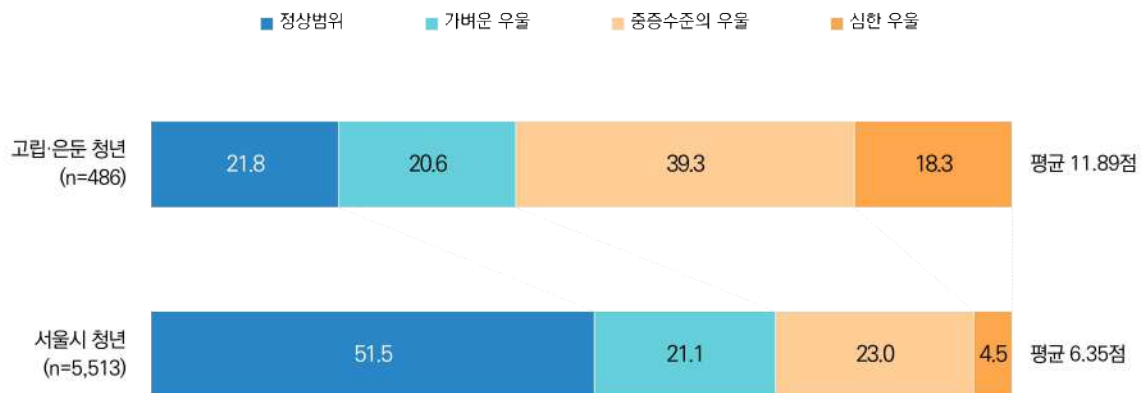
		사례수	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2년 미만	2~5년 미만	5년 이상
전체		(47)	14.9	6.4	12.8	14.9	51.1
성별	남성	(20)	5.0	10.0	10.0	15.0	60.0
	여성	(27)	22.2	3.7	14.8	14.8	44.4
연령대	만 19~24세	(11)	9.1	0.0	18.2	27.3	45.5
	만 25~29세	(17)	17.6	11.8	0.0	17.6	52.9
	만 30~34세	(8)	25.0	0.0	25.0	0.0	50.0
	만 35~39세	(11)	9.1	9.1	18.2	9.1	54.5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29)	13.8	6.9	20.7	20.7	37.9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18)	16.7	5.6	0.0	5.6	72.2
가구 유형	1인가구	(12)	8.3	8.3	8.3	8.3	66.7
	다인가구	(35)	17.1	5.7	14.3	17.1	45.7
가족 동거	가족 동거	(34)	17.6	5.9	14.7	14.7	47.1
	가족 비동거	(13)	7.7	7.7	7.7	15.4	61.5

## 22) 우울 수준

- 고립·은둔 청년 10명 중 8명은 가벼운 수준 이상의 우울을 겪고 있으며, 그 중 39.3%는 '중증수준의 우울', 18.3%는 '심한 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청년과 비교하였을 때, '중증수준의 우울'과 '심한 우울'의 비율이 각각 1.5배, 4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B12. 여러분은 지난 2주 동안 얼마나 자주 이런 문제들로 곤란하다고 느끼셨나요? (PHQ9 척도)

[Base: 전체 응답자, 단위: %, 점]



[그림 4-59] 우울 수준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만 30~34세에서 '심한 우울'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서울 이주 여부에 따라서는 서울에서 출생 및 거주해온 응답자보다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온 응답자가 '심한 우울'에 속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음.
- 가구유형 및 가족동거 여부 별로는 1인가구 또는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가 우울 수준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4-58] 우울 수준

[Base: 고립·은둔 청년(n=486), 단위: %, 점]

		사례수	정상범위	가벼운 우울	중증수준의 우울	심한 우울	평균(점)
전체		(486)	21.8	20.6	39.3	18.3	11.89
성별	남성	(227)	23.3	21.6	38.3	16.7	11.37
	여성	(259)	20.5	19.7	40.2	19.7	12.35
연령대	만 19~24세	(66)	24.2	18.2	37.9	19.7	12.12
	만 25~29세	(157)	18.5	23.6	42.7	15.3	11.76
	만 30~34세	(141)	19.9	24.8	32.6	22.7	12.04
	만 35~39세	(122)	27.0	13.1	43.4	16.4	11.77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245)	24.9	17.6	43.7	13.9	11.16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203)	21.7	23.6	31.5	23.2	12.29
가구 유형	1인가구	(127)	11.0	23.6	40.2	25.2	13.78
	다인가구	(359)	25.6	19.5	39.0	15.9	11.23
가족 동거	가족 동거	(348)	25.9	19.5	39.4	15.2	11.12
	가족 비동거	(138)	11.6	23.2	39.1	26.1	13.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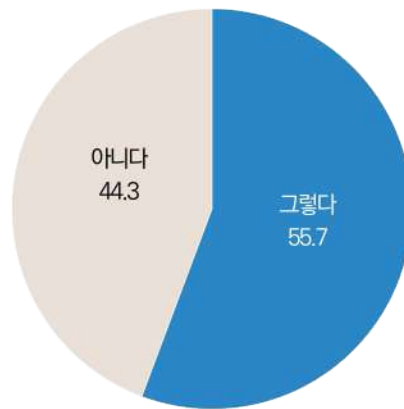
### 3.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 1) 고립·은둔 생활 극복 의향

- 고립·은둔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고립·은둔 청년 10명 중 5명(55.7%)은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C1. 고립·은둔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Base: 고립·은둔 청년(n=368), 단위: %]



[그림 4-60] 고립·은둔 생활 극복 의향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만 35~39세가 다른 연령대 대비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가구유형 및 가족동거 여부 별로는 1인가구 또는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에게서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음.

[표 4-59] 고립·은둔 생활 극복 의향

[Base: 고립·은둔 청년(n=36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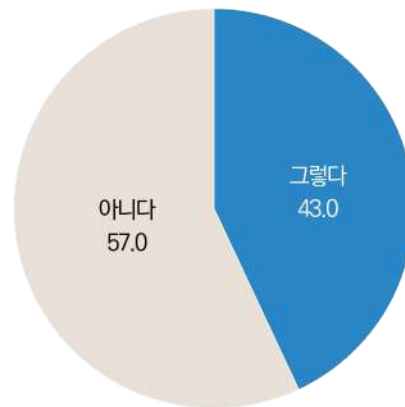
		사례수	그렇다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그렇지 않다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전체		(368)	55.7	44.3
성별	남성	(179)	55.9	44.1
	여성	(189)	55.6	44.4
연령대	만 19~24세	(47)	53.2	46.8
	만 25~29세	(106)	50.9	49.1
	만 30~34세	(102)	56.9	43.1
	만 35~39세	(113)	60.2	39.8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211)	54.5	45.5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157)	57.3	42.7
가구 유형	1인가구	(84)	58.3	41.7
	다인가구	(284)	54.9	45.1
가족 동거	가족 동거	(277)	54.5	45.5
	가족 비동거	(91)	59.3	40.7

## 2) 고립·은둔 생활 극복 시도 여부

○ 고립·은둔 생활 극복을 위해 무언가 시도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3.0%로 나타났다.

C1-1. 고립·은둔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언가 시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Base: 과거 고립·은둔 경험이 있으며 고립·은둔 생활을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했던 청년(n=316), 단위: %]



[그림 4-61] 고립·은둔 생활 극복 시도 여부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만 19~24세가 다른 연령대 대비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가구유형 및 가족동거 여부에 따라서는 1인가구 또는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가 ‘그렇다’는 비율이 높았음.

[표 4-60] 고립·은둔 생활 극복 시도 여부

[Base: 과거 고립·은둔 경험이 있으며 고립·은둔 생활을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했던 청년(n=31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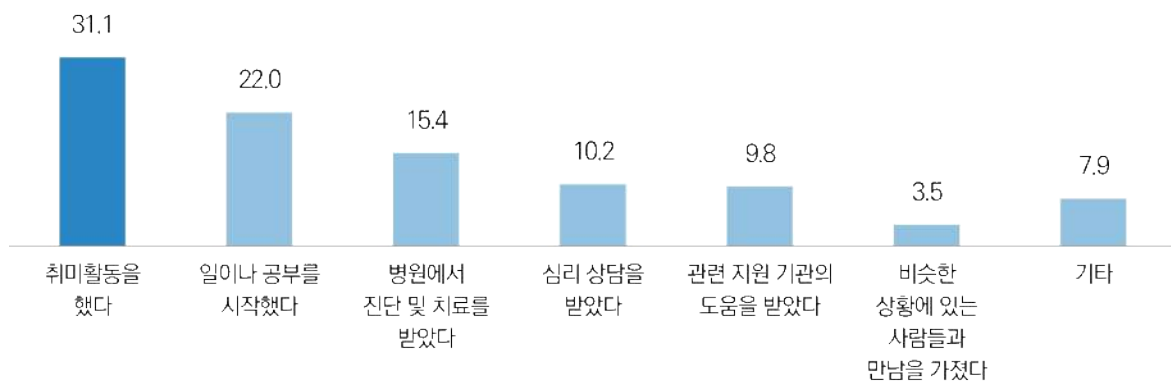
		사례수	그렇다 (극복을 위해 무언가 시도해 봤다)	그렇지 않다 (극복을 위해 무언가 시도해보지 않았다)
전체		(316)	43.0	57.0
성별	남성	(149)	44.3	55.7
	여성	(167)	41.9	58.1
연령대	만 19~24세	(39)	51.3	48.7
	만 25~29세	(93)	40.9	59.1
	만 30~34세	(92)	41.3	58.7
	만 35~39세	(92)	43.5	56.5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178)	41.0	59.0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138)	45.7	54.3
가구 유형	1인가구	(68)	50.0	50.0
	다인가구	(248)	41.1	58.9
가족 동거	가족 동거	(242)	40.9	59.1
	가족 비동거	(74)	50.0	50.0

### 3) 고립·은둔 생활 극복을 위해 한 것

- 고립·은둔 생활을 극복하기 위해 무언가를 시도해 본 청년에게 어떤 것을 해보았는지 질문한 결과, '취미 활동을 했다'가 31.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이나 공부를 시작했다(22.0%)', '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15.4%)', '심리 상담을 받았다(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C2. 고립·은둔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나요?

[Base: 고립·은둔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무언가 시도해 본 고립·은둔 청년(n=254), 단위: %]



[그림 4-62] 고립·은둔 생활에 변화를 주기 위해 한 행동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은 ‘취미 활동을 했다’와 ‘일이나 공부를 시작했다’가, 여성은 ‘심리 상담을 받았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연령대별로는 만 19~24세는 ‘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 만 35~39세는 ‘일이나 공부를 시작했다’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서울 이주 여부에 따라서는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해온 응답자가 ‘일이나 공부를 시작했다’를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가구유형 및 가족동거 여부에 따라서는 1인가구 또는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가 ‘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와 ‘관련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았다’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음.

[표 4-61] 고립·은둔 생활에 변화를 주기 위해 한 행동

[Base: 고립·은둔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무언가 시도해 본 고립·은둔 청년(n=25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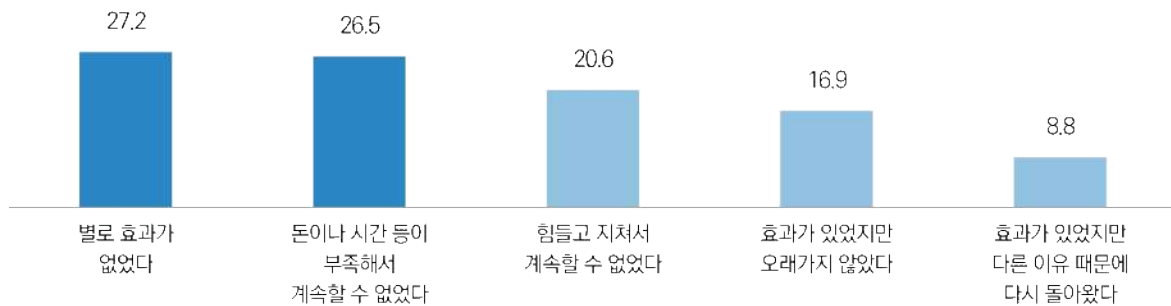
		사례수	취미 활동을 했다	일이나 공부를 시작했다	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	심리 상담을 받았다	관련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았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만남을 가졌다	기타
전체		(254)	31.1	22.0	15.4	10.2	9.8	3.5	7.9
성별	남성	(114)	34.2	26.3	14.0	7.0	7.9	4.4	6.1
	여성	(140)	28.6	18.6	16.4	12.9	11.4	2.9	9.3
연령대	만 19~24세	(39)	30.8	7.7	20.5	12.8	5.1	7.7	15.4
	만 25~29세	(89)	36.0	15.7	14.6	11.2	12.4	5.6	4.5
	만 30~34세	(77)	23.4	28.6	15.6	9.1	15.6	0.0	7.8
	만 35~39세	(49)	34.7	34.7	12.2	8.2	0.0	2.0	8.2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107)	35.5	20.6	11.2	11.2	7.5	2.8	11.2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109)	31.2	28.4	15.6	7.3	11.0	3.7	2.8
가구 유형	1인가구	(77)	28.6	18.2	20.8	7.8	14.3	2.6	7.8
	다인가구	(177)	32.2	23.7	13.0	11.3	7.9	4.0	7.9
가족 동거	가족 동거	(170)	32.9	22.9	12.9	11.8	7.6	3.5	8.2
	가족 비동거	(84)	27.4	20.2	20.2	7.1	14.3	3.6	7.1

#### 4) 고립·은둔 생활 극복에 실패한 이유

- 고립·은둔 생활을 극복하기 위해 무언가를 시도했으나 다시 본래대로 돌아온 청년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시도했던 것이 ‘별로 효과가 없었다’가 27.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돈이나 시간 등이 부족해서 계속할 수 없었다(26.5%)’, ‘힘들고 지쳐서 계속할 수 없었다(20.6%)’, ‘효과가 있었지만 오래가지 않았다(1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C3. 다시 고립·은둔 상황으로 돌아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Base: 고립·은둔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무언가 시도해 봤으나 다시 되돌아온 고립·은둔 청년(n=136), 단위: %]



[그림 4-63] 고립·은둔 생활 극복에 실패한 이유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은 ‘별로 효과가 없었다’, 여성은 ‘효과가 있었지만 오래가지 않았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연령대별로는 만 25~29세는 ‘돈이나 시간 등이 부족해서 계속할 수 없었다’ 혹은 ‘효과가 있었지만 오래가지 않았다’가, 만 35~39세는 ‘힘들고 지쳐서 계속할 수 없었다’가 다른 연령대 대비 높았음.
- 가구유형 및 가족동거 여부에 따라서는 다인가구 또는 가족과 동거하는 응답자의 경우 ‘힘들고 지쳐서 계속할 수 없었다’가, 1인가구 또는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는 ‘효과가 있었지만 오래가지 않았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62] 고립·은둔 생활 극복에 실패한 이유

[Base: 고립·은둔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무언가 시도해 봤으나 다시 되돌아온 고립·은둔 청년(n=13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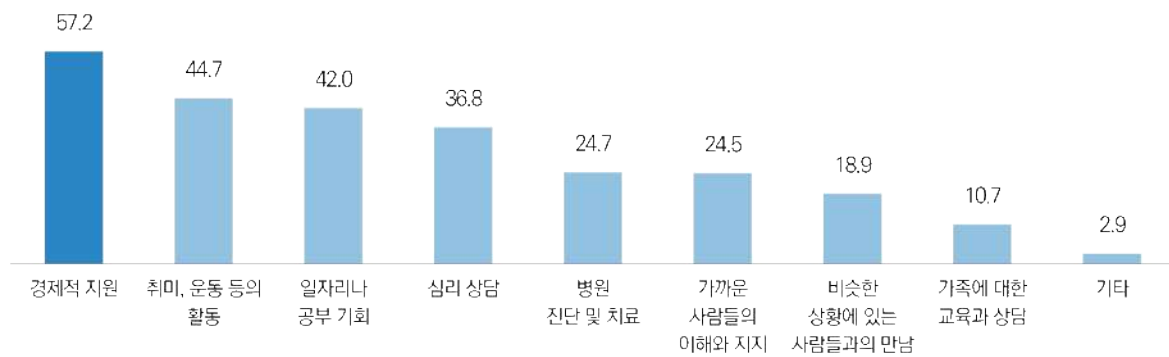
		사례수	별로 효과가 없었다	돈이나 시간 등이 부족해서 계속할 수 없었다	힘들고 지쳐서 계속할 수 없었다	효과가 있었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효과가 있었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다시 돌아왔다
전체		(136)	27.2	26.5	20.6	16.9	8.8
성별	남성	(66)	33.3	25.8	21.2	12.1	7.6
	여성	(70)	21.4	27.1	20.0	21.4	10.0
연령대	만 19~24세	(20)	40.0	25.0	25.0	5.0	5.0
	만 25~29세	(38)	13.2	34.2	13.2	34.2	5.3
	만 30~34세	(38)	31.6	26.3	15.8	13.2	13.2
	만 35~39세	(40)	30.0	20.0	30.0	10.0	10.0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73)	20.5	30.1	24.7	13.7	11.0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63)	34.9	22.2	15.9	20.6	6.3
가구 유형	1인가구	(34)	29.4	26.5	8.8	26.5	8.8
	다인가구	(102)	26.5	26.5	24.5	13.7	8.8
가족 동거	가족 동거	(99)	27.3	27.3	23.2	14.1	8.1
	가족 비동거	(37)	27.0	24.3	13.5	24.3	10.8

## 5) 고립·은둔 생활 극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

- 고립·은둔 생활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고립·은둔 청년의 절반 이상이 ‘경제적 지원(57.2%)’을 꼽았음.
- 그 다음으로 ‘취미, 운동 등의 활동(44.7%)’, ‘일자리나 공부 기회(42.0%)’, ‘심리 상담(36.8%)’ 등이 많이 언급되었음.

C4. 고립·은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도움은 무엇인가요?

[Base: 고립·은둔 청년(n=486), 단위: %, 복수응답]



[그림 4-64] 고립·은둔 생활 극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다양한 지원을 원하고 있었으며, 특히 ‘심리 상담’, ‘병원 진단 및 치료’에서 응답률이 크게 차이가 났음.
- 연령대별로는 20대는 ‘취미, 운동 등의 활동’을, 30대는 ‘경제적 지원’을 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서울 이주 여부에 따라서는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해온 응답자가 서울에서 출생 및 거주해온 응답자에 비해 ‘경제적 지원’, ‘취미, 운동 등의 활동’, ‘일자리나 공부 기회’ 등 다양한 지원을 원하고 있었음.
- 가구유형 및 가족동거 여부에 따라서는 1인가구 또는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가 ‘경제적 지원’을 상대적으로 더 필요로 하고 있었음.

[표 4-63] 고립·은둔 생활 극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

[Base: 고립·은둔 청년(n=486),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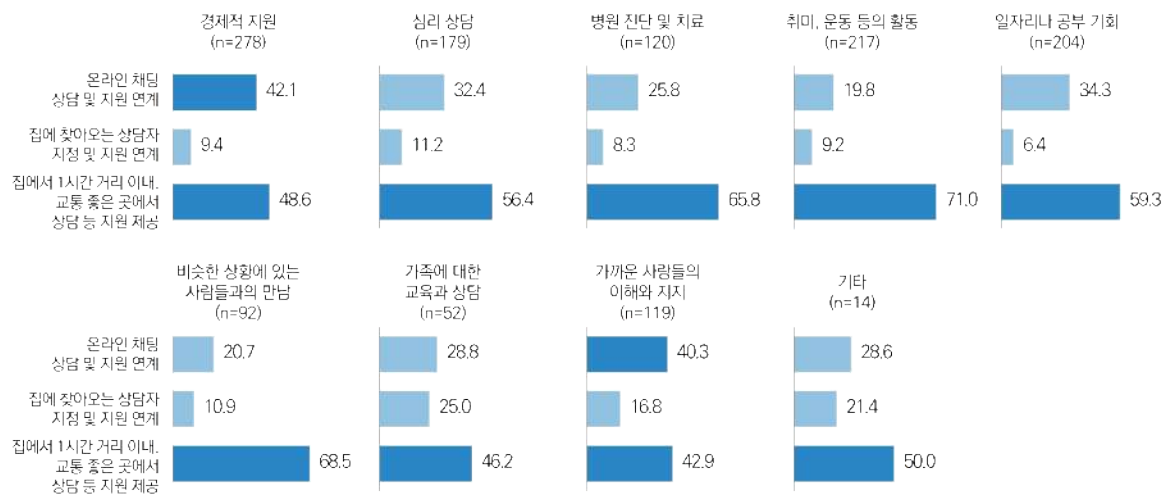
		사례수	경제적 지원	취미, 운동 등의 활동	일자리나 공부 기회	심리 상담	병원 진단 및 치료	가까운 사람들의 이해와 지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만남	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	기타
전체		(486)	57.2	44.7	42.0	36.8	24.7	24.5	18.9	10.7	2.9
성별	남성	(227)	53.7	39.6	42.3	29.1	17.2	18.5	17.6	9.3	4.4
	여성	(259)	60.2	49.0	41.7	43.6	31.3	29.7	20.1	12.0	1.5
연령대	만 19~24세	(66)	40.9	48.5	36.4	48.5	24.2	25.8	12.1	10.6	4.5
	만 25~29세	(157)	49.7	51.6	43.3	33.8	28.7	28.0	22.9	10.2	2.5
	만 30~34세	(141)	65.2	40.4	46.1	34.8	19.9	19.9	22.0	12.1	2.8
	만 35~39세	(122)	66.4	38.5	38.5	36.9	25.4	24.6	13.9	9.8	2.5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245)	54.3	38.0	38.0	34.3	25.7	18.0	14.7	7.8	3.3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203)	61.6	49.8	46.3	34.5	21.7	26.6	19.2	11.3	2.5
가구 유형	1인가구	(127)	61.4	43.3	38.6	40.2	24.4	23.6	17.3	10.2	3.9
	다인가구	(359)	55.7	45.1	43.2	35.7	24.8	24.8	19.5	10.9	2.5
가족 동거	가족 동거	(348)	55.5	44.8	42.8	35.3	24.7	24.4	19.8	10.9	2.6
	가족 비동거	(138)	61.6	44.2	39.9	40.6	24.6	24.6	16.7	10.1	3.6

## 6) 고립·은둔 지원 사업 제공 장소

- 고립·은둔 청년들은 지원 서비스의 종류와 상관없이 대체로 ‘집에서 1시간 거리 이내, 교통 좋은 곳에서’가 가장 높았음.
- ‘경제적 지원’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이해와 지지’는 ‘온라인 채팅 상담 및 지원 연계’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C5.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은 어디에서 제공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항목별로 적절한 제공 장소를 선택해주세요.

[Base: 고립·은둔 청년 중 각 지원 서비스별 선호자, 단위: %]



[그림 4-65] 고립·은둔 지원 사업 제공 장소

- 각 고립·은둔 지원 사업의 제공 장소에 대해 ‘온라인 채팅 상담 및 지원 연계’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결과를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해 보았음.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대부분의 지원 사업에 대해 온라인 채팅을 통해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병원 진단 및 치료’는 남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만 35~39세가 다른 연령대 대비 다양한 지원 사업에 있어 온라인 채널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가구유형 및 가족동거 여부 별로는 다인가구, 가족과 동거하는 응답자가 온라인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음.

[표 4-64] 고립·은둔 지원 사업 제공 장소 - 온라인 채팅 상담 및 지원 연계

[Base: 고립·은둔 청년 중 각 지원 서비스별 선호자, 단위: %]

		경제적 지원	심리 상담	병원 진단 및 치료	취미, 운동 등의 활동	일자리나 공부 기회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과 만남	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	가까운 사람들의 이해와 지지	기타
전체		42.1	32.4	25.8	19.8	34.3	20.7	28.8	40.3	28.6
성별	남성	42.6	25.8	33.3	18.9	29.2	15.0	23.8	31.0	20.0
	여성	41.7	36.3	22.2	20.5	38.9	25.0	32.3	45.5	50.0
연령대	만 19~24세	37.0	15.6	25.0	3.1	33.3	12.5	28.6	35.3	0.0
	만 25~29세	35.9	24.5	20.0	22.2	33.8	19.4	25.0	50.0	25.0
	만 30~34세	37.0	36.7	35.7	21.1	32.3	22.6	29.4	25.0	25.0
	만 35~39세	55.6	48.9	25.8	25.5	38.3	23.5	33.3	43.3	66.7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42.9	34.5	30.2	25.8	44.1	19.4	36.8	47.7	25.0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44.0	40.0	22.7	15.8	27.7	28.2	34.8	38.9	40.0
가구 유형	1인가구	43.6	27.5	16.1	7.3	24.5	18.2	15.4	26.7	20.0
	다인가구	41.5	34.4	29.2	24.1	37.4	21.4	33.3	44.9	33.3
가족 동거	가족 동거	42.0	34.1	29.1	25.0	36.9	21.7	31.6	43.5	33.3
	가족 비동거	42.4	28.6	17.6	6.6	27.3	17.4	21.4	32.4	20.0

- 각 고립·은둔 지원 사업의 제공 장소에 대해 ‘집에서 1시간 거리 이내, 교통 좋은 곳에서 상담 등 지원 제공’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결과를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해 보았음.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가까운 사람들의 이해와 지지’에 있어서 집에서 가깝고 교통 좋은 곳에서 대면으로 제공받길 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대체로 20대가 30대보다 대면으로 제공받는 것을 선호하였음.
- 서울 이주 여부에 따라서는 ‘병원 진단 및 치료’나 ‘일자리, 공부 기회’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해온 응답자가 서울 거주자 대비 대면 제공을 더 선호하였음.
- 가구유형 및 가족동거 여부 별로는 1인가구,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가 대면으로 제공받는 방식을 보다 더 선호하였으나,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과의 만남’에 있어서는 다인가구 또한 대면으로 제공받길 원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표 4-65] 고립·은둔 지원 사업 제공 장소 - 집에서 1시간 거리 이내, 교통 좋은 곳에서 상담 등 지원 제공

[Base: 고립·은둔 청년 중 각 지원 서비스별 선호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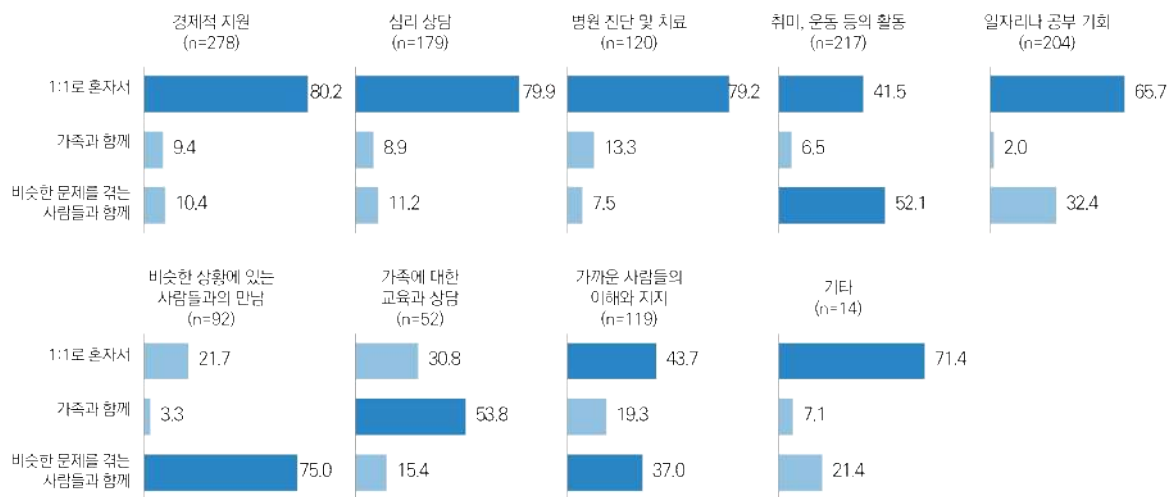
		경제적 지원	심리 상담	병원 진단 및 치료	취미, 운동 등의 활동	일자리나 공부 기회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과 만남	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	가까운 사람들의 이해와 지지	기타
전체		48.6	56.4	65.8	71.0	59.3	68.5	46.2	42.9	50.0
성별	남성	45.9	59.1	61.5	70.0	62.5	67.5	42.9	52.4	60.0
	여성	50.6	54.9	67.9	71.7	56.5	69.2	48.4	37.7	25.0
연령대	만 19~24세	51.9	65.6	68.8	93.8	58.3	75.0	28.6	52.9	100.0
	만 25~29세	57.7	67.9	73.3	66.7	58.8	72.2	56.3	31.8	50.0
	만 30~34세	51.1	59.2	57.1	70.2	60.0	64.5	47.1	50.0	50.0
	만 35~39세	35.8	33.3	61.3	63.8	59.6	64.7	41.7	46.7	0.0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48.1	51.2	60.3	66.7	49.5	66.7	42.1	34.1	75.0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46.4	52.9	72.7	71.3	66.0	61.5	39.1	44.4	20.0
가구 유형	1인가구	43.6	64.7	77.4	72.7	63.3	63.6	46.2	46.7	20.0
	다인가구	50.5	53.1	61.8	70.4	58.1	70.0	46.2	41.6	66.7
가족 동거	가족 동거	49.7	52.8	61.6	69.2	58.4	69.6	47.4	42.4	66.7
	가족 비동거	45.9	64.3	76.5	75.4	61.8	65.2	42.9	44.1	20.0

## 7) 고립·은둔 지원 사업 제공 방식

- 고립·은둔 청년들은 대부분 '1:1로 혼자서' 제공받는 것을 선호하며, 특히 '경제적 지원', '심리 상담', '병원 진단 및 치료'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 '가까운 사람들의 이해와 지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받는 것도 선호하였음.

C6.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면 가장 좋을까요? 항목별로 적절한 제공 방식을 선택해주세요.

[Base: 고립·은둔 청년 중 각 지원 서비스별 선호자, 단위: %]



[그림 4-66] 고립·은둔 지원 사업 제공 방식

- 각 고립·은둔 지원 사업의 제공 방식에 대해 ‘1:1로 혼자서’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결과를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해보았음.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은 ‘취미, 운동 등의 활동’이나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과 만남’을, 여성은 ‘심리 상담’, ‘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1:1로 혼자서 받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연령대에 따라서는 만 19~24세는 ‘심리 상담’, ‘병원 진단 및 치료’, ‘비슷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만 35~39세는 ‘취미, 운동 등의 활동’, ‘일자리나 공부 기회’, ‘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혼자서 받고 싶다는 응답이 타 연령 대비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 가구유형 및 가족동거 여부 별로는 1인가구,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가 대부분의 지원 사업에 대해 1:1로 혼자서 받는 것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였음.

[표 4-66] 고립·은둔 지원 사업 제공 방식 - 1:1로 혼자서

[Base: 고립·은둔 청년 중 각 지원 서비스별 선호자, 단위: %]

		경제적 지원	심리 상담	병원 진단 및 치료	취미, 운동 등의 활동	일자리나 공부 기회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과 만남	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	가까운 사람들의 이해와 지지	기타
전체		80.2	79.9	79.2	41.5	65.7	21.7	30.8	43.7	71.4
성별	남성	79.5	71.2	76.9	45.6	64.6	27.5	23.8	42.9	70.0
	여성	80.8	85.0	80.2	38.6	66.7	17.3	35.5	44.2	75.0
연령대	만 19~24세	77.8	84.4	93.8	34.4	66.7	50.0	14.3	47.1	66.7
	만 25~29세	82.1	84.9	82.2	39.5	64.7	5.6	31.3	38.6	100.0
	만 30~34세	78.3	73.5	64.3	43.9	60.0	22.6	23.5	42.9	25.0
	만 35~39세	81.5	77.8	80.6	46.8	74.5	41.2	50.0	50.0	100.0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82.0	79.8	79.4	47.3	66.7	25.0	31.6	38.6	75.0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80.8	81.4	84.1	42.6	69.1	25.6	43.5	48.1	80.0
가구 유형	1인가구	88.5	84.3	83.9	36.4	71.4	31.8	46.2	60.0	60.0
	다인가구	77.0	78.1	77.5	43.2	63.9	18.6	25.6	38.2	77.8
가족 동거	가족 동거	77.7	78.0	76.7	43.6	65.1	18.8	26.3	38.8	77.8
	가족 비동거	85.9	83.9	85.3	36.1	67.3	30.4	42.9	55.9	60.0



- 각 고립·은둔 지원 사업의 제공 방식에 대해 ‘비슷한 문제를 겪는 사람들과 함께’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결과를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해보았음.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비슷한 문제를 겪는 사람들과 함께 받길 원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대체로 만 30~34세가 비슷한 문제를 겪는 사람들과 함께 지원 사업을 받길 원하며, 특히 ‘심리 상담’이나 ‘병원 진단 및 치료’에서 다른 연령대와 차이가 컸음.
- 가구유형 및 가족동거 여부 별로는 1인가구,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는 ‘취미, 운동 등의 활동’, ‘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에 대해 비슷한 문제를 겪는 사람들과 함께 받고 싶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표 4-67] 고립·은둔 지원 사업 제공 방식 - 비슷한 문제를 겪는 사람들과 함께

[Base: 고립·은둔 청년 중 각 지원 서비스별 선호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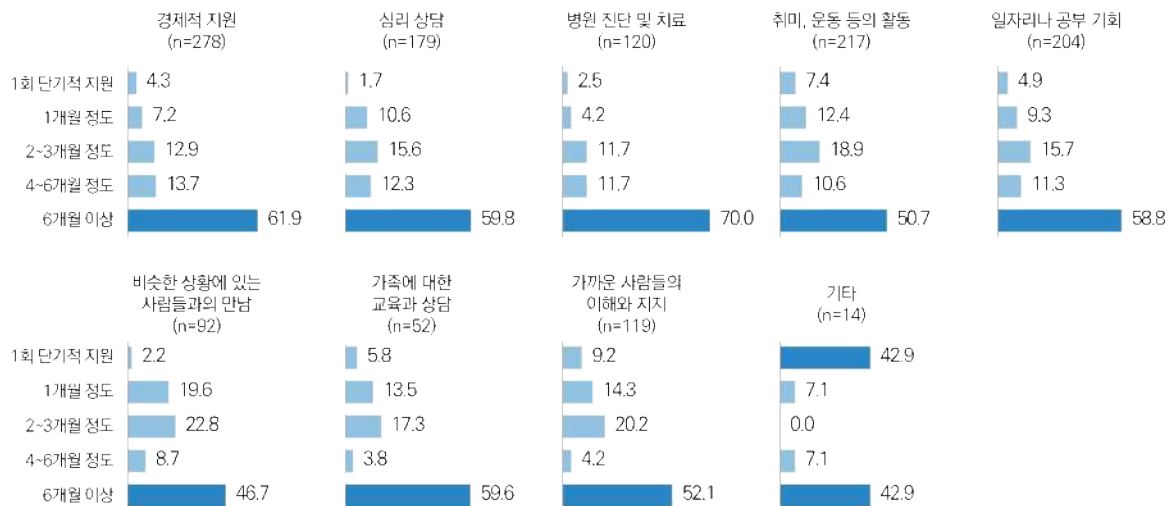
		경제적 지원	심리 상담	병원 진단 및 치료	취미, 운동 등의 활동	일자리나 공부 기회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과 만남	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	가까운 사람들의 이해와 지지	기타
전체		10.4	11.2	7.5	52.1	32.4	75.0	15.4	37.0	21.4
성별	남성	12.3	15.2	5.1	47.8	33.3	70.0	28.6	38.1	20.0
	여성	9.0	8.8	8.6	55.1	31.5	78.8	6.5	36.4	25.0
연령대	만 19~24세	11.1	0.0	0.0	56.3	29.2	50.0	14.3	35.3	33.3
	만 25~29세	6.4	7.5	8.9	55.6	33.8	88.9	6.3	40.9	0.0
	만 30~34세	15.2	24.5	14.3	52.6	38.5	77.4	35.3	42.9	50.0
	만 35~39세	8.6	8.9	3.2	42.6	23.4	52.9	0.0	26.7	0.0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10.5	11.9	11.1	47.3	31.2	75.0	21.1	43.2	25.0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9.6	10.0	4.5	49.5	29.8	66.7	8.7	29.6	20.0
가구 유형	1인가구	9.0	9.8	6.5	58.2	28.6	68.2	23.1	33.3	20.0
	다인가구	11.0	11.7	7.9	50.0	33.5	77.1	12.8	38.2	22.2
가족 동거	가족 동거	10.4	11.4	8.1	49.4	32.2	76.8	10.5	36.5	22.2
	가족 비동거	10.6	10.7	5.9	59.0	32.7	69.6	28.6	38.2	20.0

## 8) 고립·은둔 지원 사업 제공 기간

- 고립·은둔 지원 사업의 적절한 제공 기간에 대해 모든 사업에서 '6개월 이상'의 장기적 지원이 선호되고 있었으며, 특히 '병원 진단 및 치료'가 다른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았음.

C7.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은 얼마나 오래 제공하면 좋을까요? 항목별로 적절한 제공 기간을 선택해주세요.

[Base: 고립·은둔 청년, 단위: %]



[그림 4-67] 고립·은둔 지원 사업 제공 기간

- 각 고립·은둔 지원 사업의 제공 기간에 대해 ‘6개월 이상’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결과를 응답자 특성별로 분석해 보았음.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심리 상담’, ‘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제공받길 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연령대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만 19~24세는 ‘심리 상담’, ‘병원 진단 및 치료’, ‘비슷한 사람들과의 만남’ 등 정서적 회복 지원을, 만 25~29세는 ‘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6개월 이상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30대의 경우 공통적으로 ‘취미, 운동 등의 활동’에서 6개월 이상이 높았고, 그 중 만 34~39세는 ‘일자리나 공부 기회’, ‘가까운 사람들의 이해와 지지’ 또한 높게 나타났음.
- 가구유형 및 가족동거 여부 별로는 다인가구, 가족과 동거하는 응답자가 ‘심리 상담’, ‘취미, 운동 등의 활동’, ‘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1인가구,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는 ‘가까운 사람들의 지지’가 높았음.

[표 4-68] 고립·은둔 지원 사업 제공 기간 - 6개월 이상

[Base: 고립·은둔 청년 중 각 지원 서비스별 선호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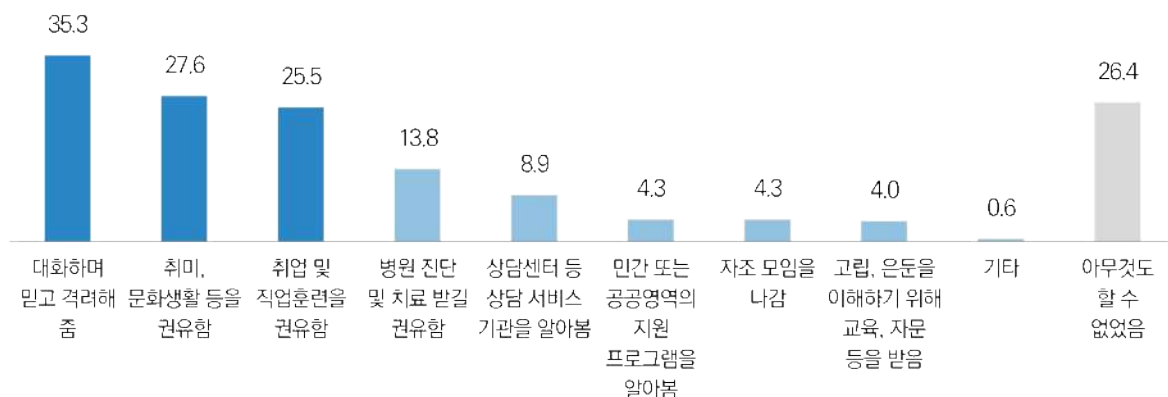
		경제적 지원	심리 상담	병원 진단 및 치료	취미, 운동 등의 활동	일자리나 공부 기회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과 만남	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	가까운 사람들의 이해와 지지	기타
전체		61.9	59.8	70.0	50.7	58.8	46.7	59.6	52.1	42.9
성별	남성	60.7	53.0	71.8	50.0	57.3	47.5	52.4	45.2	30.0
	여성	62.8	63.7	69.1	51.2	60.2	46.2	64.5	55.8	75.0
연령대	만 19~24세	59.3	71.9	87.5	46.9	58.3	62.5	57.1	47.1	66.7
	만 25~29세	57.7	52.8	64.4	45.7	50.0	47.2	93.8	40.9	25.0
	만 30~34세	63.0	63.3	64.3	56.1	61.5	38.7	47.1	57.1	50.0
	만 35~39세	65.4	55.6	74.2	55.3	68.1	52.9	33.3	66.7	33.3
서울 이주 여부	서울 출생	58.6	59.5	61.9	59.1	63.4	41.7	52.6	43.2	37.5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66.4	57.1	75.0	43.6	55.3	48.7	65.2	55.6	40.0
가구 유형	1인가구	59.0	47.1	71.0	40.0	59.2	50.0	46.2	60.0	60.0
	다인가구	63.0	64.8	69.7	54.3	58.7	45.7	64.1	49.4	33.3
가족 동거	가족 동거	63.2	64.2	69.8	53.2	59.1	46.4	63.2	48.2	33.3
	가족 비동거	58.8	50.0	70.6	44.3	58.2	47.8	50.0	61.8	60.0

## 9) 고립·은둔 청년 가족이 상황 변화를 위해 노력한 부분

- 고립·은둔 청년이 있는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가구조사에서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음.
- 고립·은둔 청년 가족이 청년 당사자를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 ‘대화하며 믿고 격려해 줌(35.3%)’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취미, 문화생활 등을 권유함(27.6%)’, ‘취업 및 직업훈련을 권유함(25.5%)’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응답도 26.4%로 높은 편이었음.

B7. 고립·은둔 청년의 상황 변화를 위해 가족들이 노력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Base: 고립·은둔 청년이 있는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주 배우자(n=326),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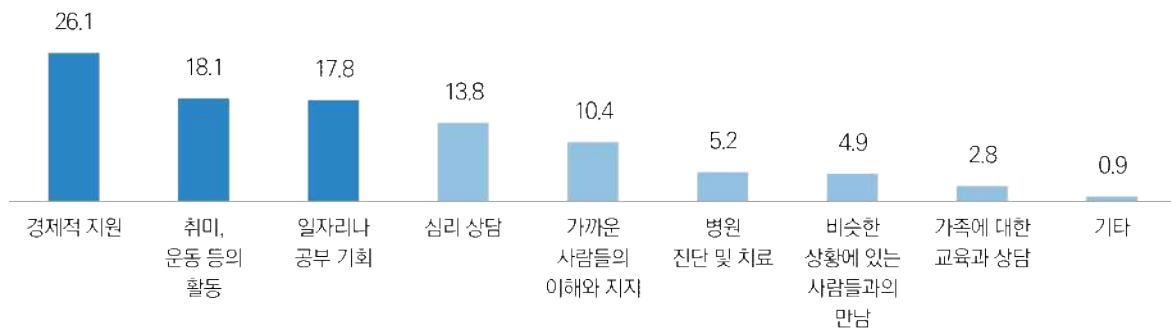
[그림 4-68] 고립·은둔 청년의 상황 변화를 위해 가족들이 노력한 부분

## 10) 고립·은둔 청년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

- 고립·은둔 청년의 가족이 보기에 청년 당사자에게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경제적 지원(26.1%)’이며, 다음으로 ‘취미, 운동 등의 활동(18.1%)’, ‘일자리나 공부 기회(17.8%)’ 등이 뒤를 이었음.

B8. 고립·은둔 청년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Base: 고립·은둔 청년이 있는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주 배우자(n=326), 단위: %]



[그림 4-69] 고립·은둔 청년의 가족이 보기에 청년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

## 11) 고립·은둔 청년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

- 고립·은둔 청년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으로는 ‘고립과 은둔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22.4%)’, ‘부모와 자식 간 가족 상담(22.1%)’ 등 고립·은둔 청년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상호 간 상담 또는 교육 등을 가장 주로 필요로 하였음.
- 그 다음으로는 ‘은둔형 외톨이 활동공간 제공(16.0%)’, ‘자녀로 인한 고민 등 개인 상담(12.6%)’, ‘유사 문제를 겪는 가족 자조 모임(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B9. 고립·은둔 청년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Base: 고립·은둔 청년이 있는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주 배우자(n=326), 단위: %]



[그림 4-70] 고립·은둔 청년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

# 05

##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유형화 분석 결과

1. 분석 목적 및 방법
2. 분석 결과





## 제5장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유형화 분석 결과

### 제1절 분석 목적 및 방법

#### 1. 분석 목적

- 개인의 생애주기와 삶의 모습에 따라 고립·은둔 행태 및 계기는 이질적이며, 고립·은둔 청년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간의 차별적 특성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본 조사에서는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고립·은둔의 양상을 일련의 공통적 특징을 바탕으로 유형화를 시도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2. 분석 방법

- 고립·은둔 청년(n=486)의 유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군집분석을 시행하였음.
- 군집분석(Clustering, Cluster: 비슷한 특징을 가진 데이터들의 집합)이란 개체들을 유사성에 기초하여 n개의 군집으로 집단화하여 집단의 특성을 분석하는 다변량 분석 기법임. 변수들이 속한 모집단 또는 범주에 대한 사전 정보(분류 기준)가 없는 경우 관측값들 사이의 유사성(거리)을 이용하여 개체들을 자연스럽게 몇 개의 그룹 또는 군집으로 나누어 그룹의 특성을 찾아내는 방법임.
- 군집분석을 위해 고립·은둔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약 16개의 Key Attribute 변수들을 선정하였으며, 해당 변수 중에 군집분석이 가능한 변수인 연속형 변수가 아닌 범주형 변수인 경우 더미 변수<sup>20</sup>(Dummy variable)로의 변환 작업을 거쳤음.
- 이후 각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유형화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아 선별작업을 거쳤으며, 선별된 변수들로 군집분석(K-means clustering)을 통해 4개의 군집(유형)을 도출하였음.

[표 5-1] 군집분석 사용 변수

인구통계학적 변수	군집분석 사용여부	고립·은둔 관련 변수	군집분석 사용여부
성별	X	외출 정도	○
연령	○	정서적 고립여부	○
1인가구 여부	X	물리적 고립여부	○
가족 동거 여부	X	외로움 정도	○
출생지 서울 여부	X	성인기 전/후 부정적 경험	○
지난주 일(Work) 여부	○	정신과 약물복용 여부	○
본인이 인식하는 가정의 경제 수준	○	우울점수	○

20) 범주형 변수의 특성을 연속형 변수처럼 분석하도록 도와주는 변수로 1과 0의 값을 가지며 기준이 되는 변수값을 0으로 설정함.

- 이렇게 도출된 고립·은둔 청년 유형별로 인구통계학적 프로파일, 물리적 고립, 정서적 고립, 우울감, 외로움, 일상생활 패턴 등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음.

[표 5-2] 유형화 결과

유 형	사례수	비중
은둔형 고립군	n=105	21.6%
좌절형 고립군	n=110	22.6%
관계단절형 고립군	n=111	22.8%
의존형 고립군	n=160	32.9%

## 제2절 분석 결과

### 1. 인구통계학적 특성

#### 1) 은둔형 고립군

- 여성의 비율이 높으며, 평균 연령은 20대 중반으로 가장 낮음.
- 서울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해온 비율이 높음. 그러나 낮은 연령과 서울에 연고를 둔 점을 고려하였을 때 1인가구 및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비율이 다소 높은 편임.
- 최종학력은 절반이 대졸이며, 다른 유형 대비 고졸 이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대체로 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하나, 오피스텔/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가구의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개인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 각각 최하, 매우 부족~약간 부족이라고 생각하여 경제적 상황이 그리 여유롭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지난주 경제활동 여부에 대해 절반 이상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나, 주어진다면 할 수 있었다는 비율이 높아 경제활동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여짐.

#### 2) 좌절형 고립군

- 여성의 비율이 높으며, 평균 연령은 30대 중반으로 가장 높음.
- 타 지역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주해온 비율이 높으며, 모든 유형 중 1인가구가 가장 많고, 가족과 동거하는 비율은 가장 낮음.
- 최종학력은 절반 이상이 대졸이나, 대학 중퇴가 다른 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음.
- 4명 중 1명은 오피스텔/고시원, 단독주택에 거주하여 다가구/연립/다세대나 아파트가 대부분인 다른 유형과 주거형태에 큰 차이를 보였음.
- 가구의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개인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 최하, 매우 부족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유형 중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여짐.
- 지난주 경제활동 여부에 대해 10명 중 4명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음. 그러나 주어진다면 할 수 있었다는 비율이 은둔형 고립군과 같이 높게 나타났음.

#### 3) 관계단절형 고립군

- 모든 유형 중 유일하게 남성의 비율이 높으며, 평균 연령은 30대 중반임.
- 타 지역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주해온 비율이 높으며, 다인가구가 많고 가족과 동거하는 비율도 높은 편임.
- 모든 유형 중 고졸 이하의 비율은 가장 낮고 대졸이 많았음.

- 10명 중 9명이 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
- 가구의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개인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 각각 중, 약간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지난주 경제활동 여부에 대해 10명 중 4명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일이 주어졌다면 할 수 있었다는 응답은 1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남.

#### 4) 의존형 고립군

- 여성의 비율이 높으며, 평균 연령은 20대 중반임.
- 서울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해왔으며, 가족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최종학력의 경우 대학 재·휴학이 다른 유형 대비 높았음.
- 대부분 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
- 가구의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개인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 각각 중~중상, 약간 부족~적정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음.
- 지난주 경제활동 여부에 대해 절반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주어졌으면 할 수 있었다는 비율은 5% 미만으로 낮아 경제활동 의지가 적은 편이었음.

[표 5-3] 고립·은둔 청년 유형별 응답자 특성

구분	은둔형 고립군	좌절형 고립군	관계단절형 고립군	의존형 고립군
성별	남성 41.9% <b>여성 58.1%</b>	남성 46.4% <b>여성 53.6%</b>	<b>남성 58.6%</b> 여성 41.4%	남성 41.9% <b>여성 58.1%</b>
연령	<b>평균 26.26세</b> 만 19~29세 90.5% 만 30~39세 9.5%	<b>평균 35.16세</b> 만 19~29세 8.2% 만 30~39세 91.8%	<b>평균 34.77세</b> 만 19~29세 7.2% 만 30~39세 92.8%	<b>평균 26.80세</b> 만 19~29세 87.5% 만 30~39세 12.5%
가구구성	1인가구 27.6% 다인가구 72.4%	<b>1인가구 36.4%</b> 다인가구 63.6%	1인가구 25.2% 다인가구 74.8%	1인가구 18.8% <b>다인가구 81.3%</b>
가족과 동거	69.5%	61.8%	73.9%	<b>78.1%</b>
타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40.4%	<b>51.0%</b>	<b>53.1%</b>	45.9%
최종학력	고졸 이하 29.5% 대졸 50.5%	고졸 이하 22.7% <b>대학 중퇴 9.1%</b> 대졸 55.5%	고졸 이하 19.8% 대졸 70.3%	고졸 이하 26.9% <b>대학 재·휴학 14.4%</b> 대졸 48.1%
주거형태	다가구/연립/다세대 또는 아파트 70.9% <b>오피스텔/고시원 15.2%</b>	다가구/연립/다세대 또는 아파트 74.6% <b>오피스텔/고시원 12.7%</b> 단독주택 12.7%	다가구/연립/다세대 또는 아파트 90.0%	다가구/연립/다세대 또는 아파트 86.9%
가구의 사회경제적 수준	<b>최하</b>	<b>최하</b>	중	중~중상
개인의 경제적 수준	<b>매우 부족~약간 부족</b>	<b>매우 부족</b>	약간 부족	약간 부족~적정
지난주 경제활동 여부	일을 안했음 55.2% → 주어졌으면 할 수 있었음 16.7%	일을 안했음 45.5% → 주어졌으면 할 수 있었음 15.9%	일을 안했음 45.0% → 주어졌으면 할 수 있었음 8.3%	일을 안했음 53.8% → 주어졌으면 할 수 있었음 4.2%

## 2. 고립·은둔 성향 및 과거 경험

### 1) 은둔형 고립군

- 외출을 잘 하지 않는 은둔 생활을 하는 비율은 56.2%로, 그 중에서도 특히 방 안에서만 고립된 채 생활하는 비율이 11.4%로 다른 유형 대비 높게 나타났음. 은둔 기간은 1~3년 미만, 3~5년 미만이 비슷한 수준으로 연령대에 비해 다소 긴 편이었음. 과거에도 은둔 생활을 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85.7%로 모든 유형 중 가장 높았고, 평균 시작 연령은 21.76세로 가장 적었음.
- 고립 유형 중에서도 대면 교류가 단절된 물리적 고립이 높은 편이었으며, 고립 기간은 7년 이상이 30% 이상으로 은둔과 마찬가지로 연령대 대비 긴 편이었음. 과거에도 고립 생활을 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77.1%로 높았고, 평균 시작 연령은 19.72세로 모든 유형 중 가장 적었음.
- 고립·은둔 생활의 계기로 ‘심리적/정신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가정문제’, ‘괴롭힘, 따돌림 등 타인과의 갈등’, ‘어렵고 무의미한 학교/사회생활’을 꼽아 가정 내 외적으로 타인에게서 받은 상처, 트라우마 등이 깊어 대인교류나 사회활동에 회피적, 소극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 것으로 보임.
- 성인기 이전의 부정적 경험을 한 비율이 높으며, 특히 ‘가족 구성원의 정서적 힘듦’, ‘괴롭힘, 따돌림 경험’이 다른 유형 대비 높았음.

### 2) 좌절형 고립군

- 외출을 잘 하지 않는 은둔 생활을 하는 비율은 54.5%로, 인근 편의점 등에는 자주 외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은둔 기간은 10년 이상이 25.0%로 장기 은둔 비율이 다른 유형 대비 월등히 높았음. 과거에도 은둔 생활을 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77.3%였으며, 평균 시작 연령은 27.59세로 가장 높았음.
- 정서적 고립과 물리적 고립 모두 높은 편으로, 특히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를 의미하는 정서적 고립이 다른 연령대 대비 상당히 높았음. 고립 기간은 10년 이상이 31.6%로 장기화된 모습을 보였음. 과거에도 고립 생활을 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73.6%로 은둔형 고립군 다음으로 높았고, 평균 시작 연령은 26.06세로 높게 나타났음.
- 고립·은둔 생활의 계기로 ‘실직/취업실패 경험’, ‘심리적/정신적 어려움’을 주로 꼽았고 ‘가정문제(불화, 갈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고립·은둔 생활이 시작된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정규교육과정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이행기 단계에서 경험한 좌절, 실패가 큰 원인이며, 이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또는 기존의 가정문제가 또 다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며 고립·은둔 생활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 성인기 이전과 이후 모두 부정적 경험이 모든 유형 중 가장 높았고, 그 중에서도 성인기 이후 ‘원하는 학교 진학실패’, ‘원하는 직장 취업실패’ 등 진로 이행에 문제를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3) 관계단절형 고립군

- 외출을 잘 하지 않는 은둔 생활을 하는 비율은 54.1%로,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취미 활동이나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외부 활동이 활발한 편이었음. 은둔 기간은 1~3년 미만이 28.3%, 3~5년 미만이 18.3%로, 연령대가 높은 것에 비해 그 기간은 비교적 짧았음. 과거에도 은둔 생활을 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63.1%로 모든 유형 중 가장 낮았고, 평균 시작 연령은 26.94세였음.
- 관계단절형 고립군의 경우, 은둔 경험은 적으나 그에 비해 고립 정도가 비교적 심각한 편이며, 고립 기간은 1~3년 미만과 10년 이상으로 양극화된 모습을 보였음. 과거에도 고립 생활을 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49.5%로 비교적 낮았고, 평균 시작 연령은 25.86세로 나타났음.
- 고립·은둔 생활의 계기는 주로 ‘실직/취업 실패 경험’이었음.
- 성인기 전후의 부정적 경험 중 ‘원하는 직장 취업 실패’가 가장 높았으나, 다른 유형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대부분 낮은 편이었음.

### 4) 의존형 고립군

- 외출을 잘 하지 않는 은둔 생활을 하는 비율은 56.9%로, 그 중 절반 정도는 취미 활동을 위해 외출하며 대체로 다른 유형에 비해 외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음. 은둔 기간은 6개월~3년 미만이 많아 상대적으로 짧았음. 과거에도 은둔 생활을 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75.6%였으며, 평균 시작 연령은 22.75세로 나타났음.
- 정서적 고립과 물리적 고립 모두 비교적 낮았고, 특히 정서적 고립은 다른 유형들에 비해 뚜렷하게 낮았음. 고립 기간은 은둔과 동일하게 6개월~3년 미만이 가장 많아 모든 유형을 통틀어 가장 짧았음. 과거에도 고립 생활을 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55.0, 평균 시작 연령은 21.43세로 나타났음.
- 고립·은둔 생활의 계기로 ‘집 밖으로 나가기 귀찮음’, ‘어렵고 무의미한 학교/사회생활’이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되어 무기력, 의지없음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여짐.
- 성인기 전후 부정적 경험은 은둔형 고립군과 좌절형 고립군 대비 낮은 편이었으나, 관계단절형 고립군과 비교하였을 때 ‘가족 구성원의 정서적 힘듦’, ‘괴롭힘, 따돌림 등 타인과의 갈등’, ‘취업/진로압박 또는 강요’를 경험한 비율이 비교적 높다는 특징이 있음.

[표 5-4] 고립·은둔 청년 유형별 고립·은둔 성향 및 과거 경험

구분		은둔형 고립군	좌절형 고립군	관계단절형 고립군	의존형 고립군
은둔 행태	외출 수준	취미 활동 외출 9.5% 편의점 등 외출 26.7% 집안에서만 생활 8.6% <b>방안에서만 생활 11.4%</b> → 은둔 생활 56.2%	취미 활동 외출 8.2% 편의점 등 외출 32.7% 집안에서만 생활 8.2% 방안에서만 생활 5.5% → 은둔 생활 54.5%	취미 활동 외출 17.1% 편의점 등 외출 27.0% 집안에서만 생활 3.6% 방안에서만 생활 6.3% → 은둔 생활 54.1%	취미 활동 외출 28.8% 편의점 등 외출 15.0% 집안에서만 생활 7.5% 방안에서만 생활 5.6% → 은둔 생활 56.9%
	기간	1~3년 미만 23.7% 3~5년 미만 22.0%	<b>10년 이상 25.0%</b>	1~3년 미만 28.3% 3~5년 미만 18.3%	6개월~1년 미만 19.8% 1~3년 미만 36.3%
	과거 경험	<b>85.7%</b> 평균 21.76세 시작	77.3% 평균 27.59세 시작	63.1% 평균 26.94세 시작	75.6% 평균 22.75세 시작
고립 행태	고립 수준	정서적 고립 39.0% <b>물리적 고립 68.6%</b>	<b>정서적 고립 54.5%</b> <b>물리적 고립 69.1%</b>	정서적 고립 35.1% 물리적 고립 64.0%	정서적 고립 23.8% 물리적 고립 62.5%
	기간	7년 이상 32.6%	<b>10년 이상 31.6%</b>	1~3년 미만 36.0% 10년 이상 22.1%	6개월~3년 미만 47.4%
	과거 경험	77.1% 평균 19.72세 시작	73.6% 평균 26.06세 시작	49.5% 평균 25.86세 시작	55.0% 평균 21.43세 시작
고립·은둔 계기		심리적/정신적 어려움 인간관계 어려움 가정문제(불화, 갈등 등) 타인과의 갈등(따돌림, 괴롭힘) 학교/사회생활이 어렵고, 무의미함	실직/취업실패 경험 심리적/정신적 어려움 가정문제(불화, 갈등 등)	실직/취업실패 경험	집 밖으로 나가기 귀찮음 학교/사회생활이 어렵고, 무의미함
성인 기 이 전	부모의 심한 모욕/ 꾸짖음	<b>66.7%</b>	<b>67.3%</b>	39.6%	38.1%
	가족 구성원의 정서적 힘듦	<b>78.1%</b>	<b>70.0%</b>	47.7%	<u>56.3%</u>
	괴롭힘/ 따돌림 경험	<b>74.3%</b>	<b>63.6%</b>	41.4%	<u>52.5%</u>
성인 기 이 후	취업/ 진로압박 또는 강요	55.2%	58.2%	28.8%	<u>41.3%</u>
	원하는 학교 진학실패	56.2%	<b>65.5%</b>	42.3%	46.9%
	원하는 직장 취업실패	61.9%	<b>81.8%</b>	53.2%	50.6%

### 3. 평소 심리상태 및 생활 행태

#### 1) 은둔형 고립군

- 은둔형 고립군의 우울 수준은 19.95점, 외로움 수준은 3.35점으로 모두 심각한 수준이었음. 특히 심각성이 비슷한 좌절형 고립군 보다는 우울 수준이 높다는 점이 눈에 띈. 10명 중 4명이 정신건강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다른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았음.
- 평소 생활 행태에 있어서는 가족과의 친밀도, 대화 빈도 모두 낮은 편이며, 절반 정도가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비율이 60%를 넘어 수면 활동에도 어려움이 컸음.
- 섭식활동의 경우 대체로 하루 2~3끼를 기본적으로 챙겨 먹으나, 1끼만 먹는 경우도 많았고, 주로 혼자 배달음식으로 때우는 편이었음.
- 환복, 목욕/샤워, 세수/양치, 방 정리 등 전반적인 자기관리가 모든 유형을 통틀어 가장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0.0%로 상당히 높았음.

#### 2) 좌절형 고립군

- 좌절형 고립군의 우울 수준은 18.82점으로 거의 심각 수준에 가까우며, 외로움 수준은 3.38점으로 심각한 수준이었음. 정신건강 약물을 복용하는 비율은 15.5%로 은둔형 고립군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었음.
- 평소 생활 행태를 살펴보면 가족과의 친밀도, 대화 빈도 모두 낮은 편으로, 은둔형 고립군보다도 가족과의 교류가 더 적었음. 한편,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비율도 높은 편이었음.
- 섭식활동의 경우 대체로 하루 2~3끼를 기본적으로 챙겨 먹으나, 1끼만 먹는 경우도 많았고, 주로 혼자 해결하는 편임.
- 전반적인 자기관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나, 일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존재함.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과반 이상으로 은둔형 고립군과 마찬가지로 높은 편이었음.

#### 3) 관계단절형 고립군

- 관계단절형 고립군의 우울 수준은 4.56점, 외로움 수준은 2.46점으로 가벼운 수준이며, 모든 유형 중 가장 낮았음. 정신건강 약물을 복용하는 비율 또한 10% 미만으로 낮았음.
- 평소 생활 행태에 있어서는 은둔형 고립군과 좌절형 고립군보다는 상태가 양호하며, 밤낮 바뀐 생활이나 기상/수면 패턴의 불규칙한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생활 패턴 또한 비교적 안정적이었음. 그러나 가족과의 친밀도, 대화 빈도는 의존형 고립군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음.

- 대부분 하루 2~3끼를 챙겨 먹고 있으며, 혼자 직접 만들어 먹거나 가족과 함께 먹기도 함.
- 자기관리는 대부분 잘 이루어지며,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0% 미만으로 다른 유형 대비 낮았음.

#### 4) 의존형 고립군

- 의존형 고립군의 우울 수준은 6.93점, 외로움 수준은 2.52점으로 가벼운 수준이나 같은 가벼운 수준인 관계단절형 고립군보다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정신건강 약물을 복용하는 비율은 12.5%였음.
- 평소 생활 행태에 있어서는 관계단절형 고립군과 마찬가지로 상태가 양호하나, 상대적으로 일정한 생활패턴을 유지하거나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비율은 높았음.
- 대부분 하루 2~3끼를 챙겨먹고 있으며, 주로 가족과 함께 먹거나 혼자 차려먹기도 함.
- 자기관리는 대부분 잘 이루어지며,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2.5%로 높지 않았음.

[표 5-5] 고립·은둔 청년 유형별 평소 심리 상태 및 생활 행태

구분		은둔형 고립군	좌절형 고립군	관계단절형 고립군	의존형 고립군
우울 수준		19.95점 (심각)	18.82점 (중간~심각)	4.56점 (가벼운 수준)	6.93점 (가벼운 수준)
외로움 수준*		3.35점 (심각)	3.38점 (심각)	2.46점	2.52점
정신건강 약물복용		41.9%	15.5%	8.1%	12.5%
평 소 생 활 행 태	가족과 친밀도 낮음	44.8%	47.3%	27.9%	21.9%
	가족과 대화 없음	51.4%	53.6%	33.3%	29.4%
	밤낮 바뀐 생활함	50.5%	43.6%	27.9%	35.0%
	가상/수면 불규칙함	35.2%	34.5%	18.0%	24.4%
	잠을 설침	61.0%	62.7%	30.6%	36.3%
섭식 행태		대체로 하루 2~3끼, 1끼도 많은 편 혼자 배달음식으로 해결하는 경우 많음	대체로 하루 2~3끼, 1끼도 많은 편 혼자 해결함	대부분 하루 2~3끼 혼자 직접 만들어먹거나 가족과 함께 먹기도 함	대부분 하루 2~3끼 주로 가족과 함께 먹고, 혼자 차려먹기도 함
자기관리		청결, 위생, 정리정돈 등 자기관리가 가장 안되고 있음	대체로 어느 정도 관리하나 일부 잘 되지 않는 경우 존재	자기관리가 잘 이루어짐	자기관리가 잘 이루어짐
건강 상태 나쁨		60.0%	56.4%	29.7%	32.5%

\* 외로움 점수가 3.00점 이상일 경우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외로움 심각=서울시 청년의 평균점수+1표준편차)

## 4. 고립·은둔 생활 극복의향 및 지원 방안

### 1) 은둔형 고립군

- 은둔형 고립군의 71.2%는 고립·은둔 생활에 변화를 주고 싶다는 의향이 있으며, 실제로 변화를 위해 무언가 시도해본 비율은 59.4%로, 변화에 대한 의지가 강한 편이었음. 구체적으로 ‘취미 활동’, ‘병원 진단 및 치료’, ‘지원기관 도움’ 등의 순으로 많아 집 밖으로 나가기 위해 활동을 늘리고 병원이나 관련 기관 등 외부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1순위로 꼽았으나, 다른 유형 대비 ‘심리 상담’, ‘병원 진단 및 치료’, ‘주변인의 이해와 지지’ 등 정서적, 심리적 회복을 우선 필요로 함.

### 2) 좌절형 고립군

- 좌절형 고립군의 73.1%는 고립·은둔 생활에 변화를 주고 싶다는 의향이 있으며, 48.2%는 실제로 변화를 위해 무언가 시도해본 적이 있었음. 은둔형 고립군과 마찬가지로 변화 의지가 비교적 강했음. 구체적으로는 ‘일/공부 시작’, ‘취미 활동’, ‘병원 진단 및 치료’ 등의 순으로 높았음.
-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해 모든 유형을 통틀어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자리/공부 기회’, ‘심리 상담’ 등의 순이었고, ‘병원 진단/치료’도 높게 나타났음. 좌절형 고립군은 연령대가 높고 가족과 교류나 친밀감은 적으며 경제적 수준은 낮다는 특징을 가지는데, 경제활동을 통한 자립이 절실한 상황이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진학, 취업 실패의 누적으로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경제적 지원이나 일자리 등 생계 유지를 위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원하며, 이와 더불어 심리 상담, 병원 진단/치료 등 정서적 회복도 함께 필요로 함.

### 3) 관계단절형 고립군

- 관계단절형 고립군의 경우 고립·은둔 생활에 변화를 주고 싶다는 의향은 43.6%, 실제로 변화를 위해 무언가 시도해본 비율은 34.2%로 은둔형 고립군과 좌절형 고립군 대비 변화 의지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실제로 시도해본 것으로 ‘취미 활동’이 가장 많았고, 이 외에 ‘일/공부 시작’, ‘병원 진단/치료’ 등을 꼽았음.
-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으로 ‘경제적 지원’, ‘취미/운동 등 활동’ 등의 응답이 많았음. 관계단절형 고립군은 다른 유형들에 비해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음.

#### 4) 의존형 고립군

- 의존형 고립군의 42.6%는 고립·은둔 생활에 변화를 주고 싶다는 의향이 있으며, 실제로 변화를 위해 무언가 시도해본 비율은 34.0%로 관계단절형 고립군과 마찬가지로 변화 의지는 높지 않았음. 변화를 위해 ‘취미 활동’ 정도만 시도해본 것으로 나타났음.
-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으로 ‘취미/운동 등 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나 경제적 지원을 1순위에 꼽은 다른 유형들과는 다른 특징을 보였음. 의존형 고립군의 경우 모든 유형 중 고립·은둔 성향이 가장 악하며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취업을 희망하나 의지는 다소 낮은 편임. 따라서 경제적 지원 또는 일자리보다는 개인의 취미 생활이나 외부 활동을 위한 지원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음.

[표 5-6] 고립·은둔 청년 유형별 고립·은둔 생활 극복의향 및 지원 방안

구분	은둔형 고립군	좌절형 고립군	관계단절형 고립군	의존형 고립군
변화 의지	71.2%	73.1%	43.6%	42.6%
변화 시도	59.4%	48.2%	34.2%	34.0%
변화를 위해 시도해본 것	취미 활동 26.0% 병원 진단/치료 24.7% 지원기관 도움 13.0%	일/공부 시작 41.4% 취미 활동 19.0% 병원 진단/치료 15.5%	취미 활동 42.9% 일/공부 시작 23.8% 병원 진단/치료 11.9%	취미 활동 39.0% 일/공부 시작 16.9% 심리 상담 11.7%
변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경제적 지원 58.1% 심리상담 51.4% 취미/운동 등 활동 42.9% 병원 진단/치료 40.0% 일자리/공부기회 39.0% 주변인의 이해/지지 32.4%	경제적 지원 71.8% 일자리/공부기회 50.0% 심리상담 43.6% 취미/운동 등 활동 38.2% 병원 진단/치료 34.5%	경제적 지원 60.4% 취미/운동 등 활동 41.4% 일자리/공부기회 33.3% 심리상담 24.3%	취미/운동 등 활동 52.5% 경제적 지원 44.4% 일자리/공부기회 44.4% 심리상담 31.3%



# 06

##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심층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2. 심층조사 결과



## 제6장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심층조사 결과

### 제1절 조사 개요

#### 1. 조사 설계

- 심층 조사는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청년들의 고립·은둔 실태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고립·은둔 청년 본인과 그의 가족, 그리고 고립·은둔 청년 지원단체의 활동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고립·은둔 청년 당사자, 가족, 활동가 심층 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표 6-1] 심층조사 조사 개요

항목	고립·은둔 청년 당사자	고립·은둔 청년 가족	고립·은둔 청년 지원단체 활동가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 참여하였고, 고립 또는 은둔의 성향을 가진 청년 중 인터뷰 참여 의사를 밝힌 청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은둔형외톨이부모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가족 중 인터뷰 신청자 및 협회대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립·은둔 청년 지원단체의 활동가</li> </ul>
참여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명</li> <li>남성 6명, 여성 10명</li> <li>20대 9명, 30대 7명</li> <li>1인가구 10명, 다인가구 6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명</li> <li>부모 2명, 형제자매 2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명</li> <li>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 2명, 생명의 전화 2명, 안무서운 회사 2명</li> </ul>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1:1 심층 인터뷰 (In Depth interview) 또는 Mini FGD(Focus Group Interview)</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1:1 심층 인터뷰 (In Depth interview)</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FGD(Focus Group Interview)</li> </ul>

#### 2. 조사 내용

- 고립·은둔 청년 당사자, 활동가, 가족별로 반구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으며, 응답자 선정질문, 고립·은둔 여부 확인, 생활 실태, 지원 필요사항, 응답자 일반사항의 전체 5개 부문의 조사 항목으로 구성됨.

[표 6-2] 조사 내용 - (1) 고립·은둔 청년 당사자

조사 항목	세부 항목
Introduction & Warm 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 목적 및 질문 내용 간략 소개</li> <li>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 자기 소개</li> </ul>
일상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소의 일상생활 루틴: 기상시간, 일어나서 잠들기까지의 일상생활, 식사패턴, 가족과 식사 여부, 수면상태</li> <li>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약물복용 여부, 건강을 위한 활동 여부</li> </ul>
고립·은둔의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립·은둔 상태: 집/방 안에서 주로 하는 일, 외출횟수 및 외부적 교류 행태, 가족과의 관계</li> <li>고립·은둔 기간 및 반복: 고립·은둔의 계기, 고립·은둔 후 생활/정서의 차이 체감 정도</li> </ul>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복에 대한 생각: 현 상황에 대한 생각 및 가족/친구의 반응, 고립·은둔 극복 시도 경험</li> <li>지원에 대한 생각: 경제적/심리적/제도적 지원에 대한 생각, 향후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식/지원 장소/지원 체계에 대해 원하는 방향</li> </ul>

[표 6-3] 조사 내용 - (2) 고립·은둔 청년 가족

조사 항목	세부 항목
Introduction & Warm 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 목적 및 질문 내용 간략 소개</li> <li>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 자기 소개</li> </ul>
일상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소의 일상생활 루틴: 기상시간, 일어나서 잠들기까지의 일상생활, 식사패턴, 가족과 식사 여부, 수면상태</li> <li>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약물복용 여부, 건강을 위한 활동 여부</li> <li>외출/여가/교류 관련: 외출 횟수/이유/상대, 주변 사람들에 의지하는 정도, 가족과의 관계</li> <li>고립·은둔 시작 시기 및 계기: 계기에 대한 대화 여부, 가족의 고립·은둔 생활 이후 변화된 것</li> </ul>
가족의 인식 및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생각: 고립·은둔인 가족에 대한 생각 및 이해도</li> <li>가족들이 겪는 어려움: 보살핌/소통/관심의 표현에 대한 애로사항,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 여부</li> </ul>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립·은둔 상태 극복을 위한 대처/노력: 변화를 위해 시도해본 것, 도움이 된/되지않은 이유</li> <li>지원에 대한 생각: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지원에 대한 의견, 가족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의견</li> </ul>

[표 6-4] 조사 내용 - (3) 고립·은둔 지원단체 활동가

조사 항목	세부 항목
Introduction & Warm 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 목적 및 질문 내용 간략 소개</li> <li>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 자기 소개</li> </ul>
고립·은둔의 개념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립·은둔의 조작적 정의에 대한 견해</li> <li>고립·은둔의 관계와 성격에 대한 견해</li> </ul>
고립·은둔 청년의 유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립·은둔 청년들 간 차이 유무</li> <li>고립·은둔 지속 기간(단기/장기)에 따른 차이</li> <li>자의/타의적 고립·은둔 청년의 구분 기준 및 차이, 지원 순위/지원 내용의 구분 필요성 여부</li> <li>고립·은둔의 계기 중 지역적 특수성에 대한 의견</li> </ul>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의 당위성: 지원의 우선 순위 및 지원 체계에 대한 생각</li> <li>현재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실질적 지원에 대한 의견</li> <li>지원의 방향성</li> </ul>



### 3. 심층 조사 대상자 특성

○ 본 심층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음.

[표 6-5] 응답자 특성 - (1) 고립·은둔 청년 당사자

구 분	성별	나이	가구구성	고립·은둔 계기
청년1	여	30대초반	1인	실직/취업 어려움, 가족 갈등, 외출 귀찮음
청년2	여	20대초반	1인	실직/취업 어려움, 인간관계 어려움, 따돌림/괴롭힘 경험, 가족 갈등, 가정문제, 외출 귀찮음, 학교/사회생활 무의미, 심리적/정신적 어려움
청년3	여	20대중반	다인	실직/취업 어려움, 학업 중단/진학 실패, 인간관계 어려움, 따돌림/괴롭힘 경험, 가족 갈등, 학교/사회생활 무의미, 심리적/정신적 어려움
청년4	남	30대초반	1인	실직/취업 어려움, 인간관계 어려움, 따돌림/괴롭힘 경험, 가족 갈등, 학교/사회생활 무의미, 심리적/정신적 어려움
청년5	여	20대후반	1인	학교/사회생활 무의미, 심리적/정신적 어려움
청년6	여	20대후반	1인	실직/취업 어려움, 학업 중단/진학 실패, 인간관계 어려움, 따돌림/괴롭힘 경험, 가족 갈등, 가정문제, 학교/사회생활 무의미, 심리적/정신적 어려움
청년7	여	20대후반	다인	학업 중단/진학 실패, 심리적/정신적 어려움
청년8	남	20대중반	다인	학업 중단/진학 실패, 인간관계 어려움, 따돌림/괴롭힘 경험, 외출 귀찮음, 학교/사회생활 무의미, 심리적/정신적 어려움
청년9	남	20대후반	다인	실직/취업 어려움, 학업 중단/진학 실패, 인간관계 어려움, 따돌림/괴롭힘 경험, 가족 갈등, 외출 귀찮음, 학교/사회생활 어려움, 심리적/정신적 어려움
청년10	남	30대후반	1인	따돌림/괴롭힘 경험, 가족 갈등, 심리적/정신적 어려움
청년11	남	30대초반	1인	인간관계 어려움, 외출 귀찮음, 학교/사회생활 무의미, 심리적/정신적 어려움
청년12	여	20대후반	1인	실직/취업 어려움, 학업 중단/진학 실패, 따돌림/괴롭힘 경험, 가족 갈등, 가정문제, 외출 귀찮음, 학교/사회생활 어려움, 심리적/정신적 어려움
청년13	여	20대후반	다인	학업 중단/진학 실패, 따돌림/괴롭힘 경험, 외출 귀찮음, 학교/사회생활 무의미, 심리적/정신적 어려움
청년14	남	30대초반	다인	인간관계 어려움, 학교/사회생활 무의미, 심리적/정신적 어려움
청년15	여	30대초반	1인	실직/취업 어려움, 인간관계 어려움, 가족 갈등, 외출 귀찮음, 학교/사회생활 무의미, 심리적/정신적 어려움
청년16	여	30대초반	1인	실직/취업 어려움, 인간관계 어려움, 가족 갈등, 가정문제, 심리적/정신적 어려움, 신체적 질병

[표 6-6] 응답자 특성 - (2) 고립·은둔 청년 가족

구 분	본인 성별	본인 연령	고립·은둔 청년과의 관계	고립·은둔 청년 성별 및 연령
가족1	여	60대	부모-자녀	남성, 30대
가족2	여	30대	형제자매	여성, 30대
가족3	여	20대	형제자매	남성, 30대
가족4	여	50대	부모-자녀	남성, 30대

[표 6-7] 응답자 특성 - (3) 고립·은둔 지원단체 활동가

구 분	성별
A기관 활동가1	여성
A기관 활동가2	여성
B기관 활동가3	남성
B기관 활동가4	여성
C기관 활동가5	남성
C기관 활동가6	여성

## 제2절 심층 조사 결과

### 1. 고립·은둔 청년 당사자

#### 1) 평소 일상생활

- 생활패턴은 고립·은둔 수준이 심각할수록 불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경향이 강하며, 깨어있는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잠을 자는 경우도 많음.

“보통 일어나서 휴대폰으로 SNS하다가 밥먹고 집안일이나 할 일 있으면 하고 그래요. 평소에 외출은 거의 잘 안하고 집에서 그냥 책을 읽고, 아니면 거의 잠을 많이 자요. 스트레스 회피성으로” (당사자, 여성, 30대)

“아마 인터뷰가 없었으면 그냥 계속 집에서 하루종일 멍 때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디 나가는 데는 없고요. ...(중략) 모든 게 다 흥미가 별로 없어지더라고요. 옛날에는 게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거나 그냥 가만히 시간 보내거나 그러는 것 같아요.” (당사자, 여성, 20대)

- 반면, 회복 및 극복 단계에 있는 고립·은둔 청년의 경우 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나 운동, 산책 등이 규칙적인 생활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편임.

“억지로라도 밖을 나가려고 헬스장 등록을 했어요.” (당사자, 여성, 20대)

“저는 요즘 A센터라는 곳을 다니고 있는데, 아침 프로그램이 있어서 평일에는 항상 9시에 일어나고 매일 출퇴근 하듯이 다니고 있어요. 센터 가서는 그곳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하는데 요즘은 대체로 센터로 나가서 하려고 되게 노력 중이에요.” (당사자, 여성, 20대)

- 식사는 주로 하루 2끼 정도 먹으며 간격이 불규칙한 편임. 1인가구는 혼자 간편식 또는 배달음식 위주로 시켜 먹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고립·은둔 수준이 심각할 때에는 무기력하고 음식을 먹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자주 건너뛰기도 함.

“저는 우울증, 무기력증이 너무 심하면 밥을 하루 종일 안 먹고 자주 건너뛰었어요. 한 2~3달 정도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루종일 밥 안 먹고 지냈는데 ...(중략) 제대로 뭔가 해먹을 의욕은 없고 귀차니즘에 빠져버려서 시리얼로 때우는 경우가 많아요.” (당사자, 여성, 30대)

“밥을 잘 챙겨 먹지 않고 대부분 한 끼는 그냥 시리얼 같은 것 먹고요. 너무 내가 뭔가를 할 행동력이 없다면 그냥 배달 음식 시킨 것 소분해서 먹고 그런 식으로 먹고 있어요.” (당사자, 여성, 30대)

“저는 배달 음식 거의 안 먹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좀 비싸서요. 돈이 없어요.” (당사자, 여성, 20대)

- 대부분 고립·은둔 상태에 있을 때는 수면 패턴이나 수면의 질이 좋지 않으며, 수면제, 신경안정제 등 약물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음. 규칙적인 수면을 위해 노력하나 고립·은둔 수준이 심각한 경우 정상과 비정상적인 수면 패턴을 왔다갔다 하기도 함.

“전에는 제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규칙적이지 못했어요. 약을 복용해야 잠을 잘 수 있었고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거의 뜬눈으로 밤을 샀고요. 신경안정제 먹고 버텼던 것 같아요.” (당사자, 남성, 20대)

“자고 일어나도 피곤해요. 제가 은둔을 하면서부터 갑자기 불면증이 심해졌어요. 그 이후로 계속 수면의 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런 걸 계속 신경 쓰고 불안감을 느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수면의 질을 높여 보려고 산책도 해보고 지원기관 나가서 운동도 하거든요. 그런데 별로 효과는 없어요. 오히려 몸이 힘들어서 잘 때 끔찍하고 그래서 더 못 자는 것 같아요.” (당사자, 여성, 30대)

- (주관적 건강 상태)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나쁜 편이라고 생각함. 기본적으로 우울감, 불안감이 높고,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앓았던 적이 있으며, 고립·은둔 수준이 심각한 경우에는 무기력증도 심한 편임.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우선 먹는 것부터 거의 몇 년째 제대로 안 챙겼고. (중략)... 간단한 산책도 안 하다 보니까 체중도 그때부터 차츰차츰 많이 늘었고 그리고 지금도 밖에 나가는 걸 안 좋아하고 집에서 홈트 같은 것도 아예 안 하고 하니까.” (당사자, 여성, 30대)

“은둔하기 전이랑 비교하면 몸 상태가 상당히 많이 나빠진 것 같아요. 근육도 많이 빠지고 몸의 균형이 다 깨졌고 그리고 염증 수치도 상당히 많이 올라서 일상에도 영향이 많고요.” (당사자, 여성, 20대)

## 2) 고립·은둔 상태

- 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가장 주로 하는 활동은 인터넷 서핑이나 유튜브, OTT 등 영상 시청. 이 밖에 게임, 독서, 잠 등 혼자 하는 활동을 선호함.
- 병원, 공공기관, 편의점 방문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하며, 친구나 지인 등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위한 외출은 거의 없음. 고립·은둔 수준이 심한 청년의 경우 우울증, 무기력증이 심해 장기간 전혀 외출을 하지 않고 지내기도 함.

“병원을 간다거나 생필품이 배송이 안 되고 꼭 집 앞 마트에서만 판다거나 그럴 때만 나가는 것 같아요.” (당사자, 여성, 30대)

- 대부분 어려움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족 외에 요청할 사람 없음. 그러나 가족에게도 금전적인 도움이나 급한 일을 부탁하는 등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도움 뿐이며,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거나 중요한 일에 조언을 구하는 등 정서적으로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없는 편임.

“(연락할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한테도 너무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친구들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것 같아서 안 하게 되고. (중략)... 가족들한테 갖고 있는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그냥 무조건 네 잘못이라고 넘겨버리시기 때문에 크게 실망하기도 했어요. 잘못을 저한테 덮어씌우는 그런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에 아예 얘기를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당사자, 여성, 20대)

“저는 거의 교류가 없고요. 고등학교 친구 딱 한 명 정도랑 가끔 한 번씩 대화하는 정도고 저는 전화번호부에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당사자, 남성, 20대)

- 고립·은둔 계기는 개인 성향이나 가정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가족 간 불화가 존재하는 가운데 고립·은둔 청년을 대하는 방식의 서투름이나 몰이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더해지는 편임.

“저는 가족 갈등 때문에 충격이 컸어요. 아버지랑 정말 크게 싸웠어요. 집에 있을 때 제 방문 닫고 있는 것도 되게 싫어하셨고, 제가 방에서 소리를 크게 내도 안 뵈거든요. 그리고 부르면 바로 나와야 했어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당사자, 여성, 20대)

“부모님이 되게 자주 싸우고 집안 분위기가 위태롭고 안정이 없었어요. 언제 소리칠지 모르는 상황. 그래서 그 문제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당사자, 여성, 30대)

“남에 비해서 일 배우는 속도가 느리고 실수도 많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도 서툴러서 직장 동료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 이후에 은둔 생활할 때, 저도 혼란스러운데, 가족은 왜 힘들어하는지 모르겠고 노력하면 좋아진다고, 공부, 운동 잘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말을 했고요.” (당사자, 남성, 30대)

- 이와 더불어 성장과정이나 사회진입 단계에서 겪은 따돌림, 부적응 등으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상처나 학업 실패, 취업 실패 등을 반복 경험하며, 가족을 포함하여 이러한 상황에서 의지할 사람이 없었다는 점이 주요한 계기로 보임.

“제가 취업을 한 네 번 정도 시도했다가 다 실패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취업했을 때만 해도 어떻게 내가 변해보겠다는 생각을 엄청 했었는데 그게 다 실패하고 나서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계속 고립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당사자, 여성, 20대)

“왕따 때문에 학교 다니기가 싫어서 학업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고 당연히 대입 실패로 이어졌고요. 저는 재수를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셔서 재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21살 때까지 1년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를 않았었어요.” (당사자, 남성, 30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더 이상 이렇게 있으면 안 되니까 뭔가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부모님께 얘기를 하면 그게 취미 생활 같은 걸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부모님께서 그런 걸 배워서 어디다가 쓰냐, 차라리 취직이나 해라라고 하시니까 좌절이 되는 거예요.” (당사자, 여성, 30대)

- 고립·은둔 청년들은 생활비를 최대한 안 쓰는 편이며, 가족의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모아둔 돈을 조금씩 쓰거나 단기 알바, 대출 등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편이었음.

“저희 고립 청년들의 특징이 뭐냐면 돈을 잘 안 써요. 열심히 모아놓고요. 진짜 최소한의 소비만 해요. 진짜 필요한 데만 쓰고요. 비싼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 절대 안 가고요.” (당사자, 남성, 30대)

“저는 대출, 카드 리볼빙... 다 그냥 빚인 거죠. 엄청 스트레스 받,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반... 그냥 버티고만 있어요.” (당사자, 여성, 30대)

“일단은 필요할 때 (부모님께) 요청하는 편이고 현재 쓰고 있는 돈은 제가 이전부터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걸 쓰고 있긴 했었는데 지금은 한계가 와서 이제 슬슬 부모님한테 조금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당사자, 여성, 20대)

### 3) 지원 방향

- 정책적 지원 수요가 있는 분야는 ‘경제적 지원’, ‘심리 상담’, ‘일자리 지원’ > ‘취미, 운동 등 활동 지원’ > ‘자조 모임’ 등의 순이었음.

#### [경제적 지원]

- 고립·은둔 생활을 극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 차원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 단,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나태함을 불러 고립·은둔 생활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오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생활비가 제일 고민이죠. 돈이 떨어지면 뭐라도 해야 되니까 제일 고민이고요. 그런데 걱정인 게, 돈이 떨어지면 취업을 나가야 되는데 제가 취업을 해보긴 했는데 1년 넘게 다닌 적이 거의 없어요.” (당사자, 여성, 30대)

“솔직히 서울이 취업이나 알바나 무지 싸세잖아요. 그 사이에서 일반인도 힘든데 정신이 아픈 사람은 더 하죠. 애초에 기준치가 높은데 저희는 더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취업이나 알바를 구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 완화를 위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사자, 여성, 20대)

“저는 (지원센터) 코치님들도 한 2년 정도 프로그램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매일 월세가 나가잖아요. 매달 월세를 내면서 2년간 다니려면 어디선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저도 경제적인 지원이 진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사자, 여성, 30대)

- 지원 방식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분야를 제한하여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거나, 주거, 식비, 교통비 등 의식주와 관련된 분야에서 지출 기준을 넘길 시 금액을 환급해주는

등 대안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무작정 돈을 주는 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고 프로그램을 정해서 몇 회나 아니면 어느 기간 동안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당사자, 남성, 30대)

“한도 금액을 정해놓고 영수증 바우처처럼 했으면 좋겠고 병원이나 상담을 1년 이상 다닌 사람이라면 병원 확인증을 받아서 얼마 더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차등을 주면서 지원해 줘도 좋을 것 같아요.” (당사자, 여성, 30대)

## [심리 상담]

- 심리 상담 자체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는 경우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과거 상담 경험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경우는 효과나 지원 방법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편임.
- 전문 상담기관은 비용 부담이 크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상담 횟수가 너무 적은 한계가 있음. 단기적인 상담은 별 효과가 없다고 느끼고 있어 장기적인 심리 상담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속적 관리 및 모니터링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음.

“상담 비용이 비싸서 지원해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막상 가면 그냥 대화하는 수준이에요. (중략)... 그래서 딱히 이걸 해서 내가 나아졌다는 그런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 (중략)... 사후 모니터링같은 건 전혀 없었고 딱 4회하고 끝났어요. (중략)... 그 상담이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이 비용내고 받는 것보다는 조금 그런 게(전문성 부족)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로 (상태가 안 좋아서) 급하게 필요한 사람이라면 지원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저는 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사자, 남성, 30대)

## [일자리 지원]

- 궁극적으로 고립·은둔 청년이 앞으로 자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경제적 지원보다도 일자리 제공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함 (주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 그러나 돈을 버는 것보다는 우선 일자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서울시의 꾸준한 모니터링이 수반된 공공근로, 일반기업과 연계한 저난이도의 일자리, 단기 계약직 등의 기회가 주어지길 기대하고 있음.

“돈으로 주는 것보다 차라리 저는 일자리가 제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중략)... 고립 청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생산직 같은 힘든 일 말고 비교적 쉬우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제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중략)... 단기 계약직도 좋아요. 기간은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습관을 바꾸려면 보통 3개월 이상 시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당사자, 남성, 30대)

“은둔을 오래 할수록 사회로 돌아갔을 때 받아주는 회사들이 많이 없어요. 만약에 운 좋게 받아주는 회사가 있어도 계약직으로 3개월 쓰고 잘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근데 경력이 되려면 최소 2년 정도는 하는 게 좋으니까 회사가 은둔 청년 한 사람을 채용하면 그 채용한 사람의 월급을 한 30% 지원을 해주면서 한 2년 동안은 못 자르게끔 그렇게 회사랑 연계를 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당사자, 여성, 30대)

“(일자리 체험 프로그램나 일자리 멘토 등)은 지금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커리큘럼을 보면 다 똑같은 실질적으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저도 이것저것 받아보긴 했는데 그냥 그걸 하는 업체나 기관에서도 그냥 보여주기로 하는 것 같아요.” (당사자, 남성, 20대)

- 또한 일자리를 연계할 때도 일반 청년들과 다른 부분을 이해하고 고립·은둔 청년이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생각함.

“무작정 아무나 일자리에 쫓겨 넣어주려고 하는 건 저희같은 사람들한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일하고 싶은 흥미도 아직 없는 사람들,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일을 주기 전에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연계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략)... 그리고 일을 주고 나서도 지속 관찰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자리에 보냈으니까 일 잘할 거지?' 이라고 딱 종료를 해버리면 (안될 것 같아요)” (당사자, 남성, 30대)

### [취미, 운동 등 활동 지원]

- 고립·은둔 청년이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므로 좋은 지원이라고 생각함. 다만, 이러한 지원 사업이 있어도 지원 대상이 소수라 신청하기 어렵고, 개인마다 요구하는 활동의 종류가 너무 다양할 수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제공방식이 효과적일지는 미지수임

“어떻게든 집 밖으로 나와서 취미나 운동과 같이 사회 활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돈을 쥐버리면 그 돈으로 뭘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차라리 연계되어 있는 체육시설과 매칭을 해서 다니게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당사자, 남성, 20대)

### [자조모임 및 가족교육 및 상담]

- 비슷한 사람들과 공감대 형성, 서로 간 고립·은둔 상황 극복을 위한 경험을 나누는 등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함.

“거기에서 저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같이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만남도 하고 프로그램도 참여하면서 이 일이 나만의 일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같이 소통도 하면서 자신감도 얻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당사자, 남성, 30대)

- 가족 교육과 상담으로 가족이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음.

“사람은 쉽게 변하진 않더라고요. 이해를 해도 본질과 성격이 본질은 변하진 않아요.” (당사자, 여성, 20대)  
 “저희 부모님은 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관심 있게 신경 써주시지 않으실 것 같아서 아마 말씀드려도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당사자, 남성, 30대)

### [기타]

- 사회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립·은둔 지원센터와 같은 기관들이 더 많아지고, 예산 지원도 더 늘어나서 프로그램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나길 바라고 있음.

“OOO센터는 사회 적응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1단계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치유를 하게 되면 2단계 프로그램에서 사회에 실제로 나가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사자, 남성, 30대)  
 “(센터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상주하고 계시는 코치님이 세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세 분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케어하기는 어렵고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략)... 사람이 많아지니까 공간이 너무 좁아서 서 있는 분들도 계세요.” (당사자, 여성, 30대)

## 2. 고립·은둔 청년 가족

### 1) 고립·은둔 청년 가족의 일상생활

- (식생활) 가족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식사와 생활은 가족(주로 모친)이 챙겨주고 있으나 무기력이 심하거나 생활 패턴이 불규칙한 경우 청년 혼자 챙겨먹는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식사를 같이 하면서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음.

“11시에 일어나서 잠깐 밥 먹고 또 들어가서 유튜브 같은 이런 거나 계속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밖에 잘 나오지도 않는 것 같아요. 간식 먹으라 해도 잘 안 나와요. 자기가 새벽에 잠깐 편의점 가서 간식 사 놓고 자기 방에 두고 먹고 그러지. 엄마가 과일 깎아준다고 나와서 먹으라고 해도 잘 안 먹어요.” (부모, 50대)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결국 싸움이 되고 이러니까 막 그렇게 질적인 대화가 오가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아주 기본적인 대화만 해요.” (형제자매, 30대)

- (위생상태) 청소 또한 아주 심할 경우 가족이 도와주고 있으나 청소에 관여하거나 지적하는 것이 가정 내 불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 가족들도 포기한 경우가 많음.

“(방이) 더러워도 엄마가 그냥 두기는 해요. 엄마는 하도 말이 안 통한다 싶으니까... 뒹고 청소기 돌리고 이 정도는 놔두는 것 같은데 정리 싹 해버리고 이런 건 싫어하는 것 같아요.” (형제자매, 20대)

“방도 엄청 지저분하고 먹은 것도 그냥 쌓아놓고요. 그런 것 때문에 트러블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잘 씻으려고도 안 하고 필요성도 못 느끼는 것 같고 그래요 ... (중략) 엄마가 거의 (청소를) 하시는데 사실 그 방을 선부르게 건드렸다가는 또 그래서 그냥 정리를 해준다기보다 정말 치워야 될 것만 치우는 정도예요. (형제자매, 30대)

### 2) 고립·은둔 청년 가족의 고립·은둔 계기

- 가족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나 원망 또는 가정 내 불화와 사회 진입 시기에 겪은 부정적 경험 및 실패가 겹치면서 고립·은둔 상태에 처한 것으로 봄.

“부모님의 의도치 않았던 습관들, 내림들, 부정적인 언어들 이런 것에 의해서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예요. ... (중략) 대부분 은둔 경험들은 20대 초반, 19살 이때부터인 거예요. 대학 진학을 했는데 적응을 못하거나 자기의 이상과 자기의 현실 사이의 갭이 너무 큰 거죠.” (부모, 60대)

“부모 탓이라는 화가 올라와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한 것과 더불어 가정불화 이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다 가정불화에서 오는 인간관계 어려움, 정서단절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부모, 50대)

“부모님께서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니고 잘했는데 친구들은 기숙학원도 보내주고 과외도 붙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마찰이 제일 많았어요.” (형제자매, 30대)

- 이와 더불어 경쟁이 심한 한국 사회의 분위기, 성장기에 학교에서 겪은 부정적 경험, 코로나19 시국, 청년 본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도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봄.



“우리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있어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부정적인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략) 초등학교 6년 동안 부정적인 경험을 한 선생님이 3명이나 돼요. 스무 살이 넘어 군대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좌절의 경험이 쌓이면서 그게 암적인 덩어리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부모, 60대)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와 맞물리면서 취업을 진짜 여러 번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신감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권고사직도 당했으니까요. 회사가 망한 건 회사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권고사직은 솔직히 내가 못해서 잘렸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도 취업을 계속 실패했기 때문에... 원래 자존감이 그렇게 높은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자신감이 아예 없어진 것 같아요.” (형제자매, 20대)

- 이렇듯 고립·은둔은 한두 가지의 부정적 경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사회 진출 시도에서 동일한 부정적 경험을 겪은 경우 고립·은둔의 정도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존재함.

“열등감이 예전부터 있는 편이었어요. 남들은 커리어를 쌓아가는 시기에 놀다가 사회에 나가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르바이트밖에 없잖아요. 아르바이트하다가 남들의 하대를 받으면 나라는 인간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재네들은 저렇게 예쁘게 꾸미고 날씬하고 남자친구들과 커피숍에 오는데 나는 지금 뭐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집으로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사회에 나갔다 오면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어요.” (형제자매, 30대)

“점점 자기가 고른 회사마다 뭔가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심지어 그 뒤로는 취업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뒤로는 아예 말도 거의 없어지고 달라진 것 같아요.” (형제자매, 20대)

### 3) 고립·은둔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 및 느끼는 감정

- 처음에는 고립·은둔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부모는 고립·은둔 청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청년의 상황에 공감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갈등 상황에 놓이고 다시 단절 또는 대면을 회피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편이었음.

“고립·은둔이라고는 생각 못 해봤기 때문에 그냥 애가 공부하기 싫어하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걸 보면 마음이 답답해요.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나도 힘들게 살았는데 너까지... 약간 그런 마음이에요.” (부모, 50대)

“아빠가 같이 가족 여행을 가자고도 했었어요. 근데 귀찮다고 안 간다고 했어요. 가족 여행인데 그래도 가면 좋지 않냐고 설득을 계속했는데 나중에는 짜증내고 화를 내버리니까 엄마, 아빠도 싸우기가 싫어서 권유 같은 걸 못 해보는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어디 나가봐라, 어디 뭐 해봐라 이런 말을 이제는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형제자매, 20대)

- 고립·은둔 청년의 가족들은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방법을 모른다는 답답함과 관계 단절 및 청년의 언어와 행동으로 인한 좌절, 분노, 피곤함 등을 느끼고 있음.

“엄마는 ‘나도 자수성가 했어.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안 되니?’ …(중략) 부모는 무조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부모, 60대)

“처음에는 오빠 눈치를 오히려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뒀어요. 근데 이게 6개월, 1년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답답함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 저렇게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어떻게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답답한데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아시죠? 뭔가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잘못될까봐 함부로 엄마, 아빠도 터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형제자매, 20대)

- 형제자매는 부모에 비해 같은 청년으로서 상대적으로 고립·은둔 청년을 이해하는 편이나 고립·은둔 상태가 장기화되면 이해보다는 원망, 안타까움의 감정이 더 많아졌으며

부모로부터의 기대나 경제적 부담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또한 느끼고 있었음.

“솔직히 초반에는 안타깝기도 하고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서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도가 한 3~4점 정도예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해가 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월 같이 하자고 해도) 자주 거부하다 보니까 저도 무안해서 점점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형제자매, 20대)

- 가족들은 고립·은둔 청년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주위 사람에게 존재 자체를 숨기는 경우도 있었음. 또한 고립·은둔 청년은 가족들이 눈치봐야 하는 불편한 존재이고, 이로 인해 가족/가정의 화목함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원망의 감정을 느끼기도 했었음.

“좋은 일도 아니고 오빠가 계속 집 안에 있다 보니까 솔직히 엄마, 아빠도 말은 안 하지만 조금 오빠를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중략) 엄마가 친구들이랑 전화하는 것 들어보면 오빠의 근황을 물을 때 조금 당황하는 게 보여요.” (형제자매, 20대)

“예전엔 (집이)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빠를 제외하고 엄마, 아빠, 제가 오빠의 눈치를 계속 보고 있어요. …(중략) 그렇다 보니까 오빠는 방에 혼자 있는데 우리끼리 밥 먹다가 조금 웃으면 갑자기 웃다가 눈치가 보여요. 그래서 집에서 밝음이 전체적으로 죽은 것 같아요.” (형제자매, 20대)

“일단은 집이 편안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집에 들어오면 언제나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 마음 한 구석이 답답하죠. 그렇게 항상 지저분한 방과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집이 편안한 곳이라는 느낌을 못 받게 된 것 같아요.” (형제자매, 30대)

- 고립·은둔 청년으로 인한 부담을 느끼는 것은 부모와 형제자매 모두 마찬가지였으나, 부모의 경우 퇴직 후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심리적(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경제적인 걱정이 많았고 형제자매는 경제적인 걱정과 더불어 부모에게 본인까지 짐을 지워서는 안된다는 심적 부담감이 있었음.

“이제 곧 퇴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애가 알바도 안 한다 하고 다 못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대학도 안 갔는데 다 안 한다 하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하면 뭘 해야 할까... 심리적으로 늘 뭔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원망과 비난을 하니까 제가 심적으로 많이 피로해요.” (부모, 50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건 아닌데 제가 짊어져야 할 것들이 많아졌죠. 저는 행실을 똑바로 해야 되고 부모님한테 실망을 시켜드리면 안 되고 저는 바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부모님께 상의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들은 있는 것 같아요 …(중략)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 부모님과 언니의 마찰같은 것도 걱정이 되고요. 아무래도 자유롭지 않죠. 꼭 집에 아기가 있는 기분이에요.” (형제자매, 30대)

- 청년이 고립·은둔 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상태를 개선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가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음. 또한 지원기관을 찾더라도 해당 기관에서 모두 해결해줄 거라는 오해와 무지가 존재함.

“어디에서 정보를 얻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정보가 너무 없다. 그리고 지금도 부모님이 어느 기관에 우리 아이만 데리고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부모, 60대)

- 심리상담을 하더라도 상담 과정에서 부모가 상처를 받거나 오히려 죄책감이 커지기도 하며, 상담 몇 번으로 큰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있음.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 그대로 외면이나 방치하게 됨.

“제가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하는 말씀을 적용하기는 힘들어요. 남편하고 잘 지내라고 하는데 솔직히 남편하고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비현실적이고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이론에 그치는 말씀만 장황하게 한 말씀 또 하시고, 여기 가도 그 말씀하시고, 저기 가도 그 말씀하시고 하나도 도움 안 됐어요. …(중략) 제가 참여하면서 느끼기엔 그분들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분들조차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아요.” (부모, 50대)

#### 4)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향

- 고립이나 은둔 관련 심리 상담가를 육성하고 기존 심리 상담 인력 대상의 재교육을 통해 심리상담의 전문성 및 효과를 제고해야 함.
- 청년 관련 여러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많지만 고립·은둔 청년이 아예 접근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으니 고립·은둔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함.

“실제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심리상담가나 전문가가 별로 없잖아요.” (부모, 60대)

“아이, 장애인,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많은데 언니 같은 케이스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거의 없더라고요. …(중략)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활동 인구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형제자매, 30대)

- 영세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상담센터에서도 은둔형 외톨이를 잘 모른 채로 조금씩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도 그런 센터가 있고 여러 가지 시범 케이스로 하고는 있어요. 이게 통합적인 시스템이 돼야 하는거죠.” (부모, 60대)

- 경제적 지원보다는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이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내고 조금의 노력이라도 있으면 그 참여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방식의 지원이 적합함.

“솔직히 (경제적 지원)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에 의존해서는 진짜 무한정이거든요. 정말 무한정이예요. 돈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건 안 돼요. …(중략) 본인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지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모, 50대)

- 심리 상담의 경우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집단 상담보다는 1:1 또는 비대면 상담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취업 연계 서비스나 심리 상담할 때 은둔하는 사람을 자주 나와서 상담하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중략) 일단은 비대면 심리 상담이 주가 되어야 그분들이 내가 뭔가를 해봐야겠다는 의지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자기 상황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형제자매, 20대)

- 고립·은둔 청년 가족의 경우 정서 단절이나 가정불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족 여행 지원, 가족 힐링 캠프와 같은 가족 화합 프로그램이나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생활 바우처 등의 지원이 있으면 좋겠음.

“가정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서 단절이라든지 가정불화 이런 걸 기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중략) 가족끼리 좋은 추억이나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 50대)

“언니랑 밖에서 시간을 보낼 때 쓸 수 있는 바우처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문화생활을 한다거나 이럴 때 언니가 동행하면 그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게끔.” (형제자매, 30대)

### 3. 고립·은둔 지원단체 활동가

#### 1) 고립·은둔 개념 및 관계

- 고립과 은둔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둔이 고립의 하나의 유형 또는 고립이 심화된 것으로 봐야 함.
- 고립과 은둔을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고립은 긍정적이고 은둔은 부정적인가 등의 단어 논란도 크게 중요하지 않음. 왜냐하면 고립과 은둔은 명확히 나눌 수 없으며 시기와 상황에 따라 매번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임.
- 장기 은둔도 5년이면 5년 내내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3개월, 6개월 등의 짧은 은둔들이 반복되어 누적되는 것임.

“현장에서는 사실 더 심한 걸 은둔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 역시도 그냥 청년의 고립으로 보고 있어요. 청년의 고립 안에 은둔이라는 스펙트럼이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C기관 활동가)

#### 2) 고립·은둔 판단 기준

- 고립·은둔의 유형이나 정도를 파악하는 기준
  - 심리적: 생활 에너지, 극복 의지
  - 물리적: 행동반경, 물리적인 은둔 기간
  - 환경적: 자발적 vs. 외부환경/타의, 가족과의 관계, 친구 관계, 지역사회 인적 자원 등
  - 경제적: 생계 유지 상태, 가장여부 등
- \* 오직 정신적인 문제만 있는 경우는 사례 회의 등을 통해 제외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이 상황에 빠져든 자발적인 은둔인가 아니면 외부 환경이나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은둔이나 고립으로 내몰렸는가를 좀 더 많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센터에 오고 싶어 하는가, 현재 은둔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봐요.” (A기관 활동가)

- “경제활동 여부”는 고립된 상태임에도 경제활동을 포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되기 어려우며, 고립과 은둔은 극복 후에도 금방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간”도 판단 기준이 되기 어려움.

“경제활동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인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본인이 은둔인지 아닌지 확실히 장담을 못하면서도 일단 도움이 필요해서 신청을 했는데 경제활동을 멈출 수 없는 현실적인 가장인 상태인 것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저희가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싶어도 출근하는 시간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A기관 활동가)

“저도 현장에서 청년들 많이 만나면서 3년, 5년 이렇게 고립 생활을 했던 청년들도 있었지만 사회에 나갔음에도 장기간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고 금방 이탈되기를 반복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히려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립청년을 나누고 평가하는 기준이 기간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건 조금의 오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취업을 해서 종결을 했던 청년이 있는데 몇 개월 뒤에 조직 적응이 어려워 다시 유입된 청년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례를 보면 기간이 중요하지만 오롯이 그 하나의 기준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B기관 활동가)

### 3) 고립·은둔 청년의 자발성 여부

- 청년들이 대면 교류나 사회생활에서 거부당한 경험들이 쌓여 은둔을 선택하는 경우를 자발적인 고립이라고 보는 것 같음.
- 그러나 자발적인 고립·은둔은 존재할 수 없으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비자발적인 고립과 극복의 반복 또는 지지의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고립이나 은둔을 “선택”하게 된 경우가 많음.
- 고립·은둔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그 상태에서 꺼내줘야 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자발성이 지원 여부의 기준이 될 수는 없음.

“저는 자발적 은둔이 있나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기질이 그렇기 때문에 은둔을 하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 않다고 보이더라고요. 청년들을 만났을 때 그들도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회에 나가서 살고자 되게 애를 썼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았고 거절당하고 거기에서 계속 거부당하는 경험들이 쌓여서 은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A기관 활동가)

### 4) 타 지역 출신 여부와 고립·은둔의 관계

- 고립과 은둔은 가족이나 사회적 지지망의 부재로 인한 경우가 많음.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 출신인 경우 그 부재가 더욱 크기 때문에 고립·은둔이 되기도 쉽고 회복도 더디고 오래 걸림.
- 타 지역 출신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하며, 지원 정책의 존재조차 모르는 성향이 더 심한 편임.
- 모두 그렇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수면, 청결, 식사 등 일상생활 관리가 어려운 편임.

“저희는 가정이나 인간관계에서 지지자가 있냐 없냐를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은둔이라는 형태는 차이가 없는데 은둔까지 오게 되는 과정에서 차이가 크고 그것 때문에 본인의 생활 관리나 아니면 정서적인 부분의 회복 속도나 이런 거에도 큰 차이를 보인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중략)... 그런데 시골에서 혼자 올라왔거나 지지할 사람이 없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돌아갈 곳이 없는 청년들은 은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회복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죠.” (A기관 활동가)

### 5)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향

#### [지원 기간 및 우선순위]

- 고립·은둔의 특성상 단기적인 지원 프로그램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최소 3년)이 필요함. 20~30년 고착화된 삶을 단기간의 프로그램으로 바꾼다는 것이 어불성설임. 또한 고립·은둔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지원 프로그램의 종료로 인한 사회적 단절을 겪게 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사후 관리 또는 모니터링이 필수적임.

“청년사업 같은 경우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케이스마다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원사업이 단기적으로만 진행해야 구조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관찰이되다가 또 꺼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프로그램을 하면서 계속 자극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중단되니까요. (사업 종결 후) 다시 사업 시작해서 연락해 보면 또 처음 상태와 똑같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중략)... 마지막 회기 청년들은 1년 사업이라도 사후 기간에 대한 개입이 어려우니까 되돌아 가는 시점도 빠르고 청년이 연락할 고리들을 잃어버리니까 그 청년들 입장에서는 관계를 또 하나 잃는 것과 마찬가지죠.” (B기관 활동가)

- 지원의 우선순위는 발굴 자체가 힘들고 개입도 하기 어려운 장기 은둔 청년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벗어날 의지가 높고 고립·은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청년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롤 모델이 많아져야 사회적으로 이런 상황에 처하면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발굴도 쉬워질 것임. 그러나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욕구는 동일하므로 자원을 골고루 배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은둔의 기간이 너무 긴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기도는 어느 정도 개입이 용이한 2~3년차까지라든가 조금 경미한 사례를 많이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C기관 활동가)

## [경제적 지원]

- 고립·은둔 청년들이 현재 의식주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이 1순위였을 것임. 경제적 지원이란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에 청년 본인이 직접 뛰어들지 않아도 생계가 유지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임.
- 아무리 좋은 지원 정책이 있어도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면 정책 참여를 통한 극복 의지는 약해질 수밖에 없으며, 지원 정책을 신청하고 참여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을 수밖에 없음.
  - 현금성 지원이 아닌 식비 카드 제공(1회 한도 有), 배달앱쿠폰 지원, 편의점 바우처 제공, 교통비 지원카드, 건강검진 지원 등의 형태

“일단 경제적 지원이라고 봤을 때는 사실 돈이 딱 생각나는 단어잖아요. 근데 경제적 지원을 조금 더 보면 의식주거든요. (중략)... 식사 자체를 챙길 수가 없는 환경에 놓인 청년이 너무나 많았어요. 감자 한 박스 사서 매일매일 찌르는 청년도 있고 라면 한 박스 사서 반 개씩 끓여서 먹는 청년도 있었어요. (중략)... 꼭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의식주 관련한 부분들을 조금 더 채워줄 수 있는 정책들이 있다고 하면,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B기관 활동가)

- 공동숙소/기숙사 제공, 센터 등 방문 시 의식주 제공, 월세지원 등
- 오남용을 막기 위해 돈이 아닌 서비스 형태로 제공

“공동 숙소라든가 센터에 들어와서 센터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에는 그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도록 의식주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지원이 경제적 지원의 총체적인 모습이지 한 달에 50만 원씩 주는 건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그냥 일회성 선심 이런 느낌이 더 강해요.” (A기관 활동가)

## [심리 상담]

- 청년 당사자가 현재 상황 및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자각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유도함.

### [일자리 지원]

- 고립·은둔 청년들은 궁극적으로는 자립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일 경험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며 극복에도 도움이 됨.
- 단순히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립·은둔 청년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멘토가 있는 기업/기관에서의 일 경험을 통해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직장, 나의 상황에 대해 배려받을 수 있는 직장의 경험이 필요

“청년재단에서 했던 사업 중에 일 경험처에도 멘토가 있고 그 외에도 멘토가 있어서 참여 기업들을 미리 선정해서 청년 대상자에 대한 이해도 시키고 소일거리라도 시키면서 그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부여하면서 단계적으로 성장시키는 형태의 경제 지원이 있었어요. (중략)... 본인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직장, 본인의 어떤 병리적인 부분 그런 걸 어느 정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 지원이 쌓여야 나중에 일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C기관 활동가)

### [자조모임 및 가족교육 및 상담]

- 고립·은둔 정도(에너지 정도) 구분 없이 모두 한 집단에서 모임을 가지도록 유도함. 처음에는 서로 낯설어하고 힘들어하지만 점차 서로를 지지하고 관계를 맺는 스킬을 습득해 가는 경험이 많았음.

“저희가 애초에 모든 유형을 한 집단에 넣었던 이유는 사회로 나아갔을 때 거기에는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유형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집단에서 그걸 먼저 습득하고 체득하고 연습하길 원했기 때문이에요. (중략)... 서로 경계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갖고 있나 하는 반응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이끌고 나갔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 속에서 배우는 것도 있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피드백을 저희가 받을 수 있었어요.” (B기관 활동가)

- 가족들에게 고립·은둔의 상황은 청년 혼자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 3자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넓히는 활동이 필요함. 이를 통해 고립·은둔 상태 방치로 인한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음.





# 07

## 결과 요약 및 제언

1. 결과 요약
2. 제언



## 제7장 결과 요약 및 제언

### 제1절 결과 요약

#### 1.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규모 추정 결과

##### 1) 고립·은둔 청년의 개념적 정의 수립

- 본 조사에서는 고립·은둔에 대한 다양한 선행 연구 및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고립과 은둔의 정의 및 구분기준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음.

[표 7-1] 고립·은둔의 정의

항목	내용
은둔	<p>다음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로 정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외출이 거의 없으며 본인의 방 또는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자로, 다음의 4가지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함.</li> <li>(2)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는 외출함.</li> <li>(3)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음.</li> <li>(4)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음.</li> </ol> </li> <li>• 위의 외출이 거의 없는 은둔 생활이 최소 6개월 이상 유지되어 왔음.</li> <li>• 지난 1주일간 경제활동이 없었고, 1개월 이내에 구직활동 및 학업을 전혀 하지 않았음.</li> </ul>
고립	<p>다음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로 정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 상태에 놓인 자로, 다음의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서적 고립: 아래 4가지 상황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li> <li>② 급한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li> <li>③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li> <li>④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li> </ol> </li> <li>(2) 물리적 고립: 아래의 가족·친척 외 사람들과 대면교류가 1년에 한 두 번 이하 또는 전혀 없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 교류</li> <li>② 이외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의 대면교류(업무 상 교류는 제외)</li> </ol> </li> </ol> </li> <li>• 위의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유지되어 왔음.</li> </ul>

##### 2) 규모 추정 과정

- 고립·은둔 청년의 규모 추정 조사는 표본 대표성을 위해 가구단위 표집으로 설계되었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각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해당 가구에 청년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가구 내 모든 만 19~39세 청년에 대해 고립·은둔 상태를 확인하였음. 가구 내 모든 청년을 조사했기 때문에 이를 개인 데이터로 간주하여 규모 추정 시 청년 개인단위로 전환하여 분석하였음.

- 총 5,221가구의 6,926명의 청년을 조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음.
- 조사된 청년 개인단위 기준의 데이터에 2021년 인구총조사 등록 센서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별\*연령\*25개 자치구별 사후가중치 적용하여 규모를 추정하였음.

### 3) 규모 추정 결과

- 서울시 거주 청년 중 고립·은둔 성향이 있는 청년의 규모를 추정한 결과, 약 4.5%가 고립 또는 은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립은 3.3%, 은둔은 1.2%였음. 조사된 데이터 6,926명 기준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1.18\%$ 였음.
- 이를 서울시 청년 인구에 적용하였을 때, 서울시의 고립·은둔 청년은 12만 6천 명~12만 9천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고립은 9만 3천 명~9만 6천 명, 은둔은 3만 3천 명~3만 3천 7백 명임.

[표 7-2] 고립·은둔 청년 규모 추정 결과

	비율	추산인원
고립·은둔 전체	4.5%	126,829명 ~ 129,852명
고립	3.3%	93,820명 ~ 96,056명
은둔	1.2%	33,009명 ~ 33,796명

## 2.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 1) 고립 정도 및 실태

#### [경제활동]

- 고립·은둔 청년의 46.0%는 지난 1주일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그 중 약 90%는 '일이 주어져도 할 수 없었거나 일을 구해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시 청년의 경우 지난 1주일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비율은 12.1%에 그쳐 큰 차이를 보였음.
- 고립·은둔 청년이 경제활동 및 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50.7%)',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47.9%)', '심리적 또는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40.4%)' 등의 순으로 무기력하고 타인과의 교류에 대한 부담 및 심리적 긴장감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여짐.
- 경제활동 및 취업활동과 더불어 학업활동까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의 34.6%는 그 기간이 5년 이상 장기화 되었으며, 그 중 10년 이상은 21.5%를 차지함.
- 고립·은둔 청년의 64.7%는 본인의 가구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며, 85.1%는

자신의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생활비는 주로 ‘본인이 모아둔 돈이나 벌고 있는 돈’으로 충당하나 서울시 청년 대비 ‘부모님’이나 ‘정부 또는 지원기관’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고립·은둔 성향]

- 고립·은둔 청년의 절반 정도(55.6%)는 외출이 적고 주로 집에서 생활하며, 이러한 은둔 생활을 ‘5년 이상’ 장기적으로 해온 비율은 28.5%였으며 ‘1~3년 미만’도 28.1%로 높았음.
- 과거에도 은둔 생활을 경험한 비율은 75.3%, 최초로 은둔 생활을 시작한 시기는 평균 24.4세였음.
- 고립·은둔 청년이 지난 2주간 교류한 사람의 수는 평균 2.7명, 교류한 횟수는 평균 3.5회였으며, 4명 중 1명은 교류한 사람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정서적 고립 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고립·은둔 청년 10명 중 4~5명은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외에는 주로 가족에게 의지하나 ‘낙심하거나 우울해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에는 가족에게조차 이야기하기 힘들어 함.
- 물리적 고립 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고립·은둔 청년 10명 중 7~8명은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과의 물리적인 교류가 ‘전혀 없거나 1년에 한 두 번’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음.
- 정서적 또는 물리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5년 이상’ 장기적으로 해온 비율은 41.2%였으며, 그 중 ‘10년 이상’이 21.3%를 차지했음.
- 과거에도 고립 생활을 경험한 비율은 62.8%, 최초로 고립 생활을 시작한 시기는 평균 23.0세였음.
- 고립·은둔 생활을 하게 된 계기는 ‘실직 또는 취업의 어려움(45.5%)’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심리적 또는 정신적 어려움(40.9%)’, ‘인간관계의 어려움(40.3%)’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온라인으로 교류하는 비율은 43.0%였고, 주로 하는 활동은 메신저,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의 순이었음.

### [우울·외로움 및 부정적 경험]

- 고립·은둔 청년의 대부분이 가벼운 수준 이상의 우울을 겪고 있으며, 그 중 39.3%는 ‘중증 수준의 우울’, 18.3%는 ‘심한 우울’에 속했음. 이는 서울시 청년 대비 각각 1.5배, 4배 정도 높은 수준임.
- 고립·은둔 청년의 약 70%는 나와 같이 있어 줄 사람도,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으며, 혼자 남겨진 것 같고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외로움 정도는 4점 만점 중 2.88점이었으며, 서울시 청년(2.24점) 대비 월등히 높았음.
- 성인기 이전의 부정적 경험에 대해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던 경험’이 6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험(57.8%)’, ‘학교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57.2%)’, ‘부모님이 나를 심하게 때리거나 꾸짖고 모욕했던 경험(51.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성인기 이후의 부정적 경험은 ‘내가 원했을 때 취업을 못했던 경험(64.6%)’, ‘내가 원했던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던 경험(60.7%)’, ‘가까웠던 사람과 헤어져야 했던 경험(57.4%)’, ‘내가 원했던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던 경험(52.1%)’ 등의 순이었음.

## 2) 생활 실태

### [평소 생활 습관]

- 고립·은둔 청년 10명 중 3~4명은 가족과의 친밀감이나 교류 빈도가 적고, 잠을 설치거나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는 등 수면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가족과의 친밀감과 교류 빈도를 묻는 항목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이 서울시 청년 대비 약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음.
- 평소 식사 횟수는 ‘하루에 2끼(56.8%)’, ‘하루에 3끼(23.7%)’, ‘하루에 1끼(13.0%)’ 등의 순이었으며, 서울시 청년 전체보다는 하루 식사 횟수가 적은 편이었음.
- 평소 식사 방식에 대해서는 고립·은둔 청년의 47.3%가 ‘혼자서 직접 차려 먹는다’고 응답하였고, 가족과 함께 먹는 비율은 21.4% 수준이었음. 서울시 청년보다 가족과 함께 먹는 비율은 낮고 혼자 차려먹거나 배달시켜 먹는 비율이 높았음.
- 청결 및 자기관리에 대해 매일 옷을 갈아입거나, 목욕/샤워를 하고, 방을 정리정돈하는 비율은 50% 미만으로 서울시 청년 대비 약 20%p 이상 낮았음.

### [주요 활동]

- 고립·은둔 청년의 주 활동 시간대는 ‘오후(39.6%)’, ‘밤(27.1%)’, ‘새벽(16.5%)’ 등의 순이었음.
- 주로 외출하는 시간대는 ‘오후(56.4%)’, ‘오전(51.8%)’, ‘밤(16.0%)’ 등의 순이었음.
- 집에서는 대체로 ‘인터넷(59.1%)’을 가장 많이 하고, 그 다음으로는 ‘게임(11.1%)’, ‘잠(10.5%)’, ‘TV시청(10.1%)’ 등의 순이었음.
- PC·모바일로는 ‘동영상 보기(70.7%)’, ‘인터넷 서핑(68.6%)’을 주로 하고 있었음.

### [건강 상태]

- 고립·은둔 청년의 43.2%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나쁘다’고 생각하며, 이는 서울시 청년의 약 3배 이상임.
- 정신건강 관련 약물을 복용하는 비율은 고립·은둔 청년이 18.5%로, 서울시 청년의 2배 이상이며, 약물 복용기간이 5년 이상으로 긴 경우가 51.1%로 높게 나타났음.

## 3) 지원정책 수요

- 고립·은둔 생활 극복 의향은 55.7%이며, 극복 의향이 있는 고립·은둔 청년 중 43.0%는 실제로 극복을 위해 무언가를 시도해봤다고 응답하였음.
- 구체적으로 시도해본 것으로 ‘취미활동(31.1%)’, ‘일이나 공부 시작(22.0%)’, ‘병원 진단 및 치료(15.4%)’, ‘심리상담(10.2%)’ 등이 있었음.

- 고립·은둔 생활 극복을 위해 무언가 시도해봤으나 여전히 고립·은둔 생활로 복귀한 청년들은 그 이유를 ‘별로 효과가 없었음(27.2%)’, ‘돈이나 시간 등이 부족했음(26.5%)’, ‘힘들고 지쳐서 계속할 수 없었음(20.6%)’ 등을 꼽았음.
- 고립·은둔 생활 극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은 ‘경제적 지원(57.2%)’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취미, 운동 등의 활동(44.7%)’, ‘일자리나 공부 기회(42.0%)’, ‘심리상담(36.8%)’, ‘병원 진단 및 치료(24.7%)’, ‘가까운 사람들의 이해와 지지(24.5%)’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고립·은둔 지원사업은 주로 온라인이나 본인의 집에서 받기보다는 ‘집에서 왕래할 수 있는 가까운 외부 시설’에서 받기를 원했음. 제공방식은 주로 ‘1:1로 혼자서’를 선호하나 ‘취미, 운동 등의 활동’,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과의 만남’, ‘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 ‘가까운 사람들의 이해와 지지’에 있어서는 비슷한 사람들이나 가족과 함께 받기를 원하는 비율도 높았음. 그리고 지원사업은 종류와 무관하게 모두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지원해주길 원했음.

### 3.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유형화 분석 결과

- 고립·은둔 청년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유형화 분석을 실시하였음.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들을 선정하여 군집분석(K-means clustering)을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에서 모집된 고립·은둔 청년을 다음의 4개 유형으로 분류하였음.

[표 7-3] 유형화 결과

유 형	사례수	비중
은둔형 고립군	n=105	21.6%
좌절형 고립군	n=110	22.6%
관계단절형 고립군	n=111	22.8%
의존형 고립군	n=160	32.9%

#### 1) 인구통계학적 특성

- 대부분의 유형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가운데, ‘관계단절형 고립군’은 유일하게 남성의 비율이 다른 유형 대비 높았으며, ‘은둔형 고립군’과 ‘의존형 고립군’은 20대, ‘좌절형 고립군’과 ‘관계단절형 고립군’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음.
- 1인가구는 ‘좌절형 고립군’에서 가장 많았으며, 절반 이상이 타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서울로 이주해온 것으로 나타났음. 같은 30대이지만 가족과 동거 비율이 높은 ‘관계단절형 고립군’ 또한 서울로 이주해온 비율이 높았음. ‘의존형 고립군’은 모든 유형 중 가족과 동거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최종학력의 경우 ‘의존형 고립군’은 대학 재·휴학이, ‘좌절형 고립군’은 대학 중퇴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관계단절형 고립군’은 모든 유형 중 대졸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은둔형 고립군’과 ‘좌절형 고립군’은 오피스텔/고시원에 거주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모든 유형에서 응답자 10명 중 4~5명은 지난주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은둔형 고립군’과 ‘좌절형 고립군’은 일이 주어졌으면 할 수 있었다는 응답이 다른 두 유형 대비 높게 나타나 경제활동에 대한 의지가 상대적으로 강했음.

[표 7-4] 고립·은둔 청년 유형별 응답자 특성

구분	은둔형 고립군	좌절형 고립군	관계단절형 고립군	의존형 고립군
성별	남성 41.9% <b>여성 58.1%</b>	남성 46.4% <b>여성 53.6%</b>	<b>남성 58.6%</b> 여성 41.4%	남성 41.9% <b>여성 58.1%</b>
연령	<b>평균 26.26세</b> 만 19~29세 90.5% 만 30~39세 9.5%	<b>평균 35.16세</b> 만 19~29세 8.2% 만 30~39세 91.8%	<b>평균 34.77세</b> 만 19~29세 7.2% 만 30~39세 92.8%	<b>평균 26.80세</b> 만 19~29세 87.5% 만 30~39세 12.5%
가구구성	1인가구 27.6% 다인가구 72.4%	<b>1인가구 36.4%</b> 다인가구 63.6%	1인가구 25.2% 다인가구 74.8%	1인가구 18.8% <b>다인가구 81.3%</b>
가족과 동거	69.5%	61.8%	73.9%	<b>78.1%</b>
타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	40.4%	<b>51.0%</b>	<b>53.1%</b>	45.9%
최종학력	고졸 이하 29.5% 대졸 50.5%	고졸 이하 22.7% <b>대학 중퇴 9.1%</b> 대졸 55.5%	고졸 이하 19.8% 대졸 70.3%	고졸 이하 26.9% <b>대학 재·휴학 14.4%</b> 대졸 48.1%
주거형태	다가구/연립/다세대 또는 아파트 70.9% <b>오피스텔/고시원 15.2%</b>	다가구/연립/다세대 또는 아파트 74.6% <b>오피스텔/고시원 12.7%</b> 단독주택 12.7%	다가구/연립/다세대 또는 아파트 90.0%	다가구/연립/다세대 또는 아파트 86.9%
가구의 사회경제적 수준	<b>최하</b>	<b>최하</b>	중	중~중상
개인의 경제적 수준	<b>매우 부족~약간 부족</b>	<b>매우 부족</b>	약간 부족	약간 부족~적정
지난주 경제활동 여부	일을 안했음 55.2% → 주어졌으면 할 수 있었음 16.7%	일을 안했음 45.5% → 주어졌으면 할 수 있었음 15.9%	일을 안했음 45.0% → 주어졌으면 할 수 있었음 8.3%	일을 안했음 53.8% → 주어졌으면 할 수 있었음 4.2%



## 2) 고립·은둔 성향 및 과거 경험

- 모든 유형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거의 집에서만 생활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은둔형 고립군’의 경우 ‘방 안에서만 생활하는 비율이 다른 유형의 2배가량 높았음. ‘관계단절형 고립군’과 ‘의존형 고립군’은 취미활동이나 편의점 등 방문을 위해 외출을 자주하며 같은 은둔 생활을 하지만 비교적 그 정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은둔 기간에 대해서는 ‘좌절형 고립군’이 ‘10년 이상’ 장기 은둔한 비율이 25.0%로 매우 높았으며, ‘의존형 고립군’은 대체로 ‘3년 미만’으로 해당 기간이 가장 짧은 유형이었음. ‘은둔형 고립군’과 ‘관계단절형 고립군’은 공통적으로 ‘1~3년 미만’과 ‘3~5년 미만’이 많았는데, 전자의 경우 연령대가 20대로 어리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성이 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음.
- 과거 은둔경험은 ‘은둔형 고립군’이 85.7%로 모든 유형 중 가장 높았고, 최초 시작 시기 또한 21.8세로 가장 어렸음. 이 외 유형들은 약 60~70%가 과거 경험이 있으며 시작 시기의 경우 ‘좌절형 고립군’과 ‘관계단절형 고립군’은 26~27세, ‘의존형 고립군’은 22세였음.
- 정서적, 물리적 고립 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좌절형 고립군’에서 2가지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정서적 고립이 54.5%로 다른 유형 대비 최소 15%p 이상 높았음. 한편, 은둔 성향이 강한 ‘은둔형 고립군’은 고립 정도 또한 높았고, 특히 ‘물리적 고립’이 ‘좌절형 고립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음.
- 과거 고립 경험은 ‘은둔형 고립군’과 ‘좌절형 고립군’이 70% 이상으로 높았고, 시작 시기는 각각 19.7세, 26.1세였음. 고립 정도와 과거 경험, 시작 시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은둔형 고립군’이 고립의 정도가 가장 빠르게 발현되며 심각도도 높은 것으로 보임. ‘관계단절형 고립군’과 ‘의존형 고립군’ 또한 과거 경험이 50% 내외 수준으로 낮은 편은 아니었음.
- 고립·은둔의 계기로, ‘은둔형 고립군’은 ‘심리적/정신적 어려움’, ‘인간관계 어려움’, ‘괴롭힘, 따돌림 등 타인과의 갈등’ 등을 꼽았고, 실제로 성인기 이전에 부모와의 갈등, 가족 구성원의 정서적 힘들 등 ‘가정 문제’와 ‘괴롭힘/따돌림’ 경험이 모든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나 청소년기에 가정 내외적으로 겪은 대인관계의 실패가 가장 치명적인 원인인 것으로 확인됨. 한편, ‘좌절형 고립군’의 경우 ‘실직/취업 실패’와 ‘심리적/정신적 어려움’을 계기로 꼽았으며, ‘은둔형 고립군’과 동일하게 성인기 이전의 부정적 경험이 있었고, 이와 더불어 성인기 이후에 ‘진학 및 취업실패’ 경험이 매우 높았음. 이 유형의 경우 청소년기의 문제도 있었지만 사회 진출 이행기에 겪은 좌절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석됨. ‘관계단절형 고립군’도 ‘실직/취업 실패’ 경험을 꼽았으나 그 외 눈에 띄는 계기는 없었고 성인기 전후 부정적 경험도 앞선 두 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낮았음. ‘의존형 고립군’의 경우 ‘학교/사회생활이 무의미’한 것이 계기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일이나 학업을 이어나가는 것에 대한 의미를 찾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임. 이와 더불어 성인기 이후 ‘취업/진로 문제로 압박/강요’도 있었음.

[표 7-5] 고립·은둔 청년 유형별 고립·은둔 성향 및 과거 경험

구분		은둔형 고립군	좌절형 고립군	관계단절형 고립군	의존형 고립군
은둔 행태	외출 수준	취미활동 외출 9.5% 편의점 등 외출 26.7% 집안에서만 생활 8.6% <b>방안에서만 생활 11.4%</b> → 은둔 생활 56.2%	취미활동 외출 8.2% 편의점 등 외출 <b>32.7%</b> 집안에서만 생활 8.2% 방안에서만 생활 5.5% → 은둔 생활 54.5%	취미활동 외출 <b>17.1%</b> 편의점 등 외출 <b>27.0%</b> 집안에서만 생활 3.6% 방안에서만 생활 6.3% → 은둔 생활 <b>54.1%</b>	취미활동 외출 <b>28.8%</b> 편의점 등 외출 <b>15.0%</b> 집안에서만 생활 7.5% 방안에서만 생활 5.6% → 은둔 생활 <b>56.9%</b>
	기간	1~3년 미만 23.7% 3~5년 미만 22.0%	<b>10년 이상 25.0%</b>	1~3년 미만 28.3% 3~5년 미만 18.3%	6개월~1년 미만 19.8% 1~3년 미만 36.3%
	과거 경험	<b>85.7%</b> 평균 21.76세 시작	77.3% 평균 27.59세 시작	63.1% 평균 26.94세 시작	75.6% 평균 22.75세 시작
고립 행태	고립 수준	정서적 고립 39.0% <b>물리적 고립 68.6%</b>	<b>정서적 고립 54.5%</b> <b>물리적 고립 69.1%</b>	정서적 고립 35.1% 물리적 고립 64.0%	정서적 고립 23.8% 물리적 고립 62.5%
	기간	7년 이상 32.6%	<b>10년 이상 31.6%</b>	1~3년 미만 36.0% 10년 이상 22.1%	6개월~3년 미만 47.4%
	과거 경험	77.1% 평균 19.72세 시작	73.6% 평균 26.06세 시작	49.5% 평균 25.86세 시작	55.0% 평균 21.43세 시작
고립·은둔 계기		심리적/정신적 어려움 인간관계 어려움 가정문제(불화, 갈등 등) 타인과의 갈등(따돌림, 괴롭힘) 학교/사회생활이 어렵고, 무의미함	실직/취업실패 경험 심리적/정신적 어려움 가정문제(불화, 갈등 등)	실직/취업실패 경험	집 밖으로 나가기 귀찮음 학교/사회생활이 어렵고, 무의미함
성인 기 이 전	부모의 심한 모욕/ 꾸짖음	<b>66.7%</b>	<b>67.3%</b>	39.6%	38.1%
	가족 구성원의 정서적 힘듦	<b>78.1%</b>	<b>70.0%</b>	47.7%	<u>56.3%</u>
	괴롭힘/ 따돌림 경험	<b>74.3%</b>	<b>63.6%</b>	41.4%	<u>52.5%</u>
성인 기 이 후	취업/ 진로압박 또는 강요	55.2%	58.2%	28.8%	<u>41.3%</u>
	원하는 학교 진학실패	56.2%	<b>65.5%</b>	42.3%	46.9%
	원하는 직장 취업실패	61.9%	<b>81.8%</b>	53.2%	50.6%

### 3) 평소 심리상태 및 생활 행태

- 우울과 외로움 수준을 살펴보면, 앞서 고립·은둔 성향이 가장 강했던 ‘은둔형 고립군’이 우울과 외로움 모두 가장 높아 ‘심각한 수준’으로 분류되었음. ‘좌절형 고립군’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우울과 외로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은둔형 고립군’보다는 우울이 조금 낮아 ‘중간수준의 우울’이었으나, 외로움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관계단절형 고립군’과 ‘의존형 고립군’은 공통적으로 ‘가벼운 수준의 우울’이 있었고 외로움도 비교적 높았으나 심각한 수준에는 미치지 않았음.
- 정신건강 약물은 ‘은둔형 고립군’이 가장 많이 복용하고 있으며 복용 비율은 41.9%였음. ‘좌절형 고립군’이 15.5%, ‘의존형 고립군’이 12.5%였고, ‘관계단절형 고립군’은 10% 미만이었음.
- 평소 생활 행태를 가족과의 친밀도, 가족과의 대화 빈도, 밤낮 바뀐 생활, 기상/수면 불규칙함, 불안정한 수면이라는 5가지 항목으로 질문한 결과, ‘은둔형 고립군’과 ‘좌절형 고립군’이 모든 항목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높게 나타났으나 그 양상에는 일부 차이가 있었음. ‘좌절형 고립군’은 가족과의 친밀도와 대화 빈도가 특히 낮았고, ‘은둔형 고립군’의 경우 ‘밤낮 바뀐 생활’을 하는 경향이 더 강했음. ‘관계단절형 고립군’과 ‘의존형 고립군’은 상대적으로 부정적 응답은 낮았으나 특징을 꼽자면 전자는 가족과의 관계가, 후자는 규칙적인 생활과 숙면에서 부정적인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음.
- 청결 및 자기관리 상태는 ‘은둔형 고립군’이 가장 좋지 않았으며, 주관적 건강 상태도 ‘나쁘다’는 응답이 60.0%로 높았음. ‘좌절형 고립군’은 이보다는 비교적 관리가 잘 이루어지나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나머지 두 유형은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건강 상태 또한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었음.

[표 7-6] 고립·은둔 청년 유형별 평소 심리상태 및 생활 행태

구분		은둔형 고립군	좌절형 고립군	관계단절형 고립군	의존형 고립군
우울 수준		19.95점 (심각)	18.82점 (중간~심각)	4.56점 (가벼운 수준)	6.93점 (가벼운 수준)
외로움 수준*		3.35점 (심각)	3.38점 (심각)	2.46점	2.52점
정신건강 약물복용		41.9%	15.5%	8.1%	12.5%
평 소 생 활 행 태	가족과 친밀도 낮음	44.8%	47.3%	27.9%	21.9%
	가족과 대화 없음	51.4%	53.6%	33.3%	29.4%
	밤낮 바뀐 생활함	50.5%	43.6%	27.9%	35.0%
	가상/수면 불규칙함	35.2%	34.5%	18.0%	24.4%
	잠을 설침	61.0%	62.7%	30.6%	36.3%
섭식 행태		대체로 하루 2~3끼, 1끼도 많은 편 혼자 배달음식으로 해결하는 경우 많음	대체로 하루 2~3끼, 1끼도 많은 편 혼자 해결함	대부분 하루 2~3끼 혼자 직접 만들어먹거나 가족과 함께 먹기도 함	대부분 하루 2~3끼 주로 가족과 함께 먹고, 혼자 차려먹기도 함
자기관리		청결, 위생, 정리정돈 등 자기관리가 가장 안되고 있음	대체로 어느 정도 관리하나 일부 잘 되지 않는 경우 존재	자기관리가 잘 이루어짐	자기관리가 잘 이루어짐
건강 상태 나쁨		60.0%	56.4%	29.7%	32.5%

\* 외로움 점수가 3.00점 이상일 경우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외로움 심각=서울시 청년의 평균점수+1표준편차)

#### 4) 고립·은둔 생활 극복의향 및 지원방안

- 고립·은둔 생활에 대한 극복 의향과 극복 시도 경험은 ‘은둔형 고립군’과 ‘좌절형 고립군’이 높았으나, 후자의 경우 전자와 달리 실제로 시도해본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변화를 위해 시도해본 것으로 ‘은둔형 고립군’은 ‘취미활동’과 ‘병원 진단 및 치료’를, ‘좌절형 고립군’은 ‘일/공부 시작’을 꼽아 차이를 보였음. 나머지 두 유형은 어떤 시도보다도 ‘취미활동’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음.
-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은둔형 고립군’은 특히 ‘심리상담’, ‘병원 진단 및 치료’, ‘주변인의 이해와 지지’ 등이 다른 유형 대비 높아 정서적, 심리적 회복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었음. 반면, ‘좌절형 고립군’은 ‘경제적 지원’, ‘일자리, 공부 기회’가 많았고 이와 더불어 ‘심리상담’, ‘병원 진단 및 치료’로 높게 나타났음. 이 유형의 경우 높은 연령대와 가족과의 낮은 친밀도, 정서적 고립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경제적 자립이 절실하나 주위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에너지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경제적 지원, 일자리 등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원하며, 이와 더불어 심리상담 등 정서적 회복도 필요로 함. ‘관계단절형 고립군’과 ‘의존형 고립군’은 공통적으로 ‘경제적 지원’ 또는 ‘취미, 운동 등의 활동’에 수요가 높는데, 후자의 경우 경제적 지원보다는 개인의 취미활동 지원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며 이는 가족과 함께 살며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7-7] 고립·은둔 청년 유형별 고립·은둔 생활 극복의향 및 지원방안

구분	은둔형 고립군	좌절형 고립군	관계단절형 고립군	의존형 고립군
변화 의지	71.2%	73.1%	43.6%	42.6%
변화 시도	59.4%	48.2%	34.2%	34.0%
변화를 위해 시도해본 것	취미활동 26.0% 병원 진단/치료 24.7% 지원기관 도움 13.0%	일/공부 시작 41.4% 취미활동 19.0% 병원 진단/치료 15.5%	취미활동 42.9% 일/공부 시작 23.8% 병원 진단/치료 11.9%	취미활동 39.0% 일/공부 시작 16.9% 심리 상담 11.7%
변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경제적 지원 58.1% 심리상담 51.4% 취미/운동 등 활동 42.9% 병원 진단/치료 40.0% 일자리/공부기회 39.0% 주변인의 이해/지지 32.4%	경제적 지원 71.8% 일자리/공부기회 50.0% 심리상담 43.6% 취미/운동 등 활동 38.2% 병원 진단/치료 34.5%	경제적 지원 60.4% 취미/운동 등 활동 41.4% 일자리/공부기회 33.3% 심리상담 24.3%	취미/운동 등 활동 52.5% 경제적 지원 44.4% 일자리/공부기회 44.4% 심리상담 31.3%

## 4.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심층조사 결과

### 1) 일상과 생활 패턴

- 회복 및 극복 단계에 있는 청년일수록 식사, 수면, 위생, 규칙적인 생활패턴 등 일상 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고립·은둔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식사를 거르거나 수면의 질이 낮고 약물에 의존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음. 가족과 함께 사는 청년은 식사나 청소 등에서 가족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가족이 청년의 생활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가정 내 불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음.
-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외출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였으며 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음. 인터넷 서핑이나 영상 시청, 게임, 독서, 잠 등 혼자 하는 활동을 선호하였음.
- 대부분의 고립·은둔 청년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우울증과 무기력증의 정도도 높은 편이었음.

### 2) 고립·은둔 경험

- 고립·은둔의 주된 계기는 가정 내 불화, 성장 과정·사회진입 단계에서의 부정적 경험, 청년 본인의 개인적 특질 등이었음. 또한 고립·은둔에 대한 가족의 몰이해로 인해 이차적인 가정 내 갈등이 벌어지면서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없게 된 청년의 사회적 단절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벌어짐.
- 고립과 은둔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며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상태로 이해해야 함.
- 고립·은둔 청년의 가족들은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 좌절이나 분노, 피로, 안타까움, 미래에 대한 부담 등의 부정적 감정을 느꼈으며, 고립·은둔 청년의 존재를 부끄럽게 생각하여 숨기거나 원망하는 경우도 있었음. 또한 이 상황을 개선하고 싶으나 방법이나 정보 등을 알지 못하는 답답함도 컸음.

### 3) 향후 지원 방안

- 고립·은둔의 특성상 단기적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며, 현재 단계에서는 우선 회복 의지가 높고 발걸이 쉬운 단기 고립·은둔 청년들을 중심으로 회복 성공 사례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한 고립·은둔 지원사업 프로그램 및 지원 기관의 확대 요구가 크게 나타났음.
- 고립·은둔 청년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 '심리 상담', '일자리 지원'에 대한 요구가 컸음. 특히 회복 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생계 유지 차원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크게 나타났으나, 오남용 등을 막기 위해 현금성 지원보다는 바우처 형태 혹은 직접적 의식주 제공 등의 방식을 선호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 고립·은둔 청년의 자각과 회복을 위해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으며, 보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상담 지원, 고립·은둔 문제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전문적 상담

인력, 가정 화합을 위한 가족 프로그램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

- 일자리 지원은 향후 청년의 궁극적인 자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당장의 소득보다는 꾸준히 직장생활에 익숙해지는 경험적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한 일이라도 기회를 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이 필요함.

## 제2절 제언

### 1. 사업성과 측정 방식의 변화 및 사업 기간 확대

- 고립·은둔의 양상은 다차원적인 스펙트럼의 형태로 개개인마다 매우 다원적이고 특수적이거나, 공통적으로 사회적 관계의 단절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음. 이는 단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며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임.
- 현재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기획·수행되고 있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이 짧고 수행 주체가 일정하지 않아 수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업 계획을 재수립해야 하는 실정임.
-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문제임에도 공공 영역의 지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취업, 일자리 등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사업성과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 사업의 본질이 흐려지거나 방향성에 혼란이 발생하기도 함.
- 고립·은둔 청년들을 지원하는 현장에서는 고립·은둔 청년이 에너지를 충분히 회복하고 활동하기까지 수년간의 연속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며, 고립·은둔 생활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 단, 이때 정책 수혜 기간이나 횟수 등을 제한하지 않으며, 이를 청년에게 제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자칫 제한된 시간 안에 고립·은둔 생활에서 회복해야 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지원사업 플랜은 발굴부터 도입기, 회복기, 사회 적응기까지 포괄하여 장기적, 단계적으로 기획하되, 완료 기간은 두지 않으며 지원 기간의 단위를 6개월~1년 단위로 짧게 제공하고 청년의 의지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원하는 기간만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종합하자면, 고립·은둔 청년 정책은 사회적인 관계 자본의 회복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취업률 등 정량적 성과지표는 지양해야 함. 그리고 회복은 연속적인 속성을 가지므로 ‘2개년 사업’과 같이 단발적, 기간 제한적 지원사업이 아닌 장기적, 단계적으로 구성하며, 6개월~1년 정도의 지원사업 제공 단위 기간을 설정하고 수혜 청년이 직접 사업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어야 함.

### 2. 고립·은둔 청년 특성별 맞춤형 지원책 마련 및 점진적 확대 적용

- 고립·은둔 청년은 개인적 특수성이 높은 정책 대상으로, 그 원인과 계기 그리고 청년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하고 세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 또한 정책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성 고려와 함께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사업수행에 있어 전략이 필요함. 고립·은둔의 심각성(기간)과 이를 구제하기 위한 투입 자원의 절대적인 양은 비례하므로, 비교적 심각성이 낮은 집단부터 선제적·예방적 대응책 마련하고, 이를 롤모델화 하여 점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예를 들어, 본 조사의 고립·은둔 청년 유형화 내용에 따르면 ‘은둔형 고립군’과 ‘좌절형



고립군'의 경우, 공통적으로 고립·은둔 수준이 심각하지만 일하려는 의지는 있기 때문에 심리적 회복과 일자리 기회가 모두 필요하나, 정서적 불안정 수준과 연령대, 가구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전자는 심리상담을 통한 에너지 회복을, 후자는 자립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지원 대상 맞춤형 정책의 실현은 많은 자원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가능한 것이지만 고립·은둔 청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향후 지원 정책의 방향성은 맞춤형 지원정책을 지향해야 함.

- 한편,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지원책 마련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이해와 면밀한 파악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실제로 고립·은둔 청년들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할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자신의 욕구나 필요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스스로가 그러한 상태라고 인지조차 하지 못하기도 함. 지원사업 시작 단계부터 상담과 관찰을 통한 청년에 대한 심층적인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

### 3. 거점기관 설정 및 포괄적 사회안전망 구축

- 고립·은둔은 경제적 빈곤, 정서적 지지, 취업 지원, 보건 의료, 가족 돌봄 등 여러 영역에 걸친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편적이고 분절된 지원 방식은 효과를 얻기 어려울 수 밖에 없음.
- 그러나 현행 지원사업은 시범 및 시작 단계이다 보니 체계화된 프로세스 및 종합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며, 한 개의 지원기관이 고립·은둔 청년 발굴에서부터 상담, 지원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사후 모니터링까지 모든 단계를 수행하고 있다 보니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청년 지원사업 진행 자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이에 공공기관, 복지관, 민간 협회 및 연대 등 관계 기관별 보유 자원 및 특수성을 고려한 전담 지원 분야를 구분하고 기관 간 네트워크 및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즉, 고립·은둔 지원을 위한 상담, 복지, 의료, 교육, 고용 등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포괄적이고 맞춤형 지원방식이 가능한 일종의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 단, 이러한 네트워크 체계 속에서도 고립·은둔 청년의 회복의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거점기관(고립·은둔청년 지원센터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파편화된 관리체계 속에서는 연속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 방문하는 기관마다 다른 진단, 처방을 내리거나 라포를 쌓고 소통할 수 있는 전담 담당자의 부재 등으로 고립·은둔 청년이 더 큰 혼란을 겪거나 상처를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사회안전망은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4. 고립·은둔 전문 인력 양성 필요

- 고립·은둔 청년이 고립·은둔을 극복 또는 회복하여 사회에 적응하기까지 다년간의 과정에는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찰 및 도움이 필요함.
- 그러나 국내에는 고립·은둔 전문 상담 인력이 부족하며, 고립·은둔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담사로부터 상담 과정에서 고립·은둔 청년 당사자와 가족들이 2차적으로 상처를 받기도 함.
- 본 실태조사와 심층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고립·은둔 청년들은 회복의 가장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심리상담에 대한 수요가 높는데, 전문 상담기관은 경제적 부담이 있으며, 정부 지원 상담

프로그램은 횟수가 적고 만족스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음.

- 고립·은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상담 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고립·은둔 청년의 회복 과정을 전담하여 관찰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5.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통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 확보

- 고립·은둔 청년 지원은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 확보가 필수적임.
-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은 사회적 비용 절감을 고려한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장기적으로는 국력의 중심이 될 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해야 함.
- 또한 고립·은둔의 시작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고립·은둔 상태가 오래될수록 외부의 개입이나 회복은 어려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어린 청년 시기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공감도 필요함.
- 무엇보다 고립과 은둔을 청년 개인의 나태함이나 정신병리학적인 현상으로 치부해왔던 인식에서 고립·은둔은 사회적 문제이며, 개인이나 가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공감대 필요함.
- 한편,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해야 한다는 메시지만 너무 강조되면 같은 청년 세대 내에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정책적 메시지 전달 시 해당 지원은 청년 세대 전반을 위한 지원정책 중 하나임을 설득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 부록



서울 청년 사회관계 실태조사 (가구용)	ID			

## SQ. 응답자 선정질문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1) 남성                      2) 여성

Programmer▶ Range: 1900~2022, 숫자만 기입 가능. (\*만나이=2022-출생년도), Quota Check

SQ2. 귀하의 **주민등록상**의 **출생년도**를 기입해 주십시오.

(                      )

Programmer▶ 1) '서울' 미응답시 조사 중단

SQ3.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시/도**를 선택해주세요.

- |        |        |        |        |        |
|--------|--------|--------|--------|--------|
|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4) 인천  | 5) 광주  |
| 6) 대전  | 7) 울산  | 8) 세종  | 9) 경기  | 10) 강원 |
| 11) 충북 | 12) 충남 | 13) 전북 | 14) 전남 | 15) 경북 |
| 16) 경남 | 17) 제주 |        |        |        |

SQ4.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구**는 어디입니까?

- |          |         |         |          |          |
|----------|---------|---------|----------|----------|
| 1) 강남구   | 2) 강동구  | 3) 강북구  | 4) 강서구   | 5) 관악구   |
| 6) 광진구   | 7) 구로구  | 8) 금천구  | 9) 노원구   | 10) 도봉구  |
| 11) 동대문구 | 12) 동작구 | 13) 마포구 | 14) 서대문구 | 15) 서초구  |
| 16) 성동구  | 17) 성북구 | 18) 송파구 | 19) 양천구  | 20) 영등포구 |
| 21) 용산구  | 22) 은평구 | 23) 종로구 | 24) 중구   | 25) 중랑구  |

SQ5. 귀하께서는 귀댁의 **가구주와 어떤 관계**에 속하십니까?

- 가구주 본인              2) 가구주 배우자              3) 가구원 ▶ 조사 중단

Programmer▶ Range: 1~30, SQ5=2 응답자는 SQ6에 1 입력 불가

SQ6. 귀하께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은 귀하를 포함하여 총 몇 명입니까? (              )명

Programmer▶ SQ6=1 응답 AND SQ2 응답값이 만 19~39세일 시 SQ7=1로 Autocoding 후 SKIP

Programmer▶ SQ2=1983~2003(청년) 응답 시, SQ6 응답값(가구원 수)보다 SQ7의 응답값(청년 가구원 수)은 같거나 작은 수만 입력 가능, SQ2<>1983~2003(비청년) 응답 시에는 SQ6보다 작은 수만 입력 가능

Programmer▶ SQ2에서 만 19~39세에 해당할 경우 '없음' 보기 선택 불가 및 1) '있음'에 0 입력 불가

SQ7. 귀하께서 **함께 거주하고 계신 가구원 중 본인**을 포함하여 **만 19~39세의 청년**이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만 19~39세 청년은 몇 명입니까?

- 1) 있음 (              )명 [Range: 1~9]                      2) 없음 ▶ 조사 완료

Programmer▶ SQ6=1 응답자는 SQ8=1)로 Autocoding 후 skip, SQ6=2 이상 응답자는 2)~6)번 보기만 제시  
 SQ8. 귀 닥의 **가구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1) 1인 가구
- 2) 1세대 가구(부부, 형제자매 등)
- 3) 2세대 가구(부부+자녀, 부부+부모, 조부모+손자녀 등)
- 4) 3세대 이상 가구(부부+자녀+부모, 부부+자녀+손자녀 등)
- 5) 비혈연 가구
- 6) 기타(기입:\_\_\_\_\_)

Programmer▶ SQ7번에서 응답한 청년 가구원 수만큼 표 제시

Programmer▶ SQ8=2)응답자는 2), 3), 보기 미제시 / SQ2에서 만 19~39세 아닐 경우 1) '본인' 보기 미제시

Programmer▶ SQ2에서 만 19~39세에 해당할 경우 '본인'보기 1개 필수 선택, 그 외의 경우 '본인' 보기 선택 불가

Programmer▶ (SQ8=1) AND SQ2 응답값이 만 19~39세인 응답자(청년 1인가구)는 1) 본인으로 Autocoding 후 SKIP

Programmer▶ SQ2에서 만 35세 미만(SQ2)1987) 응답한 경우, 2) 자녀 / 3) 손자녀 선택 불가

Programmer▶ SQ2에서 만 50세 미만(SQ2)1987) 응답한 경우, 3) 손자녀 선택 불가

SQ9. 귀하께서 함께 거주하고 계신 **만 19~39세 청년 가구원**은 **귀하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청년 가구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생일이 빠른 순서대로 모든 청년 가구원과의 관계를 응답해 주십시오.

	1) 본인	2) 자녀	3) 손자녀	4) 형제자매	5) 배우자	6) 기타 친인척	7) 비혈연 관계	8) 기타
첫 번째 청년 가구원	1	2	3	4	5	6	7	8
두 번째 청년 가구원	1	2	3	4	5	6	7	8
세 번째 청년 가구원	1	2	3	4	5	6	7	8
네 번째 청년 가구원	1	2	3	4	5	6	7	8
다섯 번째 청년 가구원	1	2	3	4	5	6	7	8
여섯 번째 청년 가구원	1	2	3	4	5	6	7	8
일곱 번째 청년 가구원	1	2	3	4	5	6	7	8
여덟 번째 청년 가구원	1	2	3	4	5	6	7	8
아홉 번째 청년 가구원	1	2	3	4	5	6	7	8

Programmer▶ SQ7번에서 응답한 청년 가구원 수만큼 표 제시

Programmer▶ (SQ8=1) AND SQ2=19~39세인 응답자(청년 1인가구)는 [SQ1 응답값]으로 Autocoding 후 SKIP

SQ10. 귀하께서 함께 거주하고 계신 **청년 가구원**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청년 가구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생일이 빠른 순서대로 모든 청년 가구원의 성별을 응답해 주십시오.

	남자	여자
첫 번째 청년 가구원	1	2
두 번째 청년 가구원	1	2
세 번째 청년 가구원	1	2
네 번째 청년 가구원	1	2
다섯 번째 청년 가구원	1	2
여섯 번째 청년 가구원	1	2
일곱 번째 청년 가구원	1	2
여덟 번째 청년 가구원	1	2
아홉 번째 청년 가구원	1	2

Programmer▶ SQ7번에서 응답한 청년 가구원 수만큼 표 제시, Range: 1983~2003

Programmer▶ (SQ8=1) AND SQ2=만 19~39세인 응답자(청년 1인가구)는 [SQ2번 응답값]으로 Autocoding 후 SKIP

SQ11. 귀하께서 함께 거주하고 계신 청년 가구원의 **출생년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청년 가구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생일이 빠른 순서대로 모든 청년 가구원의 출생년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출생년도
첫 번째 청년 가구원	
두 번째 청년 가구원	
세 번째 청년 가구원	
네 번째 청년 가구원	
다섯 번째 청년 가구원	
여섯 번째 청년 가구원	
일곱 번째 청년 가구원	
여덟 번째 청년 가구원	
아홉 번째 청년 가구원	

## Part A. 고립은둔 여부 확인

Programmer▶ PART A는 SQ7번의 청년가구원 수만큼 반복 질문

※ 지금부터 귀하의 00번째 만 19~39세 청년 가구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응답하시는 분이 청년 당사자가 아닌 경우, 질문의 대상인 **청년가구원의 상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추측**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A1. 귀하의 청년 가구원은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 (돈을 받지 않고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 한 경우도 '일을 하였다'입니다.)

- 1) 일을 하였다. ▶ [A6으로 이동](#)
- 2) 휴가 및 일시 휴직 중이다. ▶ [A6으로 이동](#)
- 3) 일을 하지 않았다. ▶ [A2로 이동](#)

Programmer▶ A1=3) 응답자만 문항 제시

A2. 앞서 귀하의 청년 가구원이 [A1 응답값]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지난 4주내에 **직장(일자리)**을 구해 보았습니까? (창업 준비도 포함됩니다.)

- 1) 직장을 구해보았고,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 [A6으로 이동](#)
- 2) 직장을 구해보았지만,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 [A2-1로 이동](#)
- 3) 직장을 구해보지 않았다. ▶ [A2-1로 이동](#)

Programmer▶ A2=2), 3) 응답자만 문항 제시, A2-1=9) 기타 입력란에 내용 입력 시, '아니오' 보기 선택 불가  
A2-1. 앞서 귀하의 청년 가구원 청년 가구원이 [A2 응답값]고 대답하셨습니다.

다음의 각 항목이 그 이유에 해당하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예 (해당함)	아니오 (해당하지 않음)
1)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	1	2
2)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1	2
3)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1	2
4) 학교, 학원, 훈련기관 등을 다니며 취업 또는 학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1	2
5) 학교, 학원, 훈련기관 등을 다니지는 않고, 혼자 취업 또는 학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1	2
6) 계속 취업에 실패해서	1	2
7)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1	2
8) 심리적 또는 정신적인 어려움(우울, 불안, 공황, 대인기피, 조현병 등) 때문에	1	2
9) 기타(기입: )	1	2

Programmer▶ A2-1=4),5)에서 전부 '아니오' 응답자(현재 학업 및 경제활동 없음)만 문항 제시

A3. 앞서 귀하의 청년 가구원이 **지난 1주일간 일이나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활을 얼마나 지속하였습니까?

- 1) 3개월 미만
- 2)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3)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4) 1년 이상 ~ 3년 미만
- 5) 3년 이상 ~ 5년 미만
- 6) 5년 이상 ~ 7년 미만
- 7) 7년 이상 ~ 10년 미만
- 8) 10년 이상
- 9) 잘 모르겠다

Programmer▶ A4 보기 1,2는 A1=1~2 응답자(현재 일하는 중), A2-1=4,5 응답자(학교 혹은 학원 등교)만 문항 제시

A4. 귀하의 청년 가구원은 평소에 **얼마나 자주 외출**하십니까?

- 1)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 2)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 3)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 4)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 5)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 6)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 7)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 8)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 9) 잘 모르겠다



Programmer▶ A4=5~8응답자(집에 은둔)만 문항 제시

A5. 앞서 귀하의 청년 가구원이 평소 [A4 응답값 제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활을 얼마나 지속하셨습니까?

- 1) 3개월 미만
- 2)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3)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4) 1년 이상 ~ 3년 미만
- 5) 3년 이상 ~ 5년 미만
- 6) 5년 이상 ~ 7년 미만
- 7) 7년 이상 ~ 10년 미만
- 8) 10년 이상
- 9) 잘 모르겠다

Programmer▶ Step by step 제시, '없음' 선택 시 다른 보기 선택 불가

A6.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귀하의 청년 가구원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문 항	가족/친척	친구	그 외 타인 (이웃, 직장동료 등)	없음	잘 모르겠다
1)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1	2	3	4	5
2) 급한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1	2	3	4	5
3)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1	2	3	4	5
4)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1	2	3	4	5

Programmer▶ Step by step 제시

A7. 본 조사에서는 “교류란 다른 사람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활동을 함께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귀하의 청년 가구원은 평소 다음의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직접 만나 교류를 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예) 같은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든 매일같이 친구들을 만난다면 친구와의 교류에서 ‘거의 매일’로 응답

문 항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잘 모르겠다
1) 가족들과의 대면 교류	1	2	3	4	5	6	7
2) 친인척들과의 대면 교류	1	2	3	4	5	6	7
3)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 교류	1	2	3	4	5	6	7
4) 이외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대면 교류 (업무 상 교류 제외)	1	2	3	4	5	6	7

Programmer▶ A6=모두 4 응답자(정서적 고립) OR A7의 (3), (4) 문항에 모두 1 or 2 응답자(물리적 고립)만 문항 제시  
 - A6=모두 4 응답자이면서 A7의 (3), (4) 문항에 1 or 2 응답자가 아닌 경우 : 두번째 설명 미제시 첫번째 설명만 제시  
 A8.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귀하의 청년 가구원은 아래와 같은 생활을 얼마나 지속해 온 것으로 보이십니까?

(Programmer: A6=모두 4 응답자만 보기 제시)

-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하거나, 급한 일 또는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 부탁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음

(Programmer: A7의 (3), (4) 문항에 1 or 2 응답자만 보기 제시)

- 친한 사람이나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대면으로 교류하는 일이 1년에 한두 번 이하 또는 전혀 없음

- 1) 3개월 미만
- 2)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3)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4) 1년 이상 ~ 3년 미만
- 5) 3년 이상 ~ 5년 미만
- 6) 5년 이상 ~ 7년 미만
- 7) 7년 이상 ~ 10년 미만
- 8) 10년 이상
- 9) 잘 모르겠다

Programmer▶ A4=5~8(은둔생활) or A6에서 모두 4(정서적 고립) or A7 (3), (4)에 1 or 2(물리적 고립) 응답자만 문항 제시

- A6=모두 4 응답자이면서 A7의 (3), (4) 문항에 1 or 2 응답자에게 : 두번째 설명의 '또는' 워딩 제시
- A6=모두 4 응답자가 아니면서 A7의 (3), (4) 문항에 1 or 2 응답자에게 : 두번째 설명의 '또는' 워딩 미제시

A9.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귀하의 청년 가구원이 아래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으로 추측되십니까?

(Programmer: A6=모두 4 응답자만 보기 제시)

-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하거나, 급한 일 또는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 부탁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음

(Programmer: A7의 (3), (4) 문항에 1 or 2 응답자만 보기 제시)

- 친한 사람이나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대면으로 교류하는 일이 1년에 한두 번 이하 또는 전혀 없음

(Programmer: A4=5~8 응답자만 보기 제시)

- 학교나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서 집이나 자신의 방에만 머무르며 외출을 자주 하지 않음

- 1) 실직하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어서
- 2) 학업 중단 혹은 진학 실패로 인해
- 3)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함께 활동하는 등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서
- 4) 친구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따돌림, 괴롭힘, 폭력 등을 경험해서
- 5) 부모님, 형제자매, 친척 등 가족과 갈등이 있어서
- 6) 가정 문제(가정폭력, 학대, 가족 간 불화, 부모의 이혼 등)로 인해

- 7) 집 밖에 나가는 것이 귀찮아서
- 8) 학교/사회생활이 어렵거나 무의미해서
- 9) 심리적 또는 정신적인 어려움(우울, 불안, 공황, 대인기피, 조현병 등) 때문에
- 10) 신체적인 질병이나 지병 때문에
- 11) 기타(기입: \_\_\_\_\_)
- 12) 잘 모르겠다

## Part B. 고립 은둔 가족의 어려움 및 필요 사항

Programmer▶ B파트는 청년 가구원 A4=5~8(은둔생활) or A6에서 모두 4(정서적 고립) or A7 (3), (4)에 1 or 2(물리적 고립) 응답자가 있을 경우 해당하는 SQ9, SQ10, SQ11 응답값 가져와서 문항 제시(Ex: 자녀, 여성, 만 26세)  
 Programmer▶ 인원수에 맞게 반복 질문

B1. 귀하는 앞서 귀댁의 청년 가구원 중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상황** 또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거나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않는 상황**에 있는 가구원(청년 가구원) 이 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해당 가구원의 **평소 생활 패턴과** 관련해 다음의 항목별로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평소 가족과 친밀하게 지내는 편이다	1	2	3	4	5	6
2_ 평소 가족과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이다	1	2	3	4	5	6
3) 평소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는 편이다	1	2	3	4	5	6
4) 거의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편이다	1	2	3	4	5	6
5) 잠을 설치는 것 없이 잘 자는 편이다	1	2	3	4	5	6

B2.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상황** 또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거나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않는 상황**에 있는 청년 가구원의 **평소 자기 관리 및 청결 상태**와 관련해 다음의 각 항목별로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문항	한 달에 한 번	2~3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2~3일에 한 번	매일	잘 모르겠다
1) 옷을 갈아입는다	1	2	3	4	5	6
2) 목욕/샤워를 한다	1	2	3	4	5	6
3) 세수/양치를 한다	1	2	3	4	5	6
4) 방의 어질러진 물건들을 정리 정돈한다	1	2	3	4	5	6

B3.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상황** 또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거나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않는 상황**에 있는 청년 가구원은 하루에 **평소 몇 끼** 정도 식사를 합니까?

- 1) 하루에 4끼 이상
- 2) 하루에 3끼
- 3) 하루에 2끼

- 4) 하루에 1끼
- 5) 2~3일 간격으로 1끼
- 6) 거의 먹지 않음
- 7) 잘 모르겠다
- 8) 기타(기입:        )

Programmer▶ SQ8=1) 응답자(1인 가구)는 3)~5) 보기 미제시

B4.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상황 또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거나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않는 상황에 있는 청년 가구원은 평소 식사를 어떻게 차려먹습니까?

- 1) 혼자서 직접 차려 먹는다
- 2) 혼자서 배달시켜 먹는다
- 3) 가족이 식탁에 차려 놓으면 혼자 먹는다
- 4) 가족과 같이 식사한다
- 5) 가족이 식사를 차려서 방 앞에 두거나 방에 넣어 준다
- 6) 잘 모르겠다

Programmer▶ 9) or 10) 선택 시 다른 보기 선택 불가, 1순위만 필수

B5.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상황 또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거나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않는 상황에 있는 청년 가구원이 평소 집에 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가장 자주하는 순서대로 최대 3순위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1) 인터넷 사용(쇼핑, SNS, 채팅, 동영상 시청 등)
- 2) TV 시청
- 3) 게임
- 4) 음악 듣기
- 5) 책 읽기
- 6) 잠
- 7) 실내운동
- 8) 기타(기입:        )
- 9)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 10) 잘 모르겠다

Programmer▶ 1인 청년가구(SQ2=만 19~39세(1983~2003), SQ6(가구원수)=1명)일 경우, B6 문항 미제시

B6.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상황 또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거나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않는 상황에 있는 청년 가구원과 관련해 다음 중 귀댁의 상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고립 혹은 은둔 생활 당사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하다	1	2	3	4	5
2) 고립 혹은 은둔 생활 당사자를 언제까지 돌볼 수 있을지 걱정된다	1	2	3	4	5
3) 고립 혹은 은둔생활 당사자를 돌보느라 개인적인 시간이 없다	1	2	3	4	5
4) 고립 혹은 은둔 생활 당사자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없다	1	2	3	4	5
5) 고립 혹은 은둔 생활 당사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된다	1	2	3	4	5

B7.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상황 또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거나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않는 상황에 있는 청년 가구원의 상황 변화를 위해 가족들이 노력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1) 취업 및 직업훈련을 권유했다
- 2) 취미, 문화생활 등을 권유했다
- 3) 대화를 하며 믿고 격려해 주었다
- 4)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게 권유했다
- 5) 상담센터 등 상담 서비스 기관을 알아보았다
- 6) 민간이나 공공영역의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았다
- 7) 고립, 은둔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교육, 자문 등을 받았다
- 8) 자조 모임을 나가고 있다
- 9)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 10) 기타(기입: \_\_\_\_\_ )

B8.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상황 또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거나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않는 상황의 청년 가구원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경제적 지원
- 2) 심리 상담
- 3) 병원 진단 및 치료
- 4) 취미, 운동 등의 활동
- 5) 일자리나 공부 기회
- 6)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
- 7) 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
- 8) 가까운 사람들의 이해와 지지
- 9) 기타(기입: \_\_\_\_\_ )

B9.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상황 또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거나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않는 상황의 청년 가구원을 둔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고립과 은둔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
- 2) 자녀로 인한 고민 등 개인 상담
- 3) 부모와 자식 간 가족 상담
- 4) 유사 문제를 겪는 가족 자조 모임
- 5) 은둔형 외톨이 친구 모임 주최
- 6) 집으로 방문 상담
- 7) 은둔형 외톨이 활동공간 제공
- 8) 기타(기입:\_\_\_\_\_)

## DQ. 응답자 일반사항

DQ1.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 1) 중학교 중퇴 이하   | 2) 중학교 졸업     | 3) 고등학교 중퇴 |
| 4) 고등학교 재학(휴학) | 6) 고등학교 졸업    | 7) 대학교 중퇴  |
| 8) 대학교 재학(휴학)  | 9) 대학교 졸업     | 10) 대학원 중퇴 |
| 11) 대학원 재학(휴학) | 12) 대학원 졸업 이상 |            |

Programmer▶ A4=5~8(은둔생활) or A6에서 모두 4(정서적 고립) or A7 (3), (4)에 1 or 2(물리적 고립) 응답자만

Programmer▶ (SQ8=1) AND SQ2 응답값이 만 19~39세인 응답자(청년 1인가구주)는 문항 SKIP

DQ2.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상황 또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거나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않는 상황에 있는 청년 가구원(청년 가구원)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 1) 중학교 중퇴 이하   | 2) 중학교 졸업     | 3) 고등학교 중퇴 |
| 4) 고등학교 재학(휴학) | 6) 고등학교 졸업    | 7) 대학교 중퇴  |
| 8) 대학교 재학(휴학)  | 9) 대학교 졸업     | 10) 대학원 중퇴 |
| 11) 대학원 재학(휴학) | 12) 대학원 졸업 이상 |            |

DQ3.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 1) 정규직(상용직)            | 2) 임시직(계약직, 파트타이머) | 3) 일용직           |
| 4)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        | 5)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 6) 무급가족종사자*      |
| 7) 프리랜서                | 8) 학생              | 9) 기타 (기입:_____) |
| 10) 현재 아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음 |                    |                  |

\* 무급가족종사자: 자기가족(동일가구 내)의 구성원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 보수 없이 최소 주당 18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는 경우

DQ4.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                 |               |
|-----------------|---------------|
| 1) 단독주택         | 2) 다가구주택      |
| 2) 연립/다세대 주택    | 3) 아파트        |
| 4) 오피스텔         | 5) 준주거시설(고시원) |
| 6) 기타(기입:_____) |               |

DQ5.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의 소유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 1) 자가    2) 전세                    3) 보증금 있는 월세            4) 보증금 없는 월세            5) 무상

DQ6. 귀하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가구소득은 모든 가구원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및 보너스, 임대수익 등의 합계입니다.)

- 1) 월 300만원 미만  
2) 월 300~499만원  
3) 월 500~699만원  
4) 월 700~899만원  
5) 월 900만원 이상

서울 청년 사회관계 실태조사 (청년용)	ID			

## SQ. 응답자 선정질문

SQ1. 여러분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 1) 남성                  2) 여성

Programmer ▶ Range: 1900~2022, 숫자만 기입 가능. 만 19~39세 외 조사 중단(\*만나이=2022-출생년도), Quota Check

SQ2. 여러분의 주민등록상의 출생년도를 적어주세요.

(                                  )

Programmer ▶ 1) '서울' 미응답시 조사 중단

SQ3. 여러분이 현재 살고 계신 시/도를 선택해주세요.

- |        |        |        |        |        |
|--------|--------|--------|--------|--------|
|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4) 인천  | 5) 광주  |
| 6) 대전  | 7) 울산  | 8) 세종  | 9) 경기  | 10) 강원 |
| 11) 충북 | 12) 충남 | 13) 전북 | 14) 전남 | 15) 경북 |
| 16) 경남 | 17) 제주 |        |        |        |

SQ4. 여러분이 현재 살고 계신 구는 어디인가요?

- |          |         |         |          |          |
|----------|---------|---------|----------|----------|
| 1) 강남구   | 2) 강동구  | 3) 강북구  | 4) 강서구   | 5) 관악구   |
| 6) 광진구   | 7) 구로구  | 8) 금천구  | 9) 노원구   | 10) 도봉구  |
| 11) 동대문구 | 12) 동작구 | 13) 마포구 | 14) 서대문구 | 15) 서초구  |
| 16) 성동구  | 17) 성북구 | 18) 송파구 | 19) 양천구  | 20) 영등포구 |
| 21) 용산구  | 22) 은평구 | 23) 종로구 | 24) 중구   | 25) 중랑구  |

SQ5. 여러분의 출생지는 어디인가요?

- 1) 서울에서 태어나 계속 서울에서만 살았음  
 2) 서울 외 지역에서 태어나 서울로 이사 왔음  
 3)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가 다시 서울로 이사 왔음

Programmer ▶ Range 1~30, 주관식 응답을 객관식 문항으로도 자동 코딩

SQ6.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을 포함해서 전부 몇 명인가요? (                  ) 명

- 1) 1명                  2) 2명                  3) 3명                  4) 4명                  5) 5명 이상



Programmer▶ SQ6=1 응답 시 SQ7 문항 스킵, SQ6 응답값 보다 많은 수의 보기 선택 불가 & 적은 수의 보기는 선택 가능  
SQ7.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                  |            |              |        |
|------------------|------------|--------------|--------|
| 1) 아버지           | 2) 어머니     | 3) 할아버지      | 4) 할머니 |
| 5) 배우자           | 6) 형제자매    | 7) 형제자매의 배우자 | 8) 자녀  |
| 9) 자녀의 배우자       | 10) 기타 친인척 | 11) 지인이나 친구  |        |
| 12) 기타(기입:_____) |            |              |        |

SQ8. 지금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다른 가족이 더 있으신가요?

- |            |            |                  |        |
|------------|------------|------------------|--------|
| 1) 아버지     | 2) 어머니     | 3) 할아버지          | 4) 할머니 |
| 5) 배우자     | 6) 형제자매    | 7) 형제자매의 배우자     | 8) 자녀  |
| 9) 자녀의 배우자 | 10) 기타 친인척 | 11) 기타(기입:_____) |        |
| 12) 없음     |            |                  |        |

## Part A. 고립은둔 여부 확인

※ 지금부터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A1. 여러분은 지난주에 돈을 벌기 위해 1시간 이상 일을 하셨나요? (돈을 받지 않고 같이 사는 가족의 사업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한 경우도 '일을 하였다'입니다.)

- 1) 일을 하였다.
- 2) 휴가 및 일시 휴직 중이다.
- 3) 일을 하지 않았다. ▶ A2로 이동

Programmer▶ A1=3) 응답자만 문항 제시

A2. 여러분은 지난 4주내에 직장(일자리)을 구해 보셨나요? (창업 준비도 포함)

- 1) 직장을 구해보았고,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 2) 직장을 구해보았지만,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 A2-1로 이동
- 3) 직장을 구해보지 않았다. ▶ A2-1로 이동

Programmer▶ A2=2), 3) 응답자만 문항 제시

A2-1. 여러분은 [A2 응답값 제시]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다음의 항목들이 그 이유에 해당하는지 응답해 주세요. 다음 중 그 이유를 골라 주세요.

문 항	예 (해당함)	아니오 (해당하지 않음)
(1)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	1	2
(2)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1	2
(3)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1	2
(4) 학교, 학원, 훈련기관 등을 다니며 취업 또는 학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1	2
(5) 학교, 학원, 훈련기관 등을 다니지는 않고, 혼자 취업 또는 학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1	2
(6) 계속 취업에 실패해서	1	2
(7)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1	2
(8) 심리적 또는 정신적인 어려움(우울, 불안, 공황, 대인기피, 조현병 등) 때문에	1	2
(9) 기타(기입: _____)	1	2

Programmer▶ A2-1=4),5)에서 전부 '아니오' 응답자(현재 학업 및 경제활동 없음)만 문항 제시

A3. 여러분은 앞서 지난 1주일간 일이나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활이 얼마나 되었나요?

- 1) 3개월 미만
- 2)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3)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4) 1년 이상 ~ 3년 미만
- 5) 3년 이상 ~ 5년 미만
- 6) 5년 이상 ~ 7년 미만
- 7) 7년 이상 ~ 10년 미만
- 8) 10년 이상

Programmer▶ A4 보기 2는 SQ8=1~2 응답자만, 보기3은 SQ8=3~4 응답자만, 보기 4는 SQ8=6 응답자만, 보기 5는 SQ8=10 응답자만 문항 제시

A4.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어디서 마련하고 계신가요? (중복 선택 가능)

- 1) 본인이 모아두거나 벌고 있는 돈
- 2) 부모님의 지원
- 3) 조부모님의 지원
- 4) 형제/자매의 지원
- 5) 기타 친인척의 지원
- 6) 배우자/연인/동거자 등의 수입
- 7) 정부 또는 기관의 지원
- 8) 기타(기입: \_\_\_\_\_)

A5.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다음 중 어디 정도인가요?

하	중하	중	중상	상
1	2	3	4	5

A6.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 자신의 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 정도인가요?

매우 부족함	약간 부족함	적정함	약간 여유있음	매우 여유있음
1	2	3	4	5

Programmer▶ A7 보기 1,2는 A1=1~2 응답자(현재 일하는 중), A2-1=4,5 응답자(학교 혹은 학원 등교)만 문항 제시

A7. 여러분은 평소에 얼마나 자주 외출하시나요?

- 1)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 2)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 3)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 4)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 5)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 6)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 7)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 8)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Programmer▶ A7=5~8응답자(집에 은둔)만 문항 제시

A8. 여러분은 평소 [A7 응답값 제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이런 생활을 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 1) 3개월 미만
- 2)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3)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4) 1년 이상 ~ 3년 미만
- 5) 3년 이상 ~ 5년 미만
- 6) 5년 이상 ~ 7년 미만
- 7) 7년 이상 ~ 10년 미만
- 8) 10년 이상

A9. 여러분은 과거에 아래와 같은 생활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 학교나 직장을 안 다니고 집이나 방에만 있으며 외출을 자주 하지 않음

- 1) 있음
- 2) 없음

Programmer▶ A9=1응답자만 문항 제시, 본인 나이보다 크게 입력 시 경고창 제시

A9-1. 아래와 같은 생활은 몇 살 때부터 시작되었나요? 만 (            ) 세

- 학교나 직장을 안 다니고 집이나 방에만 있으며 외출을 자주 하지 않음
--

Programmer▶ Range: 0~999

A10. 여러분이 **지난 2주** 동안 일상생활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눈 사람은 전부 몇 명인가요?

- 같은 사람을 여러 번 만난 경우는 1명으로 간주
- 물건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주문하는 등의 일시적인 만남은 제외

총 (            )명

Programmer▶ Range: 0~999

A11. 여러분이 **지난 2주** 동안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와 만나 대화를 나누거나 무언가를 같이 하며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은 전부 몇 번이었나요? (            )회

A12.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문 항	가족/ 친척	친구	그 외 타인 (이웃, 직장동료 등)	없음
(1)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1	2	3	4
(2) 급한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1	2	3	4
(3)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1	2	3	4
(4)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1	2	3	4

A13. 이 조사에서 교류란 “다른 사람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활동을 함께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평소 다음의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직접 만나 교류를 하시나요?

예) 같은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든 매일같이 친구들을 만난다면 친구와의 교류에서 ‘거의 매일’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문 항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1) 가족들과의 대면 교류	1	2	3	4	5	6
(2) 친인척들과의 대면 교류	1	2	3	4	5	6
(3)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 교류	1	2	3	4	5	6
(4) 이외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대면 교류(업무 상 교류 제외)	1	2	3	4	5	6

Programmer▶ A12=모두 4 응답자 OR A13의 (3), (4) 문항에 1 or 2 응답자만 보기 제시

A14. 여러분은 아래와 같은 생활을 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Programmer: A12=모두 4 응답자만 보기 제시)

-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음
- 급한 일 또는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 부탁할 사람이 없음
-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음

(Programmer: A13의 (3), (4) 문항에 1 or 2 응답자만 보기 제시)

- 친한 사람이나 직장, 학교, 동네 지인과 대면으로 교류하는 일이 거의 없음

- 1) 3개월 미만
- 2)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3)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4) 1년 이상 ~ 3년 미만
- 5) 3년 이상 ~ 5년 미만
- 6) 5년 이상 ~ 7년 미만
- 7) 7년 이상 ~ 10년 미만
- 8) 10년 이상

A15. 여러분은 과거에 아래와 같은 생활을 한 적은 있으신가요?

-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음
- 급한 일 또는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 부탁할 사람이 없음
-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음
- 친한 사람이나 직장, 학교, 동네 지인과 대면으로 교류하는 일이 거의 없음

- 1) 있음
- 2) 없음

Programmer▶ A15=1 응답자만 문항 제시

A15-1. 아래와 같은 생활은 몇 살 때부터 시작되었나요? ( ) 세

-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음
- 급한 일 또는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 부탁할 사람이 없음
-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음
- 친한 사람이나 직장, 학교, 동네 지인과 대면으로 교류하는 일이 거의 없음

Programmer▶ A7=5~8(은둔생활) or A12에서 모두 4(정서적 고립) or A13 (3), (4)에 1 or 2(물리적 고립) 응답자만 문항 제시

A16. 여러분이 아래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모두 선택해 주세요. (중복 선택 가능)

(Programmer: A12=모두 4 응답자만 보기 제시)

-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음
- 급한 일 또는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 부탁할 사람이 없음
-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음

(Programmer: A13의 (3), (4) 문항에 1 or 2 응답자만 보기 제시)

- 친한 사람이나 직장, 학교, 동네 지인과 대면으로 교류하는 일이 거의 없음

(Programmer: A7=5~8 응답자만 보기 제시)

- 학교나 직장을 안 다니고 집이나 방에만 있으며 외출을 자주 하지 않음

- 1) 실직하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어서
- 2) 학업 중단 혹은 진학 실패로 인해
- 3)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함께 활동하는 등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서
- 4) 친구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괴롭힘, 폭력 등을 경험해서
- 5) 부모님, 형제자매, 친척 등 가족과 갈등이 있어서
- 6) 가정 문제(가정폭력, 학대, 가족 간 불화, 부모의 이혼 등)로 인해
- 7) 집 밖에 나가는 것이 귀찮아서
- 8) 학교/사회생활이 어렵거나 무의미해서
- 9) 심리적 또는 정신적인 어려움(우울, 불안, 공황, 대인기피, 조현병 등) 때문에
- 10) 신체적인 질병이나 지병 때문에
- 11) 기타(기입:\_\_\_\_\_)

A17. 여러분은 온라인 커뮤니티, SNS, 메신저 등 **온라인(비대면)**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시나요?

- 1) 그렇다
- 2) 그렇지 않다

Programmer▶ A17=1 응답자만 문항 제시

A17-1. **온라인(비대면)**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주로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시나요? 모두 골라 주세요. (중복 선택 가능)

- 1) 게임에서 만난다
- 2)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적는다
- 3) 메신저로 채팅을 한다
- 4) SNS 활동을 한다
- 5) 기타(기입:\_\_\_\_\_)

A18. 다음 문항을 읽고 얼마나 자주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지 응답해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가끔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나와 같이 있어 줄 사람이 부족하다	1	2	3	4
(2) 나는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1	2	3	4
(3) 나는 혼자 남겨진 것 같다고 느껴진다	1	2	3	4
(4)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되어 있다고 느껴진다	1	2	3	4

A19. 여러분은 성인이 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문 항	없다	있다
(1)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험	1	2
(2) 부모님(혹은 그 외의 나를 키워준 사람)이 나를 심하게 때리거나 꾸짖고 모욕했던 경험	1	2
(3)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던 경험(불안, 우울 등)	1	2
(4)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	1	2
(5)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 한 경험	1	2
(6) 학교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1	2

A20. 여러분은 성인이 되신 이후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문 항	없다	있다
(1) 돈이 없어서 학교를 그만 다녀야 했던 경험	1	2
(2) 가까운 사람이 취업 문제로 나를 압박하거나 진로를 강요했던 경험	1	2
(3) 내가 원했던 때에 대학 입학할 못했던 경험	1	2
(4) 내가 원했던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던 경험	1	2
(5) 내가 원했던 때에 취업을 못했던 경험	1	2
(6) 내가 원했던 직장に入가지 못했던 경험	1	2
(7) 믿었던 사람이 내게 사기를 치거나 배신했던 경험	1	2
(8) 가까웠던 사람과 헤어져야 했던 경험(절교, 죽음 등)	1	2

## Part B. 서울시 청년들의 생활실태

※ 지금부터 여러분의 일상 생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B1. 다음은 여러분의 **평소 생활 패턴**에 대한 문항입니다. 아래 문항을 읽고 얼마나 해당하는지 선택해 주세요.

\* 여기서 가족이란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부모 등 보호자와 조부모, 형제자매 등을 말합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가족과 친밀한 편이다	1	2	3	4	5
(2) 나는 평소 가족과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이다	1	2	3	4	5
(3) 나는 평소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는 편이다	1	2	3	4	5
(4) 나는 거의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편이다	1	2	3	4	5
(5) 나는 잠을 설치는 것 없이 잘 자는 편이다	1	2	3	4	5

Programmer▶ Range: 1~24, 주관식 문항을 객관식으로 자동 코딩

B2. 여러분은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주무시나요? ( ) 시간

- 1) 4시간 미만
- 2) 4~8시간 미만
- 3) 8~12시간 미만
- 4) 12~16시간 미만
- 5) 16시간 이상

B3. 여러분이 평소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 1) 새벽
- 2) 오전
- 3) 오후
- 4) 밤
- 5) 없음



Programmer▶ A7=1)~6) (집밖으로 외출함) 응답자만 질문

B4. 여러분은 밖에 나가야 할 일이 있다면 주로 어느 시간대에 나가시나요?

- 1) 새벽
- 2) 오전
- 3) 오후
- 4) 밤
- 5) 없음

B5. 여러분은 평소 집에 있을 때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하루 중 가장 많이 하는 순서대로 최대 3순위까지 선택해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1) 인터넷 사용(쇼핑, SNS, 채팅, 동영상 시청 등)
- 2) TV 시청
- 3) 게임
- 4) 음악 듣기
- 5) 책 읽기
- 6) 잠
- 7) 실내운동
- 8) 기타(기입: \_\_\_\_\_)
- 9)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B6. 다음 중 여러분이 PC나 모바일 기기로 주로 하는 일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1) SNS나 채팅 등으로 누군가와 대화
- 2) 게임
- 3) 인터넷 서핑
- 4) 동영상 보기
- 5) 기타(기입: \_\_\_\_\_)
- 6) PC/모바일 기기를 잘 사용하지 않음

B7. 여러분은 평소 하루에 몇 끼 정도 드시나요?

- 1) 하루에 4끼 이상
- 2) 하루에 3끼
- 3) 하루에 2끼
- 4) 하루에 1끼
- 5) 2~3일 간격으로 1끼
- 6) 거의 먹지 않음
- 7) 기타(기입: \_\_\_\_\_)

Programmer▶ SQ6=1) 응답자(1인 가구)는 3)~5) 보기 미제시

B8. 여러분은 평소 식사를 어떻게 드시나요?

- 1) 혼자서 직접 차려 먹는다
- 2) 혼자서 배달시켜 먹는다
- 3) 가족이 식탁에 차려 놓으면 혼자 먹는다
- 4) 가족과 같이 식사한다
- 5) 가족이 식사를 차려서 방 앞에 두거나 방에 넣어 준다

B9. 다음은 자기관리 및 청결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아래 문항을 읽고 여러분이 얼마나 해당하는지 선택해 주세요.

문 항	한 달에 한 번	2~3주에 한 번	일주일 한 번	2~3일에 한 번	매일
옷을 갈아입는다	1	2	3	4	5
목욕/샤워를 한다	1	2	3	4	5
세수/양치를 한다	1	2	3	4	5
내 방의 어질러진 물건들을 정리 정돈한다	1	2	3	4	5

B10.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자신의 건강상태는 어떠한가요?

- 1) 매우 나쁘다
- 2) 나쁜 편이다
- 3) 보통이다
- 4) 좋은 편이다
- 5) 매우 좋다

B11. 여러분은 지금 정신건강 상의 문제로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가요?

- 1) 예
- 2) 아니오

Programmer▶ B10=1) 응답자만 질문

B11-1. 약물을 복용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 1) 6개월 미만
- 2) 6~12개월 미만
- 3) 1~2년 미만
- 4) 2~5년 미만
- 5) 5년 이상

B12. 여러분은 지난 2주 동안 얼마나 자주 이런 문제들로 곤란하다고 느끼셨나요?

문항	없음	2, 3일 이상	7일 이상	거의 매일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꼈다.	0	1	2	3
평소 하던 일에 대한 흥미가 없어지거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	0	1	2	3
잠들기가 어렵거나 자주 깼다/혹은 너무 많이 잤다.	0	1	2	3
평소보다 식욕이 줄었다/혹은 평소보다 많이 먹었다.	0	1	2	3
다른 사람들이 눈치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려졌다/혹은 너무 안절부절못해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다.	0	1	2	3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다.	0	1	2	3
내가 잘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다/혹은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했다.	0	1	2	3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다.	0	1	2	3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다/혹은 자해할 생각을 했다.	0	1	2	3

### Part C. 고립 은둔 회복 시 필요 사항

Programmer▶ C파트는 A7=5~8)응답자(현재 은둔자) OR A9=1)응답자(과거 은둔자) OR A12=모두 4 응답자 OR A13의 (3), (4) 문항에 1 or 2 응답자(현재 고립자) OR A15=1)응답자(과거 고립자)만 질문

※ 지금부터는 과거 또는 현재에 고립(도움받을 사람이 없거나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않음) 또는 은둔(외출을 거의 하지 않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지원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Programmer▶ A7=5~8)응답자(현재 은둔자) OR A12=모두 4 응답자 OR A13의 (3), (4) 문항에 1 or 2 응답자(현재 고립자)만 응답

C1. 여러분은 앞서 현재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 ◆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다
- ◆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거나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않는다

- 1) 그렇다 ▶ C1-1로 이동
- 2) 아니다 ▶ C4로 이동

Programmer▶ C1=1) 응답자 OR A9=1)응답자(과거 은둔자) OR A15=1)응답자(과거 고립자)에게만 질문  
C1-1. 다음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언가 시도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 ◆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다
- ◆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거나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않는다

- 1) 그렇다 ▶ C2로 이동
- 2) 아니다 ▶ C4로 이동

Programmer▶ C1-1=1) 응답자만 문항 제시

C2. 다음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나요?

- ◆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다
- ◆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거나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않는다

- 1) 일이나 공부를 시작했다
- 2) 취미활동을 했다
- 3) 심리 상담을 받았다
- 4) 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
- 5)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만남을 가졌다
- 6) 관련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았다
- 7) 기타 (기입: \_\_\_\_\_)

Programmer▶ C1-1=1) AND (A7=5)~8)응답자(현재 은둔자) OR A12=모두 4 응답자 OR A13의 (3), (4) 문항에 1 or 2 응답자(현재 고립자)만 응답

C3. [C2 응답값 제시]고 응답하셨지만 다시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다
- ◆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거나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않는다

- 1) 별로 효과가 없었다
- 2) 힘들고 지쳐서 계속할 수 없었다
- 3) 돈이나 시간 등이 부족해서 계속할 수 없었다
- 4) 효과가 있었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 5) 효과가 있었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다시 돌아왔다

C4.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도움은 무엇인가요? (중복 선택 가능)

- ◆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다
- ◆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거나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않는다

- 1) 경제적 지원
- 2) 심리 상담
- 3) 병원 진단 및 치료
- 4) 취미, 운동 등의 활동
- 5) 일자리나 공부 기회
- 6)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
- 7) 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
- 8) 가까운 사람들의 이해와 지지
- 9) 기타(기입: \_\_\_\_\_)

C5. [C4 응답값 제시]을 어디에서 제공하면 가장 좋을까요?

- 1) 온라인 채팅 상담 및 지원 연계
- 2) 집에 찾아오는 상담자 지정 및 지원 연계
- 3) 집에서 1시간 거리 이내, 교통 좋은 곳에서 상담 등 지원 제공

C6. [C4 응답값 제시]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면 가장 좋을까요?

- 1) 1:1로 혼자서
- 2) 가족과 함께
- 3) 비슷한 문제를 겪는 사람들과 함께

C7. [C4 응답값 제시]을 얼마나 오래 제공하면 가장 좋을까요?

- 1) 1회로 끝나는 단기적 지원
- 2) 1개월
- 3) 2~3개월
- 4) 4~6개월
- 5) 6개월~1년
- 6) 1년~2년
- 7) 현재 상태에서 벗어날 때까지

C8. 여러분은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고립청년**’과 집 밖에 나오지 않는 ‘**은둔청년**’의 사회이행을 돕기 위한 서울시의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워크넷, 서울청년포털, 청년허브, 청년이음센터, K2인터내셔널코리아,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 등 협력 기관과 함께 다양한 고립·은둔청년 대상 지원 사업(밀착상담·회복 모임·마음건강 지원·취미 활동·진로 탐색·취업역량 강화·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 1) 알고 있다▶ C8-1로 이동
- 2) 모른다▶ C8-5로 이동

C8-1. 여러분은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을 가장 처음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 1)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 2)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 3) 기타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 4) SNS를 통해
- 5) 신문 기사를 통해
- 6) 인터넷 블로그나 커뮤니티를 통해
- 7) 행정복지센터 등의 공공 기관 방문을 통해
- 8) 기타 지원 단체 방문을 통해
- 9) 현수막·전단지 등을 통해
- 10) 가족·지인 등 주변 사람이 알려줘서
- 11) 기타(기입: )

C8-2. 여러분은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에 대해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하고 계신가요?

- 1) 참여하고 있다 ▶ C8-3로 이동
- 2) 참여한 적이 있다 ▶ C8-3로 이동
- 3) 참여한 적이 없다 ▶ C8-5로 이동

Programmer ▶ C8-2=1)~2) 응답자만 문항 제시

C8-3.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 참여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 1)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 C8-4로 이동
- 2) 별로 도움되지 않았다 ▶ C8-4로 이동
- 3) 보통이다
- 4) 조금 도움이 되었다
- 5) 많은 도움이 되었다

Programmer ▶ C8-3=1)~2) 응답자만 문항 제시

C8-4.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 1) 고립·은둔 상황을 벗어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해서
- 2) 나의 상황과 잘 맞지 않아서
- 3) 지원기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 4) 지원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 5) 지원받는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서
- 6) 해당 지원기관 또는 담당자의 지원이 적절하지 못해서
- 7) 지원받기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되어서
- 8) 기타(기입: )

Programmer▶ C8=2) 응답자 or C8-2=3) 응답자만 문항 제시

C8-5. 여러분은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 1) 참여할 의향이 있다
- 2) 참여할 의향이 없다

Programmer▶ C8-5=2) 응답자만 문항 제시

C8-6. 그렇다면, 여러분이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1)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원 내용이 없어서
- 2) 지원절차가 까다로울 것 같아서
- 3) 신청해도 지원 대상으로 뽑힐 것 같지 않아서
- 4) 지원사업 자체가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 5) 참여한 적 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해서
- 6) 다른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서
- 7) 신청하는 과정 자체가 귀찮아서
- 8) 기타(기입:                      )

C9. 서울시에서는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자유롭게 써 주세요. (없다면 다음페이지로 이동)

--

## DQ. 응답자 일반사항

DQ1. 여러분의 **최종학력**은 무엇인가요?

- |                |               |            |
|----------------|---------------|------------|
| 1) 중학교 중퇴 이하   | 2) 중학교 졸업     | 3) 고등학교 중퇴 |
| 4) 고등학교 재학(휴학) | 6) 고등학교 졸업    | 7) 대학교 중퇴  |
| 8) 대학교 재학(휴학)  | 9) 대학교 졸업     | 10) 대학원 중퇴 |
| 11) 대학원 재학(휴학) | 12) 대학원 졸업 이상 |            |

DQ2. 여러분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 |                        |                    |              |
|------------------------|--------------------|--------------|
| 1) 정규직(상용직)            | 2) 임시직(계약직, 파트타이머) | 3) 일용직       |
| 4)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        | 5)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 6) 무급가족종사자*  |
| 7) 프리랜서                | 8) 학생              | 9) 기타 (기입: ) |
| 10) 현재 아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음 |                    |              |

\* 무급가족종사자: 돈을 받지 않고 같이 사는 가족의 사업장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경우

DQ3. 여러분의 **혼인상태**는 무엇인가요?

- |       |       |       |             |
|-------|-------|-------|-------------|
| 1) 기혼 | 2) 미혼 | 3) 이혼 | 4) 기타(사별 등) |
|-------|-------|-------|-------------|

DQ4. 여러분이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은 다음 중 무엇인가요?

- |                 |               |
|-----------------|---------------|
| 1) 단독주택         | 2) 다가구주택      |
| 3) 연립/다세대 주택    | 4) 아파트        |
| 5) 오피스텔         | 6) 준주거시설(고시원) |
| 7) 기타(기입:_____) |               |

Programmer ▶ SQ6)2 이상 응답 시 문항 제시

DQ5. 여러분은 현재 살고 계신 집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방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 |                       |
|-----------------------|
| 1) 혼자 단독으로 방을 쓰고 있음   |
| 2) 다른 사람과 함께 방을 쓰고 있음 |

DQ6. 여러분이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소유형태**는 다음 중 무엇인가요?

- |       |       |              |              |       |
|-------|-------|--------------|--------------|-------|
| 1) 자가 | 2) 전세 | 3) 보증금 있는 월세 | 4) 보증금 없는 월세 | 5) 무상 |
|-------|-------|--------------|--------------|-------|